애국애족의 한길에서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년

애국애족의 한길에서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년

책을 내면서

오늘 총련은 전체 재일조선동포들의 삶의 요람으로,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빛을 뿌리고있다.

주체의 숨결과 애국애족의 맥동으로 그 이름도 빛나는 총련이 있어 우리 재일조선동포들은 모진 박해와 동화바람이 횡행하는 자본주의일본땅에서 민족의 얼을 간직하고 존엄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지구상에 1억이 넘는 해외교포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재일조선동포들처럼 이역땅 곳곳에 자기들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는 굳건한 지방조직들과 각 분야의 단일단체,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교육기관을 그쯘하게 갖추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누리며 사는 해외교포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재일조선동포들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조국의 보호속에 자본주의국가 한복판에 한개 나라가 할수 있는 일을 척척 해제끼는 위력한 총련조직을 일떠세우고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치며 보람찬 삶을 누리는데 대하여 세상사람들이 모두 경탄하며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재일조선인들만이 누릴수 있는 자랑이며 긍지이다.

이 긍지, 이 행운은 전체 재일동포들의 친어버이이시고

현명한 스승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육친적사랑과 고귀한 은정,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만발한 아름다운 애국애족의 꽃이다.

좌절과 실패, 우여곡절을 겪던 재일조선인운동이 주체의 라침판을 가지고 애국의 항로에 닻을 올리게 된 경이적인 전환도, 총련이 반조선인광풍이 살벌한 환경속에서도 재일조선인들의 생명의 모체로서 그들의 삶과 운명, 권익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강위력한 조직으로 장성강화된 자랑찬 현실도 그리고 조국에서 어려운 시련을 겪는 준엄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포자녀들의 소중한 꿈이 흐려질세라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드팀없이 보내주고 동포들이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을세라 막대한 구제금으로 보살펴준 사랑의 전설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열화같은 동포애가 펼친 서사시적화폭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재일조선인운동과 우리 동포들의 삶과 운명을 지켜주고 꽃피워주시기 위해 베푸신 친어버이사랑과 정력적인 령도는 수십권의 책에도 다 담을수 없고 무슨 말로도 다 칭송할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동포애의 정화이다.

정녕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총련과 전체 재일동포들의 운명의 구세주이시고 삶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곡절많던 재일조선인운동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자기의 갈피에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겨온 로정에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가슴에 간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한길을 꿋꿋이 이어온 애국의 1세 특히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이였던 한덕수선생의 충성과 헌신의 자욱이 뚜렷이 새겨져 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전 일본판도에 휘뿌려진 조선동포들의 비참한 삶과 수난의 운명을 자기 가정의 아픔처럼 여기며 솔선 그 해결을 위한 투쟁에 나선 한덕수의장.

민족적사명감에 불타고 정의에 열렬한 한덕수의장이였기에 그는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시기 캄캄한 암흑속을 비치는 광명을 보았던것이며 그 태양의 광망을 따라 마침내는 민족문제해결에서 한갈래의 중대사로 되는 주체적인 해외교포조직결성을 성취하고 재일동포들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공헌할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한덕수의장이 재일조선인운동에 이룩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총련은 어버이수령님의 유산이고 한덕수의장의 유산이라는 뜻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총련의 건설과 강화발전에서 이룩한 한덕수의장의 공적을 그토록 크게 여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교시를 되새기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것인가?

한덕수의장이 재일조선인운동에 쌓은 공적중의 공적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사상과 로선을 재일조선인운동에 드팀없이 구현해온것이다.

총련은 철두철미 주체의 산아이다.

총련이 결성되기 전까지 재일조선인운동은 거듭되는 로선상 오유로 하여 실패와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련시기에는 해방된 조선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통일로선과 분렬로선의 대립의 여파에 시달려야 했고 민전시기에는 재일조선인들은 일본혁명에 복무해야 한다는 사대주의적인 좌경모험주의의 희생물이 되여야 하였다.

이역땅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참을수 없는 고역과 민족적멸시에 신음하던 수많은 동포들이 일본의 민주화를 부르짖다가 귀향의 꿈과 함께 바람세찬 황야에 묻히지 않으면 안되였다.

주의주장이 혼탁된 정세하에서 한덕수의장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것을 의탁하였으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유일한 등대로 삼고 거기에서 한치도 탈선하지 않았다.

재일조선인운동을 조선혁명을 위한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전환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로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투쟁한 이 길에서 재일동포들의 진정한 삶의 품인 총련

이 탄생할수 있었다.

바로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이 피와 살이 되였기에 총련은 그 어떤 광풍에도 드놀지 않는 굳건한 애국적동포조직으로 장성할수 있게 되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장구하고 험난한 로정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로선을 변함없는 투쟁의 기치로 틀어쥐고 일관하게 구현한다는것은 말처럼 헐한 일이 아니였다. 억척의 신념과 의지, 완강한 실천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였다.

한덕수의장은 재일조선인운동이 로선대결에 휘말려들었던 시기에나 총련을 와해압살하기 위한 내외적대세력의 책동이 우심하던 지나온 행정에서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만 믿고 따랐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에 충실하였다.

하다면 곡절많은 재일조선인운동의 투쟁행로와 한덕수의장의 한생이 주는 교훈과 삶의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해외교포운동이 나아갈 길, 해외교포들의 인생의 길은 오직 하나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이며 그 궤도에서 탈선하면 해외교포운동도, 매 교포들의 삶과 운명도 풍파와 수난을 면치 못한다는것이다. 어느 나라에 있건, 어떤 제도에서 살건 해외교포들은 마땅히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마음에 안고 그에 충실하여야 한다는것이 재일조선인운동사가 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이것은 한덕수의장이 그 어떤 사나운 폭풍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켜온 삶과 투쟁의 신조이기도 하였다.

그 어떤 역경에 처한다고 하여도 오직 애국애족의 최고화신이시고 우리 겨레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민족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길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참된 삶과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철석같은 의지, 이것이 한덕수의장의 투쟁과 공적에 어려있는 불굴의 넋이고 한생의 총화이다.

총련이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모범이듯이 태양의 빛발을 따라 일편단심 변함없이 값높은 생의 자욱을 새겨온 한덕수의장의 삶도 해외의 수천만 조선동포들이 본받을만한 인생의 본보기, 거울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재일조선인애국자들이 개척하여온 자랑찬 총련애국위업은 자기의 갈피에 67돌기의 년륜을 새기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전진과 더불어 세대교체도 일어나 3세, 4세가 총련의 주력을 이루고있다.

세계의 방방곡곡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들의 실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세대가 열백번 교체되여도 민족의 피줄은 바뀔수 없듯이 해외조선동포들의 삶과 운명의 진리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래일도 언제나 애국애족과 잇닿아있는 법이다.

편집부는 재일조선인운동의 현실적요구로부터 그리고 전체 해외조선동포들의 소망을 담아 한덕수 전 총련의장의 애국애족의 삶의 일단을 보여주는 도서를 편찬하였다.

붓이 둔하여 애국선렬의 순결하고 고귀한 생을 원만히 담아내지 못한 미숙함이 있으니 독자대중의 넓은 리해를 바란다.

차 례

제1장 민족의 넋을 새기며

1. 망국의 한을 안고 …… 14

넋을 깨워준 3.1의 함성 …… 14
현해탄을 건너 …… 27
마음에 깃든 백두산 …… 38

2. 해방의 환희에 넘쳐 …… 53

귀국행렬을 손저어 바래며 …… 53
4.24교육투쟁의 나날에 …… 64
북이냐 남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 79

제2장 운명의 등대따라

1.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 …… 94

력사적인 1948년, 그 환희의 겨울날에 …… 94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107
60만의 운명에 비친 광망 ……125
《이것은 **김일성**장군님의 뜻이요!》 ……137

2. 애국의 항로에 돛을 달고 ····· 157

그날은 1955년 5월 25일이였다 ····· 157
진정한 해외교포조직으로 ····· 170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하여 ····· 184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 204

제3장 태양의 빛발 찬란해

1. 그 손길 꼭 잡고 ····· 218

모범분회창조운동의 나날에 ····· 218
조선대학교 준공식장에 울린 환호성 ····· 230
《20세기 인류사적기적》 ····· 242
조국통일의 날을 그리며 ····· 259

2. 하늘같은 믿음 가슴에 안고 ····· 270

총련은 민족의 자랑이라고 하시며 ····· 270
뜻깊은 조국방문에 깃든 사연 ····· 282
애국위업의 미래를 위하여 ····· 295
동포상공인들을 애국의 길로 ····· 307

제4장 삶을 빛내여준 품

1. 열화같은 사랑, 뜨거운 은정 …… 324

《정말 영웅입니다》 …… 324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 334
로당익장의 활력을 안겨주시려 …… 344
몸소 병문안도 하시며 …… 355

2. 사랑과 은정은 대를 이어 …… 364

애호, 보존하라! …… 364
80객의 노래 삼창에 깃든 이야기 …… 370
충성의 한생을 값높이 여기시여 …… 381
《한의장동지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 388
민족최대의 추모식장에서 …… 402
고귀한 인생총화 …… 407

종장 영생의 진리

제 1 장
민족의 넋을 새기며

1. 망국의 한을 안고 14

넋을 깨워준 3.1의 함성 14

현해탄을 건너 27

마음에 깃든 백두산 38

2. 해방의 환희에 넘쳐 53

귀국행렬을 손저어 바래며 53

4.24교육투쟁의 나날에 64

북이냐 남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79

재일조선인이라고 하면 이 세상 방방곡곡에 삶의 깃을 내린 각양각색의 해외교포들과는 구별되는 곡절많은 운명의 체현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이 스스로 이국땅에 삶의 뿌리를 내린 류랑민들이 아니기때문이다.

제 나라를 빼앗긴탓에, 운명의 보호자가 없는탓에 침략자의 노예가 되여 쇠고랑을 차고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식민지망국민들과 그 후손들이 바로 재일조선인들이다.

18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미국식민주의자들의 쇠사슬에 묶이워 아메리카대륙으로 이주해갔지만 그 후의 운명선을 따져보면 재일조선인들의 운명과 판이한 대조를 이룬다.

누가 나라잃은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고 하였던가.

그 저주로운 일본땅에서 조선사람은 정말 사람이 아니였다.

얼마나 많은 조선동포들이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일제의 총칼에 짓밟히며 망국노의 처지를 통탄하였고 무주고혼이 되면서도 눈조차 감지 못하고 나라의 독립을 피터지게 절규했던가.

암흑의 그 세월에 태여나 이역만리 일본땅에서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살이속에 불운한 청춘을 보낸 한덕수의장.

망국노의 설음과 배움의 열망을 안고 현해탄을 건너가 갖

은 수모와 천대속에 억눌리며 살아온 그의 이국살이는 그대로 나라없는 수난자, 조국없는 고아인 재일동포들이 겪은 뼈저린 이국살이고통의 축도였다.

하지만 영원한 암흑이란 없다. 어둠은 가셔지고 새날은 밝기마련이다.

그 시절의 불우한 사나이 한덕수의장은 들씌워지는 고통과 불행속에 막연한 기대를 안고 동터오는 새날을 앉아서 기다리지만은 않았다.

광명을 향해 종주먹을 부르쥐고 몸부림쳤다. 그것은 애국이고 투쟁이였다.

1. 망국의 한을 안고

넋을 깨워준 3.1의 함성

한덕수의장의 유년시절은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파쇼통치가 개시되던 시기에 흘러갔다.

국권은 강탈당하고 모든것이 엉망인 때였다.

로일전쟁후 《가쯔라ㅡ타프트협정》체결을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조선강점을 《담보》받은 일제는 《을사5조약》의 날조로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길에 들어섰다.

《담보》라고 하지만 우리 나라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있지 못한 미국으로서는 사실상 그것이 당면하게는 짜리로씨야의 극동진출을 막고 장차로는 이 일대를 비게덩어리처럼 집어삼킬 흉계밑에 벌린 일제의 조선지배에 대한 사촉이였고 정치적흥정이였다. 동북아시아지역 정세안정의 유린자인 미일의 결탁은 이때 벌써 얽혀지고있었던것이다.

《을사5조약》의 강요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7년 일방적으로 꾸며낸 《정미7조약》을 공포하여 내정권까지 자기 수중에 거머쥐였다. 이로써 조선봉건정부는 허울뿐이고 조선에 대한 일제의 통감통치와 식민지지배가 보다

강화되게 되였다.

해를 거듭하며 강토에 사무쳐온 《시일야방성대곡》의 곡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고 그것은 그대로 반일항거로 타번졌다.

이런 시대적배경하에서 1907년 2월 18일 경상북도 경산군(당시) 안심면 동호동의 한가정에서는 새 생명의 고고성이 울리였다. 한의장의 출생이였다.

가장인 할아버지는 손주녀석이 코가 주먹같고 꾹 다물린 입으로 보아 필시 고관벼슬을 할 놈이라고 너털웃음을 터뜨렸고 할머니는 가문을 이을 맏손자를 보게 되였다고 좋아서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온 가정의 경사였다.

하지만 대문밖에는 파쇼와 압제의 살풍이 몰아치고있었다. 볼일이 있어도 문밖을 나서기가 저어되던 때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한의장의 가정은 땅마지기나 가지고있어 별걱정없이 살았다. 집도 아래웃채를 가진 큰집에서 조부모와 부모, 누이, 삼촌내외가 동거하였지만 살림은 편하였다. 소도 한마리 부리여 농사일도 그닥 고되지는 않았다. 여유가 있어 가까운 동리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날 저녁에는 할아버지가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돌아와 그놈 소덕에 세상살이맛을 본다고 한턱거리자랑을 하여 집안에 색다른 화기가 돌기도 하였다.

식민지시절이고 봉건가정이였지만 나름대로의 락도 있고 웃음도 있었다.

이런 한가하고 겁없는 생활이 기울기 시작한것은 일제가 이미 설치한 통감부대신에 총독부를 조작하면서부터이다.

우리 인민의 항거가 두려워 외교권과 내정권을 야금야금 빼앗은 일제는 1910년에 이르러 전면적인 식민지파쇼통치를 더이상 미룰수 없다고 보고 총독정치를 실시하는데로 나아갔다.

일제는 자기의 지배정책을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해 조선총독밑에 총리격의 정무총감이 감독통제하는 내무국, 경무국, 사법국 등 부문별통치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친일분자들로 꾸린 중추원이라는 자문기관을 두도록 하였다. 포악무도한 총독정치를 민의로 가장하기 위한 간교한 수작이였다.

한편 총독으로 하여금 조선강점 일제침략군의 사령관을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조선의 립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틀어쥐고 전대미문의 파쇼통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조선총독으로 제일먼저 우리 나라에 기여든 데라우찌가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뇌까린것이 바로 이때이다. 놈은 파쇼권력을 틀어쥐기 바쁘게 온 나라를 폭압망으로 뒤덮고 우리 인민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광풍을 일으키는 동시에 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드는데 착수하였다.

여기서 일제가 우선 마수를 뻗친것은 토지략탈이였다.

토지를 자기 수중에 장악해야 우리 인민을 식민지통치에 얽어매고 제멋대로 부려먹으며 아시아정복과 본국의 식량위기해소에 필요한 알곡을 손쉽게 징발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일본은 력사적으로 만성적인 기근에 시달리는 빈곤국가였다. 아이를 낳아도 먹여살릴 길이 없어 락태가 성행하고 《미비끼》라고 해산하면 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극히 야만적인 식구제한방법이 성행할 정도였다. 수십만명씩 굶어죽는 대기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알곡수탈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던 시기에 전국적인 쌀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으니 식량난이 어느 정도였는가는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일제의 토지략탈은 토지조사의 미명하에 1910년 3월부터 감행되였다.

간악하고 교활한 일제는 1912년 8월 총독부안에 토지조사기구를 내오고 《토지조사령》과 그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그 골자는 모든 토지소유자는 총독이 정한 기간내에 그 주소, 성명 또는 소유지의 명칭 및 소재지, 등급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토지조사에 필요한 문서와 토지에 관한 《재결》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100원의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한다는것이다.

토지소유권이 분명치 않은 토지는 모조리 저들 소유로 만

들뿐 아니라 까다롭고 복잡한 토지신고절차를 지키지 못하거나 과중한 토지세부과가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없이 다 수탈하자는 심보였다.

일제는 실지로 그렇게 했다. 이런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일제는 우리 인민들이 목숨을 부지해가던 100만정보가 넘는 막대한 토지를 략탈하였다. 지어 절들이 가지고있던 땅들도 다 빼앗아냈다.

일제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토지조사의 명목으로 감행된 토지략탈로 우리 나라에서 자작농은 43 000호, 반소작농은 2 000여호가 줄었고 반면에 소작농은 19만호나 늘어났다.

한편으로 일제는 《조선산림령》과 《림야조사령》을 조작실시하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 산림, 들판의 총면적 1 600만여정보중 1 300만여정보를 수탈하는 강도행위를 저질렀다.

일제의 야만적인 토지강탈책동으로 숱한 농민들이 살붙이나 같은 땅과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는 신세가 되였으며 이때부터 일본으로, 만주에로의 대대적인 이민이 시작되였다.

을사년을 울린 망국의 원성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생명줄을 끊긴 절망적인 곡성으로 터져나와 강토를 울분에 떨게 하였다.

기나긴 암흑의 밤이 흐르고있었다.

그무렵 어느날이였다. 한의장가족이 사는 마을어구에 한무

리의 조무래기들이 흥타령을 부르며 들어서고있었다.

예수 사랑할려고
례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하더니
내 신 도둑해가더라

어린 한의장을 위시한 마을아이들이 기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며 부르는 항간의 례배노래였다.

당시는 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의 손목에 끌려 또는 전도사들의 꾀임에 홀려 교회당에 다녔는데 례배보는 동안 신발을 잊어먹거나 장갑을 잊어먹거나 하면 경우에 맞게 가사를 바꾸어 이런 노래를 부르는것이 하나의 류행이였다.

한의장은 할머니가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여서 어릴 때부터 교회당출입을 하였다. 그런 연고로 학교도 그리스도교계통의 개남학교와 대구개성중학교를 다니였다.

패거리들이 마을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르렀는데 밭머리에서 중구난방의 고함소리, 울분에 찬 욕지거리가 가슴섬뜩하게 들려왔다. 먼발치에서 보기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을 비롯한 한의장의 집안사람들이였는데 무슨 변이 난것이 분명했다.

달려가니 할머니, 어머니는 난데없이 뿌리박힌 말뚝에 종

주먹을 지르며 한탄하는가 하면 할아버지는 면사무소쪽에 삿대질을 하며 눈먼 욕을 하고있었다.

그 말뚝으로 말하면 당시 일제가 토지수탈을 하면서 토지경계를 표시하던것으로서 일명 《총독부말뚝》이라고 하는것이였다.

일본놈이건, 친일주구이건 관청의 나부랭이들이 나타나 그 말뚝을 박아놓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대대로 부치던 자기 땅이 《국유지》나 지주의 땅이 되고 자작농이 빈농으로 굴러떨어지는 판이였다. 그것을 제멋대로 뽑아버리면 당장에 징역살이를 해야 했다.

그러니 원망소리, 탄식소리가 왜 터져나오지 않겠는가.

저녁에 눈물로 지은 밥상이 들어왔으나 누구도 다가올념을 하지 않았다.

한의장의 어린 마음에도 느껴지는것이 있었다. 잠자리에 누워 아무리 잠을 청해야 등돌리고 흐느끼는 할머니의 울음소리에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이렇게 한의장의 일가는 졸지에 밥줄을 잃고 몰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때가 한의장이 5살 나던 해였다.

뒤집어진 둥지에 성한 알이 없다고 한순간의 변고로 온 가족이 소작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집안에 웃음이라는것은 사라지고 고된 나날이 흘렀다.

한의장은 8살 잡히면서 서당공부를 하였다. 벼랑턱을 굴러가듯 급속히 기울어져가는 가정형편에 일찍 철이 들어서인지 피나게 글을 익혔다. 동네아이들과 노는 일이 없어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글에 파묻혀 살았다.

천자책은 더 배울것이 없게쯤 되자 집안 한구석에 무져있는 먼지오른 책무지속에서 《자치통감》을 꺼내들고 읽기 시작하였다. 매일 밤이 새도록 등불심지를 돋구며 《자치통감》을 보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알고나 보느냐고 핀잔하였지만 그는 아무 대꾸없이 책장을 번져나갔다. 이렇게 책을 반쯤 보고는 그만두었는데 중국 주나라 위렬왕으로부터 113명의 왕조력사를 담은 《자치통감》에서 무엇을 얼마나 익히고 깨달았는지는 알수 없다.

하지만 후날 한의장은 일본의 파벌정치를 론할 때마다 중국력사를 빗대고 그것을 헤집군 하였는데 그것으로 보아 그 책에서 한자나 뜯어본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서당을 그만두고 개남학교에 다니면서는 갈수록 궁해지는 집안살림이 펴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례배당출입을 자주 하였다. 일요일은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였지만 가세는 점점 기울어져 종당에는 집마저 팔지 않으면 안되였고 삼촌은 지주집 머슴으로 팔려갔다. 그것이 한의장이 10살 잡히던 1917년이였다.

이때부터 집안에 끼니걱정, 학비걱정으로 눈물과 한탄이 끊

길 날이 없었다.

그것은 당시 일제의 학정에 시달리는 백의민족의 불우한 처지의 축도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압제와 노예살이를 숙명으로 여기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다.

식민지총독정치의 살풍속에서 반일감정과 항거기운은 부글부글 끓고있었고 마침내 그것은 3.1인민봉기로 폭발하였다.

3.1인민봉기는 10년간에 걸치는 일제의 야수적인 《무단통치》하에서 갖은 수모와 학대에 시달려온 조선민족의 쌓이고 쌓인 울분과 분노의 활화산이였다.

3월 1일 평양에서 12시에 종소리를 신호로 수천명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장대재의 숭덕녀학교운동장에서 《독립선언서》를 랑독하고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의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린것을 계기로 발단된 봉기의 불길은 삽시에 온 나라 각지로 번져졌다.

서울에서는 고종황제의 장례식을 보려고 지방에서 올라온 농민들까지 봉기에 뛰여들어 수십만명의 군중이 결사적인 시위를 벌렸으며 여기에 남부조선 각지의 인민들이 호응해 나섰다.

경상북도 대구에서도 조직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2만 3 000여명이 대중적인 반일시위에 떨쳐나섰다.

당년 12살의 한의장도 마을어른들과 담임선생을 따라 동네 아이들과 손을 잡고 대구로 향하며 《조선독립 만세!》를 목청껏 불렀다. 그것은 어른스러운 행동을 흉내내기를 즐겨하는 동심의 장난이 아니였다.

당시 평안북도 철산군에서는 13살 난 소년이 살인귀들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 《나의 가슴에서 끓는 피 방울방울이 불꽃이 되여 섬나라를 태워버리라. 그것을 모조리 태워없애지 못하면… 물어뜯어 삼키기라도 하여라.》 하고 웨쳐 야수들을 전률케 하였다. 설마 할수 있지만 이것은 력사에 남은 사실이다. 이러한 실례는 많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파급되여 1년나마 격렬하게 벌어진 3.1인민봉기는 온 나라를 거세찬 애국열기로 뒤덮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독립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부풀게 하였다.

어린 한의장도 눈을 크게 뜨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노예로 살 나약한 존재가 아니며 총칼에 맞서 자기를 지킬 용기와 힘이 있는 민족이라는것을 그는 제눈으로 보고 느꼈다.

그만큼 3.1인민봉기는 사생결단의 거세찬 대중적항거였으며 그 파급력은 대단하였다.

조선인민의 과감한 애국적진출과 반일항전에 혼비백산한 일제는 총칼폭력만으로는 식민지통치를 유지할수 없다고 보고 1919년 8월 종래의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꾼다고

선포하였다. 명색이 《문화통치》이지 사실상 간판만 바꾼 또 다른 파쇼폭압통치였다.

일제는 《문화통치》의 미명하에 그전의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한다고 하면서 경찰망과 특무망을 더 조밀하게 늘이고 인민들의 애국적활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시탄압하였다.

이런 배경하에서 한의장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 있는 개성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역시 할머니가 주선해준 그리스도교계통의 사립학교였다.

당시 학교의 교원진영은 친일, 친미, 민족주의 등 여러갈래로 갈라져있었는데 한의장은 민족적이며 반일을 지향하는 리만우를 따랐다.

그는 교육이나 일상생활에서 민족적인것만을 추구하였으며 《신사참배》나 《신사요배》, 《정오기도》 같은것을 주장하는 교원들은 면전에서 면박을 줄 정도로 애국적인 지조가 강한 교원이였다. 그것으로 하여 욕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곧은 마음을 감추거나 바꾸려 하지 않았다.

력사교육도 조선력사만 배워주었다. 《황민화》가 어길수 없는 《교육지침》으로 되고있던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교원이였다.

그런 점에 마음이 끌려 한의장은 더욱 그를 따랐다. 사

람들이 한의장을 리만우의 그림자라고 할 정도였다. 학교에서 시간이 없으면 집에까지 찾아가 총독부말뚝은 얼마나 신령스러운것이길래 하루아침에 남의 집 땅을 뭉청뭉청 떼먹는가, 우리 나라에도 황제가 있는데 왜 조선신궁에 찾아가 일본왕을 참배해야 하는가 하는것으로부터 3.1인민봉기 같은것을 더 크게 벌리면 일본을 내쫓고 예전처럼 살수 있지 않는가 하는데 이르기까지 평소에 품어오던 엉뚱한 생각들을 끝이 없이 털어놓으며 지꿎게 따져물었다. 리만우는 귀찮아하는 기색도 없이 마치도 미래의 역군을 키우기나 하듯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에게 진리의 눈을 틔워주고 애국의 넋을 심어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한의장은 어린 마음에도 세상리치를 알고 나라위한 큰뜻을 품어보려고 이처럼 애써 노력했지만 현실은 모질었다.

갖은 삯일로 근근히 학비를 대주던 할머니도 기력이 진해갔고 무엇보다도 생계를 이어갈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나 학비를 마련할테니 공부를 계속하라는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학년에서 학교를 중퇴하였다. 할머니를 고생시키는것이 민망스러웠던것이다.

학교를 그만두고나니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이 치밀었다.

돈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인가?

왜 나는 공부하고싶고 또 할수도 있는데 못하고 한해, 두

해씩 락제를 하는 아이, 공부하기 싫어서 뺑소니를 치는 아이는 학교에 그냥 붙어있는것은 무슨 일인가?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이러한 고민은 계속되였다. 마음을 괴롭히는 가정의 빈곤, 주변의 살벌한 공기는 그로 하여금 사회현실을 나름대로 헤집어보게 하였다.

어렴풋이 떠오르는것은 이게 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독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였다.

그나저나 당장 눈앞의 일이 문제였다. 여기에 생각이 미친 한의장은 리만우를 찾아갔다. 선생은 며칠을 뛰여다니던 끝에 개성중학교 교원자리를 알선해주었다. 당시는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한의장은 실력과 됨됨으로 보아 1, 2학년정도는 배워줄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던것이다.

뜻밖에 교원이 된 그는 중학교 3학년 중퇴생의 실력으로는 학생들앞에 나서야 망신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범학교교재를 탐독하며 수업준비에 품을 넣었다. 저녁에는 리만우의 귀띔도 있어 이 동리, 저 동리 다니면서 학교에 못다니는 청소년들을 위한 농민야학을 열심히 하였다.

아직은 중학교공부를 할 나이에 중학교학생들을 교육하며 야학까지 운영하자니 어른이 된 기분이였고 보람도 있었다.

교육자라는 자각이 그를 분발하게 했고 아닌게 아니라 생각하는품도, 처신도 이전과는 딴판이 되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을 잃고 놓친듯한 생각이 떠

나지 않았다. 그것은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항용 갈마드는 그런 허전함이였다.

한의장은 교육에 열중할수록 나날이 험악해지고 살벌해지고 생활고가 깊어지는 사회현실과 자기의 앞날에 대한 위구심, 번민에 모대기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장차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할것인가?

깊어가는 암흑의 밤과 함께 식민지청년 한덕수의 고민도 깊어만 갔다.

현해탄을 건너

1927년 7월 15일 이 나라의 남단에 위치한 부산항 부두가에 한 청년이 해풍에 옷자락을 날리며 서있었다.

담대한 결단이 비낀 눈길로 저 멀리 지평선너머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비감같기도 하고 분노같기도 한 이름 못할 감정으로 굳어져있었다.

그는 다름아닌 운명을 건 오랜 고민속에 일본고학을 결심한 20살나이의 한의장이였다.

정작 일본으로 가자니 마음이 무겁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누가 맞아줄 사람도 없고 대학공부를 하자고 해도 돈 한푼 보태줄 친지도 없는 전혀 생판의 일본땅이였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발 먼저 고학을 떠난 사촌동생뿐이였다.

더구나 식민지파쇼통치의 학정하에서 종주국인 일본의 야만성, 사무라이기질을 몸서리치게 체험한 그였으니 마음이 어떻게 개운하겠는가.

바로 그래서 어제 저녁 할머니가 사지로 가는 집안의 맏손자를 어떻게 그냥 보내겠는가고 하면서 빚을 내여 닭을 잡고 떡도 한바가지 쳐서 마련한 송별식사가 울음판이 되였던것이다.

아버지는 왜놈들때문에 땅도 집도 다 떼우고 돈이 없어서 부모노릇도 못하고 공부를 못시켰다고 긴 한숨을 쉬면서 부디 공부 잘하고 오라고 말끝을 버무렸고 할머니는 또 그대로 이제 집을 떠나면 다시 볼것같지도 못한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영웅호걸이 되라고 절규하다싶이 당부하였다.

한의장은 눈물의 시간이 괴로와 자기 일은 다 잘된다고, 집안어른들이 오히려 걱정이라고, 제발 앓지들 말라고 곱씹어 위로의 말을 하였다.

사실 자기보다 왜놈과 지주놈에게 등살을 벗기워야 할 할머니, 아버지가 더 걱정이였고 그러느라니 먼저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 어머니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어머니의 림종을 앞둔 9년전 어느날이였다. 어떻게 하나 앓는 어머니를 위해 제손으로 약 한첩이라도 마련해보려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장마당에 가던 길에 신통히도 돼지같이 생긴 순사놈에게 걸려 떼우고말았다. 사정해봐야 입

이나 아플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두말없이 돌아서서 멀리 사라져가는 놈에게 돼지도 물고기를 먹는가고 욕질을 해대고는 교회당에 갔다.

그즈음 매일 찾아오는 교회당이였다.

그러나 아무리 빌어야 무슨 소용인가.

며칠 안있어 어머니는 한많은 세상을 떠났고 그는 결국 11살부터 어머니란 말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를 계기로 그는 교회당출입을 금하였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하나이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 어머니에 대한 추억마저도 한생 잊지 못할 인생초반의 슬픔과 괴로움밖에 준것이 없는 그 《거룩한 하느님》께 무슨 미련이 있겠는가.

생각할수록 야속하기만 한 세월의 가정사였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 시꺼먼 연기를 내뿜으며 관부련락선이 부두를 떠났다.

이날따라 파도는 왜 그리 세찬지 아침에 몇술 뜬 밥알마저 다 토하고도 멀미가 멎지 않았다.

망국노에게는 이역의 배길도 심술을 부리는것인가.

한의장은 녹쓴 배의 란간을 부여잡고 희미해지는 조국땅을 놓칠세라 눈에 힘을 주어 바라보았다.

고향아! 조국아!

내 비록 오늘 괴로운 마음 안고 쫓기듯 너를 떠나가지만

다시 돌아올 땐 성취의 기쁨 안고 네 품에 안기리! 설사 큰 일은 못춰도 너를 위해 몸부림치다 이역땅의 한줌 흙이 될지언정 너를 욕되게 하지는 않으리!

비장한 결심을 가지니 마음이 어지간히 안정되였다. 아니, 이제 더는 괴로운 추억에나 시달리고있을수가 없었던것이다.

감성이 아니라 리성에 의거해야 할 때였다.

가슴에 품은 배움의 꿈은 환희로운것이지만 그것을 펼칠 곳, 자기가 지금 가는 그 일본은 할머니의 말대로 사지나 다름없었다.

우리 나라를 총칼폭압으로 통치하는 나라일뿐더러 조선민족에 대한 거부감, 배타주의감정이 골수에, 체질에 찌든 나라가 일본이였다. 그것은 어질고 재능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얄밉게 여기는 투현질능의 만용이였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일본은 일찌기 국가형성시기부터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의 영향으로 종족단계에서 벗어나 개명한 나라이다. 일본의 한쪽귀퉁이인 야마또에서 호족련합이 이루어지고 그 세력이 점차 강해져 야마또정권이 등장한것이 5세기초이다. 5세기중엽이후 오사까일대에 정착한 백제ㅡ가야세력이 야마또에 진출함으로써 선진영농기구와 무기장비, 마구류 등을 보지도 못하고있던 야마또정권이 그 영향하에 크게 발전하게 되였다.

이에 대해서는 697년까지의 일본왕조사를 한문으로 기록한

편년체의 력사책인 《일본서기》에도 서술되여있다.

일본학계에서는 야마또정권이 4세기에 이미 통일국가를 수립하고있었던것처럼 설명하지만 그때는 아직 일개 지방정권에 불과하였다.

6세기초엽에 와서 백제에서 온 목만치를 비롯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정권의 중추에 들어앉게 됨으로써 야마또정권은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될수 있었고 서부일본통합을 다그쳐 7세기부터 중앙집권적봉건국가로서의 체모를 갖추게 되였다.

국가형성시기부터 우리 선조들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온 일본은 뿌리깊은 렬등의식과 사무라이기질이 결합되여 우리 민족에 대한 배타적감정과 거부감이 독버섯처럼 돋아나게 되였다. 이것은 결국 길러준 개가 발뒤축무는 격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사실상 일본에는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전통과 관련하여 내놓고 자랑할만한것이 없다.

오늘 일본에서 무슨 경제대국이니 하는 소리들이 나오지만 그러한것들은 다 전통과 관련이 없이 인위적으로 이식된것이고 침략과 강탈의 산물이다.

일본사람들이 일본정신과 문화의 정수가 스며있는 종합예술이라고 자부하는 《다도의례》만 놓고봐도 그것은 일본의 고유한 생활자체가 가져온 자연적문화가 아니라 제국시대에 동란을 평정하고 국민의식안정을 위해 다른 나라의것을 가져다 강요한 이물같은것이다.

도적에게 체면을 론할것도 없다.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의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얼마나 많은 아시아인민들을 살륙하고 얼마나 많은것을 강탈해갔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란 없다.

지금 일본과 남조선사이에 지난날의 징용, 성노예 등 여러가지 문제로 하여 대립이 심각하다. 누가 보아도 저울추는 일본에 기울지만 당국자들은 그 파렴치한 자세를 허물지 않고있다.

도이췰란드를 보라. 지난날 유라시아대륙의 나라들은 거의다 침략하였지만 그러한 과거로 마찰을 빚는 나라는 없다. 이것은 도이췰란드가 이미 과거의 악몽에서 깨여났고 리성을 찾았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일본은 거꿀행진을 하고있다.

한의장은 이러한 일본의 사무라이본성과 파렴치한 기질을 항상 명심해야 하였다.

착잡한 생각속에 어느덧 련락선이 항구에 정박하여 일본이라는 나라에 발을 내려놓았다. 이국의 풍경인때문인지 느낌이 사뭇 달랐다. 하여간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였기에 곁눈팔새없이 길을 떠났다.

얼마 안되는 로자가 아까와 걷다싶이 하며 도꾜에 도착하여 사촌동생을 찾았지만 찾을수가 없었다.

때는 여름이라 거처걱정은 없이 돈벌이에 신경을 썼다. 마침 동포청년을 만나 그의 주선으로 신문배달을 하게 되였다.

시간이 돈이라 뛰다싶이 하며 조간, 주간, 석간을 나오는대로 배달하자니 저녁을 대충 건네고나면 곤드라지기가 일쑤였다.

그래도 공들인 보람이 있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특히 사생동고할 동포들을 적지 않게 만나 친하게 지내게 되였다. 일본사회현실을 비롯하여 새롭게 알게 된것도 많았다.

어느날 조간신문을 뿌리고 터벌터벌 골목을 지나는 길에 외지팽이를 짚고 안해로 보이는 녀인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걷는 사람이 눈에 띄였다. 행색이 가긍하기도 하여 옆을 지나면서 유심히 보니 주고받는 말이나 차림이 조선사람이 분명했다. 이국땅에서는 생면부지의 동포도 형제라 인차 소통이 되였다.

그렇게 면식을 익히게 되였는데 알고보니 1923년 간또대지진때의 무고한 피해자였다. 일공로동에 나갔다가 조선사람잡이에 혈안이 된 깡패무리들의 칼에 맞고 죽창에 찔려 한다리, 한팔이 없는 종신불구가 되였다는것이다.

기가 막히였다. 중학교때 간또대지진당시 일제의 만행에 대해 항간에 돌아가는 말을 들어 어렴풋이 알고있었으나 울분에 차서 땅을 치며 토해내는 실지 피해자의 서리발치는 증언을 듣고는 분통이 터져 견딜수 없을 지경이였다.

온몸에 살기를 풍기며 베고 찌르고 물어뜯는 야만인들의 형상이 뇌리에 새겨지고 자기자신이 지금 그것을 당하는것 같아 소름이 끼쳤다.

인간이 어떻게 그처럼 야수같을수 있는가?

일본이 조선에 무슨 피맺힌 원한을 샀기에 우리 인민들을 그토록 모질게 대하는것인가.

그날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 신문배달도 그만두고 거처로 돌아왔다. 괴로움을 지워보려고 저녁도 건는채 지금껏 입에 대보지 못한 술을 연거퍼 몇잔 들이키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악몽같은 그 생각을 털어버릴수가 없었다. 일본집들에 신문배달을 하면서 당한 멸시어린 눈길과 수모, 우익깡패들이 괜히 걸어오는 생트집과 행패질에 대한 생각까지 한데 어울려 도저히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고민의 시간이 오래 계속되였다.

애국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가짐에 질적승화를 일으키는 충동적인 계기가 있다.

한의장은 후날 이때를 회고하며 그 불쌍한 동포불구자를 만난것이 자기의 심리변화 즉 민족적자각과 의무감의 계발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고 여러 기회에 말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후 로동운동과 재일조선인운동에 관여하면서 바삐 지내다보니 그를 다시 만나지 못한데 대하여 못내 아쉬워하였다고 한다.

사실이 그랬다.

원래 문학과 예술에 소질이 있던 한의장은 음악을 해볼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그 동포청년을 만난것을 계기로 생각을 굳히고 도꾜니홍대학 사회과에 고학을 하였다.

고학생활은 고달프기 짝이 없었다. 그는 대학생활을 매우 심중히 대하였다. 다른것은 몰라도 무엇보다 일본인교원, 학생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자니 공부에서나 처신에서나 생활적인 면에서나 누구도 업수이 대할 수 없게 그야말로 심중하여야 했다.

그런데 화단이 생겼다. 어느날 교무과에서 찾아서 갔는데 난데없이 출학처분을 받게 되였다.

키가 작고 최최하게 생긴자가 하는 말이 너는 대일본제국을 반대하는 3.1운동관계자이기때문에 일본대학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것이였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때가 도꾜니홍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한지 1년도 채 안된 때였다.

그러나 출학리유가 3.1운동때문이라니 변명하거나 항변할 생각도 없었다.

꼭 10년전 집안어른들과 개남학교의 김수룡선생을 따라 학급학생들과 함께 도소재지인 대구로 가며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은 물러가라!》를 웨치던 일이 생생히 기억되였다.

온 나라를 휩쓸고 해외에서까지 벌어진 3.1인민봉기는 력사에 대구참살사건으로 남을 정도로 대구지역에도 폭풍을 불러왔다.

당시 대구에서는 수만명의 학생들과 인민들이 일제경찰의 야수적인 탄압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다. 폭압경찰은 응당한

민족적권리를 요구하는 시위군중에게 총칼란동을 부리였으며 시체를 거두고 부상자를 치료해주는 사람들에게까지 야만적인 행패질을 하며 마구 체포탄압하였다.

지어 김용해라는 청년이 시위조직자인 자기 아버지와 함께 《독립선언서》를 랑독하자 일본도로 마구 찔러 피투성이로 만들고는 체포하여 고문끝에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때 대구에서는 무려 132명이 학살되고 수백명이 체포되였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시위에 나서서 일제의 야만적인 총칼폭압에 맞서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반일항거를 목격한 한의장은 당장 독립이 되는줄로 알았다. 마을과 학교에서 그런 말들이 나돌았었다. 김수룡선생을 비롯한 애국적인 교원들은 일본교과서 같은것들을 찢어 불태워버렸으며 일본과 관련한 교육을 일체 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도 있어 한의장은 생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아쉬움이 엇갈린 3.1인민봉기가 뇌리에 깊이 새겨졌고 어느 자리에서인가 동포학우들과 그때의 이야기를 한바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대학당국 감시요원들의 귀에 들어가 결국은 출학을 당하게 된것이였다.

배움의 열망이 굴뚝같은 그였지만 출학당한것이 분하지 않았으며 경멸감만이 치솟았다.

인간지성을 희롱하는 방종스럽고 무지한 처사에 환멸이 느껴졌으며 대조선침략사상과 식민지통치정책에 유린당하는 교

육이라면 오히려 자신이 이질화되고 야만인 같은것으로 길들여질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났다.

출학처분은 오히려 그의 민족의식, 반일항거심에 불을 달아주는 격이 되였다.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요구하는 우리 인민의 피의 절규를 총칼로 짓밟은자들이 저들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죄악에 대한 꼬물만한 죄의식도 없을뿐만 아니라 꺼꾸로 우리 민족에게 죄를 따지고있는것이였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떻게 돼먹은 나라인가!

우리 조선사람은 언제까지나 종신노예가 되여 일본강도배들이 억압하면 억압당하고 짓밟으면 밟히우는 버러지처럼 살아야 하는가!

생각은 제국주의일본과 식민지조선, 침략자이고 통치자인 일본과 식민지로 신음하는 조국 그리고 자기자신의 문제로 흘러갔다.

스스로의 됨됨과 애국하는 큰사람이 되라는 가정교양, 식민지청년으로서 겪은 체험과 로씨야의 사회주의10월혁명이 발단이 되여 료원의 불길로 타오른 공산주의운동을 배경으로 한의장은 이즈음 세계와 현실을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보게 되였던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움의 꿈을 란도질당한 한의장은 삶의 다른 형태에 대해

생각하게 되였다.

고향으로, 조국으로 갈것인가? 조국에 가서는 과연 무엇을 한단 말인가?

갈래많은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채 일단 로동현장에 뛰여들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여 한의장의 일본에서의 생활 제2편이 시작되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먹고살기 위한 인간의 보통생활인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인지 본인도 가닥을 잡지 못하였다.

마음에 깃든 백두산

철컥, 삐거덕하고 감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간수의 새된 소리가 귀청을 울리였다.

《야, 나와.》

사람취급을 하지 않는 야비한 언사였다.

무지막지한 고문으로 불구가 되다싶이 한 한의장은 저려나는 몸을 이끌고 묵묵히 간수를 따라 취조실로 갔다.

도끼눈을 해가지고 뚫어지게 쏘아보던 특고(특별고등경찰)가 표정과는 달리 낮은 목소리로 입을 뗐다.

《그래, 이젠 말을 하겠는가? 앙.》

한의장이 로동쟁의를 조직한것을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치안문란죄》로 인정하고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서약을 하라는것이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말꼬리를 잡아올리는것으로 보아 다른 기미가 느껴졌다.

한의장은 덤덤히 그자를 한번 띄여보고는 얼굴을 돌렸다.

조선로동자들을 노예 부려먹듯하는데 대해 처우개선을 요구한것이 《치안문란》행위라니 말도 되지 않거니와 앞으로는 로동자들을 소나 말처럼 취급하여도 군말없이 당하기만 하라는것인데 거기에 무슨 말이 통하겠는가.

한의장은 모진 고문으로 몸은 만신창이 된데다가 또다시 몽둥이찜질을 당할 막다른 처지에 있었지만 마음은 개운하고 뿌듯했다.

그것은 단나턴넬공사장에서 로동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규모적인 로동쟁의를 조직하여 승리를 쟁취한데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이였다.

대학공부를 그만둔 한의장은 단나턴넬공사장에서 로동생활을 시작하였다.

당시는 대륙침략야망으로 눈에 달이 뜬 일제가 로동능력있는 조선인청장년들을 가림없이 징용으로 군사기지건설장에 끌어가 야만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고있었다.

일본철도의 간선인 도까이도선상에 있는 아따미에서 이즈

반도의 산줄기를 동서로 관통시켜야 하는 단나턴넬공사장에 만도 장장 16년간 수십만명의 조선로동자들이 끌려가 죽음의 고역에 내몰리였다. 일명 《다꼬베야》라고 하는 짐승우리 같은데서 먹이는것은 애기주먹만한 꽁보리밥이 전부였고 몽둥이와 채찍밑에 14～16시간의 고강도살인고역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로동자들의 생명 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아 사망자가 매일같이 속출하는 이 공사를 단나사도공사(남편을 죽이는 공사)라고 할 정도였다.

하루하루가 고통속의 백날맞잡이였고 사는것이 곧 죽을 맛이였다. 이렇게는 살수가 없었다.

세상리치를 배워 나라위해 그 무엇인가를 이룰 꿈을 안고 일본에 왔지 고역에 혹사당하려고 온것이 아니였다.

무지막지한 희생의 대가라도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노예살이가 전부였으니 기가 막힐노릇이였다.

한의장은 고민끝에 로동운동에 뛰여들었다. 자신은 자신이고 일제의 대륙침략야망의 희생물로 짓밟히는 동포로동자들을 내버려둘수 없었다.

이즈음에 이르러 그의 시야는 자기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었다. 꿈틀거리는 개인적욕망에 대하여 타이를줄도 알고 언쟁할줄도 알았으며 자신에게 채찍을 안길줄도 알았다.

일신의 영달이나 향락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이라는 개념이

머리에서 떠날줄 몰랐고 그 뜻을 음미해보며 그속에서 자기 할바를 찾게 되였다.

한의장은 일본공산당의 영향하에 있는 로동조합사업에 관여하면서 로동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한의장은 그때 이미 일본에 파급된 맑스-레닌주의의 영향하에 사회주의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신봉하고있었다. 그는 대학시절부터 맑스의 저서들을 비롯한 공산주의서적들을 탐독하였으며 로동조합의 일을 보면서 로동운동도 그 시각으로 보고있었다.

물론 당시의 형편상 혁명의 견지에서 로동운동을 대할수는 없었지만 로동자들 특히 제국주의일본에 끌려와 노예로동에 시달리는 조선인로동자들의 리익을 옹호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맑스가 《공산당선언》에서 밝힌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의 구호를 들어야 한다는 립장만은 확고하였다.

그는 로동현장들을 찾을 때마다 동포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계몽사업을 하였으며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선동하고 조직하였다. 그로 하여 1929년—1934년사이에만도 수십번 체포, 구류되였으며 요시찰명단에 올라 항시적인 감시하에 있게 되였다.

1934년에는 현장에서 검거되여 경찰서에서 심한 고문끝에 의식을 잃고 몇시간후에야 겨우 소생하였으며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29일동안이나 구류를 당하기도 하였다.

섬나라를 휩쓰는 미친듯한 전쟁열기가 단나턴넬공사장에도

휩쓸어 로동강도와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살벌해졌다.

한의장은 고향친구 로재호 등과 토론끝에 야학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재일조선인자녀들에게 우리 글을 배워주는 야학을 내오고 점차 동포로동자들을 인입시켜 그들을 각성시키고 로동쟁의에 조직발동하자는 의도에서였다.

야학문을 열자니 교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등사기와 원지 그리고 얼마간의 종이가 있어야 했는데 그것을 구입할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마침 그때 《조선의 무희》로 소문난 최승희가 공연차로 요꼬하마에 왔다.

한의장은 소식을 듣고 무릎을 치며 요꼬하마극장으로 달려갔다.

생면부지이지만 오랜 지기사이에 해후하듯 서로 반갑게 만났다.

한의장은 그에게 두가지 부탁을 하였다. 하나는 야학운영에 필요한 돈을 얼마간 대달라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사장에 와서 수천명의 로동자들앞에서 조선춤을 춰달라는것이였다.

그러마 하고 헤여졌지만 공사장에서의 공연은 일제경찰의 방해책동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야학은 그의 도움으로 문을 열게 되였고 애써 노력한 보람이 있어 목적한바대로 잘 운영되여갔다.

노예적굴종을 강요하는 왜놈십장이나 감독들에게 눈먼 욕이나 하면서 제몸 건사에 신경을 쓰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눈을 뜨게 되고 서로의 친목도 도모되여 로동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마련되여갔다.

그러던 어느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로동자들을 감독하던 십장들이 더이상 견딜수 없어 탈주하던 한 동포로동자를 붙잡아 반주검으로 만들고도 모자라 콩크리트타입물속에 생매장하는 치떨리는 살해사건이 일어났다.

로동자들은 분노로 이를 갈았다. 당장 그 십장놈을 잡아 생매장해죽이자고 윽윽하였다.

한의장은 이를 계기로 온 공사장이 작업을 중지하고 파업에 나서도록 하였다.

수천명의 로동자들이 동포로동자를 무참히 살해한자들을 처벌하고 사죄하며 그의 장례를 보장할데 대한 요구를 내들고 강력한 항의투쟁을 들이대였다.

한의장은 이번 기회에 로동조건과 처우개선, 로동시간단축 등도 실현할것을 작정하고 파업의 강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련일 파업집단의 분노에 찬 함성이 공사장을 진감하는 속에 로동자들이 자기들의 정당한 요구조건을 받아내기 전에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기업주들은 마침내 굴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받아낸 파업의 대가는 비록 불충분하고 한시적인것이였지만 동포로동자들의 집단적투쟁으로 쟁취한 전취물로서 소중한것이였다.

그것은 한의장에게 있어서도 지난 7년간의 로동운동과정에 이룩한 첫 승리이고 동포들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단결의 당위성과 위력을 실감한 매우 의의있는 성과물이였다.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미전부터 한의장을 《요시찰인물》로 점찍어놓고 주시해오던 놈들은 그를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파업조직인물로 붙잡아갔던것이다.

혐의는 파업조직이였지만 실지는 《사상범》으로 취급하였다.

아무리 고문을 가해도 한의장이 일절 반응이 없자 시즈오까형무소로 이관하였다.

형무소는 역시 형무소였다. 고문도 경찰서와는 달랐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의식을 잃기를 그 몇번… 놈들은 그런 그를 담가에 실어 감방에 처넣었다.

특고가 한의장을 다시 찾아온것은 그로부터 며칠후였다.

《네 정체는 이제 다 드러났다. 네가 누구이며 무엇때문에 공사장에 왔는지 다 안단 말이야.》

한의장은 특고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말을 하려 한다는것을 직감하였다.

《넌 **김일성**부대 공작원이지? 공사장에 와서 야학을 만들고 로동조합을 조직한것도 공작임무에 따라 폭동을 일으켜 공사를 파탄시키자는것이라는걸 우리가 다 밝혀냈단 말이야. 앙? 그래두 뻗치겠는가?》

그 말에 한의장의 귀가 번쩍 트이였다. 다소 당혹스럽기는 해도 자기가 《**김일성**부대 공작원》이라니 마음이 다 흐뭇해왔다.

다른것은 몰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항일독립의 기치높이 일제의 관동군을 혼비백산케 하며 온 겨레의 추앙을 받으시는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의 뜻에 맞는다는것이 아닌가?

한의장이 얼굴에 웃음기를 담고 제 말은 듣는둥마는둥 자기 생각에만 옴해있자 약이 오른 특고는 다시 몽둥이질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취조실 한구석에 목검채가 수북이 쌓이였다.

원래 시즈오까 하면 목재가공지로 알려진 목공도시여서인지 목검채 같은것은 얼마든지 있는것같았다.

아무리 매질을 해도 한의장이 꾹 다물린 입을 열지 않자 악에 받친 특고놈은 기력이 다할 때까지 목검채를 휘둘러댔다.

그 어떤 고문도 괜한짓이라는것을 안 형무소놈들은 의식도 없고 반주검이 된 그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지워 형무소대문밖에 내버리다싶이 하였다.

마침 소식을 듣고 달려온 고향친구 로재호를 비롯한 동포 로동자들이 시체나 다름없이 된 한의장을 붙들고 울고불고하며 함바로 실어갔다.

그때가 1937년 4월이였다.

병석에 누운 한의장의 생각은 모진 고통속에서도 백두산으로만 달렸다.

당장 자리를 차고 일어나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고싶은 심정이였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을 조국해방의 구성으로, 민족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마음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품고있는 간절한 소망이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광활한 만주일대를 종횡무진하시며 신출귀몰하는 전법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고계신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이제 곧 일제를 멸망시키고 조국을 해방시키신다는 소식이 조국광복회조직선을 타고 한입 건너, 두입 건너 재일동포사회에 파다하게 퍼지고있었다.

이를 계기로 일제의 비인간적인 학정과 파쑈적탄압에 시달리며 죽지 못해 살아온 재일동포들의 마음은 일시에 백두산으로 쏠렸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에 대한 참군, 원군운동이 도처에서 광범하게 벌어졌다.

1937년 5월 반일지하조직성원들이 도쿄 간다구 호리우찌등

사기상점에서 조국광복회의 애국적계몽과 반일선전사업에 필요한 등사기 2대를 구입하여 항일유격대에 보낸것은 그 실례의 하나로 된다.

조선인로동자들은 일본 방방곡곡의 탄광, 광산, 공장, 군사시설건설장, 일본군병영에서 대중적인 집단탈주, 파업과 태업투쟁 등으로 반일항거에 나섰다. 이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전시수송과 군사전략물자생산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으며 일본의 로동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때를 전후하여 일본의 로자관계문제를 보는데서 재일조선인의 투쟁문제를 무시할수 없다는것이 일반적견해로 되였다.

이밖에도 재일동포들은 학생운동, 문학예술인운동, 녀성운동, 농민운동을 비롯하여 각계층별로 투쟁을 적극 벌리였다.

한의장이 로동조합일에 적극 관여하면서 거듭 로동쟁의를 조직한것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시는 조국해방성전에 합류하는 민족사적흐름을 탄 애국투쟁이였다.

일제가 발행한 《특고월보》는 당시 일본에서 일고있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김일성**장군님의 《수하로 달려가 조선을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일어났다고 썼다.

이즈음 16년간 수많은 재일조선인로동자들의 피와 생명을 묻으며 추진되여온 단나턴넬이 완공되였다.

어차피 한의장은 투쟁의 다른 무대를 펼쳐야 했고 과업도 새롭게 제기해야 했다.

그는 지나온 투쟁의 나날들을 곰곰히 더듬어보며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로동운동이나 벌려가지고서는 일대 앙양기에 들어선 조선혁명에 보조를 맞출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당시 일본에서 재일조선인들의 투쟁은 백두산소식에 고무되여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벌어졌지만 조직화되지 못하여 분산성을 극복하지 못하고있었다.

한의장은 로재호를 비롯한 선진적인 동료들과 론의를 거듭한 끝에 투쟁을 보다 조직화하기 위한 단계에로 넘어갈데 대한 합의를 보았다.

우선 각기 로동조합사업을 하면서 점찍어둔 동포들을 검토선발하고 그를 토대로 우수한 애국적동포들속으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자는것이였다.

그러던 6월초 어느날 한 동포청년이 숨이 턱에 닿아 한의장이 묵고있는 함바에 뛰여들었다.

그는 며칠전에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유격대를 이끄시고 보천보를 들이쳤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며 손에 든 신문을 내보이는것이였다.

신문을 보니 경찰관주재소를 비롯한 일제통치기관들이 습격을 받아 벽체들에 총탄자리가 숭숭하고 건물들이 불길에 휩싸인 소식이 사진과 함께 대문짝만하게 실려있었다.

순간 한의장은 아연해졌다.

이게 사실인가?

선뜻 믿어지지 않았지만 믿지 않을수 없는 사실이였다.

항일유격대가 보천보를 들이쳤다면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해방성전을 국내에로 확대하고계신다는것인데 이것은 보통일이 아니였다.

그가 신문을 몇번이고 다시 읽어보면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는데 동료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 뛰여들었다. 모두가 흥분되여있었고 당장 해방이 된다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항일유격대의 보천보전투승리, 그것은 수십년세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인간이하의 학정과 수모에 시달려온 조선인민에게 해방의 서광을 안겨준 일대 사변이였다. 당시 그 소식에 접한 전체 조선인민이 환희에 넘쳐 **김일성**장군만세를 부르고 려운형과 같은 애국지사들은 보천보현지에까지 찾아가 전투현장을 목격하며 감격에 목메인것은 보천보전투승리의 민족사적의의를 확증해주는 산 실례가 아니겠는가.

이날 한의장과 그의 동료들은 급변하는 혁명정세에 대한 깊은 연구와 토론에 기초하여 새로운 임무를 확정분담하고 활동을 본격화할것을 결의하였다.

한의장은 고문의 후과로 몸이 쇠약하고 걷기도 어려운 형편이였지만 동지이자 승리이다, 동지는 많아도 남음이 없다고 하면서 도꾜를 중심으로 각 지방을 돌며 뜻을 같이하는 한명의 동지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수십, 수백리 밤길도 마

다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제경찰의 감시가 항시 뒤따르는 위험한 길이였다.

1937년 7월 어느날 도꾜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몇몇 동료들과 함께 그간 사업정형과 관련한 모임을 하는 도중 경찰이 덮쳐들었다. 로재호를 감시하던 경찰이 그의 뒤를 밟았던것이다.

경찰들은 그들전원을 《공산당조직재건혐의》로 붙잡아 류치장에 가두고 무차별적인 고문을 가하였다.

감때궂은 놈들이 번갈아 가며 장작패듯 몽둥이질을 가했으나 한의장은 모든 혐의를 자기가 다 걷어안고 완강히 버티였다.

고문으로 날이 저물고 새날이 밝는 약 1년간 그는 오히려 놈들에게서 귀중한 자료들을 알게 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유격대를 이끌고 수차 조국에 진출하시여 일제를 전률케 하는 큰 군사적승리를 이룩하시였다는것, 오까야마 6고를 비롯한 여러 학교와 대학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이 꾸려졌으며 수많은 청년학생이 그와의 련계밑에 반일투쟁을 벌리고있다는것, 유격대를 찾아간 청년들도 많다는것 등등.

한의장의 가슴은 불을 안은듯했다.

나도 가자! 백두산으로 가자!

이런 결심을 가슴에 안으니 고문도 회유도 그 무엇도 무섭지 않았다.

별짓을 다해야 소용이 없게 되자 놈들은 그를 출소시키고 말았다.

한의장은 감옥에서 풀려나 몸을 추세울새도 없이 몇명의 동료들과 함께 백두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쯔가루해협을 건너 홋가이도의 하꼬다떼를 거쳐 바다를 건늘 계획이였다.

그런데 하꼬다떼에서 그만 검문검색에 걸려들고말았다.

거기서 라진으로 가는 배를 타면 그만이다. 그래서 민간수송선 선주에게 적지 않은 돈을 찔러주고 약속까지 받아냈는데 발목이 묶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가려는 자기자신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건 일생일대의 결단은 이렇게 되여 이룰수 없게 되였다.

아쉽고 분하기 짝이 없었다.

어떻게 하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 조국해방대업에 한몫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지만 더욱 난감한것은 앞으로의 일이였다.

돌이켜보면 가슴에 뜻을 품고 일본에 건너와 10여년간 동포로동자들을 위한 로동운동에 전심전력하며 수십차례 옥고도 치르고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지만 도무지 성이 차지 않았다.

보천보전투소식을 접한 후부터 조국해방이라는 민족대업의 거세찬 흐름에서 동떨어져 허송세월하는것과 같은 죄의식과

조바심이 고여 가슴이 답답하였다.

한의장은 일제경찰이 쳐놓은 《사상범보호관찰법》의 그물이 항시 도사리고있었지만 병치료를 간다는 등의 구실을 내대고 동분서주하며 길을 다그쳤다.

그 나날의 한의장에 대해 후날 그의 안해는 무슨 일이 그리 바쁜지 항상 빚에 쫓기우는 사람같았다고 롱담삼아 말한 바 있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파쑈세력들이 세계반파쑈 인민들의 정의의 항전에 부딪쳐 비참한 패망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던 때이다.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시며 조국해방의 구성이신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일제를 종국적인 파멸에 몰아넣기 위한 웅대한 대일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하시고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고계시였다.

온 겨레가 꿈에도 소원하던 력사적인 조국해방의 날이 다가오고있었다.

2. 해방의 환희에 넘쳐

귀국행렬을 손저어 바래며

1945년 8월 15일.

드디여 3천만 조선인민이 일일천추로 학수고대하던 조국해방의 날이 왔다.

온 조국강토가 감격에 젖은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의 함성으로 진동하였고 산천초목도 환희에 설레이는듯싶었다.

얼마나 애타게 그리던 조국해방인가?

패망소식에 숨죽은 일본땅 그 어디에나 재생의 희열에 넘친 동포들의 춤판으로 흥겨웠고 술집과 함바들은 귀향의 꿈을 이루게 된 기쁨으로 떠들썩하였다.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며 아시아대륙을 무고한 인민들의 피와 시체로 뒤덮은 일본제국주의의 괴수 히로히또의 무조건 항복선언을 방송을 통하여 들은 한의장도 억제할수 없는 감격에 넘쳐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당시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다가오고있다는것은 느끼고있었지만 일제가 그처럼 황급히 항복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있은 그였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고 조국해방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환영분위기로 들끓는 조국소식을 신문과 방송으로 접할 때마다 그는 멀리 이국땅에 있는것이 못내 서운하였다.

하지만 그런 일신의 아쉬움에 잠겨있을 때가 아니였다.

일본땅에는 **김일성**장군님께서 피어린 항일대전으로 이룩하신 해방의 덕을 노래하며 민주의 새세상에서 마음껏 해방민의 삶을 향유할것을 학수고대하는 근 240만에 달하는 재일조선인들이 있었다.

그 많은 동포들의 귀국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절실하게 제기되고있었다.

그 막중한 임무를 재일조선인애국자들이 걸머져야 했던것이다.

그때 조선민족에 대한 극단한 배타주의적감정에 물젖어있는 사무라이족속들은 패망의 한에 이를 부득부득 갈고있었다.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는 조국의 절박한 부름을 듣는 사람은 스스로 그 중책을 걸머지는 법이다.

조국과 민족, 현실의 요구를 한의장은 애국애족으로, 끓는 심장으로 받아안고있었다.

그는 이것이 해방을 앞두고 결심품고 단행하였던 백두산행과 같은 성스러운 일임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한의장은 아무런 준비없이 조국해방을 맞이하게 된것을 통절히 후회하며 서둘러 사업에 착수하였다.

무엇보다도 해방의 환희에 넘쳐 한시바삐 귀향할것을 희망하는 그 숱한 동포들의 안전한 귀국을 도모하고 대기하는 동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일조선인조직을 뭇는것이 급선무였다.

곧 가까이에 있는 가나가와현의 동지들과 련계를 취하여 회합을 가지고 재일조선인조직을 뭇는 문제를 합의한 한의장은 그에 기초하여 간또지역을 포괄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맹렬히 벌렸다.

8월 20일 간또지방조선인회가 무어지고 그 책임자로 된 한의장은 도꾜에서 각 지역의 18개 재일조선인단체를 망라하는 재일본조선인련맹결성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 제일먼저 가나가와현본부를 조직한데 이어 마침내 전 일본적인 재일조선인조직을 내오는 사업을 성취하였다.

1945년 10월 15일과 16일 이틀간에 걸쳐 도꾜히비야공회당과 료고꾸공회당에서 해방민족된 재일조선인들의 마땅한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전 일본적인 동포조직인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결성대회가 열리였다.

연단에 나선 사람들은 누구나 해방된 민족의 자긍심을 토로하며 조련결성을 열렬히 지지환영하였다.

하지만 실무적문제에 들어가서는 사정이 달랐다. 특히 친미

친일파, 민족반역자문제가 제기되자 간또지방과 간사이지방 대표들사이의 대립이 첨예화되여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거기에 재일조선인조직결성을 배아파하는 일본우익세력이 파견한 반동분자가 총질까지 해대여 수라장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 조련결성준비위원회 위원이고 총무부 부부장으로서 사회를 맡아하던 한의장을 비롯한 주최자들이 의견상이와 혼란을 수습하고 참가자들의 총의를 모아 조련결성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대회에서는 1. 우리는 신조선건설에 헌신적노력을 기함 2. 우리는 세계평화의 항구유지를 기함 3. 우리는 재류동포들의 생활안정을 기함 4. 우리는 귀국동포의 편의와 질서를 기함 5. 우리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동단결을 기함으로 된 조련의 강령이 채택되였다.

조련의 결성은 새 조선건설에 이바지하고 재일동포들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재일조선인들의 애국적진출의 서막이였으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대중을 망라하는 첫 민주주의적인 해외교포조직의 탄생이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출발을 뗀 조련의 결성이 가지는 의의는 자못 큰것이였지만 그 행로는 첫걸음부터 간고하였다.

당시 재일조선인사회에서는 조국의 북반부냐 남반부냐 하는 로선선택문제로 정치적대립이 심각하였다.

로선선택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운명과 전도와 관련된 중차

대한 문제이기에 한의장을 비롯한 애국적활동가들은 위대한 수령님만을 따르려는 자기들의 정치적신념에서 한치도 후퇴하지 않았다.

결국 조련은 1946년 2월에 진행된 제2차 림시대회에서 조선을 독립국가로 부흥시키기 위하여 민주주의림시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북반부의 새 민주건설로선을 따를데 대한 립장을 뚜렷이 하게 되였다.

재일조선인들의 구성에서 남반부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련이 북반부를 운명을 맡기고 따를 진정한 모국으로 택한것은 한의장을 비롯한 재일조선인애국자들이 그때 이미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진정한 령수로 얼마나 굳게 믿고 따랐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한의장을 비롯한 애국적인 활동가들은 조련결성후 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들은 일본각지를 메주밟듯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조련이 결성된지 불과 2개월사이에 일본의 35개 지방에 조련 현본부를 꾸려놓았으며 그아래에 223개의 지부를 조직하였다.

조련의 활동가들은 당면한 투쟁과업을 재일조선인들의 안전한 귀국보장에 두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어서 돌아가자, 해방된 조국으로! 그리운 고향으로!

당시 설음과 슬픔을 깨물어삼키며 이국풍상을 겪을대로

겪어온 재일동포들 누구나가 꿈결에도 그리운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갈것을 열망하였다.

서일본의 항구도시들인 시모노세끼, 하까다, 센자끼 등은 온통 조선동포들로 뒤덮였다. 한시바삐 귀향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물밀듯이 모여드는 동포가 하루에도 5 000～1만여명에 달하였다.

하지만 수송선부족으로 귀국수요를 감당할수 없었으며 날이 감에 따라 항구도시들에는 동포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10만을 훨씬 넘어서게 되였다. 공공건물들과 부두창고들이 다 귀국하려는 재일조선동포들의 숙소로 되였고 불란공지에는 갖가지 모양의 《새집》들이 생겨났으며 그것이 모여 조선동포들의 마을을 이루었다.

적지 않은 동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쪽배로 귀국하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수장되기도 하였다. 항구들에서는 거처할 곳이 없어 헤매이다가 질병에 걸려 그처럼 그립던 고향땅을 다시 밟아보지 못한채 한많은 이역에서 세상을 하직하지 않으면 안된 동포들도 한둘이 아니였다.

재일조선인들의 귀국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일본반동들은 1945년 8월 3 700여명의 재일동포들을 태운 해군수송선 《우끼시마마루》를 폭침시킴으로써 귀국의 길에 오른 수많은 동포들을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까지 저질렀다.

사태는 긴박하고 위급하였다. 재일동포들은 자체의 힘과 노

력으로 귀국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재일동포들은 1945년 9월 조선인귀국자구호회를 뭇고 시모노세끼, 센자끼, 나가사끼, 후꾸오까, 아이찌 등에 지부를 두어 귀국동포명단작성, 귀국증명서발급, 귀국동포의 재산관리, 렬차조직과 배선 등의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240만의 동포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키기에는 력부족이였다.

조련은 현실적요구에 맞게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귀국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구체적인 분담을 한데 기초하여 이 사업을 강하게 내밀었다.

일본의 중앙과 지방당국에 련일 대표를 파견하여 귀국하는 동포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조련 총무부 차장을 하면서 가나가와현본부 위원장사업을 맡아보던 한의장은 현내 동포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행동방안을 세워 하나하나 착실히 실행해나갔다. 계층별로 관내 동포들의 가두시위를 조직하여 귀국사업조건보장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적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자신이 현당국에 직접 찾아가 론박할수 없는 론리로 요구조건을 들이대여 적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나날에 한의장이 《쎄이꾜위원장》이라는 애칭을 가지게

된 일화도 생겨났다.

봄빛짙은 3월 3일 한의장이 귀국을 기다리는 동포들이 담장둘레로 장사진을 치고있는 한 학교마당에 들어서는데 한쪽 구석에서 통곡소리가 들려왔다. 가슴이 섬찍하여 달려가보니 부모로 보이는 남녀가 피투성이가 된 처녀를 부둥켜안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있었다.

주위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17살 난 그 딸이 오늘 고향행을 한다고 기분이 들떠 행길에 나섰다가 미군용차에 치워 다리가 부러지고 몸이 온통 찢겨졌다는것이다. 그런데 차에 탔던 미군사병들은 저들이 만신창으로 만든 처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망가버렸으며 부모들은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서 문전거절을 당하고 저렇게 울고만 있다는것이 아닌가.

기가 막혔다. 더우기 그날 3월 3일은 일본에서 병아리인형을 만들어 처녀들의 행복을 비는 날이였다.

한의장은 주머니에서 귀국사업과 관련하여 신문에 낼 광고비로 가지고있던 돈을 꺼내주었다. 그것으로 치료비가 될것 같지 않았는지 손목에 찬 시계를 풀어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었다. 그 시계로 말하면 아버지가 철물상을 하는 대학동창이 큰마음 먹고 한의장의 생일기념으로 준것이였다. 상표가 《쎄이꼬》는 아니고 말이 한입 건너, 두입 건너 가면서 일본에 흔한 《쎄이꼬》가 되여버렸다고 한다. 그런 연고로 한의장은 《쎄이꼬위원장》이라는 애명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그는 그길로 본부성원들과 함께 미군정당국을 찾아갔다.

미군정당국측은 처음에는 항의를 들은척도 하지 않다가 한의장이 하도 완강하게 들이대자 사태가 더 커질것이 두려웠는지 마지못해 사죄하고 피해자처녀에 대한 치료와 그 가족의 귀국보장을 약속하였다.

한의장은 내친김에 지역동포들의 귀국문제와 생존권과 관련한 요구조건들을 들이대여 적지 않은 성과를 따내였다.

한의장을 비롯한 조련의 애국적인 활동가들과 재일동포들이 힘을 합쳐 이처럼 완강한 투쟁을 벌리자 더는 뻗칠수 없게 된 일본반동정부는 마지못해 귀국동포수송을 무료로 하고 특별렬차를 운영하며 려비가 없는 동포들에게 려비를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게 되여 해방직후부터 1946년 3월까지 불과 반년 남짓한 사이에 백수십만명의 동포들이 귀향하는 등 추진되여나가던 귀국사업은 남조선의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난관에 직면하게 되였다.

1945년 9월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군정을 실시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애국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무참히 학살하였다.

남조선의 모든 정치적 및 경제적명맥은 미제의 수중에 장악되고 인민들은 도탄속에 허덕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초보적인 정치적자유와 권리마저 다 빼앗기고 해방

전 일제식민지통치시기나 다름없는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해방의 기쁨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식민지예속의 수난사가 시작되고있었다.

갈수록 험악한 정세하에서 가슴에 넘치는 희망과 포부를 안고 남조선에 귀국했던 동포들은 집도 직업도 구하지 못하여 길가에서 헤매였으며 심지어 먹을것이 없어 굶어죽기까지 하였다.

고향에서 만나자고 약속하며 떠나갔던 동포들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원한서린 일본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재도항자들의 수는 날이 감에 따라 늘어나기만 하였다.

남조선에서 전해지는 소식과 재도항자들이 들려주는 말이란 미제의 총칼밑에 신음하는 비참한 현실뿐이였다.

하여 당장 귀국하려고 서두르던 재일동포들도 일시 귀국을 단념하고 정세를 관망하며 덧없이 세월을 보낼수밖에 없게 되였다.

게다가 미일반동들의 방해책동 역시 갈수록 우심해졌다.

미일반동들은 재일동포들의 귀국투쟁을 《불법행위》니, 《지방치안을 문란시키는 란동》이니 하면서 탄압하였으며 《계획수송》이라는 명목밑에 귀국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동포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집행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들은 동포들의 귀국을 가로막기 위한 음흉한 목적밑에

날자를 빠듯이 정해놓고 귀국희망자들은 빠짐없이 다 등록하여야 한다고 공포하는가 하면 1946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계획수송》기간에 귀국하지 못한 동포들은 일본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강박하였다.

미일반동들은 재일동포들이 귀국하는 경우에도 금, 은, 유가증권을 지참하지 못하게 하고 소지금, 소지품도 극히 제한함으로써 동포들이 자기의 재산도 마음대로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

미일반동들의 이러한 책동은 재일동포들의 자유로운 귀국의 권리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였으며 그들의 생활밑천까지 모조리 빼앗고 알몸뚱이로 추방하려는 강도적술책이였다.

고향인 남조선에 돌아간다고 하여도 살길이 막히는데다가 설사 돌아가자고 하여도 빈손 들고 가야 할 형편에 처한 재일동포들은 일시 귀국을 단념하지 않을수 없었다.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로 조국이 해방되고 북반부에서는 새 조국건설의 노래소리 높이 울리고있을 때 일본에는 아직 꿈에도 고향을 그리는 100만이 넘는 재일조선인들이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며 눈물속에 세월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고있었다.

4.24교육투쟁의 나날에

주체35(1946)년 12월 13일.

이날 신문과 방송으로는 암흑속을 헤매이는 재일동포들에게 재생의 환희를 북돋아주는 감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온 겨레가 민족의 은인으로 한결같이 칭송하고 우러러받드는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바다건너 이역에서 새삶을 애타게 갈망하는 재일동포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재일 100만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신것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서한에서 오래동안 일제의 식민지노예로 있던 우리 민족은 해방되였다, 우리 인민은 자유와 권리를 찾았으며 새 생활을 자유로이 건설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얻었다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재일 100만동포들! 오늘 조국의 운명의 귀추는 곧 재일동포들의 운명에도 영향을 줄것입니다.

민주주의적민족통일정부의 수립으로 우리 조선이 완전히 독립됨으로써만이 동포들의 위신을 높이고 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동포들에게 보호의 손길을 보낼수 있게 될것입니다.》

온 동포사회가 환희와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였다.

그때가 과연 어떤 때였는가.

조국의 북반부에서는 해방직후 창건된 북조선공산당의 령도밑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기치높이 새 조국건설의 첫삽을 뜬데 불과하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새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싶어하는 온 겨레를 품어줄 통일국가의 창건도 건군위업도 추진중에 있었다.

반대로 대다수 재일동포들이 고향을 두고있는 남조선에서는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제가 류례없는 식민지군사파쇼통치를 실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들이 압제와 기아, 극단한 무권리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세력사이의 대결이 첨예화되여 온 사회가 파쇼란무장, 인간생지옥으로 화하고있었다.

인민의 리익을 대변한다는 정계와 언론에서도 마땅히 구원의 손길을 뻗쳐야 할 재일동포들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하고있었다.

저주받을 일본땅에서 귀향을 고대하는 그 많은 재일동포들은 사실상 내버려진것이나 다름없는 신세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은 재일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커다란 고무, 희망찬 미래를 안겨주는 서한을 보내시였으니 이 사변적인 현실은 재일동포들의 심장마다에 커다란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었다.

일구월심 따뜻이 안아줄 품을 그리던 재일동포들의 마음

은 일시에 위대한 수령님께로 쏠렸다.

조련의 결성과 함께 첫출발을 뗀 재일조선인운동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고심참담한 나날을 보내던 한의장도 형언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당시 재일조선인운동앞에 당면하게 나선 동포들의 귀국사업은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포악무도한 파쇼통치와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정체상태에 처하여 재일동포들은 앞날에 대한 희망마저 잃고 피를 말리는 생활고에 시달리고있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일본에 끌려간 그 많은 조선사람들 대다수가 극빈자로서 거처할 곳도 의지할데도 없었으며 장래를 기약할수 없는 형편이였다.

그런데 귀국문제는 속절없는 일로 되게 되였으니 재일동포문제해결은 도대체 종잡을수가 없었다.

한의장을 비롯한 애국적인 활동가들의 출로문제에 대한 고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조선인운동의 휘황한 등대로 되는 귀중한 서한을 보내주심으로써 비로소 풀리게 되였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운명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신다는 신심과 락관을 안고 용기백배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과감히 밀고나갔다.

당시 재일조선인운동앞에 급선무로 나선 중차대한 과제는 동포들의 생활안정과 함께 그 자녀들의 교육문제해결이였다.

그것은 해방전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강요해온 《황국신민화》정책이 초래한 엄중한 후과로 하여 수많은 재일조선인들과 그 자녀들이 우리 말과 글을 모르는 문맹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였다.

조선을 강점한 직후부터 우리 인민에 대한 악랄한 《동화정책》을 실시해온 일제는 1930년대부터 조선사람을 민족성이 거세된 일본의 완전한 노예로 만들기 위한 범죄적기도로부터 《황국신민화》정책을 내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주지하다싶이 일제가 《황국신민화》정책에서 기본으로 삼은것은 《내선일체》, 《동조동근》이였는데 그것은 조선과 일본이 예로부터 《하나의 나라》, 《하나의 령토》였으며 조선민족과 일본족의 조상이 같았다는 허황하기 짝이 없는 랑설이였다.

여기에 기초하여 일제는 조선의 각지에 신궁과 신사를 짓고 그것을 《참배》하도록 하였으며 1937년부터는 《황국신민서사》라는 《맹세문》까지 조작하여 그것을 모든 조선사람들이 매일 아침 읽도록 강요하였다. 모든 서당과 학교들에서는 조선어교육을 철저히 금지시키고 일본말과 글을 배우도록 총칼로 내리먹였다.

나중에는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빼앗으려고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민족말살정책을 감행하여나섰다. 일제의 이러한 조선민족말살책동은 재일조선인들에게 더욱 우심하게 감행되였다.

일제의 책동으로 하여 재일동포들 특히 새세대들은 일본말이 어지럽게 귀전을 치는 일본의 환경속에서 자라면서 조선말과 글을 모르는 조선사람 아닌 《조선사람》으로 이질화될 위험에 직면해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재일동포들은 해방이 되자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후대들에 대한 민족교육의 불을 지폈다.

재일동포들은 자녀들이 우리 말과 글조차 배우지 못하면 장차 나라도 조상도 모르는 얼간이로 될수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치는 강습회들을 조직하였다. 개인주택과 공장건물의 빈 구석방이나 창고 같은것을 개조하여 교실로 리용하였으며 거기에 학부형들이 제손으로 만든 책상과 걸상, 칠판들을 들여다놓고 등사판으로 찍은 교과서로 강습회를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자그마한 서당격이였는데 그러한 강습회가 일본 도처에서 운영되였다.

1945년 9월에 도꾜도 한복판의 간다에서 어느한 회관건물을 리용하여 강습회가 조직되고 10월에 도꾜도 요도바시구에 도즈까한글학원이 세워진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를 전후하여 아라까와구에서는 학생수가 50～60명으로 되는 국어강습회가 열렸다. 이 아라까와구국어강습회가 모체로 되여 발전한것이 오늘날의 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이니 그 력사를 따지면 70여년을 헤아린다.

우리 조선민족은 이처럼 민족성이 강한 민족이다. 일제가

반만년의 력사를 거쳐 세상에 자랑할만한 민족의 얼과 전통을 지닌 우리 민족을 이지러질대로 이지러진 저들의 세계에로 동화시켜보겠다고 날뛰였으니 얼마나 황당한자들인가.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생존조차 이어가기 힘들던 때에 민족의 넋을 이어가려는 소중한 마음을 안고 야만적인 일제의 따귀를 치며 국어강습회를 운영한것이야말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곤난한 환경이다보니 불비한 점이 많았으나 처음으로 교정에서 자기 나라 말을 배우게 된 동포자녀들은 강습회에 다니는 것을 긍지롭게 여기면서 우리 말과 글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그러나 귀국의 길이 막힌 형편에서 교육사업은 이전과 같이 귀국을 기다리는 동안 몇달, 몇년간 말과 글이나 배워주는 한시적이고 초보적인 교육으로 그칠 일이 아니였다. 그런 식으로는 재일조선인들의 미래를 담보할수 없었다.

조련의 애국적인 활동가들은 국어강습회의 범위를 벗어나 민족교육사업을 정연한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전면적으로 벌릴 대담한 구상을 펼쳤다.

물론 당시의 환경과 조건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물러설수 없는 한의장이였다. 자기가 당한 학비를 댈수 없어 중학교 3학년에서 중퇴하지 않으면 안된 쓰라림, 반일의 과거행적때문에 일본대학 1학년에서 출학당하여 배움

의 꿈을 접지 않으면 안된 가슴아픔 같은것은 망국의 시절 이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 겪은 불행이였다.

하지만 이제 조선사람은 망국민이 아니라 당당한 해방민족인것이다. 그들에게는 배움의 권리가 있으며 모두의 가슴에 간직된 배움의 소망은 바로 우리들이 실현시켜주어야 한다.

한의장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조련에서 청년부장, 총무부장을 거쳐 문교국장을 하면서 학교설치, 교재편찬, 교원발굴 등 교육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을 맡아 수행하였다. 조련 제4차 전체대회에서는 의장단성원이 되여 민족교육사업을 주도해나갔다.

자녀들을 떳떳한 조선사람으로, 장차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할수 있는 인간으로 키워야 할 재일조선인민족교육의 요구에 부합되는 교육정책의 수립, 교육시설의 확장과 교육내용의 민주화, 정연한 교육체계의 확립 그리고 대중적인 기반에 토대한 교육재정의 확립과 일본의 진보적인 교육자들과의 련대성강화 등을 교육사업발전의 기본과제로 정하고 이 사업을 다같이 내밀었다.

우선 각지에 조직되였던 조선어강습회를 더욱 발전시켜 학교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조국개선연설사상에 기초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우리 학교를 세우자!》라는 구호밑에 동포군중을 여기에 궐기시켰다.

모든 재일조선동포들이 여기에 열렬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학교건설과 물질적보장사업에 발벗고 떨쳐나섰다.

고향에 돌아가기 위하여 한푼두푼 모아두었던 돈을 깡그리 바친 후꾸오까현의 아주머니, 60년동안 한순간도 몸에서 떼여놓은적이 없는 결혼반지와 비녀를 바친 교또의 할머니, 병상에 누운지 오래고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하나밖에 없던 외투를 팔아서 기부한 오사까의 지식인, 거액의 학교건설자금을 바친 가나가와현의 기업가, 나는 돈은 없지만 힘은 있다고 하면서 교사건설장에서 밤낮없이 애국의 땀을 바친 도쬬의 품팔이군, 이런 애국적인 소행자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애국애족의 열정으로 한마음한뜻이 된 우리 동포들의 희생적인 노력에 의하여 일본 각지에 조선학교가 세워졌지만 학교운영은 걸음걸음 순탄치 않았다. 눈물겨운 일도 많았다.

도쬬의 후꾸가와조선인소학교만 보아도 건립당시 교바시지구의 40여명, 도즈까지구의 30여명 등 학생들의 수가 188명이였는데 1시간이상 등교길을 달려야 하는 학생, 학습도구나 점심밥준비도 없이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나 가슴아픈 사정이 있었다.

이런 난관속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여야 했으니 그 정상이 어떠했으랴.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모진 고생을 이겨내며 민족교육

의 길을 개척하였다.

추운 겨울날 누데기홑옷에 엉치가 다 보이는 반바지를 입고 학교에 나온 두 형제학생의 정상을 보다못해 자기 옷을 뜯어 옷을 만들어준 녀교원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죽을 쑤어먹으면서도 가장집물을 팔아 교원들의 생활비를 보장하느라 애쓴 교장도 있었다. 이런 눈물겨운 이야기들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사의 페지에 수없이 남아있다.

학부형들은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아이들이 조선말을 배우며 의젓하게 자라나는것을 보고 기쁨을 금치 못하며 교원들을 《우리 조선학교선생님》이라고 정담아 부르면서 학교사업을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섰다.

이것이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힘과 마음을 합쳐 동포사회의 미래를 개척해나간 그 시대 재일동포들의 모습이다.

학교교육이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한의장은 상, 중, 하의 3년제로 운영하던 소학교학제를 6년제로 개편하고 과목도 조선말, 조선력사를 포함하여 초등교육의 전반과목들을 배워주도록 문교국사업을 지도하였다.

초등학교교육체계가 체모를 갖추어가자 중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먼저 도꾜에 조선인중학교를 처음 내왔으며 그 후 오사까를 비롯한 지방도시들에로 중학교건설을 확대해나갔다.

조선인학교 교원과 조선인단체 교원양성을 위한 청년학교(청

년학원)도 건설, 운영하였다.

련맹중앙본부 문화부에는 교재편집위원회를 내오고 조선인학교교과서를 전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교과서편찬과 출판사업을 적극 벌려 1948년 4월까지만 해도 92종에 100만부의 교과서를 비롯한 교재들이 각지 조선인학교 학생들에게 배포되도록 하였다.

한편 학교건설과 운영, 교원발굴과 양성, 학생교양 및 후원 등 교육사업의 각 분야별로 조선인학교관리조합과 재일본조선인교육자동맹, 학부형위원회와 같은 후원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한의장을 비롯한 조련의 활동가들과 재일동포들의 고심참담한 노력으로 1948년에 이르러 전 일본판도에 세워진 학교수는 606개(초등학교는 566개, 중등학교는 7개, 청년학교는 33개), 학생수는 58 100명, 교원은 1 460명에 달하였다.

전체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지성으로 이처럼 도처에 조선인학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민족교육이 정연한 체계를 갖추고 발전한것은 해방후 불과 2~3년사이였다.

당시까지 참담한 패망의 후과를 수습하기에 여념이 없던 일본반동당국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이 이처럼 장성하자 덴겁하여 그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광풍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이미 1946년 12월 10일 도쬬조선인중학교습격으로 일본땅

에서 조선인학교운영을 허용할수 없다는 배타적심보를 드러낸 일본반동당국은 1948년 1월 24일 일본문부성 학교교육국장 명의로 각 도, 도, 부, 현지사들에게 조선인설립학교의 취급에 관한 지령을 하달하였다.

그것을 요약하면 재일조선인은 일본법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의무교육은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조선인학교의 건립은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교과서, 교과서내용 등에 대하여서도 《학교교육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조선말 등의 교육은 과외에만 집행하는것이 허용된다는 등등의 금지조항뿐이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지금까지 푼푼이 모아 힘들게 일떠세운 조선인학교를 모두 철거하라는것이며 민족교육을 하지 말라는것이였다.

이것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교육권리에 대한 악랄한 유린이였다.

매개 인간은 민족이라는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만 존재를 유지하고 삶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민족의 넋과 조국애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그 매개자인 언어는 민족교육으로 습득되는것이다. 따라서 민족교육을 금지하는것은 개개인에게서 민족성을 거세하는 행위이며 나아가서 민족말살책동으로 되는것이다.

일본문부성의 지령은 조련과 재일조선인들의 격분을 극도

로 야기시켰다.

한의장은 이 문제를 즉시 의장단회의에 상정시키고 진지한 협의끝에 단호한 반격을 가할데 대한 합의를 본데 기초하여 공세적인 대책을 세웠다.

그에 따라 도꾜에서는 3월 6일 학부형들이 모임을 열고 조선인교육은 조선사람들의 자주성에 맡기며 일본정부는 조선인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할뿐만 아니라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3개 항으로 된 요구서를 작성하여 문부성에 제출하였다.

3월 24일에는 전 일본판도를 포괄하는 재일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가 조직되고 거기서 조선인학교에서 교육용어는 조선어로 하며 교과서편찬과 학교관리운영을 자체로 한다는 등의 4개 조항으로 된 항의각서를 채택하고 한의장이 직접 일본총리를 찾아가 들이대였다.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일본의 진보적인 정치인들과 각계 인사들속에서 지지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활동에 힘을 넣으면서 쏘련, 미국, 영국, 중국 4개국으로 구성된 대일리사회의 각국 대표들에게 대표들을 파견하여 엄중한 사태를 통보하고 해당한 대책을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반동당국은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제의를 전면 거부하고 저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고집하였다.

일본당국이 이처럼 뻣뻣하게 나오는것은 일본의 전후처리를 담당한 일본점령 미군총사령부가 딴 속내를 가지고 일본당국의

편역을 들고나서는데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범한 전대미문의 죄악을 따지고 그 후과를 청산해야 할 책임을 국제사회로부터 떠맡은 미국은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에 배치되게 재일조선인문제에 대하여 일본당국과 같은 립장을 취하고있었던것이다.

그것은 미군정당국이 재일조선인들에게 고한다면서 1948년 4월 23일에 낸 《조선인학교에 관한 도꾜군정부 발표》를 놓고봐도 명백하다.

여기서 미군정당국은 재일조선인민족교육을 옹호하는듯이 요사를 떨고는 저들의 음흉한 본새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일본에 남아있는 모든 조선사람은 모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해당한 지방의 모든 법률 및 규칙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미군정의 발표가 있은 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오사까와 효고를 비롯한 지방당국들에서 《조선인학교 폐쇄령》을 내렸다.

조련은 의장단회의를 열고 사태의 긴급성에 맞게 즉시 대중적인 항의집회들을 벌리도록 하였다.

4월 23일에 오사까부에서는 이꾸노구, 후세시 등을 중심으로 동포대중 약 1만 5 000명이 모여 《학교폐쇄령》을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이에 당황한 오사까부당국이 경찰무력을 투입하여 폭력란동을 벌렸지만 투쟁은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였다.

효고현에서는 4월 24일 이른아침 3만여명의 동포들이 떨쳐나 인민대회를 가지고 대표들을 파견하여 현지사와 담판을 벌려 《학교폐쇄령》의 철회를 비롯하여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냈다.

이렇게 되자 일본점령 미군총사령부는 《학교폐쇄령》의 철회를 무효로 선포하고 4월 25일 새벽에 갑자기 미8군사령관의 명의로 된 포고를 발표하여 고베지구에 전후 최초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미군과 일본무장경관 수천명을 내몰아 조선동포들에 대한 류혈탄압을 감행하였다.

미헌병대와 일본경찰들의 대검거를 동반한 야만적인 폭력행위로 고베와 교또, 오사까 등지에서만도 1 840명의 조선동포들이 체포되고 수많은 부상자가 났으며 이 과정에 학교를 지키기 위하여 나섰던 16살 난 김태일소년이 머리에 총탄을 맞고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다.

하지만 미일반동들은 세상을 경악케 하는 총칼탄압으로써도 교육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잠재울수 없었다.

탄압이 강화될수록 재일동포들은 결사의 의지로 더욱 굳게 단결하여 맞서싸웠다.

그들은 피와 땀으로 일떠세운 우리 학교를 절대로 빼앗길수 없고 재일조선인들의 장래를 망칠수 없다는 의지밑에

한사람같이 투쟁에 떨쳐나섰다. 우리 동포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남녀로소 할것없이 민족교육사수를 부르짖었다. 투쟁으로 날이 저물고 새날이 밝았다.

재일조선인들의 10여일에 걸친 완강한 대중적투쟁에 더는 뻗칠수 없게 된 일본당국은 5월 5일 우리 동포들의 요구조건을 인정하는 각서를 재일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와 교환하지 않을수 없었다.

각서를 통하여 일본당국은 조선사람으로서의 독자적인 교육을 인정한다는것을 전제로 하여 사립학교인가를 신청할데 대하여 승낙하였다.

이것이 재일조선인운동의 갈피에 자랑스러운 승리의 기록을 새긴 4.24교육투쟁이다.

4.24교육투쟁은 세계해외교포교육투쟁사에 전무후무한 교육권리옹호투쟁이였으며 전 동포적인 정의의 힘으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 자랑스러운 투쟁이였다.

일본당국이 재일조선인들의 희생적이고 완강한 투쟁에 굴복하였지만 그것이 재일조선인들의 교육권리에 대한 최종적인 인정을 의미하는것은 아니였다.

한의장은 4.24교육투쟁의 나날을 돌이켜보며 김태일소년을 비롯한 애국적인 청소년학생들과 동포들이 피와 생명으로 지킨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를 끝까지 옹호고수할 결심을 굳게 가다듬었다.

북이냐 남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조국해방후 재일동포사회의 정치정세도 복잡하였다.

그것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초래된 나라의 분렬위기의 반영이였다.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력사적인 조국해방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당, 건국, 건군위업을 이끄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침략적기도를 꿰뚫어보시고 전 조선적인 통일독립국가건설의 기치를 높이 드시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되여 독립되고 번영하는 나라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기를 갈망하던 전체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로선에 민족의 살길이 있기에 그 애국적호소에 열렬히 호응하여나섰다.

하지만 《해방자》의 탈을 쓴 미제와 그의 비호밑에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리승만일당은 그곳에서 악랄한 식민지파쇼통치를 실시하는 한편 전 조선적인 통일국가창건을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도전해나섰다.

반만년의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하나의 피줄과 언어를 가지고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겨레는 꿈에도 민족의 분렬을

원치 않았다.

하기에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리승만도당의 《단선단정》정책은 남조선인민들의 격렬한 항거를 불러일으켰으며 전반적민심은 전 조선적인 통일독립국가건설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북조선에로 쏠렸다.

물론 재일동포전체가 북조선에 마음을 둔것은 아니였다. 조련 상층부에도 《고향선택이 최선》이니, 《부르죠아공화국》이니 하면서 분렬을 조장하며 정치로선을 변경시키려는자들이 있었다.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사촉을 받는자들, 리승만일당의 꾀임에 넘어간자들의 준동은 중요한 계기마다 계속되였다.

한의장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어떻든 추호의 흔들림없이 애국의 길에 나설 때의 초심대로 위대한 수령님만을 따랐다.

1948년초에 있은 조련 제13차 중앙위원회때였다. 회의에서 서기장으로 있던 사람이 조련의 정치로선을 변경할 의도를 가지고 돌연 《영국식사회주의》를 운운하였다. 당시는 서울에서 《좌우합작론》이 대두하고있을 때였는데 그 일본판을 시도하면서 일부 추종자들과 야합하여 조련을 우경화하려고 접어들었던것이다. 본질은 북조선정부를 따르고 옹호할데 대한 조련의 정치로선에서 핵을 거세하자는것이였다.

이것은 한의장에게 있어서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정치적도

발이였다.

조련의 정치로선문제는 조련과 재일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못하고 딴길을 가느냐 하는 운명적인 문제였다. 이 심각한 로선대립에서 타협하거나 우를 범하면 100만재일동포들의 운명을 망치는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한의장은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을 간파하고 즉시에 그 반동성과 위험성을 신랄히 발가놓아 종파적론쟁을 초전에 묵살해버렸으며 조직적인 의사를 모아 결단코 서기장을 해임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진정한 애국자가 간직한 혁명적신념의 진가는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민족적책임앞에서 추호의 흔들림을 모르는 확고부동성, 어려운 시기에도 한본새이고 바로놓아도, 엎어놓아도 한결같은 견결성에 있다.

한의장이 아직은 한번 만나뵈온적도 없는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른것은 실로 애국적인 선택이였다.

당시 전 조선적인 판도에서 볼 때에는 역시 민주주의민족통일정부의 수립문제가 초미의 과제였다.

그러나 전 조선을 지배하려는 침략적야망에 사로잡힌 미제는 북조선에 전체 인민의 지지를 받는 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여 저들의 기도를 실현할수 없게 되자 《분렬하여 통치하

라.》는 식민지통치론에 따라 남조선에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1945년에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 쏘미공동위원회를 불순한 기도밑에 파탄시키고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총회에 끌고간 미국은 우리 나라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저들의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라는것을 꾸며낸데 기초하여 《단선단정》조작책동에 달라붙고있었다.

우리 나라를 인위적으로 분렬시키기 위한 미제의 책동으로 민족통일정부수립을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게 되였다.

나라에 드리운 민족분렬의 비운을 가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망국적인 5.10단선을 파탄시키고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모아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남북련석회의소집을 제안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를 포괄하는 전 조선의 진보적인 인사들과 애국적인 인민들이 이 정당하고 시기적절한 제안을 한결같이 지지찬동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한의장은 남북련석회의소집제안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 의장단회의의 소집을 제의하여 4월남북련석회의에 파견할 대표선발문제와 미제와 남조선친미세력의 5.10단선반대투쟁을 폭넓고 강도높이 전개할데 대한 제안을 토의결정하였다. 회의

후 신문, 통신을 비롯한 언론수단들과 전 동포적인 시위 등을 통하여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민족적인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민족내부에서 통일정부수립열망이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 1948년 4월 평양에서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1 000여만명의 당원과 맹원을 가진 북남조선의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95명이 참가한 회의에는 중간정당대표들과 일부 우익민족주의자들도 참가하였으니 그야말로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는 대회합이였다. 이 력사적인 회합에 조련대표도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중대한 구국대책이 토의결정되였다. 결정서와 격문을 통하여 조선인민은 남조선에서 단독선거에 의하여 조작되는 《단독정부》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진정한 통일정부를 세울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으며 전체 조선인민이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조국땅에 진정한 인민의 정부가 수립될것을 바라는 조련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안고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대표를 통하여 회의소식을 전해들으며 한의장은 《지

독한 반공분자》였던 김구까지도 련공애국에로 인생전환을 하게 한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애국의지와 비범한 경륜, 위인적풍모에 더욱 감복하였다. 그럴수록 한시바삐 쪽배를 타고라도 동해바다 황파를 헤쳐 수령님을 만나뵙고싶은 불같은 마음에 온몸이 달아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그 열망으로 심장을 끓이며 조련을 발동하여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렸으며 통일정부수립을 지지하는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기에 날이 가는줄 모르고 일하였다.

낮에는 낮대로 조련의 사업을 조직하고 각 단위들의 투쟁을 지휘하느라 점심을 건늘 때가 드문하였으며 밤에는 밤대로 신문에 낼 글들과 회의문건들을 검토하기에 잠을 설치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그는 왕성한 정력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드디여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헌법초안을 토의하는 조련 제14차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이름할수 없는 감격과 환희가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고루한 봉건시대의 왕권통치와 일제의 포악한 식민지총독정치, 반인륜적인 민족배타주의적파쑈폭압하에서 압제의 대상으로만 되여온 사람들이 진정한 인민의 나라, 자기들의 참다운 모국인 새 조선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제정하는 민족

사적대업에 참가하게 되였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연단에 나선 사람들은 누구나 헌법초안의 인민적성격과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조문들, 나라와 민족의 통일독립과 번영을 담보하는 제반 내용들에 한결같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열렬히 지지환영하였다.

회의장이 애국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속에 한의장이 연단에 나섰다.

원래 과묵한 성미이지만 일단 시위현장이나 동포들속에 들어가면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달변가답지 않게 이날은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오늘은 이역땅에서 버림받던 우리가 새 민주조선건설의 희열을 맛보는 경사의 날입니다. 나라의 법을 만든다는것은 짓밟히던 우리가 주권자가 되였다는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줄 위대한 모국이 일떠선다는것을 말합니다. 오늘로써 식민지시절과 잇닿은 어제는 영영 물러갈것입니다. 오늘로써 우리에게는 희망찬 래일이 약속되게 됩니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오늘의 경사를 안아오시였습니다. 전체 조선인민과 우리 재일동포들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장군님 만세!…》

온 회의장이 열광하는 가운데 한의장의 가슴도 흥분으로 높뛰고 눈가에는 이슬이 맺히였다.

그는 나라없는 설음을 어느 누구 못지 않게 가슴에 피절

도록 체험해온 사람이였다. 그가 부디 고행을 택하고 재일조선인들의 운명을 스스로 걸머지고 나선것도 그때문이였다.

그러나 이 시각 조국해방과 함께 민족사에 또 하나의 큰 획이 그어지고있었던것이다. 그는 감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였다.

오늘로써 일소될 어제의 나날들, 총독부말뚝때문에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하고 학비를 대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나던 고향에 대한 아픈 추억, 3.1운동가담자로 일본대학에서 출학당하고 단나턴넬공사장에서 《치안문란죄》로 감옥에 갇혀 몸이 부서지도록 몽둥이찜질을 당하던 피비린 고통이며 4.24교육투쟁현장에서 파쇼경찰의 총에 맞고 애젊은 나이에 이역땅에 묻힌 김태일소년의 참상 등 가지가지의 가슴허비는 사연들이 연단에 선 한의장의 뇌리에서 영화화면처럼 흘러갔으리라.

회의에서 그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을 다시금 새긴 한의장은 신들메를 조여매고 애국애족의 길을 다그쳤다.

인민의 열망과 노력은 력사의 견인기라고 한다.

드디여 3천만 조선인민이 그처럼 오매불망 바라던 날이 왔다.

1948년 9월 9일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우고 하루빨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비등된 정치적열의와 애국의 열정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북과 남, 해외에서 거족적으로 진행된 북남총선거의 승리에 토대하여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를 소집하시고 회의장의 높은 연단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진정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으로,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하였으며 전인민적토의를 거쳐 일치한 지지와 찬동을 받은 공화국헌법을 채택하였다.

온 나라가 유사이래 있어보지 못한 대경사에 열광하였다.

일본땅에서 그 력사적인 소식을 접한 재일동포사회의 격정과 환희는 더 이를데없었다. 만나는 동포들마다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웃으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고 마을마다 골목마다에서는 각양각색의 조선치마저고리가 너울거리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졌다.

대회소식을 들은 한의장은 의자를 차고 일어나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우리 나라에 통일적인 중앙정부가 탄생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가수반으로 추대되신것은 누구에게나 희한한 소식이였지만 그에 대한 한의장의 감회는 남다른것이였다.

천리밖이 손금보듯 환히 보이는것같았고 무엇이든 못해낼

일이 없을것같은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이 용솟음치는것 같았다.

한의장은 얼굴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웃고 떠드는 의장단성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말을 떼였다.

요점은 시급히 9월 9일의 경사를 경축하는 대회를 전 동포적인 범위에서 크게 열자는것이였다. 한의장의 제의는 모두의 찬동을 받았고 즉시 필요한 조직사업이 취해졌다.

그 시각부터 시간이 드바쁘게 흘러갔다.

조련의 각급 단위와 전 동포들이 조련중앙의 제의에 호응하여 동포사회가 흥성이는 속에 곳곳에 공화국기가 게양되고 행사준비가 추진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통일적인 중앙정부창립을 아니꼽게 여기던 미국과 일본당국은 그 여파가 일본땅에 미쳐와 재일동포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지자 점령군총사령부 지령과 긴급무전지시 《북선기의 게양금지에 관한 국가지방경찰본부장관 통첩》 등을 내려 공화국창건을 지지경축하는 재일조선인들의 애국적 열의를 눅잦혀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10월 15일 조련이 공화국기를 회의장정면에 걸어놓고 제5차 전체대회를 열자 수백명의 무장경관들을 동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대회를 파탄시키려고 발광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놀음으로 당당한 주권국가의 해외공민된 재일조선인들의 애국적의지와 열정을 짓밟을수 없었다. 조련

제5차 전체대회는 공화국창건을 열렬히 축하하는 하나의 커다란 경축의 마당으로 화하여 도꾜일판을 들썩이게 하였다.

경축행사는 가나가와에서 특색있게 진행되였다. 이곳에서는 경축대회를 요꼬하마시의 노게공원에서 성대하게 열었을뿐 아니라 자동차행진도 크게 진행하여 자기의 주권을 가진 동포들의 감격과 기쁨을 한껏 터치였다.

하지만 그 준비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자동차행진에 필요한 화물자동차들은 수소문하여 많이 빌려왔는데 휘발유가 문제였다.

당시 휘발유, 석유는 모두 미군이 독차지하고 배급제를 실시하고있었다. 현본부에서는 대표들을 이세자끼쪼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8군사령부에 파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경축하여 자동차행진을 해야겠는데 휘발유를 내라고 들이대였다.

가뜩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미군측이 그 요구를 들어줄리 만무하였다. 미군측은 《공화국을 경축할것이 아니라 <한국>창건을 축하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기름을 주겠다. 일본에 있는 기름만으로 부족하다면 본국에서 가져와서라도 대주겠다.》고 시까스르는것이였다.

대표들은 그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 그리고는 가나가와의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휘발유를 구해들이고 대회를 가졌는데 1만명이 넘는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말그대로 장관이였다.

경축대회를 마친 후 대형공화국기들을 자동차에 꽂고 많은 동포들이 다마가와까지 자동차로 왕복하면서 기세충천하여 행진을 하였다. 그것은 공화국창건에 대한 일대 시위였다.

10월 17일에는 도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축하하는 중앙경축대회가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당당하게 공화국기를 게시하고 진행된 대회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과 생활의 기치로 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여 재일동포들에게 당당한 주권국가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밝은 미래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전체 재일조선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삼가 감사를 드리였다. 이어 열렬한 축하토론들이 진행되고 환희로운 축하공연과 무도회가 펼쳐져 온 시내를 명절분위기로 들썩이게 하였다.

당시 9.9절경축모임은 우리 동포들이 사는 곳마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는데 정식으로 열린 경축대회에만도 11만 8 00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동포들에게 있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은 존엄높은 삶에 대한 축복이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펼쳐준 력사적인 사변이였던것이다.

동포사회를 환희와 애국열기로 뜨겁게 달군 경축분위기는 잠들줄도, 꺼질줄도 몰랐다.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힘과 용기가 용솟는 법이다.

제 2 장
운명의 등대따라

1.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 94

력사적인 1948년, 그 환희의 겨울날에 94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107

60만의 운명에 비친 광망 125

《이것은 **김일성**장군님의 뜻이요!》 137

2. 애국의 항로에 돛을 달고 157

그날은 1955년 5월 25일이였다 157

진정한 해외교포조직으로 170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하여 184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204

재일조선인운동의 간고한 력사에는 풍파사나운 일본땅에서 자기의 옳바른 진로를 찾기 위해 애국위업의 선각자들이 뿌린 붉은 선혈과 험로역경을 헤쳐온 나날의 만단사연들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일본반동들의 백색테로가 횡행하고 사이비《혁명가》, 《운동가》들이 《혁명》을 부르짖으며 동포들을 무모한 죽음에로 내몰던 험악한 정세하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기로의 갈림길에 직면한 때는 재일조선인애국자들에게 있어서 정녕 피방울이 타고 심장이 천만갈래로 찢어지는 운명의 시각이였다.

그 재난의 파도속에서 정처없이 방황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애국위업의 새로운 력사를 펼치며 한덕수의장이 심장에 쪼아박은 진리는 과연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을 따를 때에만이 재일동포들의 참다운 삶과 행복도, 찬란한 미래도 있다는 금옥같은 철리이다.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가 애국위업의 승리의 기치이고 해외교포들의 운명의 등대이라는 력사의 확증이였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화의 불길속에서 재일동포들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운명문제를 위해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며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여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의 탁류에서 헤매이던 재일조선인운동을 애국의 궤도우에 올려세워주시고 탁월한 령도로 애국위업의 휘황한

미래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진정한 개척자이시고 영명한 령도자이시였다. 전체 재일동포들의 고마운 은인이시고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삶의 태양이시였다.

수령이 위대하면 조국도 위대하고 해외교포들의 운명도 빛나게 된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체득하였기에 한덕수의장은 위대한 수령님께 재일조선인운동과 동포들의 운명을 맡기고 주저없이 충성과 의리의 천만리길을 걸을수 있었던 것이다.

1.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

력사적인 1948년, 그 환희의 겨울날에

사위는 어둠에 잠기고 파도는 무섭게 사품쳤다.

교또가까이에 있는 마이즈루항을 떠나 갓무리지마, 꾸즈지마를 지난지도 퍼그나 시간이 흘러서야 한의장은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

마이즈루항앞바다는 해방직후에 일어난 《우끼시마마루》 폭침사건의 원혼들이 잠 못드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배길은 일본주둔 미군정당국의 출입국승인이 없이 공화국으로 가는 《비법도항》이였던것이다.

공화국창건을 계기로 온 겨레가 환희에 휩싸여있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련에 국제전보를 보내시여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재일조선인경축단을 친히 조국으로 불러주시였다.

지난날 나라잃은 설음에 울며 피눈물나는 이역살이로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찢기며 살아온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공화국의 창건은 그것만으로도 평생의 한이 순간에 풀리는것같은 대행운이였다.

그런데 복은 쌍으로 온다고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경축단

까지 불러주시다니!

경사에 경사를 접한 조련과 동포들은 너무 기뻐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조련에서는 거듭되는 협의끝에 100여명의 대표들로 경축단을 구성하여 조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대표단성원들을 선출하였으며 그 명단과 함께 출입국신청을 일본에 대한 실제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있는 일본점령 미군총사령부에 냈다.

하지만 애초부터 재일조선인들을 이물처럼 여겨왔을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는 미군정당국은 그 정당한 신청을 무지막지하게 부결해버렸다.

조련의 애국적인 활동가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는 공화국방문이 미군정당국이 부결한다고 해서 단념할 일이 아니였다.

일찍부터 만고의 령장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싶은 열망을 가슴에 품고있은것은 물론 공화국창건과 함께 재일조선인운동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진로문제에 대한 고민에 모대겨온 한의장에게는 백사만사를 불문하고 또 어떤 수를 써서든 기어이 실현해야 할 중대사중의 중대사였다.

하루한시가 애타는 바재임속에 흘렀다.

매일 의장단성원들이 모여 머리를 짜냈으나 신통한 수가 나지지 않았다.

때없이 동포들과 함께 도꾜역사앞에 있는 미군정당국에 몰

려가 항의와 진정운동을 벌려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의지로 걷는 걸음에는 길이 나지기마련이다.

며칠간 이상한 거동을 보여온 한의장이 어느날 덤덤하니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런 표정뒤에는 늘 성취의 기쁜 마음이 숨어있는 그였다.

《이렇게 합시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뗐다. 그에 의하면 경축단을 합법적으로 조국에 보낼수 없는 조건에서 쪽배로 가며 경축단성원도 젊은 사람으로 선발하되 예닐곱명정도를 초과할수 없다는것, 자그마한 어선은 이미 마련해놓았으며 경축단은 자기가 책임지고 가겠다는것이였다.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졌다. 100명으로 예견했던 경축단을 예닐곱명으로 한다는것도 뜻밖이지만 쪽배로 수천리 날바다를 건는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잘못하면 목숨을 내대야 했다.

하지만 다른 수가 없었다. 론의는 그 방안을 고르는데로 이어졌고 한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단이 확정되였다.

그러다보니 공화국이 창건된 력사의 날로부터 퍼그나 지나서야 경축단이 일본을 출발하게 되였다.

이렇게 떠난 공화국방문길이였다.

한의장은 사품치는 바다멀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서 두번째로 건느는 동해였다.

여물지 않은 뜻을 운명의 돛처럼 달고 부산항을 떠나올 때는 갈래많은 인생길을 정처없이 바라보며 운명에 이끌려왔다면 21년만의 도항은 재일조선인운동에 온넋을 맡기고 삶의 태양을 찾아가는 활력에 넘친 길이였다.

문득 고향생각이 간절해졌다. 철들어 떠난 고향을 마흔이 넘도록 가보지 못했으니 어찌 부모생각이 갈마들지 않으랴. 더우기 21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귀국행의 목적지는 아버지가 계시는 남이 아니라 북이였다.

고향을 다녀오는 사람들을 통해 아버지가 별고없이 지낸다는 소식은 전해듣군 하였으나 사진 한장 주고받지 못하였으니 우연히 어디서 만나도 남남처럼 지나칠 정도였다.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래저래 일이 그렇게 되였다.

누가 나라위한 큰일을 하는것이 효성의 절정이라고 하였던가.

한의장은 죄스러움을 담아 마음속으로 빌었다.

정은 가슴에 묻고 뜻의 길을 가는 자기를 제발 리해해주시기를, 상봉의 날까지 부디 건강하시기를…

그는 아래입술을 깨물며 눈먼 고향이 효자노릇한다는 옛날 속담을 위안삼아 되뇌였다.

순간 자기가 불효자라는 죄책감인지, 날바다에 뜬 가랑잎같은 쪽배의 요동이 일으키는 멀미인지 알수 없는 세찬 치받침이 흉곽을 쳤다.

어느덧 날이 희붐히 밝아왔다. 배길은 아직 멀었으나 한의장에게는 조국땅이 보이는듯하였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면서 환희로운 기운이 온몸에 퍼져갔다.

멀리 조국의 하늘가를 바라보느라니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감격적인 상봉의 순간이 련상되고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얼마나 갈망해온 조국방문인가!

얼마나 만나뵙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이신가!

한편으로는 혹시나하는 생각에 조바심이 났다.

공화국창건경축행사가 진행된지도 퍼그나 날자가 지난터였고 건국대업을 이룩하시여 드바쁜 나날을 보내실 장군님께서 자기들을 만나주실 시간이 있겠는가 하는 위구심이 갈마들었던것이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것같았다.

한의장의 기색에서 무엇을 알아챘는지 재일조선교원동맹 위원장으로 경축단에 망라된 리진규가 다가와 간절한 어조로 말하였다.

《의장동지, 우리가 이번에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게 될가요?》

《믿어야지. 부득이하게 만나뵙지 못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가르치심은 받게 될거야. 마음을 놓으라구. 우리가 장군님의 초청으로 공화국땅을 밟아 건국의 대경사를 축하한다는것만

도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렇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마음속 한끝에는 여전히 불안이 맺혀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미심쩍은 생각은 력사적인 조국행이 가져다주는 산같은 기쁨을 흐려놓을수 없었다.

조국애에 불타는 60만동포들의
붉고붉은 그 마음 이 한몸에 안고서
조국으로 가는 길 성스러운 이 길
걸음걸음 힘을 넣어 떳떳이 걷노라
아아 쪼각배야 력사의 이 배야
겨울물결 헤치고 빨리빨리 달려라
바다너머 저 멀리 그리운 조국땅에
포근히 안아주실 수령님이 계신다

뭇별들이 반짝이는 조국하늘가를 바라보며 한의장이 읊는 시구절이 그의 마음과 함께 파도에 실려가고있었다.

…

꿈같은 시간이 흐르고있었다.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재일조선인경축단이 자그마한 어선을 타고 조국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쁘신 일정을 미루신채 경축단성원들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는 순간 한의장은 그사이 금싸래기 고르듯 골라온 인사말조차 변변히 올리지 못하고 굳어져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감격하고 모든것이 너무도 놀라와 그 자리에 못박혀있는 한의장과 경축단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친히 자리까지 권하시였다. 경축단성원들의 격동된 마음을 풀어주시려는듯 정깊은 어조로 안부며 생활형편이며를 알아보신 수령님께서는 한의장에게 조련의 실태와 투쟁정형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그는 수령님의 물으심에 상세한 대답을 드리였다.

일제시기 단나의 고역장에서 노역적인 부림에 시달리다가 뜻밖에 해방을 맞이하여 환희에 넘쳐 조련을 결성하던 이야기로부터 동포들의 귀국보장을 위해 투쟁하던 나날의 사연들, 국어강습소를 내오고 동포자녀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친 사실들과 전 동포적인 투쟁으로 미제와 일본당국의 민족교육탄압책동을 짓부시고 교육권리를 지켜낸 4.24교육투쟁에 이르기까지 가슴아픈 회억을 되살리며 말씀드리는 한의장의 얼굴은 상기되여있었다.

심중한 안색으로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슴아프신듯 창문가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과거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그때 많은 조선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정든 고향산천과 리별하고 해외로 떠나갔는데 그들의 처지는 말할수 없이 비참하였다. 남의 나라에서 당하는 망국노의 설음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가 하는것을 나도 직접 체험해보아서 잘 알고있다. 내가 어린시절부터 나라찾는 길에 나서게 된데는 아마 이러한 생활체험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재일조선동포들도 가장 비참한 력사의 수난자들이였다.

잠시 말씀을 끊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의장일행을 둘러보시며 재일조선동포들은 과거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에 조국을 빼앗긴 망국민족으로 이국땅에 끌려가서 온갖 멸시와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오늘은 재일조선동포들이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 되였다, 재일조선동포들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 공화국정부주위에 굳게 뭉쳐야 하며 자주독립국가 해외공민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아, 정녕 수령님은 위대한분이시구나!

한의장은 온몸으로 경탄하고있었다.

수십년간 일본에서 당한 그 모진 학대로 응어리진 마음이 봄날의 눈석이마냥 순간에 녹아내리는것같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격에 겨워하는 한의장과 경축단성원들을 자애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며 재일조선동포들이 공화국

의 공민다운 정신과 풍모를 지니고 공화국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며 공화국정부의 시책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활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새세대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잘하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재일조선인애국자들이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나서는 제반 과업들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방도들에 대하여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받아안은 한의장의 가슴은 온 우주를 안은듯하였다. 그는 격동된 마음을 안고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투쟁할 결심을 거듭 말씀드리였다.

담화를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의장의 손을 꼭 잡고 건강하라고, 건강하여 애국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시며 현관밖에까지 나오시여 바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환송을 받으며 숙소로 돌아오는 한의장은 너무도 크나큰것을 받아안은 격정에 어리벙벙하였다. 자기가 위대한 수령님께 작별인사나 변변히 올렸는지조차 알수 없었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수첩을 꺼내들고 수령님의 교시내용을 한구절한구절 되새겨보았다.

음미해볼수록 정당한 가르치심이였고 확신이 들수록 눈앞

이 트이는것같았다.

창밖에서는 한겨울의 찬바람이 눈보라를 일으키며 기승을 부리고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했다.

오매불망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성취의 기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진로가 명시된 천금같은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환희, 방문기간 숙소는 물론 이르는 곳마다에서 국빈대우를 받으며 페부에 새겨진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 그 모든것이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꿈같은것이였다.

하다면 한의장이 누구나 쉽게 오를수 없는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 세상을 굽어보는것과 같은 행운을 지닌것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인생길에는 지름길도 있고 에돌아가는 길도 있다. 일구월심 스승을 찾는 사람은 지름길을 걷게 되는 법이다.

한의장은 일제에게 나라가 짓밟힌 암흑의 그 시절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자신과 겨레의 운명을 구원해줄 구세주, 위대한 스승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도 같이 수령님을 따랐다.

주체26(1937)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조직령도하신 보천보전투소식을 접한 후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만신창이 된 몸으로 결단코 단행하였던 백두산행, 그 거사는 비록 아쉽게도 실패하였지만 그날의 가실수 없는 아쉬움은 한의장으로 하여금 수령님께로 달리는 마음을 더욱 배가해주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실현된 오늘 그는 애국을 하고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지닐수 있는 최상의것을 받아안게 되였고 자기의 민족적인 리상을 실현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되였다.

지금껏 돛대없는 배와 같이 갖은 풍파에 시달리던 재일조선인운동이 이제는 확실한 자기의 키를 가지고 망망대해도 두려움없이 전진하게 되였으며 조국은 해방되였어도 귀국길조차 막혀 민족배타주의의 갖은 행패를 다 당하며 생명부지에 모지름을 써야 했던 재일동포들이 운명의 태양의 은혜로운 손길을 잡고 가슴펴고 살게 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더없이 소중한것이였다.

한의장은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충성의 결의를 아뢰였다.

《장군님! 제 한몸이 부서지는한이 있어도 기어이 장군님의 뜻대로 싸워 일본땅에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리며 동포들이 공화국의 해외공민답게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장은 떠나고싶지 않은 위대한 수령님 계시는 조국을 이런 철석같은 맹세를 안고 떠나왔다.

한의장일행이 공화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돌아왔다는 소식은 날개라도 달린듯이 삽시에 동포들이 사는 일본땅 곳곳으로 퍼져갔다.

조련의 애국적인 활동가들과 동포들은 누구나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고 한의장이 있는 조련사무실은 련일 조국방문소식을 알고싶어 찾는 사람들로 조용할 때가 없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들의 궁금증을 덜어주는것도 헐한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그것을 끈 동포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주고 삶의 활력과 투쟁의지를 북돋아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한의장은 찾아오는 매 사람들을 정히 맞이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와 그이께서 주신 가르치심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데 시간과 품을 아끼지 않았다.

밤에는 밤대로 회의준비로 바빴다.

그는 이번 기회에 조련의 성격을 성돌처럼 굳건히 할 잡도리였다.

1949년 2월 조련 제17차 중앙위원회가 열리였다. 회의장정면에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진행된 회의에서는 수령님께서 경축단성원들에게 주신 교시를 받들어나가기 위한 의제를 위주로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을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축단의 공화국방문정형에 대한 보고에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축단성원들에게 주신 교시가 정중히 전달되였다.

모든 재일조선동포들이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나갈데 대한 사상을 핵으로 하여 재일

조선인운동의 진로를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경축단이 국빈대우를 받으며 새 조국건설로 들끓는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을 목격한 감회를 토로한 보고는 만장의 대환영과 폭풍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회의에서는 전체 우리 동포들의 의사를 담아 오직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만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며 재일조선동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기들의 참다운 조국으로 인정한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또한 조련의 공문을 비롯한 모든 출판물들에서 한자를 없애고 우리 글을 쓰며 자녀들을 우리 말과 글로 교육할데 대하여 토의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조련이 들고나갈 정치적구호로서 《공화국에 직결하자!》를 전면에 내세우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2월 23일에 하신 교시를 재일조선인운동에 구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 조련 제17차 중앙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회의였다.

그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정치로선상견지에서 력사적대전환을 의미하였다.

회의장을 나서는 한의장의 마음은 무겁게 짊어졌던 만짐을 내려놓은듯 홀가분했고 실타래처럼 꼬였던 난사가 다 해결되였을 때처럼 무등 기뻤다.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1949년 5월 따뜻한 봄날이였다.

간편한 차림으로 지방본부를 찾아가는 한의장의 걸음에는 새힘이 약동하였다. 누가 보아도 이전과는 달라진 그의 걸음걸이는 봄의 정서가 부어준 생기가 아니였다.

그것은 일생소원을 성취한 력사적인 조국방문이 준 활력이였고 동포들의 밝은 미래를 펼치게 될 위대한 수령님의 12월 23일교시를 구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 그의 가슴에 일으킨 신심과 랑만의 충동이였다.

한의장뿐이 아니였다. 조련 제17차 중앙위원회이후 전 동포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어디를 가도 또 누구를 보아도 생의 희열에 넘친 모습들이였다.

이전에는 생존권쟁취와 같은 당연한 투쟁에 군중을 발동하자고 하여도 발언준비에 이르기까지 품을 들여야 했지만 지금은 무슨 모임이나 어떤 호소도 열렬한 호응을 일으켰고 지체없이 큰 결실을 맺군 하였다.

그전에는 모든 일이 자기자신들의 의지와 힘에만 의거해야 했다면 지금은 자기들에게 조국이 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신다는 신념이 마음의 기둥으로 든든히 자리잡고 새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었다. 이것이 이전과 오늘의 차이였고 달라진 동포사회의 새 모습이였다.

한의장은 이날 아침 의장단회의에서 있은 지방본부들과 민청 그리고 각 단일단체들에서 진행할 위대한 수령님의 12월23일교시를 구현하기 위한 토의사업에 대한 분공조직에 따라 지방본부들을 순회하고있었다.

서로 멀리 떨어져있는 곳들이여서 이날 계획은 두군데로 잡았지만 회의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여 한군데 더 갈 작정이였다.

조련은 위대한 수령님의 12월23일교시를 재일조선인운동에 구현하기 위한 당면과업으로 우리 공화국과 조련,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미일반동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처하여 집단의 조직적결속과 동포사회의 단합을 강화하고 민족교육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두번째 회의를 마치고 뻐스정류소로 바삐 걸음을 옮기는데 《쎄이꼬위원장어른!》 하고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짚이는데가 있어서 돌아보니 알듯말듯한 사람이 반기며 엎어질듯 달려오고있었다.

알고보니 3년전 귀국투쟁시기 일본처녀들의 명절날 차사고로 불행을 당한 그 처녀의 아버지였다. 그때 자기가 치료비를 보태주느라 시계를 벗어준 후 말이 와전되여 그곳 동포들

속에서 《쎄이꼬위원장》이라고 불리웠던 기억이 났다.

서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이라 반갑게 안부를 주고받는 인사말이 바닥날무렵 처녀의 아버지가 문득 방금 진행된 회의에 대한 제나름의 생각을 터놓는것이였다.

그는 딸의 병치료중 남조선의 어지러운 정치정세로 귀향한 사람들도 재도항하자 귀국을 일시 단념하고 일본공산당이 운영하는 정치학원을 졸업한 후 그 지역본부에서 교육사업을 맡아보고있었다.

그의 말은 물론 회의사상은 다 좋다, 하지만 조국은 해방되였어도 재일동포들은 여전히 일본당국의 혹심한 차별과 탄압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본반동당국과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이렇게 선다고 본다는것, 교육문제도 일본의 립지조건을 고려하는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것이였다.

요는 조련 제17차 중앙위원회에서 채택한 정치로선과 공화국에 직결하자는 구호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으며 재일동포들이 일본땅에서 사는 특수한 조건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것이였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일본공산당의 시각이였다.

당시 정치학원이 미꾸라지 룡꿈꾼다고 허황하게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에 대해서만 주입하고있었으니 그가 그런 편견에 빠져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한의장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불행사로 인연을 맺은 그의 생각을 품을 들여서라도 바로잡아주고싶었으나 시간이 허락치 않아 후날 만나 이야기할것을 약속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는 뻐스에 올라 방금 처녀의 아버지가 한 말을 생각하며 중대하고 운명적인 문제에 맞다들린 사람처럼 굳어진 얼굴로 한곳을 주시하다가 《운동회는 꼭 해야 해!》 하고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날 아침 의장단회의에서 그는 얼마 안있어 모든 학교들에서 진행하는 운동회를 학생, 학부형은 물론 일군들까지 참가하는 전 동포적인 운동회로 판이 크게 조직하자고 제기하였다. 운동회를 동포들을 계몽시키는 계기로 되게 하자는것이였다. 찬반론의가 있었지만 한의장의 완강한 주장으로 결정되였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한의장의 생각은 줄곧 운동회에 가 있었고 많은 시간이 그 준비사업에 투하되였다.

모든 조선학교들에서 운동회를 진행하게 되는것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면 품을 들여야 했던것이다.

운동회를 통하여 아직까지 로선문제에 대한 립장이 확고히 서있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을 깨워주고 당시 절실하게 나서고있는 동포집단의 단결을 도모하자는것이 기본목적이였다.

학부형들과 지역동포들의 관심이 높은 운동회가 동포들을 계몽각성시키고 하나의 목적수행에로 지향시키기에 제격이였

던것이다.

당시 동포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은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이기도 하였지만 날로 우심해지는 미일의 침략적이고 파쑈적인 움직임이 로골화되고있는 사정도 있었다.

일본반동당국은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전차사건과 같은 대규모적인 치사사건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로동조합과 민주정당들을 본격적으로 탄압하며 사회의 파쑈화를 다그치기에 광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으로서 침략무력을 못가지게 된 국제법적요구를 무시하고 경찰을 군대화하는데 혈안이 되였으며 경제를 전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군사경제로 개편시키는 놀음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었다. 한편 남조선과 체결한 통상협정을 통하여 재일동포들에게 일본국적을 강요할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놓는 등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을 로골화할 기도를 드러내고있었다.

더욱 주목되는것은 남조선정세였다.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리승만도당은 38°선일대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무시로 감행하면서 남조선에서 통일을 주장하는 민주인사들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마구 잡아가두며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있었다. 유사시 개성으로부터 평양으로 통하는 전략도로를 장악하기 위한 침략적기도밑에 이해에만도 여러 차례 송악산에 대한 침공을 감행한 남조선호전

광들은 바로 그 며칠전에도 이 일대에 대규모의 무력을 투입하였다가 조선인민군의 된타격앞에 무리죽음만 내고 대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전 전선에 걸쳐 때없이 감행되는 군사적도발과 무력증강, 평화통일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소동은 바야흐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파국에로 몰아갈 조선전쟁도발음모가 실천에 옮겨지고있음을 실증해주고있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 위험한 사태의 리면에 전 세계를 휩쓴 제2차 세계대전의 틈바구니에서 차후를 노리고 무기장사나 하며 비대해진 미제의 침략적인 흉계가 숨어있다는 사실이였다.

위험한 전쟁소동의 리면과 그 계단식확대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 재일조선인들의 운명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었다.

날로 험악해지는 정세추이를 명철하게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동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그에 따라 1949년 6월 평양에서는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하는 전 조선의 애국적인 민주력량의 통일전선체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준비사업이 다그쳐지고있었다.

언제나 이역땅에서 조국과 혈맥을 잇고 굴함없이 투쟁

하는 재일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믿음직한 애국력량으로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력사적인 대회에 조련대표도 불러주시였다.

그것은 조련이 전 민족적인 통일전선련합체인 조국전선의 정식성원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하는 또 하나의 경사였다.

이 소식은 동포들을 기쁘게 하였으며 한의장은 운동회를 경축행사격으로 판이 더 크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동포들은 멀리 집떠나있는 자식이 고향에 있는 하늘같은 부모의 존재와 자애로운 정을 느낄 때와 같은 마음속충동을 안고 애써 운동회준비를 하였다.

품들여 준비하며 기다려온 운동회날이 왔다.

도꾜에서는 아침일찍부터 조선중고급학교 운동장에 도내의 수천명 학생들과 학부형들, 지부일군들이 같이 어울려 벌리는 승벽내기로 운동장이 떠나갈듯하였다.

한복판에서는 학생팀과 학부형팀이 맞선 축구시합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주변에서는 씨름, 그네타기 등 민족경기들과 여러가지 오락으로 웃음판을 펼치고있었다.

제일 주목을 끄는것은 역시 축구경기였다. 학생들과 학부형들 즉 아버지들과 아들들이 맞붙은 경기는 초반에 몰리던 학생팀이 중반에 이르러 공격에로 나오며 경기형세를 역전시키고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학부형팀이 맥이 빠져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였다.

그 광경을 쓴웃음으로 주시하던 한의장이 웃동을 벗어던지고 나섰다. 경기응원을 주석단을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 조직한지라 상대팀에서 부정선수니, 반칙이니 하고 반기를 들고나섰으나 미래의 학부형인걸 봐서 한번 눈감아주자는 말에 힘이 실려 한의장이 학부형팀 왼쪽공격수로 뛰게 되였다.

어릴적에 학교축구경기에 나서면 발에서 공이 떨어질줄 모를 정도여서 축구신동이라고 하였지만 시즈오까형무소에서 고문에 다리가 부러졌던탓인지 크게 용을 쓰지 못하였다. 경기 막판에는 학생팀의 압축공격에 밀려 방어에 급급하던중 꼴문에 날아오는 공을 머리받기한다는것이 빗나가 자살꼴을 넣기도 하였다.

축구경기가 끝나자 학부형협회 회장이 한의장에게 다가와 그렇게나 할걸 왜 들어갔나, 자살꼴을 노리고 학부형팀에 들어갔나, 학생팀의 스파이가 아닌가고 이죽거려 한판 웃음이 터지기도 하였다.

경기들이 결속되고 다음은 자랑무대가 펼쳐졌다. 처음에는 서로 주저하더니 나서서 하는 자랑이라는것들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되였는지 얼마 지나서는 꼬리잡이가 시작되였다.

자기 관내의 학부형들과 주민들이 마음과 힘을 합쳐 한달안팎에 아이들의 새 교사를 멋들어지게 건설했다고 으시대는 중년의 분회장이 있는가 하면 지부와 협동하여 뜨내기생활을 하던 여라문명의 동포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주어 안착시

켰다고 뽐내는 상공인도 있고 그런 자랑은 우리에게도 있다고 잘라말하고는 자기들은 지난날 《민단》의 꾀임에 속아 조련과 등을 돌리고 살던 동포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10여세대를 지부에 받아들였다고 의기양양해하는 녀맹일군도 있었다.

자랑군들은 대체로 입심이 센 녀인들이였는데 자랑거리마다 특색이 있었고 대부분이 지부와 동포들이 힘을 합쳐 이룩한 소중한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였다.

자랑무대는 끝이 있을상싶지 않았고 날도 저물고있었다.

이만하면 운동회를 끝내도 되겠다고 생각한 한의장이 무대앞에 나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내의 전 동포들이 모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흥겨운 체육경기와 자랑무대를 통해서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화목한 집단이며 그 단결력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잘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 안팎의 정세는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포들에 대한 위협도 가증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단결된 힘이면 두려울것도, 못해낼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모두 재일동포들을 살붙이처럼 여기시는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공화국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을 위하여, 우리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한의장의 호소에 온 장내가 열광하는 속에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 광경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한의장의 가슴속에는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운동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만족감이 차올랐다.

운동회가 있은 후 동포사회에는 이전에 볼수 없었던 화기가 돌고 조직강화로부터 생활권옹호사업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문제들이 막힘없이 풀려나갔다.

조련이 자기 궤도를 타고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되지만 어쨌든지간에 점차 자기의 체모를 갖추며 하나하나 제구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수록 한의장의 가슴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그이께서 이끄시는 공화국의 존재가 동포들에게 얼마나 큰 감화력과 견인력을 발휘하고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후더워났다.

그럴수록 재일동포들이 살길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데 있다는 확신과 이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갈 결심이 더욱 굳건해졌다.

이즈음 한의장은 이처럼 신성하고 숭엄한 감정에서 깨여날 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털어버릴수 없는 불안감이 살아나군 하였다.

정치, 경제, 군사, 치안 등 각 분야에서 일본당국의 부산스러운 움직임과 사회에 떠도는 이상한 공기는 머지않아

도래할 그 어떤 돌출사태와 무시무시한 격돌을 암시해주고 있었다.

이제는 30년가까이 일본땅에서 살면서 이 나라의 생리와 인종적특징, 정치적지향성에 이르기까지 알대로 안 한의장은 그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거대한 태풍이 일본렬도를 휩쓸었다. 폭우를 동반한 태풍은 온 일본땅을 물바다로 만들고 모든것을 쓸어버렸다.

도꾜를 중심으로 태풍이 지나간 일본땅은 모든것이 뒤죽박죽이 되고말았다. 100년래의 태풍이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태풍이 지나간 순간에 수천명의 사상자가 나고 재산피해는 50억, 100억 하는가 하면 산사태에 마을이 통채로 매몰된 곳도 한두곳이 아니라는것과 같은 소름끼치는 보도가 시간을 다투어 나왔다.

공업과 농업, 전력과 철도 등 지상운수와 해운을 비롯한 경제와 사회간접부문이 당한 피해는 더 말할것도 없었다.

재일동포들이 입은 피해도 막심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인명피해조차 알수 없었다. 도처에 널려있는 동포들이 오죽 큰 피해를 입었을것이며 그 후과를 어떻게 가시겠는가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섬찍하였다.

유럽의 어느 력사학자가 일본의 곳곳을 탐방하고 이 나라

는 사람도 자연도 편안치 않은 나라라고 한 말이 우연한 말이 아닌듯싶었다.

혼슈, 혹가이도, 규슈, 시꼬꾸 등 4개의 큰 섬과 난세이제도를 비롯하여 3 3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일본은 고리형 태평양화산ㅡ지진대의 한 부분으로서 세계적으로 화산활동과 지진이 가장 심한 지역의 하나로 되여있다. 화산은 약 200개나 있으며 그중 활화산만도 50여개나 된다. 태풍도 이 나라가 매력이 있어보이는지 일본렬도는 남태평양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태풍의 자리길로 되고있으며 지진은 거의 매일 일어난다.

1923년에 일어난 간또대지진때의 일이 떠올랐다. 지진은 이 나라를 통채로 뒤흔들어놓았다. 그때 생뚱같이 조선사람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느니, 불을 질렀다느니 하는 허튼소리들이 나돌고 그것을 빌미로 피비린내나는 조선사람잡이광란이 일어났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참상이 떠오름과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각지에 널려있는 동포들의 피해정형을 한시바삐 알아보고 구조대책을 세우는것이 급선무였다.

한의장은 즉시에 의장단회의를 열고 비상설피해대책기구를 내오며 각 지부로부터 피해정형을 료해하는 한편 전 동포적 범위에서 복구지원과 모금운동을 벌리도록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하였다.

태풍이 일본을 휩쓴 직후 평양에서는 전 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추진되여오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이 실현되고 조련이 그 산하단체로, 한의장이 중앙위원으로 선거되였다.

그후 의장단의 일치한 의사에 따라 조련의 모든 사업을 한의장이 대표격으로 주관하게 되였다.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걸머진 한의장은 조직사업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였고 직접 피해가 심한 지역의 지부와 동포들을 찾아다니며 구조대책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과 이역땅에서 함께 고생하는 처지의 공통성이 마음을 울리고 거기에 한의장을 비롯한 조련일군들의 노력도 있어 누구나 피해동포구조사업에 지성을 바치였다. 자기들에게 올 피해가 다른 지역 동포들에게 미쳤다고 하면서 복구조를 무어 보낸 지부들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나선 자원봉사자들도 헤아릴수 없을 정도였다. 민족차별이 심한 일본에서 여유가 있는 동포들이 얼마나 되랴만 많은 동포들이 불행을 당한 자기 혈육, 친지들을 위하는 심정으로 저금을 찾고 가산을 팔아 지원금을 바치는 등 가지각색의 기여는 어느것이나 감동없이는 접할수 없는 미담중의 미담들이였다.

하지만 동포사회의 노력과 힘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의장은 동포들의 극진한 지원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도

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나 개별세대들이 있을세라 면밀히 따지며 조직사업을 하는 동시에 당국으로부터 구제자금을 받아내기 위한 청원사업을 직접 맡아하였다. 그리고 지역들에서 구원을 요하는 일본인민들을 가능한껏 돕도록 하는데도 관심을 돌렸다.

조련과 동포사회가 떨쳐나 피해복구에 전심전력했지만 태풍이 몰아온 재난이 워낙 엄청난것이여서 피해복구는 여름이 다 가도록 끝을 보지 못하였다.

얼마 안있으면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이하게 되는 때였다.

한의장의 마음은 바질바질 끓었으며 다른 일은 전폐하다싶이 하고 각 지부와 피해가정들을 맴돌기에 날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한의장의 예감과 조바심은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그가 재난구조에 그처럼 바쁜 속에서도 공화국창건일을 기념하기 위해 들볶던 9월 8일 아침 일본당국은 갑작스럽게 법무상 우에다를 통하여 《단체등규정령》위반이라는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고 조련과 산하단체인 민청을 강제로 해산한다는것과 그 재산까지 몰수한다는것을 공식 발포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조련과 민청간부 28명에 대한 공식추방령을 내렸는데 거기에는 한의장을 비롯한 핵심일군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올라있었다.

지난 4월 일본당국이 《단체등규정령》을 만들 때부터 심

상치 않은 기미를 느끼고 경계해오기는 했으나 그 첫 포화를 해외공민단체인 조련에 들씌우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다.

우에다의 발표에 잇달아 일본의 어용신문들이 일제히 1면 기사들로 조련이 《위험한 폭력단체》라는데 요점을 찍어 크게 보도하는것으로 사회 각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 전해 4월에 있은 4.24교육투쟁이 《점령군정책》을 반대한 《폭력사건》이였다는것을 비롯하여 《단체등규정령》위반의 근거로 내놓은 자료들이 황당하기 그지없는것이였으며 이 정령이 나오기 썩 전에 날조된 사건들이였다. 모든것으로 미루어보아 조련에 대한 폭거는 흉악한 간계가 숨은 미군정당국과 일본당국의 파쇼적인 작당임에 틀림없었다.

지체할수가 없었다.

한의장은 즉시 비상회의를 열고 미군정당국과 일본당국이 일으킨 조련말살책동의 비법성과 위험성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해 요점적으로 강조하고나서 긴급조직사업을 하였다.

조련산하의 각급 단위들에서 항의집회를 조직하는 문제, 《해방신문》을 비롯한 출판물들에서 적들의 책동의 부당성을 까밝히는 폭로전을 벌리는 문제, 일본의 여러 민주단체들과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련대성운동을 벌리는 문제, 일본법무당국에 대한 항의투쟁을 벌리는 문제 등을 당면과업으로 제기하고 임무분담을 하였다.

자신은 법무성과의 사업을 맡기로 하고 조직국장과 함께 청사를 나섰다.

접수구앞에는 해산령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수많은 동포들이 몰려와있었다.

한의장은 사색이 되여 영문을 묻는 그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몇마디 하고는 겨우 빠져나와 법무성이 있는 히비야로 향했다.

해산령을 발표한 법무상을 만나 항의할 작정이였으나 방에 들어가 알아보니 부재중이라는것이였다. 일행을 맞이한자는 한의장의 성토에 간사한 웃음을 띠고 거듭 갑삭거리며 뜻은 알겠지만 저들도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것이였다.

결국은 미군정당국이 주관했다는것이였다.

미군정당국에서도 장관은 얼굴을 내밀지 않고 대신 나온 자가 노기를 먹은 한의장의 기상에 주접이 들었는지 해산령은 일본법무성이 냈으므로 저들이 뒤집어엎을수 없다고 얼버무리기에 급급하였다.

저들이 저질러놓고 네밀퉁내밀퉁하는자들에게 무슨 말이 통하겠는가. 이제는 법적소송으로 맞서는 길밖에 없었다.

조련본부로 돌아와 차후행동을 론의하려던 한의장은 뜻밖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였다. 완전무장을 한 경찰 수백명이 청사를 둘러싸고있는것이였다. 본부청사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내쫓기우고 문건이나 비품도 다치지 못하게 완전봉쇄에 들어

갔다는것이였다.

조련해산령이 실천단계에 들어간것이다.

한의장은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이제 남은것은 공직추방이였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을 아예 짓뭉개버릴 흉심을 품은 미군정당국과 일본통치배들은 단계별로 된 작전안을 이미 짜놓고 접어들고있었던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조련해산으로부터 한달만에 일본당국이 이번에는 《조선학교폐쇄령》을 내렸다.

문부성과 법무성의 련명으로 된 통고에는 횡포하게도 조련이 경영해온 그 숱한 학교는 강제폐쇄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내용과 시설들을 당장 자기들의 요구대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쪼아박혀있었다. 폐쇄명단에 오른 재일조선인 자주학교의 수만도 348개에 달하였다.

조선인학교들이 《일본법을 무시하고 민족적이며 공산주의적인 내용을 교육하기때문》에 폐쇄, 접수한다는것이였다.

어느 하나도 사리에 맞지 않고 황당무계한 론리로 일관된 조선학교폐쇄책동은 일본땅에서 재일동포들이 의지하고 발붙일 곳을 송두리채 제거하자는 범죄적기도에서 출발한 만행이였다.

일본당국의 폐쇄책동은 동포들의 대중적인 항거를 불러일

으켰다. 학교들마다에서 교원들과 학부형, 학생들은 자체로 학교방위위원회를 뭇고 시체를 본 까마귀처럼 달려드는 경찰들과 하루에도 몇차례씩 치렬한 육박전을 벌렸다. 적수공권으로 폭력과 맞서자니 피해도 많았다.

하지만 그에 속수무책인 한의장의 마음은 찢어지는듯하였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자신을 포함하여 조련의 핵심들이 다 공직에서 추방되여 합법적인 활동을 할수 없는 몸이 된터이라 이제 재일조선인운동은 풍랑에 떠다니는 난파선이나 다름없었다.

때없이 의장단회의를 열었으나 방도가 나지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조국으로 돌아가는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대다수가 그 의견에 기울어지고있었다.

그러나 시련이 간고하다고 해서 물러설수 없고 물러서서도 안될 한의장이였다. 맨몸으로 한지에 나앉은것과 같은 동포들을 두고 조국으로 가겠다는 그들에 대한 야속한 생각을 감추고 자기는 갈수 없다고, 여기에 남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문을 나섰다.

그의 가슴속에는 죽는한이 있어도 저버릴수 없는 하늘같은 신임과 기대가 바위처럼 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쪼각달이 걸려있는 밤하늘에는 괴로와하는 그를 달래듯 뭇별들이 반짝이고있었다.

그는 죄스러운 마음에 새로운 결심과 투지를 가다듬으며 멀리 조국의 하늘가를 향해 아뢰였다.

《장군님, 제가 미련하여 이 지경이 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몸이 부서지는한이 있더라도 조직을 다시 재건하고… 장군님의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역경의 시기와 더불어 한의장의 비합법활동이 시작되게 되였다.

60만의 운명에 비친 광망

미제가 남조선호전광들을 사촉하여 전쟁을 도발한 계선에서 적아가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던 1952년말이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섬멸적타격앞에 1년어간에 500억US$이상의 피해와 막대한 유생력량과 전투기술기재의 손실을 낸 미제가 군사상으로는 항복이나 다름없는 정전을 제기함으로써 전선은 38°선계선에서 고착된 상태에 있었다.

1951년 적들의 이른바 《하기공세》와 《추기공세》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가 정전담판을 들고나온것은 그 간판밑에서 숨돌릴 틈을 얻는 동시에 또다시 그 어떤 새로운 《공세》를 감행하여 세계의 면전에서 구겨진 체면을 만회하고 《영예로운 정전》을 이루어보려는데 있었다.

당시 저들의 본토와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무력에 15개 추종국가군대들까지 투입하였으나 패전만을 거듭한 책임을 지고 트루맨이 나떨어진데 이어 대통령자리에 오른 아이젠하워는 어떻게 하나 전쟁상황을 역전시켜보려고 이른바 《신공세》를 획책하고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이 정전담판을 질질 끄는 속내를 손금보듯 꿰뚫어보시고 적들의 기도를 짓부셔버릴 작전적구상을 펴고계시였다.

이러한 때 한덕수의장이 보낸 련락원이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왔다.

반갑게 련락원을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진지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련락원은 최근 조련과 재일동포들이 일본당국에 의해 가혹하게 탄압당하고있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였다.

그와의 담화에서 재일동포들이 당하고있는 불행과 조국이 준 막중한 임무를 다하지 못한 자책으로 애타하는 한의장의 마음을 읽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색에는 어두운 그늘이 비끼였다.

4년전 공화국창건경축단으로 조국을 방문했을 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하는 한의장에게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걸머지워 떠나보내던 일이 상기되시는지 아니면 전쟁의 모든 부담을 지고계시는 자신께 재일동포들의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리는것이

죄스러워 바재였을 그의 심중을 헤아려보시는지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이 창문가를 이윽히 바라보시였다.

공직에서 추방된 때로부터 한의장은 조련의 비법적인 해산반대와 법적소송을 위한 투쟁을 벌리면서 해산당하지 않은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과 재일본조선인교육자동맹을 주축으로 재일본조선인중앙단체협의회를 뭇는 등 조직재건에 힘을 넣었다.

미제에 의해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애국적활동가들과 함께 싸우는 조국의 인민들과 보조를 맞추어 재일조선조국방위위원회와 그 산하조직들을 결성하고 모든 애국력량을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기에 힘썼다. 한의장을 비롯한 애국적활동가들이 일본 각지에 조직한 조국방위위원회와 조국방위대(조방대)를 발동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벌린 미제의 살륙무기에 대한 남조선수송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 미군무기수리공장의 생산을 마비시키기 위한 투쟁, 국제평화서명운동과 구국기금모집운동 등은 조국해방전쟁승리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이 나날 한의장은 재일조선인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을 벌리는 조국을 옹호하자고 해도 그렇고 조련의 해산으로 흩어진 동포들을 묶어세워 재일조선인운동을 다시 일으켜세우자고 해도 범동포적인 대중정치조직을 내오는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제기되였다.

1951년 1월 조국과 동포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한의장을 비롯한 애국적인 재일조선인활동가들의 고심어린 노력으로 각이한 재일조선인단체들을 망라한 합법적인 민족통일전선체로서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이 결성되였다.

조련을 대신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이끌어나갈 사명을 지니고 출현한 민전은 결성초기 동포들에게 신심과 투지를 안겨주며 제반 애국과업수행을 고무추동하였다.

하지만 민전은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을 정확히 세우고 옳바로 이끌어나갈 견실한 핵심골간이 부족한탓으로 하여 얼마 못가서부터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애국애족의 기치를 들고나가야 할 민전이 일본공산당의 수중에 장악되여 동포들을 일본혁명의 돌격대로 내몰았던것이다.

당시 민전의 지도부는 조련의 애국적활동가들이 공직추방된것을 틈타 일본공산당에 적을 둔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조직을 롱간하고있었다.

그때 일본공산당에는 조선인당원수가 수천명에 달하였고 지도부도 대부분이 조선사람들이였다.

그것은 일본에서 공산주의운동이 발전해온 과정의 복잡성과 관련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건된 후 일본에서도 조선인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일본총국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나 국제공산당 제6차대회에서 일국일당원칙이 제시되자 1931년 10월 조직을 해산한다는 성명을 내고 일본공산당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1930년대초 군국주의 해외팽창정책이 일본의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던 환경속에서 일본공산당은 일국일당원칙을 내세우면서 일본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일본공산당에 입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그런 연고로 불가피하게 일본공산당에 들어가 활동하는 대부분의 조선인공산당원들은 민족적각성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였지만 민전중앙에 틀고앉은자들은 지도권에 환장하여 분별력을 잃고 헤덤비는자들이였다.

그들은 민족리기주의를 추구하는 일본공산당의 로선과 주장에 적극 추종하면서 식민지나라들의 민족해방은 종주국혁명이 승리해야 가능하다는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교조적으로 대하였을뿐 아니라 종파적편견에 사로잡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당한 견해도 질시배척하고있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일본공산당이 재일조선인들을 일본혁명에 부려먹으려는 목적밑에 당안에 조직한 《민족대책부》(《민대》)라는 기구의 지휘봉에 놀아나고있었다.

일본공산당이 당치도 않게 재일조선인들의 투쟁과업으로 《반미, 반요시다, 반재군비투쟁》으로 정하고 《민대》를 내세워 이 《3반투쟁》을 부르짖게 하면 민전은 가타부타없이

재일조선인들을 그 앞장에 내세웠다. 이로 하여 헤아릴수 없는 무고한 희생이 초래되고있었다.

모국이 외세에 의해 전쟁의 화를 입고있는 때에 그에는 아랑곳없이 동포들을 거주국의 정권타도에 내모는것은 제 집에 불이 난것을 뻔히 보면서도 남의 집 시앗싸움을 말리려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짓이 아닐수 없었다.

문제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이 한의장을 비롯하여 추방당한 조련의 핵심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민전이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망라하고있다는것을 구실로 민전결성당시 강령에 명시하였던 공화국수호조항을 삭제한데 있었다. 이것이 그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근본요인이였다.

품어줄데라고는 공화국밖에 없는 재일동포들의 대중적인 정치조직의 강령에서 공화국수호조항을 거세한것자체가 민족적 의무, 동포들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을 줴버린 망동이였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은 공화국수호조항삭제로서 동포들로 하여금 민족을 등지고 일본공산당의 결사대로 나서게 하였다.

당시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사촉에 따라 조선침략을 위한 전쟁기계를 가동하면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말살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었다. 이러한 때에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재일조선인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손에는 총과 칼, 몽둥이를 들고 《요시다정권타도》를 부르짖게 함으로써 일본반동들의 조선인말살정책의 물방아간에 물을 대주는것과 같은

머저리짓을 하였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정부투쟁에 나선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합법》의 외피를 쓴 야만적인 탄압학살만행이 감행되였다.

권리옹호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이자들은 재일조선인들이 주권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 지녀야 할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일본국민의 일부》라는 그릇된 립장에서 생활보조금이나 요구하게 함으로써 권리옹호투쟁을 생명부지를 위한 구걸행위로 전락시켜버렸다.

지어는 해방후 그처럼 어려운 환경속에서 동포들이 푼전을 모으고 피타는 애국지성을 기울여 건설한 우리 학교들을 팔아먹고 동포학생들을 일본학교에 보내도록 함으로써 일본반동들의 민족동화책동에 편승하는 배족적책동을 감행하였다.

정치적견해가 바로서지 못하고 민족적립장이 투철하지 못하면 이처럼 눈을 펀히 뜨고도 분별을 모르는 얼간이, 반역자가 되는것이다.

이자들은 자기자신들을 포함한 재일조선인들을 주권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본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없이 이역땅에 내버려진 《무국적민》, 《민족의 파편》으로 여기는 자학적인 립장에 빠져있었으며 《부산까지 해방되여도 일본혁명이 승리하기 전에는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는 극단한 허무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물젖어있었다.

재일조선인운동을 지도한다는자들의 이러한 허무맹랑한 편견은 재일조선인운동을 파국에 몰아넣었으며 그에 대한 일본당국의 재난적인 탄압을 자초하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다.

재일조선인운동도, 재일동포들도 더는 자기의 존재를 유지해나갈수 없는 막다른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한의장을 비롯한 애국적인 활동가들이 절통함을 금치 못하며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출로를 모색해보아야 소용이 없었다.

조국앞에 지닌 막중한 책임, 일본땅에서 유일한 조국전선 위원으로서 조직이 탈선하고 동포들이 무모한 싸움에 내몰리는것을 보면서도 바로잡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죄스러움에 모대기던 한의장은 위기에 처한 재일동포들을 구원해주실분은 위대한 수령님뿐이시라는 운명적인 결단을 내리고 련락원을 조국에 보내였다.

…

련락원과의 담화를 통하여 사태의 심각성과 절박성을 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본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이 자기들의 민족적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혁명의 돌격대로 나서서 피흘리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밝혀주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81(1992)년 9월 14일 총련

의 여러 대표단을 접견해주신 자리에서 이때를 회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을 하고 있던 1952년말에 지금의 총련의장이 나에게 련락원을 보내여 왔습니다. 나는 그때 전선과 후방의 모든 사업을 맡아 지도하느라고 낮에는 좀처럼 시간을 낼수 없어 밤에 건지리에 자리잡고있던 최고사령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나는 련락원과 담화하는 과정에 일본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이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지 못하고 일본공산당의 지도밑에 일본혁명을 위하여 피흘리며 싸우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동무들이 직접 겪어보아서 잘 알겠지만 그때 재일동포들은 붉은 수건을 머리에 동여매고 일본정부를 반대하는 폭력적인 투쟁에 앞장서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일본경찰에 잡혀가거나 강제로 추방당하였습니다.

나는 련락원의 말을 듣고 그에게 무엇때문에 일본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이 일본공산당에 들어가 일본혁명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투쟁하는가, 재일동포들이 자기 조국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고 일본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잘못된것이다, 일본혁명은 일본인민들이 하여야 한다, 일본공산당이 국제공산당에서 내놓은 일국일당원칙을 전면에 내걸고 일본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이 일본공산당에 들어와 일본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는데 국제공산당이 없어진 지금에 와서 무엇때문에 일본에서 사는 조선사

람들만이 일국일당원칙을 지켜야 하는가, 조선사람은 비록 일본에서 살더라도 자기 조국을 옹호하고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때 건지리에 자리잡은 최고사령부에서 한의장이 보낸 련락원에게 하신 이날의 교시가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이다.

이 로선전환방침의 골자는 재일동포들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고있지만 일본혁명을 위하여 싸울것이 아니라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재일조선인운동은 자체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뿐만 아니라 운동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벌려야 한다는것이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 그것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참다운 투쟁의 길을 모색하시는 과정에 주체의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 기치높이 민족해방투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해외교포운동의 유일무이한 지도적지침이며 가장 정당한 투쟁과 승리의 표대였다.

이 로선이 제시됨으로 하여 민족배타주의와 좌경의 광란이 일상다반사로 되고있던 일본땅에서 지리멸렬될 위험에 처했던 재일조선인운동이 시련을 이겨내고 자기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올수 있었으며 동포들의 생활과 운명의 모체로 되는

총련이 탄생하여 세기를 이어 력사의 갖은 풍파를 헤치며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자기의 존재를 만방에 빛내일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련의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련락원을 통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적로선을 밝혀주시고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였다.

그러지 않아도 국제공산당의 일국일당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재일조선인운동을 극좌로 끌어가는 일본공산당이 180°로 전환된 새 로선을 쉽게 받아물리 만무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가 어떻게 하나 전쟁형세를 역전시켜보려고 전선에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있는 위험한 시기였지만 마음속고충을 안고 모대기고있을 한의장과 동포들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으시여 당이 비법화되여 중국 베이징에서 망명생활을 하고있던 일본공산당 서기장 도꾸다 규이찌에게 편지를 쓰시였다.

…당신들이 국제공산당에서 내놓은 일국일당원칙을 내세우면서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을 일본혁명의 돌격대로 내몰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그들이 일본혁명을 위하여 피를 흘려야 하는가. 조선사람은 어디에서 살든지 조선혁명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 조선사람들이 일본에서 산다고 하여 일본혁명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일국일당원칙은 한때 국제공산당에서 내놓은것이기는 하지만 국제공산당이 없어진 지금에 와서

까지 그대로 지켜야 할 리유는 없다. 그러니 당신들은 일본공산당에 들어간 조선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일본공산당에 조선사람들을 더는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해 싸우도록 하겠다. …

자자구구 주체적립장이 뚜렷하고 정정당당한 철의 론리로 일관된 위대한 수령님의 편지를 받은 도꾸다 규이찌는 그에 담긴 사상과 론리에 대해서는 부정할수 없었지만 자기로서는 확신이 서지 않아 수령님께서 보내신 편지사본과 함께 재일조선인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하여 문의하는 편지를 동봉하여 쏘련공산당과 중국공산당에 보내였다.

도꾸다의 편지를 받은 쓰딸린과 모택동은 **김일성**동지의 의견이 옳다, 조선사람들이 조선혁명을 위하여 싸워야지 무엇때문에 일본혁명을 위하여 싸우겠는가, 당신들이 얼마 안되는 재일조선인이 없다고 하여 일본혁명을 하지 못하겠는가 하는 의견을 주었다.

그 썩 후의 일이지만 그렇게 되여 도꾸다 규이찌는 위대한 수령님의 재일조선인운동사상과 로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일본공산당에서 조선사람들을 모두 내보내도록 하였다.

기울어져가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운명과 좌경모험주의로 동포들이 당하는 불행을 뻔히 보면서도 어쩔 방도가 없어 하루하루 속을 태우고있던 한의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중의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바다멀리 일본땅에서 외롭게 고생하

며 곡절을 겪는 자신들을 위해 그처럼 심려하고계시는줄을 감감히 모르고있었다.

단지 바야흐로 칠칠암흑이 가시고 태양의 찬란한 빛발이 비쳐올것이라는 기대가 그를 지탱하고있었다.

《이것은 **김일성**장군님의 뜻이요!》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들이 봄물을 먹어 파릿파릿한 가지를 내뻗치고 석양을 바래우듯 너울거리는 골목을 따라 한의장이 바쁜 걸음을 하고있었다.

조국에서, 전쟁이 한창인 공화국에서 《해방신문》발행에 필요한 국문활자를 보내왔다는 전갈이 왔던것이다.

1953년 3월이면 미제가 《영예로운 정전》을 부르짖으며 근 3년간 거듭된 패전의 수치를 만회해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 있던 때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전 전선에 걸친 강력한 공격과 호된 반타격으로 적들의 기도를 산산이 부셔버리며 전승의 날을 당겨오시기 위해 드바쁜 시간을 보내고계시였다.

다른 때도 아닌 지금 우리들을 생각하시며 신문활자까지 보내주시다니!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수 없는 일이여서 한의장을 비롯하여 소식에 접한 사람들 누구나가 기쁨에 앞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인쇄소에 도착한 한의장은 조국에서 보내온 국문활자들이 들어있는 상자들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어서 열라고 말하고는 자기도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상자안에는 종이로 정성스레 싼 활자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모두가 감격에 겨워하였다.

그때는 《해방신문》이 합법화되였지만 일본경찰이 신문을 폐간시키면서 설비와 활자, 인쇄자재들을 몽땅 걷어간것으로 하여 신문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었다.

한의장은 공직에서 추방되여 비합법활동을 하는 기간 공화국의 서적과 출판물을 출판발행하는 《구월서방》을 창설하였으며 《조선통신》, 《학우서방》 등을 틀어쥐고 사상계몽사업에 힘을 넣어왔다.

《해방신문》발행을 위해 지방에까지 손길을 뻗쳐 설비와 부속품, 자재들은 대부분 마련했지만 일본이라는 립지조건때문에 국문활자를 구하는것은 난문제였다.

그런데 최고사령부와 전선을 오가시며 우리 인민의 영웅적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앞당겨오시기에 여념이 없으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신문사의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 신문활자까지 보내주시였으니 누군들 감격에 가슴들먹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모두 지금은 어렵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계신다는것,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머지않아 전쟁은 공화국의 승리로 끝나고 재일동포들에게도 밝은 앞날이 온다는것을 명심하고 힘을 냅시다. 이 국문활자에 어린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를 잊지 말고 <해방신문>을 잘 만들어 싸우는 조국을 성원하고 동포들을 애국애족투쟁에로 불러일으킵시다.》

모두가 그의 호소에 열렬히 호응하였다.

이어 한의장은 당면한 신문발행방향과 편집내용, 운송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토론해주고 길을 떠났다.

늦은 밤이여서 사위는 고요하였다. 하늘에는 은하수가 흐르고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느라니 행동거지마저 거북스러워졌다. 유난히 반짝이는 별들은 자기를 굽어보는 조국의 눈같았고 속마음을 들여다보는듯싶었다.

련락원을 통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전달받은지도 이젠 시일이 퍼그나 흘렀다. 그때의 환희는 그야말로 사막에서 갈증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였다.

이젠 됐다! 하고 환성을 올리며 민전의장들을 찾아가 그것을 알려만 주어도 순간에 다 풀릴줄 알았는데 일은 그렇

게 되지 않았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재생, 부활이 아니라 그 령도권에 명줄을 건 《민대파》, 민전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에 대하여 내놓고 부정하지는 못하면서도 일국일당원칙을 내들고 이피탈저피탈하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특히 민전강령의 공화국수호조항과 관련하여 그런 교묘한 방법을 썼었다.

원래 민전강령은 한의장이 조련시기의 견실한 애국적활동가들과 관여하여 직접 작성한것이였다. 조련을 이어 재일조선인운동을 이끌어가야 할 민전을 좌우경기회주의자들에게 롱락당하는 뼈대없는 조직으로 되게 할수는 없었던것이다.

이 강령에서 핵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호방위》조항이였다.

그런데 한의장 등이 공직에서 추방되여 비합법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민전을 제멋대로 주무르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저들끼리 작당하여 공화국수호조항을 삭제하고 그것을 민전 제2차 전체대회에서 채택하게까지 했었다.

그 소식을 전해듣고 성이 독같이 난 한의장은 민전의장들을 찾아가 반민족적이며 사대주의적인 종파행위를 불을 토하듯 성토하였고 구구히 변명하는 그들을 다불러대여 일일이 사죄를 받아냈었다. 허나 그것은 진심의 사죄가 아니라 그

의 범같은 기상에 눌리운 자리모면의 처세술에 불과하였다.

구실과 변명의 절반은 속이는 말이며 더 나가서 피동에 빠지지 않으려는 술책이고 도피라고 그들이 한의장앞에서 한 말과 실지행동은 판판 달랐다.

《민대파》는 의연히 동포들을 싸우는 조국을 옹호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조직동원하기는커녕 여전히 일본의 정권타도와 같은 내정간섭적인 폭력투쟁에 돌격대로 내세워 피와 죽음을 강요하였다.

가슴을 저미는것같은 그런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을수가 없었다. 그는 《민대파》들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출판물들을 통하여 로선투쟁을 끊임없이 완강히 벌렸다.

한편 《애국진영의 순화와 강화를 위하여ㅡ사회민주주의로선과 경향을 배격하자》라는 백수봉의 필명으로 된 론문을 저술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파국에로 몰아가는 《민대파》들의 반민족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죄악을 적라라하게 폭로하였다. 이 론문에서 그는 애국적인가 애국적이 아닌가 하는것은 공화국과 그 정책을 받드는가 받들지 않는가 하는데 따라 판명된다고 정당하게 문제를 세우고 모든 재일조선인들이 공화국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공화국을 사수하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론문을 민전서기장에게 주어 민전중앙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이를 묵살하였다.

모든 사회적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일조선인운동에서도 로선문제는 투쟁의 성과여부와 그 구성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되는것이다. 로선을 잘못 세우면 탄탄대로를 따라 동포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가야 할 재일조선인운동이 그들을 가시밭길로 끌고 가 파멸의 나락에 빠뜨리게 되는것이다.

일본공산당이 일본의 독립과 평화의 구호밑에 조직한 1952년 메데(5.1절시위)는 그 명백한 실증으로 되였다. 구호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 시위는 명백히 일본사람들의 일이였으며 따라서 일본공산당이 주관하였다.

그런데 《민대파》들이 중뿔나게 나서서 동포들을 폭력시위에로 부추겼다. 그들은 곁가마가 더 끓는다는 식으로 《일본인민의 적은 조선인민의 적이다!》, 《3반투쟁은 조선사람의 과업이다!》와 같은 당치않은 구호밑에 조방대를 비롯한 수많은 동포들에게 총과 곤봉 같은 폭력수단들을 쥐여주어 시위가 금지된 궁성앞 인민광장에 늘어선 무장경찰의 저지선앞으로 내몰아 끔찍한 피의 참극을 빚어냈다.

당사자들인 일본사람들은 맨손에 말로 독립을 주장하는 마당에 조선사람들이 경찰들에게 쟁기들을 휘두르며 달려들게 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당시 일본신문들이 《전후 최대의 류혈사건》으로 특보한 이 시위에 동원된 재일조선인들중 수백명의 사상자가 나고 천

수백명이 검거당하였다.

하다면 사상자 수백명, 검거자 천수백명을 낸 《전후 최대의 류혈사건》이 가져온 《전리품》은 무엇이고 그 수혜자는 누구인가.

《일본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장본인—재일조선인들!》

《<민전>, 일본에서 무엇을 노리는가?》

《민주발전의 암, 재일조선인들 즉시 추방해야》

이것은 5.1절폭력시위에 대해 보도한 일본신문들의 기사제목들이다.

일본의 정계, 학계, 사회계의 이름있는 인사들도 하나같이 《유감》을 표시하며 《자기 나라 전쟁의 울화를 일본에 쏟아놓은 란폭한 야쯔아다리(화김에 하는 행동)》, 《자기 나라 혁명을 일본에 수출하려는 의도》 등으로 조소하며 불만을 터놓았다.

하지만 동포들의 숱한 생명과 피를 바쳐 일본사회에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이처럼 풀 길 없는 반감을 자아낸 당사자들인 《민대파》들은 《일본혁명의 일대 전환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인민적봉화》니, 《조선사람의 불굴의 기개를 다시한번 시위》니 하며 의기양양해하였다.

이 사건이 한의장에게 준 충격은 컸다. 결정적으로 민전강령을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그는 공직에서 추방되여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물론 민

전의 민족적각성이 있는 성원들과 함께 고심참담한 노력을 기울여 민전 제6차 확대중앙위원회에서 공화국수호조항이 포함된 강령을 채택하고야말았다. 이 회의에서 저들이 꾸며낸 강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간파한 민전지도부의 종파분자들은 한의장의 회의장입장부터 막으려 하였으나 그는 저지를 뚫고들어가 중앙위원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끌어내여 공화국수호강령을 다시 채택했던것이다.

애국적활동가들에 의해 강령은 바로잡혔으나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에 인이 박힌 《민대파》가 그것을 순순히 따를리 없었다.

한의장이 해방신문사를 나서 밤길을 재촉하는것은 도꾜역주변의 한 음식점에서 술추렴을 벌린다는 민전의장들을 찾아가 여전히 일본의 민주화를 위한 무장투쟁을 고집하는 그들의 삐뚤어진 머리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였다.

방에 들어서니 모의이고 추렴이고 하는것들은 이미 다 끝나고 모두 술에 화락하니 젖은 실혼상태였다.

눈은 게슴츠레해가지고 벽에 기대고 앉아 담배연기를 뿜어 파리를 쫓는자가 있는가 하면 기생이 입은 기모노자락을 입에 물고 꼬리잡이를 하는자도 있다. 상에 머리를 박고 무엇이 불만인지 주먹으로 식탁을 두드리며 울분을 토하던자는 갑자기 뒤로 벌렁 넘어지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자고로 술이 사람의 너울을 벗기고 야생기질을 발가놓는다

고 하기도 하지만 이야말로 꼴불견이고 추태였다.

적지 않게 수십만의 민족집단을 이끈다는자들이 이런 판이니 그들에게 운명을 건 동포들이 불쌍하고 눈앞이 암담하였다.

《이건 무슨짓들인가!?》

한의장의 꽥하는 소리에 놀라 모두 어줍게 바라보는데 《민대파》의 행동대장격으로 있는자가 《한의장이요?》 하고 헤식은 인상으로 말을 건네였다. 저들은 의장 등의 직무가 있고 한의장은 공직이 없지만 《한의장》이란 부름말은 입에 굳어져 너나들이하는 법은 없는 그들이였다.

《동포들을 폭동에로 내몰 때는 범도 잡을 기상이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꼴들인가. 조국에서는 전쟁이 한창이고 동포들은 민생고에 시달리는데 어느 하가에 술에 먹히운 꼴들을 하고있는가 말이요.》

힐끔힐끔 눈치를 빨며 옷들을 걷어입고 자리를 고쳐앉느라 말을 듣지 않는 몸을 뚱기적거리는 거동에 기가 막혀 더 말이 나가지 않았다. 먹힐만해야 말을 해도 하지 않겠는가.

입이 쓰거워 래일 다시 보자고 말하고는 돌아섰다.

다음날 일찌기 경찰들의 눈을 피해가며 민전중앙사무실에 찾아가니 마침 조회시간이여서 다 모여있었다.

쑥스러운 얼굴들을 해가지고 바라보는 그들에게 어제는 흥을 깨여 미안하다는 말로 인사치레를 하고난 한의장은 단도

직입적으로 민전강령준수문제를 꺼냈다.

민전강령의 공화국수호조항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이다. 그런데 강령이 채택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일본혁명을 운운하며 동포들을 요시다정권타도투쟁에로 내모는가. 동포들의 희생적인 투쟁으로 그들에게 차례진것이 무엇이고 이후라도 어떤 덕을 보게 될것같은가. 아니! 그렇게 본다면 그야말로 청맹과니생각이다. 민전은 강령대로 공화국을 위하고 동포들을 위하는데로 가야 한다. 이것이 민전의 유일한 정로이다. …

한의장의 말은 추상같았다. 하지만 그자들도 곱게 앉아 욕만 먹고있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론거는 일본혁명은 재일조선인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의무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국제주의적의무이자 민족적의무로 되지 않는가, 철저한 공산주의자인 당신이 이걸 모르는가, 그래서 우리가 국제공산당의 일국일당원칙에 립각하여 일본공산당의 지도밑에 일본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것인데 이것이 어디에 저촉되는가, 당신이 무슨 희생과 덕에 대해 말하는데 우리는 눈앞의 그 어떤 대가를 보고 혁명을 하지 않는다, 희생이 없는 혁명이 있을수 있는가 등등이였다.

말은 그럴듯하였다. 누가 들으면 그들이 오히려 더 각성된 사람들처럼 느껴질 판이였다.

한의장은 사대주의를 공산주의로 포장하여 위선을 떠는 그자들의 행실이 역겨웠다.

원래 오늘 걸음으로 《민대파》의 삐뚤어진 사고를 돌려세우자는것이 아니였다. 그렇게 하기에는 그들의 견해와 관점이 너무 이지러져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의 민족적의무와 국제주의적의무에 대해 혼돈하지 마시오. 오늘 우리의 조건에서는 민족적의무를 다하는것이 국제주의적의무에 충실하는것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하오. 아니, 일본인민들은 말로 민주화를 요구하는데 왜 동포들을 일선에 내세워 폭력을 휘두르게 하는가. 왜 곁가마가 더 끓는가 말이요. 그렇게 하는게 공산주의가 아니요!》

한의장이 이렇게 박아주고 돌아서려는데 악에 받친 새된 목소리가 귀청을 찔렀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하든 일본혁명을 하든 한의장은 상관마시오. 당신이 민전책임의장이기라도 한가. 조국전선위원행세를 하자는것같은데 조국전선은 우리를 지도할수 없단 말이요.》

신경을 자극하는 가시돋힌 말이였다.

한의장은 욕설이 나오는것을 참고 돌아서 나오고말았다.

《조국도 모르는것들…》

저 혼자의 입속말로 중얼거리며 걷노라니 한숨이 새여나왔다.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뜻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을 이끌어갈수 있단 말인가.)

한의장이 방금전 《민대파》들을 추궁하면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가지고 다그어대지 않은것은 이미 그에 대한 말만 꺼내면 그것이 장군님의 뜻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식으로 밀막으며 한의장이 민전의 령도권을 노리고 거짓말을 한다고 대든것이 한두번이 아니였기때문이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민대파》들과 입씨름이나 해서는 일이 풀릴수 없었다.

한의장은 이미 방도를 생각해둔것이 있었다.

우에서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대중적인 공세를 취하자는것이였다. 특히 민전중앙위원들을 쟁취하여 민주주의의 위력으로 민전의 정치로선, 재일조선인운동의 궤도수정에로 나가자는것이였다.

우선 중앙위원들은 《민대파》들처럼 령도권과 사대주의에 물젖지 않았고 대중과 어울려 사는 관계로 민족적각성이 높았으며 중요하게는 이미 공화국수호강령을 채택하던 민전 제6차 확대중앙위원회전야에 그들과의 사업에 많은 힘을 넣었던것이다.

이후부터 한의장의 많은 시간은 여기에 돌려졌다. 사람들을 지방에 파견하고 형편을 료해한데 기초하여 사업을 심화시켜나갔으며 잘 먹어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직접 찾아가 일을 성사시켜 지지자대렬을 늘여나갔다. 갓 내온 조선문제연

구소와 《해방신문》, 《학우서방》, 《조선통신》 등 출판보도물을 통한 선전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그즈음 어느날이였다. 민전서기장이 예전의 그와는 달리 들뜬 기분으로 한의장을 찾아왔다. 그는 숨도 돌릴 사이없이 일본공산당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조선사람들을 내보내기로 하였다는 희소식을 전하는것이였다.

한의장은 무릎을 치고 일어나 구체적으로 따져물었다.

일은 이렇게 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의장이 보낸 련락원을 만나신 후 밤잠도 미루고 직접 써보내신 편지와 관련하여 일본공산당 서기장 도꾸다 규이찌는 **김일성**동지의 견해가 옳다는 쓰딸린과 모택동의 의견을 받고 그에 대해 일본공산당지도부에 통보해주었다. 그러면서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재일조선인들을 당에서 내보내여 자주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는 자기의 생각을 첨부하였다.

한의장은 《결국 장군님께서 다 풀어주셨구나! 장군님이 아니시였다면…》 하고 절규하며 감격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였다.

그때 벌써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공인된 지도자이시였고 높은 령도적권위를 지니고계신 위대한 수령님이 아니시였다면 도꾸다가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리해관계도 없는 재일조선인문제를 가지고 쓰딸린과 모택동에게까지 편지를 쓰는 일이 없

었을것은 명백하였다.

그리고 뛰여난 사상리론가이며 실천가였던 쓰딸린이나 역시 당대의 사상가, 정치가로서 당시 천만이상의 화교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있지 않던 모택동의 잠재의식을 깨워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사상과 로선의 정당성을 세계앞에 공인시키는것과 같은 사변적인 일도 없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국제사회가 안고있던 해외교포문제 해결을 위한 정로를 밝힌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가장 정당한 사상리론의 창시자이시며 걸출한 령도자이시였다.

1954년 가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을 친선방문하고계실 때였다.

그때 중화인민공화국창건 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려고 중국에 와있던 일본공산당 의장 노사까 산조는 수령님을 찾아와 자기들은 조선로동당의 의견에 따라 일본공산당원으로 있던 조선사람들을 다 내보냈다고 하면서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이 일본공산당에서 나와 조국을 위해 투쟁할수 있게 한것은 아주 정당한 조치였다고 진정을 토로하였다.

그의 말에도 사연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로 그해에, 미제가 조선전쟁 3년간 감행한 전대미문의 전범행위의 후과로 재더미로 화한 나라를 재건하시기에 그처럼 바쁜 시간을 보내시던 그때에 재일동포

들을 잊지 않으시고 재일조선인당원들의 일본공산당탈당문제를 비롯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전환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문제들을 일본공산당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던것이다.

당시는 한의장이 이런 사연을 다 알수는 없었지만 마음에 풀 길 없는 매듭으로 남아있고 어떻게 하나 해결해야 할 운명적인 문제로 되고있던 재일조선인운동의 리론실천적인 과제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 정당한 해결을 보게 되였으니 그때 그의 심정이 어떠하였으리라는것은 가히 짐작할수 있다.

그의 가슴에서는 우리에게는 장군님께서 계신다, 장군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계신다는 신념이 굳어졌고 그럴수록 사명감과 투지가 더욱 굳세여졌다.

이때부터 그에게서는 그 어떤 두려움도 모르고 그 무엇도 못해낼 일이 없을것같은 위엄이 풍겼고 여느때없이 언행이 당당하고 드레졌다.

가뜩이나 일본공산당에서 쫓겨나듯하여 정치적지탱점을 잃은 《민대파》들은 그를 먼발치에서 보기만 해도 비실비실 피해갔고 마주서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한의장의 의사에 공감하거나 순종한것은 아니였다.

령도권문제에 대한 집착이 그들을 진리도 가려볼줄 모르고 또 알면서도 부정하는 정치적곧은박이로 만들었던것이다.

이자들은 어떻게 하나 민전을 놓지 않고 저들의 그릇된 로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였다. 지어는 로선전환방침관철을 위한 한의장을 비롯한 애국적활동가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책동하기까지 하였다.

《해방신문》은 한의장이 내오고 발행을 주관해온 신문이였다. 이 신문이 대중적결속을 강화하며 동포들을 애국애족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논 역할은 실로 컸다.

그런데 일본공산당에서 외면당하고 아래지방조직들도 다 한의장을 비롯한 애국적인 활동가들의 편에 기울어져 한발로 서있는 처지에 이르게 된 《민대파》들은 《해방신문》을 저들의 리용물로 만들려고 잔꾀를 부리였다. 그자들은 신문사의 편집일군들과 인쇄성원들을 끄당겨보려고 막후공작을 벌리는가 하면 신문편집문제와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멋없이 놀아댔다. 이런 놀음은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한의장은 애초에 그들의 마수를 잘라버리군 하였다. 그들에게 신문을 내맡겨야 배를 산으로 몰아가는 격으로 될것이 뻔하기때문이였다.

이번에도 그들의 검은 속심을 모를리 없는 한의장은 신문을 리용하려면 진정으로 조국과 동포들을 위한 글을 쓰라, 그러면 신문사에서도 반대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해방신문》을 민전의 기관지로 만들려는 생각은 버리라고 박아주었다.

한편으로 신문과 다른 출판보도물을 통해 로선전환방침과 관련한 선전공세를 힘있게 벌리도록 하면서 대중정치사업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더욱 강화하였다.

조국과 자기자신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은 너무도 지당한 방침이여서 동포대중속에서 공감을 불러일으켜 지지자대렬은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분위기는 날로 무르익어갔다.

이제 남은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재일조선인운동에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문제였다.

이런 환경속에서 민전 제19차 중앙위원회가 1955년 3월에 열리였다.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이 회의는 한의장을 비롯한 애국적활동가들과 민전의 지도부에 틀고앉은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다같이 중시하는 회의였다.

회의에서 한의장이 무엇을 노리는가 하는것을 잘 알고있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상투적인 수법대로 그의 회의장입장부터 막아나섰다.

그러나 한의장은 그들의 저지를 뚫고들어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연설을 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자격으로 잠간 연설하겠다고 의장단에 말하고 연단에 나선 그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전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1시간이상 민전의 활동을 비판하면서 로선을 전환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였다.

머리말 1. 재일조선인운동의 성격과 임무 2. 과거의 운동

에 있어서의 오유 3. 앞으로의 활동의 기본 4. 금후의 투쟁과업 5. 재일조선동포들의 총단결을 위하여의 체계로 된 연설에서 한의장이 로선전환문제의 본질을 《다만 정세의 발전에 의하여 투쟁방법과 조직형태가 달라지는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법칙우에 튼튼히 서지 못하고있던 최근 수년동안의 운동의 결함을 시정하는 전환》이라고 밝히자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삿대질을 하며 연설을 중지하라고 고아댔다.

하지만 한의장을 지지하는 대다수 중앙위원들이 마지막까지 들어보자고 들이대여 연설은 계속되였다.

그는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하여 지난 기간 재일조선인운동에서 발로된 심중한 오유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어 재일조선인운동의 금후 방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임을 명백히 하고 그것은 정세발전에 의한 《전술전환》이 아니라 《로선전환》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한의장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오는 속에 한쪽에서는 악의에 찬 욕지거리가 귀청을 째며 울리였다.

만장에서 저들의 과거가 전면 부정당하고 깨깨 망신당한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이를 사려물고 재일조선인운동에 끼친 저들의 해악을 비호해보려고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댔다. 회의장은 순간에 수라장이 되였다.

창황중에 《이것은 **김일성**장군님의 뜻이요!》 하는 한의장의 말이 천둥소리처럼 울리였다.

순간 장내는 쥐죽은듯 조용해졌다.

금시 잡아먹을것같은 상으로 목에 피대를 세우며 악을 쓰던자들은 일시에 자라목이 되여버렸다.

그 광경을 보는 한의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전설적인 항일의 김대장, 제국주의거두이며 《강대성》을 자랑하는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님의 존함과 권위가 살기를 품고 날치던자들을 모두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어버린것이다.

한의장은 장내를 둘러보며 힘주어 말하였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철칙으로 삼고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이어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로선전환방침에 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을 전환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이로써 민전 제19차 중앙위원회 회의는 한의장의 의도대로 민전강령을 바로잡는것으로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회의장을 나서는 한의장은 온갖 시름이 일시에 가셔지는것같았다.

그는 노을비낀 하늘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

뢰였다.

《장군님 계시여 우리 재일동포들이 이젠 회생하게 되였습니다. 장군님의 뜻대로 머지않아 재일조선인운동을 바로세우고 승리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전 제19차 중앙위원회 회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회의였다.

이 회의를 계기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재일조선인운동로선은 60만재일동포들의 조직적인 의사로 되였으며 새로운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진일보를 가져올수 있었다.

정의의 위업이 전진할수록 그에 역행하는자들의 도전도 우심해지기마련이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로선을 세운 민전 제19차 중앙위원회 회의후 애국진영에서 밀려나게 된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그들은 한의장의 연설이 실린 《해방신문》 1955년 3월 19일부를 배포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태워버리는 비렬한 행동까지 하면서 로선전환투쟁을 방해해나섰다.

그러나 그것은 정의의 길을 따라 용용히 흐르는 시대의 대하에서 밀려난자들의 빈주먹질이였고 울림이 없는 공념불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2. 애국의 항로에 돛을 달고

그날은 1955년 5월 25일이였다

자기의 빛과 열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 생을 주고 활력을 주는 태양.

그래서 인류는 자연과 사회의 횡포에 시달려온 아득한 태고적부터 태양을 수호신처럼 여겨왔으며 해빛처럼 따사로운 사랑으로 안아주고 지켜줄 품을 그리며 험난한 길을 헤쳐왔다.

인간이 하늘의 태양에 구원을 바라고 산 이야기는 먼 옛적의 일만이 아니여서 지난 세기 일본땅에 끌려가 한많은 수난사를 엮어온 재일동포들도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태양을 목마르게 그리며 살아왔다. 천조대신을 《해의 신》으로 숭배하면서 그때부터 국호를 《해의 뿌리》라고 했다는 일본이지만 날은 맑게 개여도 음산하기만 한 그곳에서 재일동포들이 태양의 따사로움을 느낀것은 언제부터였던가.

과연 언제부터 세월의 풍파에 멍든 마음을 어루쓸며 후덥게 덥혀주는 태양의 광망속에 가슴펴고 존엄있게 살아왔던가.

1955년 5월 25일, 바로 이날이다.

1955년 5월 25일은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재생의 환희속에 인생의 새 출발을 뗀 력사적인 날이다.

《만세! 만세! 만세!》

장내가 떠나갈듯한 환호소리가 진감하는 도쬬 아사꾸사공회당에서는 해외교포운동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결성대회가 열리였다. 자기들을 품어줄 총련의 결성을 경축하려고 각지에서 모여든 대표들과 동포들로 대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을 가슴아픈 과거를 돌이켜보는 1세들도, 희망과 신심에 넘쳐 미래를 그려보는 새세대 청년들도 눈물속에 경축하는 대회였다.

정면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람홍색공화국기와 새 조직의 성격이 집약된 《모든것을 조국의 평화적통일독립과 민주민족권리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게시된 대회장에는 애국적열정과 민족적자부심이 차넘쳤다.

엄숙하게 개막된 대회에서는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구현한 총련의 일반활동방침과 창립선언 그리고 강령과 규약을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지지찬동속에 채택하고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총련의 결성이 선포되자 장내에서는 우뢰와 같은 만세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대회에서는 총련의장으로 선출된 한덕수선생이 대회의 이름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는 편지를 랑독하였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일성**원수님이시여!

전체 재일동포들의 각계각층을 대표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대회에 모인 우리들은 조국의 평화적통일독립과 민주기지강화를 위한 영웅적로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지도하시며 해외에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따뜻한 배려를 돌려주시며 우리들을 행복과 번영의 길로 령도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당신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감사와 최대의 영예를 올립니다. …》

끓어오르는 감격으로 편지랑독은 자주 중단되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지나온 10년세월 쓰라린 좌절과 희생, 고통과 몸부림으로 점철된 나날들, 파멸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질번했던 동포들에게 보람찬 새삶이 약속된 사랑의 큰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친어버이의 정과 사려깊은 로고의 자욱자욱 그리고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총련결성을 위하여 투쟁하던 가지가지의 사연들이 어려와 누구나 마음을 진정할수 없는 격동적인 시각이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이 아니시였다면 있을수 없는 오늘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의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시기 한의장의 고뇌와 동포들의 막다른 처지를 헤아려보시고 재일조선인

운동의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해주신 위대한 수령님, 이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걸음걸음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수령님이시였다.

세계해외교포운동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교포조직의 성격과 조직형태, 사명이 주체적견지에서 옳게 규정되고 핵심대렬을 질적으로 꾸리며 동포대중의 사상의지적일치를 보장하는 제반 사업이 수령님의 현명한 가르치심과 령도밑에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1954년 8월 30일과 1955년 2월 25일 외무상성명을 통하여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비법적박해를 반대하며 그들의 애국애족적투쟁과 생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엄숙한 립장을 표명하는 등 재일동포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조치들도 취해졌다.

1955년 4월부터는 조선중앙방송국에서 고정적으로 재일동포들을 위한 방송시간을 정하고 이 시간에 동포들을 계몽각성시키는 방송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을 위해 취해주신 이러한 중요한 조치들은 한의장을 비롯한 애국적활동가들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되였다.

그들은 동포대중이 주체적인 새 조직건설의 정당성을 옳게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하여 《학우서방》과 《구월서방》에서 《**김일성**선집》과 공화국의 신문, 잡지, 도서들을 출판하여 동포들에게 보급하는 한편 주체적로선전환방침에 대한 학습을 지난 시기의 현실과 결부하여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민전을 해산하고 각계각층의 동포대중을 망라하는 대중적정치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책을 취해나갔다.

각 단체대표들로 총련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형태를 비롯하여 새 조직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일치를 본데 기초하여 1955년 5월 24일에는 민전 제6차 림시전체대회에서 민전의 해산을 결정하였다.

민전의 해산, 그것은 60만재일동포들의 운명이 걸린 재일조선인운동을 일본혁명에 종속시키고 극좌적인 폭력선동으로 동포들에게 막대한 희생을 강요한 사대주의, 교조주의로선의 파산을 의미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애국애족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참다운 교포조직과 더불어 동포들의 진정한 삶이 꽃펴나는 새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서막이였다.

그 력사의 날을 맞이한 한덕수의장의 가슴에 어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격파치지 않을수 있을것인가.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의 혁명적민주기지와 백전필승의 탁월한 수령 당신을 모시는 영예와 자신심으로 항상 고무격려받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나는 승리와 확신으로 충만된 분위기속

에서 우리 조국의 조속한 통일독립과 자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당신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편지랑독이 끝나자 대회장이 떠나갈듯 환호성이 또다시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

《영광스러운 조국ㅡ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만세!》

누구나 가슴헤치고 소리높이 만세를 불렀다.

만세의 웨침은 자기자신의 생활과 운명,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변적인 현실을 맞이한 인간의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격정의 토로이다. 해방전 일본에 끌려와 징용과 징병, 성노예로 시달리며 죽지 못해 살아온 재일동포들, 해방은 되였으나 민족분렬주의에 발목이 잡혀, 일본반동들의 배타적인 횡포와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자들의 전횡속에 고통과 불행, 피와 희생만을 강요당해온 그들이였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 이역땅에서 인간이하의 학대와 무권리에 신음해온 재일동포들의 생활에 무슨 락이 있고 기쁨이 있었겠는가. 가셔지지 않는 암흑의 그 긴긴 나날 동포들의 가슴에서 울려나온것은 한숨과 통곡소리뿐이였다.

그러나 이날은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어제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전환을 약속해주는 의의깊은 날이였다.

어제까지는 바람세찬 황야에 내버려진 신세였다면 이날부터

는 비바람이 불어도 눈비가 쏟아져도 그것을 막아줄 집이 있고 배타주의가 횡행해도 자기를 자각한 동포들의 단결된 힘으로 삶을 개척해나가는 운명의 새 출발선, 불사신의 용기와 배심을 가지고 가슴펴고 미래를 마중해나가는 력사의 분기점이였다.

도꾜일판을 진감시킨 만세의 함성은 주체형의 새 교포조직의 탄생을 알리는 력사의 고고성인 동시에 진정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인생의 새 출발을 떼는 60만재일동포들의 격정의 환호였다.

이날의 감격과 환희에 대하여 당시 《해방신문》은 이렇게 전하였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는 드디여 해살도 한결 눈부시며 신록이 춤추는 5월 25일 름름히 새 출발을 했다. 우리들은 이제야 진실로 전체 3천만 조선인민들이 걸어가는 승리에 찬 거창한 총로선우에 확고부동하게 올라서게 되였다. … 이것은 오로지 영명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신 우리들만이 능히 달성할수 있는 자랑이며 또 하나의 승리이다. … 우리들은 얼마나 이날을 고대하고 주목했던가! 또한 이 력사적인 전환을 저애하려고 내외의 적들의 음모와 도발책동은 얼마나 혹심했던가!

재일 60만은 그를 물리치고 기어이 승리하고야만것이다.》

그렇다.

역경은 인간을 시험한다고 했듯이 한의장을 비롯한 애국적 활동가들과 60만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신념과 강의한 민족정신, 굴함없는 투쟁으로 조선민족말살책동의 본산으로 되여온 일본의 한복판에 60만재일동포들의 삶의 요람이며 공화국의 진정한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보란듯이 일떠세움으로써 영예로운 승리자가 된것이다.

승리라면 이것이 승리이고 사변이라면 이것이 사변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재일조선인조직이 고고성을 울린 이날의 열렬한 분위기나 무엇이라 이름 못할 사람들의 뜨거운 감개는 모진 시련을 이기고 승리를 이룩한 크나큰 보람이며 긍지였다.

이날 재일동포사회를 환희와 격정에 잠 못들게 한 총련의 결성이 자본주의이역땅에서 민족의 넋을 지키며 자주적인 삶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재일조선인애국자들과 동포들의 가슴에 새겨준 소중한것이 있다.

그것은 세기의 위인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하늘같은 덕망으로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친어버이이시며 그이의 령도를 떠나 재일동포들의 삶도,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도 생각할수 없다는 진리이다.

이것은 총련의 결성이라는 사변이 웅변해준 력사의 선언이다.

총련의 결성은 20세기 일제의 제국주의적탐욕의 희생물이 되여 온갖 치욕과 수난을 겪어온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재일

조선인운동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지켜줄 조국이 없고 운명을 맡길 품이 없어 상가집 개만도 못한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불행아들,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어떤것인지도 모르고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의 수렁에서 동화의 광풍에 시달리며 내외반동들의 정치적리용물로 피흘리던 가련한 존재가 바로 지난날의 재일조선인들이였다.

그러했던 그들이 자기의 참다운 조직을 가짐으로써 어려울 때는 의지하고 힘겨울세라 지켜주는 진정한 조국, 운명의 보호자를 가질수 있게 되였으며 자본주의이국땅에 삶의 뿌리를 내렸어도 조선민족의 넋을 가슴에 간직하고 자주적인 삶을 개척할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총련의 결성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갈래를 이루는 재일조선인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계기로 되였다.

모든 사회적운동과 마찬가지로 해외교포운동도 그 전진과 승리를 결정하는 근본요인은 정확한 지도사상과 로선이다. 좌우경적편단과 많은 피해로 점철된 과거 재일조선인운동의 교훈이 이것을 확증해주었다.

총련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라침판인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활동하는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이다.

투철한 자주의 혁명사상이며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주체사상에 기초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은 동포들

자신의 의사와 리익에 기초한 애국애족위업으로 전환되여 자기의 정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지난날 자기의 민족적의무를 쥐버리고 동포들을 일본혁명의 돌격대로 내몰아 무고한 희생을 내던 재일조선인운동이 과거와 결별하고 대오의 단합된 위력으로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실현과 조국의 륭성발전,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나갈수 있게 된것은 획기적인 사변이 아닐수 없다.

총련의 결성은 세계해외교포운동발전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세계해외교포운동사에는 민족적차별과 압제의 굴레를 벗어버리기 위한 유형무형의 투쟁들이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정확한 로선이 없고 조직성과 통일성이 결여된것으로 하여 그 모든 투쟁들은 산발적인 쟁의에 불과하였고 성과는 고사하고 피해만 가져왔다.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이 탄생함으로써 뚜렷한 지도사상과 로선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해외교포운동의 세계사적모범이 창조되였으며 해외교포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거주국의 혁명운동이나 로동운동의 일환으로 된다는 그릇된 견해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발전하는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이것은 총련의 결성이 갈길몰라 헤매는 세계의 1억이 넘는 해외교포들에게 생활과 투쟁의 귀중한 교본을 마련해준 장거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참으로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일동포들은 재일조선인운동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자기들의 운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게 되였으며 세계해외교포운동의 선구자적모범을 창조할수 있게 되였다.

총련의 결성!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경지에 올려세운 이 경이적인 사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애국자 한덕수의장의 고결한 충성과 불타는 헌신의 자욱이 뚜렷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4(1985)년 5월 24일 총련결성 30돐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한 총련의 여러 대표단을 만나신 자리에서 총련을 결성하는데서 의장동지가 제일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마다 깊이 감동되군 하였다, 의장동지가 재일조선인운동을 조선혁명을 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전환할데 대한 우리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용감히 물리치면서 열성동포들을 묶어세워 총련을 결성하였기때문에 우리는 일본땅에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고 추억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이 말씀은 한덕수의장이 시련의 시기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적로선전환방침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 총련을 결성하는데서 이룩한 공적에 대한 값높은

평가인것이다.

예로부터 큰뜻을 품으면 큰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큰뜻은 조국땅을 안을만큼 가슴을 넓혀주고 인민을 품을만큼 심장을 크게 만들어주는것이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로부터 압제에 울고 고역에 시들어가는 동포들에 대한 의무감을 지니고 싸워온 한덕수의장은 해방후 귀국의 길이 열렸을 때 고향행이 아니라 동포들을 위한 복무의 길을 택하고 이 길에 한생을 바치였다.

그라고 태를 묻은 고국이 그립지 않고 손꼽아 기다리는 가족들의 품으로 귀향하고싶지 않았겠는가.

가렬한 전쟁시기 수십년동안 만나보지 못한 부친의 사망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은 그가 빈상에 술을 한잔 부어놓고 불효지죄를 빌 때 그 심경이 어떠했겠는가는 누구나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충신, 효자가 되리라! 한의장은 이런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귀향의 꿈과 불효에 대한 죄책감을 달래며 고행의 길을 걸었다.

조련시기나 민전시기나 할것없이 고난은 겹쌓였고 스스로 자각한 임무는 무거웠다.

하지만 그에게는 믿고 의지할 마음의 기둥이 있어 신심과 용기를 가다듬으며 시련을 헤쳐 싸웠다.

한의장이 일제시기 백두산에서 울린 조국해방의 총성을 들으며 마음속깊이 흠모해온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 만나뵈온

그 나날 수령님과 한의장사이에는 믿음과 정, 신뢰와 충성의 혁명적뉴대가 굳건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의장이 지닌 애국애족의 뜻을 남달리 소중하게 여기시고 크나큰 믿음을 주시였으며 한의장은 수령님이시야말로 나라의 통일독립과 민족번영의 대업을 실현하실 유일무이한 령수이시라는 신념과 그이를 끝까지 따르고 받들 억척의 의지를 다지였다.

그때부터 한의장은 재일조선인운동을 수령님의 의도대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전심전력하였다.

오직 조국과 동포들을 위한 투쟁,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삶만을 값높이 여기고 여기서 주춤거리거나 탈선함이 없이 급행으로 달려왔다.

단신으로 감당했다고도 할수 있는 주체적로선전환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 역시 어렵고 복잡하기 이를데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지상의 의무로 삼고 드팀없이 관철하였다.

총련의 결성,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한의장사이에 오고간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 열화와 같은 충성과 의리의 결정체라고 말할수 있다.

애국을 천직으로 간직하라!

총련의 결성이라는 력사적사변의 전후과정에 어린 한의장의 애국충정의 세계를 투시해보느라면 이런 인생의 철리가 가슴에 뜨겁게 새겨진다.

진정한 해외교포조직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활로를 펼친 총련의 결성은 동포사회의 분위기를 일신시켜주었다.

온갖 박해와 좌경의 란동에 시달려온 동포들 누구나가 지지리 심신을 짓누르던 압제의 쇠사슬을 벗어버린것같은 희열에 넘쳐있었다.

쟝글속에 내버려진것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살펴줄 보호자를 가지게 되였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때의 감정에 대해 1세동포들은 궂은비도 달게 여겨졌고 이 세상이 다 제것같았다고 말하군 하였다.

동포사회를 지배하는 환희는 한덕수의장으로 하여금 조국과 동포들앞에 지닌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더욱 무겁게 자각하게 하였다.

총련의 결성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였다. 모든것이 이제부터 시작이였다. 이제 총련을 어떻게 꾸리고 어떻게 이끌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모든것이 좌우되게 되여있었다.

한의장은 앞날에 대한 커다란 희망에 넘쳐있는 동포들의 기

대에 보답할 결심을 가다듬었다. 총련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리익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해외교포조직으로 꾸리자는것이 한의장의 의도였고 확고부동한 결심이였다.

여기서 당면하게 급선무로 내세운것은 조직건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적로선에 상응하게 자체의 조직적력량 즉 총련의 각급 기관, 단체들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과제였다.

한의장은 총련이 재일조선인들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는 조직체계와 력량을 갖추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있어서 지방본부, 지부, 분회 등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과 이미 있는 각 단체, 사업체들에서 로선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해나갔다.

그는 깊은 연구와 협의밑에 각지에 하부조직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뭇고 총련결성대회에 참가하였던 대의원들과 중앙의 준비된 일군들을 지방에 파견하여 조직건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지방본부결성사업의 시발은 오사까에서 떼였다. 그것은 당시 오사까가 재일조선동포들의 5분의 1에 달하는 12만명이 살고있는 도시로서 전반적재일조선인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은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이런 까닭에 내외반동들도 총련을 없애자면 오사까부터 짓뭉개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파괴암해책동을 집중하였다.

한의장은 이런 점에서 오사까에 특별한 주목을 돌렸으며 그곳에서 조직건설의 승리로 전반적지역에 대한 조직체계완비사업을 추동할 구상을 세우고 면밀한 준비밑에 오사까지방본부결성에 착수하였다.

당시 조선동포들이 살고있는 모든 지역이 다 그러하였던것처럼 오사까의 동포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재일조선인운동로선과 그 산아인 총련을 적극 지지환영해마지 않았으며 그러한 열의밑에 지방본부결성사업에 한결같이 호응해나섰다.

그들은 이 사업이 진정으로 자기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리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운영자금을 모았으며 민전을 빗대고 총련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동포들을 설득하여 조직에 망라시키는 애국적열성을 발휘하였다.

대중이 발동되면 반디불같은 가능성도 현실로 전환되기마련이다.

하나의 지향, 하나의 뜻으로 뭉친 동포군중과 총련일군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마침내 총련이 결성된지 한달도 못되는 6월중순 오사까본부가 결성되였다.

오사까본부의 결성은 총련기층조직건설에서 첫걸음을 뗀데 불과하였지만 한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에게는 커다란 고무

를 주는 귀중한 성과였다.

그들은 신심을 가지고 오사까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각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진공적으로 벌려 곧 아이찌, 가나가와, 나가사끼현본부들을 조직하였으며 7월에는 일본의 거의 모든 현들에 총련 현본부들을 결성하였다.

총련이 결성된 후 2개월 되나마나한 짧은 기간에 각급 조직들이 결성되고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추게 된것은 주체적인 애국운동로선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보여주는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그러나 총련을 조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얼음판에 박밀듯이 순조롭게 진행된것은 아니다. 총련의 조직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쟁에는 난관도 적지 않았다.

장애요인은 외부에도 있었고 내부에도 있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앞길을 가로막은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적대시하는 내외반총련세력이였다.

본국에서 재일조선인들을 제거해버릴 흉심밖에 없는 일본반동들은 재일동포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총련이 조직되고 재일조선인운동이 활성화되자 그것을 요람기에 말살할 기도밑에 그 무슨 《간첩파견》소동을 일으키며 총련을 그와 억지로 련결시켜 말살해버리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남조선통치배들도 미제의 조종하에 저들의 앞잡이들을 내세워 총련을 악랄하게 중상하였을뿐만 아니라 재일동포들이

총련조직에 결속되는것을 막아보려고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여기에 지난날 민전의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고 애국운동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온 종파사대주의자들도 고질적인 종파적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쏠라닥거리면서 총련건설사업에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자들은 총련이나 민전이나 같고같다는 허튼 여론을 내돌리면서 총련에로 쏠리는 동포군중의 심리를 와해시키고 조직건설과 로선전환을 방해하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하지만 한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은 조국과 민족, 재일동포들앞에 지닌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총련건설사업을 완강하게 추동해나갔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 10돐을 맞으며 조국에서 진행되는 경축행사에 재일조선인축하단을 불러주시였다.

총련의 결성과 더불어 맞이하게 되는 조국해방 10돐, 얼마나 뜻깊은 경사인가.

이미 총련결성대회에서 8.15해방 10돐에 조국방문단을 구성하여 조국에 파견할것을 결정한 총련에서는 이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고 환희에 넘쳐 그 준비사업을 다그쳤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어떻게 하나 공화국의 품에서 떼여낼것만을 꾀하던 일본당국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교활한 본성그대로 《재입국》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축하단의

공화국방문을 가로막아보려고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하지만 그런 잔꾀로는 공화국으로 달리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불같은 마음을 꺾을수 없었다.

한의장은 총련결성후 처음으로 되는 총련일군들의 조국방문을 조국과 총련사이에 혈맥을 잇는 중요한 사업으로뿐 아니라 재일동포들의 귀국권리실현을 위한 통로개척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완강한 투쟁을 벌려 성사시키였다.

일본반동당국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시간도 지나고 인원도 축소되였지만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안은 4명의 조국해방 10돐경축 재일조선인축하단은 홍콩과 광주, 베이징을 거쳐 9월 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축하단의 도착소식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기뻐하시며 그들이 방문기간 아무런 불편도 없이 새 생활창조와 건설로 약동하는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을 목격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주체44(1955)년 9월 2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축하단성원들을 반갑게 만나주시고 총련조직을 강화하며 애국운동을 전개해나가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뜻깊은 자리에서 재일동포들은 자기 조국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련은 사상과 정견, 직업과 재산, 단체소속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각계각층

의 광범한 동포대중을 다 묶어세워 동포들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자기 활동에서 절대로 좌경을 범하지 말데 대해서와 애국활동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벌릴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에 하신 담화는 총련일군들이 재일조선인운동과 총련사업에서 언제나 지침으로 삼고 일관하게 구현해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밝힌 강령적인 교시였다.

한의장은 전후복구건설로 바쁘신 나날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운동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거듭 총련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해같은 동포애를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며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대로 조직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총련이 결성되여 1년 되나마나한 기간에 가고시마를 제외한 일본의 45개 도, 도, 부, 현에 총련의 지방본부가 꾸려지고 그아래에 403개의 지부와 1 400여개의 분회가 조직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애국운동로선의 기치높이 총련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복무하는 강위력한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려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굳건한

애국의지와 단결력의 힘있는 과시였다.

한의장은 총련의 조직체계를 구비하는것과 함께 동포들의 단합을 강화하고 그들의 리익과 권리를 성과적으로 옹호실현하기 위하여 그들을 계층별단체들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총련강화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이 사업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재일동포들을 총련이 지도하는 애국운동대렬에 인입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군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는데서 소홀히 할수 없는 중요한 과제였다.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계층별, 직업별에 따라 단일단체들에 묶어세우는 사업에서는 주체적애국운동로선의 기치밑에 새로운 단체들을 내오거나 이미 있던 단체들을 개편하면서 모든 단체들을 대중적성격을 띤 군중조직으로 만드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동포대중을 조직화하는 사업을 이처럼 애국애족의 견지에서 그들의 리해관계에 부합되게 조직전개함으로써 광범한 동포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대중단체결성사업이 편향없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지난 시기 유명무실하던 청년단체가 짧은 기간에 조직성이 강하고 생기발랄한 조직으로 변모된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총련에서는 동포사회의 미래를 대표하는 청년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는것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여기에 힘을 넣었다.

당시 재일조선청년운동내부는 매우 복잡하였다.

청년들의 계층별구성이 각이하였고 정치적동향도 서로 달랐다. 중요한것은 적지 않은 청년들이 민전시기에 강요된 좌경로선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특히 재일조선청년들을 대표하고있던 재일본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민애청)은 광범한 청년들의 대중적조직으로 되지 못하다보니 10만의 동포청년들가운데서 2 000명정도의 맹원밖에 망라하지 못하고있을 정도였다.

이러한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한덕수의장은 청년들을 총련의 주위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청년조직의 전위조직화가 아니라 민애청을 해산하고 광범한 청년들을 망라한 새로운 민주주의적이며 대중적인 청년조직을 결성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였다.

1955년 8월 1일, 바로 이날 민전시기 동포청년들을 일본혁명의 돌격대로 내몰아 피와 희생을 강요하던 민애청이 해산되고 새로운 동포청년조직인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이 결성되였다.

조청의 결성은 광범한 재일동포청년들을 주체의 기치,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묶어세우는데서 리정표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으며 세계해외교포운동을 대표하는 재일조선인운

동의 창창한 미래를 기약해준 일대 경사였다. 이때로부터 재일조선청년운동은 자기의 정확한 로선이 없이 좌왕우왕하던 과거와 결별하고 주체의 궤도를 따라 조선혁명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으며 재일조선청년들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해외청년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지니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청춘의 삶과 보람을 꽃피울수 있게 되였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뿐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기대가 어린 총련을 존엄높고 위력한 해외교포조직으로 건설하려는 한의장을 비롯한 총련의 핵심들과 동포들의 애국적열의속에 1955년 9월에는 동포사회의 근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의 대표조직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이 주체적애국운동로선이 구현된 강령과 규약을 가지고 새롭게 출현하였으며 지난 시기 각 지방에 뿔뿔이 흩어져 내외반동들의 롱락의 대상으로 되여오던 동포사회과학자들은 이해 12월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를 뭇고 총련애국위업을 추동하는 애국력량으로 동포사회앞에 나서게 되였다.

총련을 강화하고 동포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투쟁의 나날에 재일본조선인중앙교육회,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재일본조선인문화단체협의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재일본조선인통일동

지회, 재일본조선인불교도련맹을 비롯한 교육, 문화, 출판보도부문의 단체들도 새롭게 조직개편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대오에 들어서게 되였다.

1956년초까지는 재일동포들의 거의 모든 계층별, 직업별단체들이 새로 결성되거나 개편되여 총련의 군중적지반이 강화되게 되였다.

이것은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으로 되는 귀중한 성과였다.

한의장은 총련의 조직체계를 그쯘하게 갖추고 공고한 대중적지반을 구축하는것과 동시에 그것을 이끌 일군대렬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예견성있게 벌려나갔다.

총련애국위업을 담당할 일군대렬을 량적, 질적으로 강화하는 문제는 당시 절실하게 제기되는 일군수요를 자체로 해결할뿐 아니라 총련의 골간부대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져 재일조선인운동을 일대 앙양에로 떠밀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였다.

한의장은 이 사업을 당면과제로가 아니라 전망적인 안목에서 보고 자체의 간부양성기관을 창설할것을 결심하였다. 그의 제의는 모두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으며 총련일군들속에는 교육기관창설사업에 대한 경험도 많이 축적되여있어 조직사업에 따라 제기된 문제들이 거의 막힘없이 풀려나갔다.

그리하여 1955년 8월 총련의 간부양성기관인 총련중앙학원이 창립되였다.

총련중앙학원의 창립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해외교포일군들을 육성하기 위한 간부양성기관의 첫 출현이였으며 총련조직을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강철의 애국대오로 꾸리려는 한의장의 애국적결단의 빛나는 실현이였다.

총련중앙학원이 창립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인 전진발전은 주체의 세계관이 확립되고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총련일군들과 핵심들에 의하여 믿음직하게 담보되게 되였다.

총련중앙학원이 창립된데 이어 그것을 모체로 하여 깅끼, 간또, 규슈지역에 총련간부양성을 위한 지방학원들이 나왔다.

한의장은 지난 시기의 활동가들을 교양하여 총련조직에 인입하기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돌렸다.

재일조선인운동에 복무해온 과거활동가들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민전시기 사상적, 방법론적편견으로 하여 좌경적모험주의적오유를 범하였지만 애국심과 민족적각성이 있고 더우기 주체적애국운동로선에 접한 후부터는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있었다.

그런데 총련의 일부 산하조직들에서는 그들의 과거만을 문제시하며 배척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있었다.

한의장이 과거활동가들에 대한 문제에 낯을 돌리게 된것은 오사까지역에 총련지역본부들을 결성할 때부터였다.

현지에 나가 실태를 료해하던 그는 일부 현들에서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과정에 그에 대해 시비하며 방해해나서는 종파사대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벌리면서 과거활동가들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려는 경향을 발견하게 되였다. 그중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와 일본반동당국의 무기수송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희생적으로 싸운것을 비롯하여 한의장이 여러 계기들에 직접 목격하고 알게 된 애국심과 민족적각성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다.

광범한 동포대중을 총련이라는 한지붕아래 묶어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때에 과거를 문제시하면서 일률적으로 경계하고 배척하는것은 통일전선원칙에도 맞지 않았다.

한의장은 일군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상정시키고 과거활동가들을 한 자막대기로 취급하지 말며 체질화된 분파분자들을 내놓고는 교양하여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손잡고 나가는 원칙을 견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후 총련의 각급 기관들에서 과거활동가들에 대한 편협한 경향을 시정극복하고 그들을 총련일군대렬에 적극 인입해나갔다.

이러한 때 어머니조국에서 또다시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

이 미쳐왔다.

전후 폐허로 된 나라를 복구하기에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결성후 조직강화를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총련의 사업실태를 료해하시고 인삼을 비롯한 귀중한 보약재들을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 희한한 소식에 접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커다란 감격과 흥분에 휩싸였다.

1956년 여름과 가을에 현본부단위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다.

모임장소에는 참으로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감동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선물을 전달받은 병약한 일군들과 로인들은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으며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목청껏 불렀다.

선물을 전달하는 한의장의 눈에도 뜨거운것이 맺혔다.

그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이 걸어온 10여년세월 그가 직접 보고 느끼면서 체험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성과 한없는 동포애에 대한 감복과 경탄의 눈물, 수령님따라 주체의 길, 총련애국위업의 승리의 길을 끝까지 가려는 맹세의 눈물이였으리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하여

무릇 노래는 투쟁과 생활의 선률이라고들 한다. 인간은 노래와 함께 운명을 개척해왔고 머나먼 험로에 새겨진 노래들에는 역경을 길들여온 사람들의 고락이 어려있다.

노래소리가 높다는것은 삶과 투쟁의 률동이 아름답다는것을 말한다.

하지만 고금의 어느 나라에서도 수령을 칭송하고 시대를 례찬하는 노래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사람들의 심장에서 울리는 례를 찾아볼수 없다.

오직 주체의 기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밑에 인민의 참다운 리상을 꽃피워나가는 우리 나라, 우리 혁명에서만 인민의 진정이 어린 노래들이 세월을 넘어 창공높이 메아리치고있다.

총련에서 참다운 민족교육체계를 확립하던 1950년대후반기에 창작보급된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도 재일동포들과 우리 인민의 애창곡으로 21세기인 오늘도 널리 불리워지고있는 명곡이다.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보낼줄은
꿈결에도 꿈결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교육원조비 장학금의 많고많은 귀한 돈을
바다너머 저 멀리 조국에서 보내왔어요
아 수령님의 높고 큰 이 사랑을
산이나 바다에 그 어이 비기랴

한의장이 지은 이 노래에는 조국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구건설을 다그치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총련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사랑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한없는 고마움이 절절하게 반영되여있다.

단순 3부분형식으로 구성되여있는 선률이 5음조식에 기초하고있는 노래이지만 이 노래가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고 널리 불리워지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화려한 시적어휘나 환상적인 선률을 탄 노래만이 명곡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격동적인 현실을 접한 인민의 뜨거우면서도 절절한 서정을 담고있는 노래라면 가사와 선률은 소박해도 다함없는 송가로 되는것이다.

노래가 창작될 당시 재일조선인운동앞에는 민족교육의 권리를 쟁취하고 옹호고수하는 문제가 중차대한 과제로 제기되였다.

그것은 민족교육을 떠나서 재일동포들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총련결성당시 재일조선인민족교육사업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었다.

조선전쟁을 전후하여 감행된 일본반동당국의 탄압말살책동으로 하여 많은 학교들이 폐쇄되여있었으며 일부 운영되던 학교들도 교사와 시설이 부족하고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었다.

1955년 3월현재 자주학교는 71개, 학생수는 17 000여명뿐이였다. 그밖에 공립분교가 20개소, 민족학급이 60개소 남아있었다.

해방후 한의장을 비롯한 조련의 활동가들과 재일동포들의 고심참담한 노력으로 1948년에 이르러 전 일본판도에 세워진 학교수가 606개, 학생수는 58 100명에 달하였던 사실을 념두에 두면 당시 민족교육이 어느 지경에 있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그것은 철두철미 민족배타주의적인 반조선인광증에 사로잡힌 일본반동들의 조선인학교탄압말살정책의 후과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굴복하여 민족교육을 포기한 민전의 사대주의자, 민족허무주의자들의 반민족적책동에 기인되는 가슴아픈 현실이였다.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재일조선인운동의 요구에 맞게 민족교육사업을 발전시키자면 새로 시작하는것이나

다름없이 많은 품을 들여야 할 형편이였지만 한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은 맥을 놓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민족교육을 주체의 궤도우에 새롭게 일떠세운다는 배심과 용기를 가지고 달라붙었다.

한의장은 총련결성당시 강령 제4조에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실시하는것을 총련의 기본과업의 하나로 밝혔으며 결성대회 보고에서 《민주주의민족교육을 강화발전시키자》라는 대목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교육활동방침을 규정하였다.

1) 전체 청소년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충직한 아들딸로 교육교양한다.

2) 교육행정체계를 확립하고 학교교육을 강화하며 교육의 질을 높인다.

3) 학교운영사업과 진학대책을 강화한다.

4) 청년, 녀성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

이에 립각하여 한덕수의장은 민족교육에서 주체를 세워 재일조선청소년들을 공화국의 참된 아들딸로 교육교양함으로써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데 대한 교육리념을 리정표와 같이 굳건히 세웠다.

그는 현실을 고려하여 당면하게 자주학교나 공립학교, 공립분교, 민족학급과 같은 현존교육형태를 유지하고 늘이는 방법으로 민족교육을 받지 못하는 동포자녀들을 취학시키며 점차 초, 중, 고급학교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뿐 아니라 대

학까지 내올것을 계획하였다.

자녀들에 대한 민족교육은 일본땅에 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동포들 누구나가 간절히 바란 소원이였다. 비록 못먹고 살림은 어려워도 자식들만은 민족의 얼을 잇고 살게 하려는 것이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였다.

총련에서 교육사업방침이 제시되고 조직사업이 이루어지자 동포사회가 자주학교들을 재건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었다. 동포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 학교를 지켜야 한다.》는 구호밑에 가정생활의 소중한 밑천으로 간수하고있던 돈까지 아낌없이 내놓으며 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한의장은 자주학교재건사업을 추진하는것과 함께 일본지방당국으로부터 민족교육의 자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오사까, 후꾸오까, 아이찌, 지바, 구마모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공립학교를 자주학교로 전환시킬데 대한 요청서를 지방당국에 들이대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많은 지역들에서 민족교육의 자주권을 회복하였다.

도꾜에서만도 도립으로 운영하던 13개의 초급학교와 한개의 중급학교, 한개의 고급학교를 자주학교로 전환시키고 도꾜조선학원의 인가를 받아냈다.

학교건설도 전 동포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려 1956년 한해에만 하여도 16개의 각급 학교가 신설되거나 중축되였다.

총련결성당시까지 조선인자주학교가 없던 규슈지방에도 조선중고급학교가 훌륭히 건설되였으며 후꾸오까현의 동포들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민족교육의 불모지에 규슈조선중고급학교를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결과적으로 총련결성후 5년사이에만도 초급학교 18개, 중급학교 16개, 고급학교 2개의 교사를 새로 건설하여 동포자녀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다른 한편 자주학교 학생대렬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련중앙위원회 제15차회의에서 학생수 30% 증가운동을 제기하고 힘찬 투쟁을 벌려 1959년 새 학년도에는 전국적으로 4 689명을 늘이였다. 그리하여 그 시기 비정규교육망(민족학급, 야간학교 9 600명)을 제외한 자주학교 학생수만 하여도 2만 3 000여명으로 장성하였다.

한의장은 자주학교들의 교육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품을 들여 진행해나갔다.

재일동포들의 교육은 어디까지나 민족교육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자주학교들의 교육내용을 조선말과 글, 조선의 력사와 문화, 지리를 가르치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애국애족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로 지향시켜나갔다.

그러자니 교과서문제가 난문제로 제기되였다.

이러한 때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사업을 깊이 관심하고계

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사실을 료해하시고 1955년 11월 림시적인 조치로 모든 교종과 학년에 걸쳐 조국의 교과서와 교원용참고서들을 총련에 보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총련의 민족교육발전을 위한 교과서문제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다심한 사랑과 은정을 가슴에 새긴 한덕수의장은 그 교과서들에 기초하여 교재편찬사업을 다그쳤다. 그리하여 1956년 4월 새 학년도에는 70종에 8만 2 317부의 각종 교과서를 출판배포하여 자주학교들의 교수교양에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한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이 동포대중을 발동하여 주체적인 민족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린 결과 도처에 자주학교들이 번듯하게 일떠섰으며 교정의 창가마다에서는 조선말을 익히고 조국을 노래하는 동포자녀들의 랑랑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러나 당시 형편에서 한두개도 아니고 백수십개의 민족학교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민족교육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고 날로 늘어나는 각급 학교들의 물질기술적, 재정적수요를 충당하며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려면 많은 자금이 요구되였는데 총련자체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다.

당시 우리 학교들의 형편은 한심하였다. 교육조건은 물론

이고 교직원들의 생활형편도 막바지에 있었다. 많은 교원들이 아침은 건빵에 물 한고뿌로, 점심은 학생들이 번갈아 가져오는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고 저녁은 번지는것이 례상사였다. 학부모들과 수많은 동포들이 술과 담배를 끊고 반찬값까지 절약하며 한푼두푼 모은 피땀에 절은 돈을 바치였지만 그것은 달아오른 가마에 눈덩이 떨어진 격이였다. 민족교육을 개척하는 투쟁에서 높은 애국적열의를 발휘하며 아낌없이 자금부담을 져온 동포들도 대부분이 고정된 직업이 없이 일공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였다.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섬나라땅은 풍토도 척박하였지만 그 거치른 온상에 뿌리를 두어서인지 일본반동들의 심보 또한 가물탄 수수잎마냥 밸밸 꼬이고 속통머리도 고약하기 짝이 없었다. 조선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심술보따리부터 풀어놓는 일본반동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우리 학교들을 《따라지학교》라고 놀려대면서 비양거렸고 재일조선인들의 비참한 민족교육실태를 잘코사니라고 손가락질해대는 판이였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이역땅에서 돈, 돈이 없어 동포자녀들을 떳떳이 내세우지 못하고 우리 학교가 기를 펴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할수록 한의장의 가슴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다. 가슴을 찢는 일은 그뿐이 아니였다. 자식들의 눈물겨운 정상을 두고 속앓이를 하다못해 일본학교를 넘보는 동포들의 사정은 그의 피흐르는 가슴에 매운재

를 뿌렸다.

하기에 한의장이 온 총련을 발동하여 이를 악물고 자금을 마련하려고 손발이 닳도록 뛰여다니였지만 곤난은 가셔지지 않았다.

이러한 때 어머니조국에서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이 와닿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교육사업에 가로놓인 난관을 헤아리시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던것이다.

주체44(1955)년 9월 조국해방 10돐경축 재일조선인축하단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의 어려운 민족교육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단호한 어조로 공화국정부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힘껏 도와줄것이라고 하시면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도 보내주고 교과서도 보내주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1957년 1월 어느날 이해의 국가예산초안을 토의하는 내각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한 5개년계획수행의 자금문제를 중심의제로 토의하는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이 시기로 말하면 조국에서 제1차 5개년계획수행의 첫걸음을 떼던 때였다.

미제가 감행한 파국적인 전쟁의 후과로 폐허로 된 나라를 전면적으로 재건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거창하게 벌어지던 때여서 어디서나 요구되는것이 자금이였다.

회의는 방대한 계획과제에 비해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것으로 하여 매우 심각한 분위기속에 진행되였다.

그런데 국가예산항목을 하나하나 검토하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득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항목은 왜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원래 계획초안작성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재일동포자녀교육비를 예산항목에 포함시켰으나 재정형편이 너무 긴장하여 별도림시외화계획에 넣어 집행할것을 예견하고있었다.

이 사실을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짓는한이 있더라도 이 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민족적의무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두번 보내주고 그만둘 일이 아니다, 일본에 우리 동포가 있고 배워야 할 어린이가 있는 이상 계속 보내주어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국가예산에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을 내오고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사업을 단순히 교육사업이라고만 보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민족을 도로 찾고 민족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민족적 애국사업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얼마나 민족애, 동포애가 뜨겁게 흘러넘치는 말씀인가.

그리하여 우리 나라 국가예산에는 세계재정금융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예산항목, 《재일동포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이 생겨나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해외교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1957년 4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동포애가 어린 1억 2 109만 9 086¥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졌다.

세계를 놀라움과 경탄으로 진감시키며 재일동포들에게 안겨진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그것은 바다건너 이역땅에서 민족의 넋을 생명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 혼신을 다해 싸워나가는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사랑의 생명수였다.

인류사에는 남조선통치배들과 같이 기울어져가는 저들의 《정권안보》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꽃나이처녀들까지 유럽나라들에 보내면서 굴욕을 강요한 가슴아픈 《인력수출》의 비화는 있어도 동포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보내준 그런 가슴뜨거운 사실은 있어본적도 없고 있을수도 없다.

해외교포운동사에 전무후무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세계에 수천수백만의 해외교포들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많아도 모국이 베푸는 어버이사랑속에 수령과 조국을 노래하며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사는 우리의 해외동포들뿐이라는것을 웅변해주었다.

조국에서 동포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게 되였다는 소식에 접한 첫 순간 한덕수의장은 꿈만 같은 그 소식이 도저히 현실로 믿어지지 않아 망연자실하여 한참이나 사무실안에서 우뚝 서있었다.

아직은 너무도 어려운 조국이 아닌가. 가혹한 전쟁의 상처를 가시기 위한 복구건설투쟁이 한창이여서 벽돌 한장, 돈 한푼이 천금같이 귀한 때에 갓 결성된 총련의 민족교육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겠다고 하시였다니 세상에 이런 사랑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비록 집안살림이 어려워도 외지에서 고생하는 자식이 배곯을세라 더 마음쓰는 어머니의 다심한 정으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해 베풀어주는 조국의 사랑이 불덩이처럼 가슴을 달구었다. 돈있는 집 자식은 공부하기 싫어해도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고싶어하는 가난한 아이는 왜 학교에 가지 못하는가고 가슴치던 망국세월의 설음이 어머니가 없는 설음, 보살펴주는 품이 없어 겪은 설음이였음이 새삼스레 느껴지며 눈물이

걷잡을수 없이 솟구쳐올랐다.

정녕 우리 수령님은 한의장에게 있어서, 아니 재일동포들 모두에게 있어서 민족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친어버이이시였고 운명의 구세주이시였으며 삶의 고마운 은인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1957년 4월 처음으로 도착한 그날 재일동포들은 형언할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목메여 얼싸안고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웨치였다.

당시 총련 《조선민보》에는 이런 글이 실리였다.

《지금 일본의 방방곡곡 동포들이 사는 그 어디서나 조국에서 보내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대한 화제로 광활한 희열과 기쁨에 들끓는 장면에 부닥친다. 둘이 만나나 셋이 앉으나 동포가 모인 장소라면 이 화제로 꽃이 핀다. 시간이 가는줄 모르고 감격의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모두는 내가 조선공민으로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였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다는 결의를 터친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듯이 동포들 누구나 감격을 금치 못하며 서로 얼싸안고 기쁨과 감격을 나누었다. 우리 동포들이 사는 그 어디나 명절분위기로 들끓었다.

정녕 민족교육이 안팎으로 위기를 겪고있던 때 공화국정부의 명의로 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총련에 와닿은것은 총

련의 민족교육에 활력을 부어주고 그 주체적발전을 담보해준 자양이였다.

그러니 어찌 한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의 가슴이 흥분으로 높뛰지 않겠는가.

당시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에서 일한 한 일군은 이날의 심경에 대해 삼춘고한 가문 날에 단비라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어찌 가문 날에 단비에 비길 수 있었겠는가, 그날 총련중앙에서 한의장을 보았는데 너무 좋아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그러안고 빙글빙글 돌아가던 일을 잊을수 없다고 회고하였다.

한의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이 어린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재일동포민족교육에 실질적으로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교육일군협의회를 거듭 열고 그 지급대상과 방법을 확정하였으며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전달이 의의있는 행사로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재일조선인들의 교육비부담을 덜어주고 조선대학교와 일본대학들에 재학하는 빈곤한 조선인학생들에게는 장학금으로, 학비난에 처한 초, 중, 고급학교 학생들에게는 취학장려금으로, 동포과학자들에게는 연구보조비로 돌려져 총련민족교육의 화원을 활짝 꽃피우는 활력소로 되였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접수, 지급과 관련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늦게야 거처에 돌아온 한의장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수 없었다. 몸은 녹초가 되였으나 마음은 진정할수가 없었다.

당시 조국의 형편에서 그 한푼한푼의 돈이 얼마나 귀한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그는 자신의 불충무능때문에 조국이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건설의 번영기를 펼치는데 지장을 주었다는 죄스러움에 모대기였다.

그럴수록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이 마음을 더더욱 격동시켰다.

그는 책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가슴에 차오르는 시적서정이 그대로 글로 옮겨졌다.

수령님께서 수령님께서 돈을 주실줄은
그날까지 그날까지 생각을 못했지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구건설 다그치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위해 보내셨어요
아 수령님의 높고 큰 이 사랑을
산이나 바다에 그 어이 비기랴

이역에서 이역에서 나서자라는
아들딸도 아들딸도 지덕체 갖추어서

사회주의조국의 역군이 되여라
어버이심정으로 수령님이 보내셨어요
아 수령님의 높고 큰 이 사랑을
산이나 바다에 그 어이 비기랴

총련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시며 복구건설에 돌려야 할 그처럼 귀중한 자금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고마움의 정을 그대로 토로한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는 이렇게 되여 세상에 태여났다.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어버이사랑에 대한 감사의 정이 그대로 오선지에 옮겨진 즉시 해일같은 속도로 동포사회에 파급되였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할것없이 동포들 누구나 길거리를 오가며, 학교와 일터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삶의 희열에 넘쳐있었고 이 노래와 함께 총련애국위업에 매진할 충성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군 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한의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베푸시는 동포애가 얼마나 위대한것인가 하는것을 폐부로 절감하였으며 어떤 역풍이 불어와도 오직 수령님을 따르고 그 은덕에 보답해야 한다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였다.

한의장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일념을 애국열로 불태우며 동포들의 생활권, 기업권을 비롯한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려나갔다.

당시 동포들은 누구나 극심한 생활난에 시달리고있었다.

그때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지배주의적인 대아시아정책에 편승하여 해외침략야망실현의 길로 질주하고있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합리화》의 간판을 내들고 군수산업을 급속히 확장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일본의 평화산업, 중소산업은 무리로 파산몰락하고 실업대군이 온 일본판도에 차넘치게 되였다. 그 첫번째 희생자는 재일조선공민들이였다.

1955년 9월현재 재일조선인들의 80%가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였으며 경영난으로 파산의 벼랑끝에 몰린 동포중소상기업가들은 4만명에 달하였다.

한편 일본반동들은 1956년도 예산에서 재군비예산을 확장하면서 재일조선인생활빈곤자들에 대한 《생활보조금》적용을 폐지하는 차별조치를 취하였다. 심지어 《외국인재산취득령》이라는 악법을 내들고 동포들이 개간하여 부쳐오던 땅뙈기마저 빼앗고 《고철고물회수조례》라는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동포들의 명줄을 조이였다.

일본반동들의 지독스러운 민족차별정책으로 하여 똑똑한 직

업이 없이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동포들의 생활처지는 극도에 이르렀으며 그것은 애국사업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

이 시기 동포들의 생활권옹호문제의 절박성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5년 10월 20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제1차 일본국회의원단을 만나시여 재일동포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 남아있는 일본사람들을 데려가고싶다는 일본국회의원들의 의향에 대해 쾌히 수락해주시고나시여 일본당국이 재일조선공민들에게 국제법상 공인된 제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아 재일조선공민들이 매우 어려운 생활난에 부닥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일 량국정부가 협의의 방법으로 재일조선공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제2차 일본국회의원단을 접견하실 때에도, 그 이듬해 일본 《요미우리신붕》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면서도 일본정부에 재일조선공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줄것을 요구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1955년 12월 29일에 재일조선공민들의 합법적권리보장문제와 생활안착문제에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강조하고 동포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애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해결해주기 위하여 우리나라 대표를 일본에 상주시킬 용의를 표명하는 공화국외무상 성명이 발표되였다.

이러한 소식은 여러 출판물들을 통하여 널리 전해져 동포들을 크게 격동시켰다.

한의장은 재일조선인운동의 갈피마다 새겨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사랑과 세심한 배려에 대하여 다시금 감격을 금치 못하면서 총련과 동포들이 생활권쟁취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일본반동들이 감행하는 생활권탄압책동의 비법성과 비인간성을 폭로단죄하는 투쟁과 일본당국의 부당한 조치들을 철회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을 줄기차게 조직전개하도록 하였다.

모든 총련조직과 전 동포사회를 포괄하는 조직사업에 따라 중앙에서는 일본반동들의 생활권탄압을 반대하여 성명과 항의문들을 발표하고 대표들을 일본국회와 관계당국에 파견하여 일본정부에서 공화국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일것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생활조건보장대책을 취할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들을 제출하였다.

도꾜, 오사까를 비롯하여 동포들이 밀집되여있는 큰 도시들과 지역들에서는 대규모의 군중집회와 시위행진이 진행되였으며 일본 각지에서 각종 형태의 항의 및 요청운동이 벌어졌다.

초보적인 삶의 권리를 요구하여 대중적으로 떨쳐나선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은 일본반동들에게 커다란 정치도덕적 타격을 가하였으며 결과 아이찌현, 후꾸오까현, 교또부, 후꾸이현, 도야마현을 비롯한 많은 지역들에서 동포들이 빼앗겼던 직업을 되찾는것과 같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한의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이밖에도 기업권쟁취투쟁과 공화국공민권수호투쟁을 비롯하여 동포들의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동포들이 조국과 조직의 손길아래 삶을 개척해나가는 긍지를 안고 총련애국위업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 나날은 한의장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재일조선인운동로선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 수령님께서 무어주신 총련조직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대하여 실감하게 한 나날이였다.

동포들의 리익을 위한 투쟁과정에 페부에 새긴 소중한 체험은 총련애국위업을 떠밀어나가는 기나긴 로정에서 그에게 신심과 활력을 북돋아준 원천으로 되였다.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결성후 총련에서는 주체적애국운동로선에 립각하여 조직을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헤치며 재일조선인운동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강철의 대오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었다.

힘을 동반하지 않은 정의는 무효이고 정의를 동반하지 않은 힘은 횡포이다.

인류사가 확증해준 이 진리를 재일조선인애국자들은 피로 얼룩진 10년세월의 혈로를 헤치면서 실체험으로 뼈에 새겼다.

그들은 민족배타주의적인 강권과 폭력행사에 맨주먹으로 맞서 막대한 희생과 손실을 내지 않으면 안되였던 가슴아픈 민전의 페해가 다시는 되풀이되게 할수 없었다.

그러자면 총련을 사상적으로 순결하고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된 불패의 대오로 강화해야 하였다.

자기를 지킬 무력을 가질수 없는 재일조선인애국자들에게 있어서 힘이란 곧 총련조직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의미한다. 단결의 위력은 무적이다.

당시 총련의 결성자체가 주체적애국운동로선의 산아였지만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정치사상적준비는 응당한 수준에 이

르지 못하고있었다. 로골화되는 일본당국의 반총련책동에 과감히 맞서나가리만큼 단결력도 강하지 못하였다.

적지 않은 일군들과 동포들은 그때까지 주체적애국운동로선의 진수와 정당성을 똑똑히 깨닫지 못하고있었는가 하면 이색적인 몽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한덕수의장은 총련의 조직적강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일군들속에서 학습운동을 힘있게 벌릴것을 발기하고 이 운동을 강력히 조직전개하였다.

총련에서는 일군들속에서 학습운동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1956년 2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3차회의를 열고 현실적요구에 맞게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를 계기로 총련의 각급 기관들에 간부학습반들이 조직되여 매주 정기적으로 집체학습이 진행되였으며 일군들의 정치사상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강습이 조직되였다.

총련적범위에서 학습이 조직화되고 지난 시기 기껏해야 개별적으로 맑스-레닌주의서적과 혁명적인 소설들을 읽으면서 고전명제들이나 따라외우던 일군들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여기에 적극 참가하면서 교재문제가 중요한 애로로 제기되였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의 고충을 헤아리시고 조국에서 여러가지 학습교재들을 보내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총련에서는 《**김일성**선집》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여러가지 수많은 도서들을 가지고 학습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게 되였다.

한의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배려로 학습조건이 원만히 구비된데 맞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에 대한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커다란 실효를 거두었다.

지난 시기 재일조선인운동에 관여해온 오랜 일군들을 비롯하여 모든 총련일군들속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이 강화되고 거기에서 배운 새로운 눈으로 현실을 대하는 과정에 민전시기 좌경로선의 부당성을 똑똑히 파악하게 되였으며 총련애국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정신무장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것을 진수로 하는 주체적인 애국운동로선의 본질과 정당성, 그 생명력과 과학성을 기본으로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는 사상교양과 대중전취, 애국투쟁의 방법과 묘술 등을 체득시키는 정치교양사업들은 지난 시기부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면서 여러가지 페단들을 낳던 일군들에게 수양의 훌륭한 계기로, 자양으로 되였다.

한의장은 일군들속에서 학습이 심화됨에 따라 대중교양에도 힘을 넣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불씨가 료원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자면 광범한 동포들을 조직과 뜻과 행동보조를 같이하는 하나의 튼튼한 애국집단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것이 그가 오랜 기간의 투쟁실천에서 찾은 교훈이였다.

한의장은 동포들속에서 주체의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학습을 조직별로 짜고드는 한편 반조선인광기와 자본주의바람이 생활의 곳곳에 스며드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리도록 하였다.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홑옷에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며 일제의 백만대군과 피어린 성전을 벌리는 나날에 창조된 항일투사들의 수령과 조국,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야말로 자본주의이역에서 조선민족의 넋과 존엄을 지키며 애국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재일동포들에게 필수적인 혁명량식이였다.

총련에서 혁명전통교양의 구호를 들자 동포들은 이에 적극 호응해나섰으며 이 과정에 회상기 100번읽기운동과 같은 대중적인 학습운동이 발기되여 동포사회의 정신령역을 정화하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그것은 잔잔한 호수에 격랑을 일으키는 폭풍과 같이 동포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실로 놀랄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동포들속에서 지난 시기와는 달리 조직이 준 과업이라면 어떤 난관이 제기되는한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하고야마는 기

풍이 확립되여가고 생활의 풍파를 웃으며 이겨나가는 강의한 기질도 여기저기서 엿볼수 있었다. 이러한것은 이전에는 찾아볼수 없던 빨찌산식의 새 모습이였다.

당시 조선대학교 학생이던 한의장의 맏딸 한음전은 회상기 100번읽기운동에 대해 《이 운동은 빈 구호나 상징적인 말이 아니였다. 그때 우리는 대학과 집에서는 물론 길을 걸으면서도, 뻐스를 타고가면서도 회상기를 읽어 누구나 통달하고있었다. 대학청년조직에서 자주 조선사람찾기나 동포가족돕기와 같은 과업들을 받아 수행하군 하였는데 그럴 때면 오백룡동지가 쓴 회상기 <명령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를 되새기며 맡은 과업을 무조건 수행하였다.

어느날 생활상 어려운 동포가족돕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뻐스안에서 학급반 녀동무가 나에게 너는 아버지가 의장이 아니라도 조직이 준 과업수행에 그처럼 열성이겠는가고 묻고나서 나의 귀에 대고 난 그동안 조직에 보고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생겼어. 보고해야 할가 어쩔가 하고 실토정을 하였다. 나는 어디 나뿐이냐? 너두 열성이구 다 열심히 뛰여다니지 않니 하고 말해주고는 애인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그때는 처녀들이 30살전에는 시집갈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였고 누구나 신변잡사에 신경을 쓰는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였다. 그 동무는 그때 남자친구를 멀리하고 32살에야 시집을 갔다.》고 추억을 담아 말하였다.

총련이 기치를 들고 동포대중이 봉화로 화답한 주체사상학습운동과 혁명전통학습열풍은 이처럼 현실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우리 민족은 조상대대로 정의와 진리에 충실하고 애국에 열렬하며 순결한 민족으로 이름떨쳐왔다. 조선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소중히 간직한 재일동포들이기에 혁명의식, 계급의식의 산 교과서로 되고 애국애족정신의 샘과 같은 주체사상과 항일의 혁명전통을 삶의 자양으로 받아안고 인생을 혁명으로 전환시켜나갔던것이다.

이때부터 총련과 동포사회가 혁명의 대하에 뛰여들게 됨으로써 개개 사람들의 풍모도, 인생의 지향과 일본새도 혁명적으로 달라지게 되였다.

지난 수십년세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내외침략세력의 발악적인 정치군사적적대행위의 꺼붙이처럼 따라다닌 일본반동들의 끈질기고 악랄한 반총련책동속에서 총련과 동포사회가 주체의 기치높이 사소한 동요와 좌절을 모르고 승승장구의 일로를 걸어올수 있은것도 그 나날 학습운동이 부어준 혁명적자양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줄기차게 계승된 자랑스러운 결실인것이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을 혁명적수양의 도가니속에서 강철로 키워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견결한 혁명정신을 재일조선인운동의 피줄기로 이어놓은것은 1950년대

후반기와 1960년대의 총련조직과 한덕수의장이 이룩한 공적으로 된다.

산아 산아 높은 산아
너 아무리 높다한들
우리 수령 **김일성**원수
그 높은 은공에 미칠소냐

바다 바다 깊은 바다
너 아무리 깊다한들
우리 수령 **김일성**원수
그 깊은 은공에 미칠소냐

들아 들아 넓은 들아
너 아무리 넓다한들
우리 수령 **김일성**원수
그 넓은 은공에 미칠소냐

하늘공중 넓다한들
깊고 높은 그 은공에 미칠소냐
우리 수령 **김일성**원수
높이높이 받들어나가세

전 동포대중이 망라되여 벌어진 학습운동의 나날에 문맹퇴치사업에 뛰여들어 우리 말을 익히고 세상리치를 알게 된 요꼬하마시의 한 동포할머니가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하여 지은 가사이다.

낫놓고 기윽자도 모르고 가정잡사나 돌보며 여생을 보내던 할머니가 어둡던 눈을 틔우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노래하게 된것은 총련이 애국위업의 운명을 걸고 진행한 학습운동의 거대한 생활력을 실증해주는 산 증거가 아니겠는가.

한덕수의장은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여기에 주되는 힘을 넣었다.

당시 총련을 정치사상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은 자기 궤도에 들어서고있었지만 내부에는 주체적애국운동로선에 어긋나게 행동하는자들도 없지 않았다.

이자들은 총련 제3차 전체대회를 계기로 총련의 중앙지도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모의까지 벌리면서 간부들사이에 쐐기를 박고 그들을 동포대중에게서 리탈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은혜를 원쑤로 갚는 격으로 접어드는 불순분자들의 도전적인 분파행위를 묵인방치한다면 총련애국위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칠수 있었다.

한덕수의장은 총련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일색화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반종파투쟁 경험과 재일조선인운동과 총련건설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밝혀주신 로작과 교시들을 깊이 학습하였다.

그 과정에 단결의 기치높이 대오의 순결성을 보장해오신 수령님의 현명성과 단호한 정치적결단성, 비상한 령도적수완에 탄복을 금할수 없었고 총련에서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벌려야 하겠는가 하는 일가견과 방법론이 서게 되였다.

한의장은 총련일군협의회를 통하여 대오안에서 종파적경향을 근절하기 위한 토의를 깊이있게 한데 기초하여 1957년 3월 총련중앙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분파행위를 극복청산하기 위한 투쟁의 불을 걸었다.

총련조직을 정예화하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는 속에 대오의 순결성과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1959년 6월에 진행된 총련 제5차 전체대회는 총결기간 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정형을 총화하면서 종파사대주의와의 투쟁을 조직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주되는 힘을 넣은 결과 총련조직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는것을 자랑스럽게 선언하였다.

순간 우렁찬 박수소리가 장내를 진감하며 터져나왔다.

대회연단에서 환호의 열기로 끓어번지는 회의장을 굽어보는 한덕수의장의 얼굴에는 깊은 심회의 빛이 비껴있었다.

총련 제5차 전체대회는 총련결성후 조직건설과 재일조선인운동앞에 나선 제반 과업수행의 공고한 기초를 닦은 승리자들의 대회라고 말할수 있었다.

천리길도 한걸음에 시작된다고 총련이 고고성을 터치던 때가 어제일 같은데 어언 4년세월이 흘렀다.

물론 4년은 재일조선인운동사를 놓고보아도 길다고 할수 없지만 이 기간에 총련은 실로 큰걸음을 내짚었다.

간난신고를 무릅써야 하는 고행길에서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만 보람은 컸다.

이제는 조직이 자기 체모를 갖추고 실속있는 력량으로 강화되였으며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았으나 동포들의 민주주의민족권리쟁취를 위한 토대도 일정하게 마련되였다.

중요한것은 총련과 개개의 동포들속에 주체의식이 확립되고 대오가 하나의 지향, 하나의 뜻으로 뭉쳐나가는 애국대오로 장성강화된것이다. 이것이면 두려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승리라면 하나의 큰 승리라고 할수 있는 이 금옥같은 성과에 어린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과 육친의 배려, 걸음걸음 길을 밝혀주시고 교육사업에 돈이 모자라 안타까울

때는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여 배움의 화원을 꽃피워주신 그 고마운 은정이 아니였다면 어찌 자랑찬 총련의 오늘을 생각할수 있으랴.

연단에 선 한의장의 마음속에도, 좌중의 얼굴들에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비껴있었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였기에 쑥대밭이나 다름없던 재일조선인운동의 터전에서 총련이라는 거목이 자라났고 수령님께서 이끄시였기에 그 거목이 무수한 아지를 펼치며 설레이게 된것이다.

제 3 장
태양의 빛발 찬란해

1. 그 손길 꼭 잡고 218

모범분회창조운동의 나날에 218

조선대학교 준공식장에 울린 환호성 230

《20세기 인류사적기적》 242

조국통일의 날을 그리며 259

2. 하늘같은 믿음 가슴에 안고 270

총련은 민족의 자랑이라고 하시며 270

뜻깊은 조국방문에 깃든 사연 282

애국위업의 미래를 위하여 295

동포상공인들을 애국의 길로 307

무릇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긍지라고 한다면 한생을 바쳐 이룩한 공적과 심혈이 깃든 창조물을 첫째로 꼽을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사람들은 한덕수의장에게 있어서 총련을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해외교포조직으로 꾸리고 강화해온것이야말로 첫손가락에 꼽을 자부라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의 인생의 긍지에 대해 옳게 리해했다고 할수는 없다.

총련애국위업의 전성기에 나온 노래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오》를 음미해보면 한덕수의장이 고이 간직해온 한생의 자부와 영광이 무엇인가를 뜨겁게 느끼게 된다.

일본땅의 여기저기 우리 동포 사는 곳에 자랑스러운 총련조직 버젓하게 꾸려놓고 조국위해 권리위해 모든 고난 무릅쓰고 슬기로운 일군들이 단결하여 일해나가는 총련의 활력있는 모습을 생동하게 담은 이 노래의 절정에서 한덕수의장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사업하는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고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그의 투철한 인생관이 얼마나 숭고한 경지에 올라있는가를 이 한편의 가사가 다 말해주고있다고 할수 있다.

한덕수의장에게 있어서 자랑중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슬하에서 혁명하는 긍지, 절세위인의 높은 뜻을 받들고 재일조선인운동을 떠밀어나가는 참된 애국자의 무한한 영광과 자부심이였다.

바로 이것이 한덕수의장의 한생의 가장 큰 재부였고 그로하여금 조선민족증오의 살풍이 파몰아치는 일본땅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게 한 원동력이였으며 지칠줄 모르는 열정의 샘줄기였다.

총련이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영광떨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헌신분투해온 진짜배기 충신, 열렬한 애국자 한덕수의장의 뜨거운 충성과 견결한 의지, 불굴의 노력이 안아온 귀중한 열매이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덕수의장이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사상을 높이 받들고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의 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고, 미일반동들의 탄압이 우심하여도 한덕수의장이 버티고있기때문에 총련이 잘 견디여내고있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1. 그 손길 꼭 잡고

모범분회창조운동의 나날에

총련의 발전행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사상, 주체의 혁명리론의 철저한 구현과정인 동시에 그 진리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빛나는 투쟁로정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른 한덕수의장은 총련조직을 재일조선인운동을 이끌어나가는 강력한 견인기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언제나 동포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총련의 기층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사에 뚜렷한 한페지를 아로새긴 모범분회창조운동은 총련을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로심초사를 기울인 한덕수의장의 심혈이 깃든 애국운동이였다.

모범분회창조운동은 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한 재일동포들이 애국애족사업성과로 재일조선인운

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기 위한 대중운동으로서 총련의 기층단체인 분회를 튼튼히 꾸려 총련대렬을 확대강화하며 애국사업을 성과적으로 추동하기 위한 창조적혁신운동이였다.

총련조직이 재일조선인들의 존엄과 권리의 대표자라면 분회는 그 존엄과 권리를 억척으로 떠받드는 초석이다.

모든 분회들이 강쇠로 벼려지고 총알처럼 여물어야 재일동포들의 큰집인 총련도 일본반동들의 반총련광풍에도 끄떡없이 애국애족투쟁을 힘있게 떠밀어나갈수 있는것이다.

하기에 한덕수의장은 동포들의 생활과 투쟁의 모체인 분회강화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여기에서 그가 가장 중시한것이 동포대중의 가슴속에 자기 수령에 대한 충성의 일념, 자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불길을 지펴올리는것이였다.

당시 일본의 정치정세는 매우 험악하였다.

타민족에 대한 멸시와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배타적감정이 공기처럼 배회하는 일본정계에 1957년에 기시 노부스께가 수상자리에 들어앉으면서 우경화, 반동화의 선풍이 더욱 스산하게 불어쳤다.

기시 노부스께로 말하면 제2차 세계대전시기 조선인랍치와 징용을 주도한 주범으로서 전후 A급전범자로 판결되여 형까지 받았던자이다.

이러한자가 수상으로 올라앉았다는 자체가 당시 일본정계의

분위기와 향방이 극도의 보수화흐름을 탔다는것을 잘 말해주는것이였다. 기시당국은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망을 추구하면서 미일안보조약개정과 일본의 전쟁참가를 금지한 헌법개정에 혈안이 되여 날뛰면서 일본렬도를 친미화, 군국화에로 미친듯이 끌고갔다.

일본정치의 군국화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총련에 대한 가혹한 박해의 온상이다. 기시당국이 총련말살에 얼마나 광분하였는가는 1958년 2월 일본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총련을 《파괴활동방지법 적용용의단체》로 지명한것만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여기에다가 미국은 새 전쟁도발을 꾀하면서 박정희일당과 일본반동세력과의 결탁을 맺어주기 위해 《한일회담》타결과 재일동포사회의 분렬와해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정세는 이처럼 엄혹하였지만 동포사회는 그에 대처할만큼 각성되지 못하고있었다.

총련결성후 일부 견실치 못한자들은 《통일전선체가 대중을 직접 상대해서는 안》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총련이 지부와 분회사업을 지도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지르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그 후과는 요소요소에서 나타났다.

한의장이 도꾜의 한 변두리 분회에 내려갔을 때였다. 그곳의 동포들중 일부 로인들은 일본말이 섞인 얼치기 우리 말을

쓰면서도 부끄러운줄을 몰랐으며 어떤 동포들은 자녀들을 우리 학교가 아니라 일본학교에 보내고있었다. 그가 생각되는바가 있어 우리 학교에 찾아가 녀교원에게 《나나쯔(7)가 우리말로 몇이요?》라고 묻자 그 녀교원은 속으로 《하나, 둘…》하고 세본 끝에 일곱이라고 대답하는것이 아닌가.

한의장의 심중은 참으로 착잡하였다.

총련결성후 동포들속에서 학습열풍을 일으키고 힘들여 민족교육체계도 갖추어놓았지만 현실은 아직 기대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외진 곳이기는 하지만 도쬬의 형편이 이러니 멀리에 있는 다른 곳은 어떠하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총련말살의 광풍이 사납게 불어치는 어지러운 남의 땅에서 동포들을 지키고 그들을 민족의 참된 아들딸들로 키우자면 그들속에 애국의 넋, 수령과 조국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억척으로 심어주어야 한다. 이 사업에 분회들을 총발동시키자.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모든 동포들을 조국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어머니조국과 혈맥을 잇고 살도록 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총련은 애국운동로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활동을 힘차게 벌려야 한다고, 재일동포들이 민족적으로 굳게 뭉쳐야 단합된 힘으로 자기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지킬수 있으며

존엄있게 살아나갈수 있다고 강조하시지 않았던가.

한덕수의장은 모든 분회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을 따라배우기 위한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였다.

그는 총련의 일군들과 동포들에게 조국의 정신이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정신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혁명정신으로 자신들을 무장하여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외웠다. 그러면서 자신부터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투쟁사에 대한 책을 언제나 끼고 다니며 보풀이 일도록 학습하고 또 학습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의 진수를 더 깊이 파고들고저 언제나 조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 조국의 손길을 꼭 잡고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려는 한덕수의장의 투철한 자세와 립장은 그가 어떤 일이 있어도 평양방송 청취시간만은 절대로 드티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도 잘 알수 있다.

그무렵 일본의 한 야당고위정객이 한덕수의장을 찾아온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받고도 한의장은 이윽토록 사무실에서 나올줄 몰랐다. 리유인즉 그가 평양방송을 청취하는중이라는것이 아닌가. 그 야당정객은 《조총련의 한의장을 두고 <평양방송미치광이>라고 하더니 듣던바 그대로구나.》 하고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일본정계에서 한덕수의장에게 붙여준 《평양방송미치광이》라는 별명은 언제나 조국의 목소리를 심장에 새기고 그 넋

과 숨결로 사업하고 투쟁하기 위해 노력해온 참된 애국자, 자본주의일본땅에 공화국기를 당당히 휘날리며 싸워온 불굴의 투사의 모습앞에 전률한자들의 비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는 늘 분회와 지부에 나가살다싶이 하며 동포대중과 어울려 자기에게 고유한 친화력과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언변으로 그들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혁명에 몸바쳐 투쟁하신 사실들과 겨레와 어린이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위해주신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가지고 구수하게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그를 두고 동포들은 《마음좋은 이웃집할아버지》, 《우리 한의장》이라고 정답게 불렀지만 의장의 가족들은 일년치고 아버지를 본적이 몇번 되지 못한다고 뇌이군 한다. 아버지의 얼굴을 7살때에야 처음으로 익혔다고 하는 맏딸 한음전의 이야기는 한덕수의장이 분회강화를 위해 얼마나 분투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당시 조국에서는 천리마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천리마운동의 봉화가 온 나라에 인간개조, 사상개조의 열풍을 안아와 누구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며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조국의 위대한 현실은 한덕수의장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총련의 모든 분회들이 혁명적락관과 천리마의 기상으로 세기를 주름잡아 내달리는 조국을 따라배워 천리마를 탄 기세로 투쟁할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그의 제의는 각급 총련조직들과 동포사회의 커다란 호응을 일으켰으며 그것은 다시한번 재일동포들의 애국적계몽과 통일단결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신호총성으로 되였다.

동포들이 사는 그 어디에서나, 그 어느 분회에서나 《조국의 천리마기수들처럼 살며 일하자!》, 《우리도 천리마를 탄 기세로 총련의 애국과업수행에 떨쳐나서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집단적애국운동의 대오에 뛰여들었다.

사실 일본과 같은 자본주의나라에서 여기저기에 흩어져 사는 동포대중을 지속적인 집단적혁신운동에로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어지간한 능력이나 수완, 정열을 가지고는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언제나 심장에 안고 사는 한덕수의장의 불같은 노력이 있어 분회들마다에서는 《우리도 조국의 천리마기수들을 따라배워 분회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는 웨침이 울려나왔고 애국과업실현을 위한 집단적인 열풍이 세차게 일어났다. 그러한 속에 1961년 1월 총련 도쿄도 고호꾸분회와 오사까부 데시로 제1분회 등 여러 분회에서 《조국을 향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밑에 학습바람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그 기풍은 동포들이 사는 곳곳에 퍼져갔다.

한의장은 곧 총련 제6차 전체대회를 소집하고 총련의 모든 분회가 이 발기에 호응해나설것을 호소하고 그것을 정신무장과 애국위업수행에서 하나의 집단적혁신운동으로 힘차게 추진시켜나갔다. 이것이 바로 총련의 발전력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지고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모범분회창조운동의 발단과정이였다.

총련 제6차 전체대회이후 3개월 남짓한 사이에 300여개의 분회들이 모범분회창조운동에 궐기해나섰으며 이 운동의 불길은 동포사회에 급속히 확대되여갔다.

동포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반영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1961년 9월 25일 모범분회칭호를 제정하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잘하고 동포들이 공화국정부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며 분회안에 미조직동포가 없고 모든 동포들이 총련산하 해당 단체들에 망라되며 전체 동포자녀들이 우리 학교에 다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말과 글을 쓰며 성인학교, 청년학교를 비롯한 각종 교육교양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매 시기 제기되는 총련결정들을 집체적힘으로 우수하게 수행하는 분회들에 모범분회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러한 속에 1961년 10월에 열린 총련분회열성자 제1차대회에서는 총련 도쬬도 고호꾸분회, 오사까부 데시로 제1분회, 가나가와현 오노분회를 비롯한 12개의 분회들에 모범분회칭호가 수여되였다.

이것이 촉진제로 되여 모범분회창조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진 결과 총련분회열성자 제1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제2차대회가 열릴 때까지의 한해사이에 400여개의 분회가 모범분회칭호를 수여받았다. 모범분회창조운동은 분회범위를 벗어나 조청은 모범반, 녀성동맹은 모범녀성동맹분회, 교직동은 모범교원집단, 신용조합은 모범직원집단, 학생들은 모범학급을 창조하기 위한 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동포모두를 애국위업의 역군으로, 주체조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되게 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던 나날 한덕수의장의 발길은 도시들뿐이 아니라 인적드문 곳에도 자주 미치였다.

마고메라는 마을이 바로 그러한 곳들중의 하나였다.

거리를 휩쓰는 바람도 외면하고 뛰는 말도 더 나갈 곳이 없다 하여 마고메라 불리운 자그마한 시골마을인 이곳에는 당시 70여호의 우리 동포들이 살고있었다. 한덕수의장은 외진 산골마을에서 분회혁신운동의 선구자적모범을 창조할것을 결심하고 이곳에 힘을 넣었다. 당시 이곳 분회장은 애국적열성이 높으나 대중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은 잘하지 못하고있었다. 한의장은 분회장과 동포들을 만날 때마다 분회사업은 분회장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분회 전체 동포들의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포모두가 위대한 주체사상과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무장하고 자녀들을 조국의 훌륭한 후비대로 키우며

애국과업수행에서 앞장섬으로써 산골에서 총련적인 통장훈을 불러보자고 호소하였다. 그의 호소에 고무를 받은 동포들이 발벗고 나섬으로써 마고메분회는 총련적으로 제일먼저 2중모범분회칭호를 수여받는 영예를 지니였다.

한덕수의장이 지펴올린 모범분회창조운동의 불길속에서 지난날 하오리와 기모노속에 조선사람의 본색을 감추고 살던 동포들이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총련조직과 운명을 같이하는 길에 들어섰다.

동포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눈부신 변화가 일어난 결과 지난날 일본학교에 다니던 많은 동포자녀들이 조선학교에 입학, 편입하였으며 동포사회에 일상생활에서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하는 기풍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였다. 동포녀성들은 일본의 한복판에서도 조선옷을 보란듯이 입고 다니고 집집마다 문패를 우리 식으로 다는 가정들이 늘어갔다.

모범분회대렬의 장성강화와 함께 이 운동은 단체, 사업체들의 수많은 집단을 포괄하는 대중적인 혁신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으며 이 나날에 총련은 명실공히 주체조국의 해외교포조직으로,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면모를 갖추며 자기의 빛나는 력사를 창조해나가게 되였다.

1960년대에 동포사회에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진 모범분회창조운동이야말로 조국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일편단심을 안고 총련을 위력한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헌신

분투해온 한덕수의장의 피타는 노력이 깃든 애국애족의 꽃으로서 그것은 모든 동포들을 혁명과 애국을 아는 산인간들로 키우고 총련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화하며 년대와 년대를 이어 총련애국위업을 힘차게 떠밀어나가는 강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1(1962)년 1월 한덕수의장에게 친히 서한을 보내시여 모범분회창조운동이 거둔 자랑찬 성과를 높이 치하하시였으며 1968년 10월에 있은 제7차 분회열성자대회에서 총련의 모범적인 분회들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 기념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절세위인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고무된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총련의 일군들은 제8차 분회열성자대회를 열고 모범분회창조운동을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모범지부창조운동을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으며 1970년 12월에 있은 제9차 분회열성자대회에서 2중모범분회와 모범분회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 조건에서 《전체 분회는 모범분회로, 모범분회는 2중모범분회로》라는 구호밑에 모범분회창조운동을 한 단계 발전시켜 총련지부관하의 70%를, 단일단체, 사업체 기층조직의 50%를 2중모범집단 및 모범집단으로 만들데 대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1976년 5월에 있은 제13차 분회열성자대회는 총련분회사업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 즈음하여 전체 분회열성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시여 지난 기간 분회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앞으로 총련의 기층조직인 분회를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수행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분회위원회를 참신하게 꾸리고 분회장과 분회위원들의 역할을 높여 분회를 더욱 강화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1979년 5월에 있은 제14차 분회열성자대회에서는 총련사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범분회창조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총련모범분회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대중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분회사업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결정하였으며 제16차 분회위원, 선전원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변화된 환경의 요구에 맞게 총련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며 분회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범분회창조운동의 심화발전인 애국영예기쟁취운동을 새롭게 전개할것을 제기하였다.

실로 1960년대에 발단된 모범분회창조운동은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사상과 로선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총련이 민족배타의 칼바람속에서도 끄떡없이 애국애족의 한길을 따라 승승장구할수 있게 한 억척의 주추돌로 되였다.

조선대학교 준공식장에 울린 환호성

교육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더우기 타민족멸시, 조선민족동화의 칼바람이 사납게 불어치는 일본에서 동포자녀들을 민족의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는 문제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장래뿐 아니라 동포들의 운명, 민족성고수와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 자본주의의 아성에서 민족교육을 어떻게 실시해나가고 있는가?

— 이역땅에서 민족의 새세대는 어떻게 성장하고있는가?

세인의 하나같은 관심사에 총련의 조선대학교는 일본의 도꾜 한복판에 보란듯이 일떠선 자기의 웅장한 자태와 우리말, 우리 노래가 소리높이 울려퍼지는 더없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단마디명창의 대답을 주고있다.

총련의 자랑찬 민족교육실태를 알려거든 여기 조선대학교로 오라고!

도꾜의 무사시노에는 이역의 차디찬 눈비바람속에서도 양기와 활력을 잃지 않고 동포사회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꿋꿋이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억세인 기상인양 총련 조선대학교가 웅장하게 솟아있다.

창립당시 2년제 7학과로 발족한 조선대학교는 오늘 훌륭한 교육시설과 조건을 그쯘히 갖추고 동포자녀들에 대한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명실공히 민족교육의 최고전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 대학은 창립후 60여년간 1만 수천명의 졸업생들과 수많은 학위학직소유자들을 키워냈다. 초급학교로부터 정연하게 꾸려진 총련의 민족교육체계에서 중추를 이루는 조선대학교에서 수많은 동포자녀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의 튼튼한 기둥으로, 사회주의조국의 훌륭한 역군으로 자라나고있는것이다.

세계에는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들이 많지만 해외교포자녀들의 교육을 전문으로 하여 이역땅에 설립된 조선대학교와 같은 해외교포대학은 유일무이하다.

하기에 언제인가 일본에 왔다가 호기심을 가지고 총련중앙회관과 조선대학교를 돌아본 남조선의 한 정객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끄시는 이북의 정치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잘 알았다고, 조선대학교는 우리 민족의 큰 자랑이라고 찬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만발하는 화원에는 원예사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헌신의 땀방울이 슴배여있기마련이다.

자본주의일본의 거친 풍토속에서도 한점 그늘없이 활짝 꽃피여나고있는 민족교육의 아름다운 화원에는 애국의 선각자, 민족교육의 선구자들의 피타는 노력과 눈물겨운 만단사연이 깃들어있다.

1948년 12월의 잊지 못할 그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경축 재일조선인경축단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한 한덕수의장을 만나주시고 새세대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잘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주독립국가의 장래를 걸머지고 나갈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민족교육을 그토록 중시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참다운 선각자, 애국의 1세들은 조선인멸시, 조선인말살의 독기가 구석구석에서 짙게 뿜어져 나오는 섬나라 일본땅에서 민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로 시련의 험로를 헤쳐왔다.

그 애국자군상의 제일 앞자리에 바로 한덕수의장이 있다.

한덕수의장은 어려서부터 배움에 대한 지향이 남달리 열렬하였다. 나라를 빼앗긴 망국노의 자식에게 있어서 배움의 꿈이란 죽은 나무에서 꽃을 바라는것이나 같다고 해야 하겠지만 가난에 허덕이면서도 배움의 열망만은 불길처럼 타올랐기에 그는 자기의 희망을 꽃피워보려고 교단에도 서보았고 피눈물나는 고학의 길에도 올라보았던것이다. 아마도 인생을 달리 살수만 있었다면 그는 교편을 잡았거나 학문의 세계에 뛰여들어 지식의 탑을 쌓았을지도 모를 학구적인 형의 인간이였다.

하기에 그는 조련시절 다년간 현본부위원장과 총무부장직

을 맡아보다가 문교국장사업을 맡게 되였을 때에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녔던것이며 동포자녀들이 리용할 교재발간사업에도 솔선 몸을 잠그었고 일본반동들이 우리 학교를 짓밟으려들 때에는 성난 호랑이처럼 맞서싸웠던것이다.

하지만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울인 한덕수의장의 불같은 노력과 헌신은 그의 류다른 경력이나 지향만으로는 다 설명할수 없다.

민족교육사업의 발전에 기울인 한의장의 헌신의 바탕에는 수령에 대한 충성과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용암처럼 흐르고있다.

총련결성후 절실하게 나선 문제의 하나는 동포자녀들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을 내오는 문제였다.

한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의 피타는 노력에 의하여 총련이 결성된 후 민족교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일본도처에 동포자녀들을 위한 초급학교와 중급학교, 고급학교들이 설립되였으며 민족교육이 장성함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 대한 동포사회의 요구와 기대가 부쩍 높아갔다.

당시 일본땅에서 동포자녀들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일본대학에 진학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우리 학교졸업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일본반동당국의 배타적교육체계의 토양에서 애국위업의 후비대들에 대한 대학교육

은 꿈조차 꿀수 없었다. 귀국의 배길도 막힌 때여서 조국의 대학에도 보낼수 없었다.

귀중한 아들딸들을 남부럽지 않게 대학공부까지 시키고싶어하는 동포들의 열망으로 보나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성과 민족성이 확고히 선 조국과 민족의 미래로 훌륭히 키우기 위한 측면으로 보나 민족교육사업을 새로운 발전단계에로 끌어올리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었다.

한덕수의장이 대학창립에 더욱 팔을 걷고 나서게 된것은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을 내오는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였기때문이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삼광학교, 진명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학교들을 세우시여 이역땅에서 버림받던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던 그 사랑으로 아무리 조건이 어렵다해도 애국인재와 민족간부를 양성할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대전당을 마련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궤도따라 강화발전시키고 재일동포들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주어야 한다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뜻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구상을 받드는데서 단 한치의 드팀도 몰랐던 한의장은 총련의 결성을 선포하는 마당에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실시를 기본과업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설치문제를 중요한 방침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착실히 밀고나갔다.

총련중앙위원회 제2차회의에서는 조선대학교의 창립을 정식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조선대학교건설위원회가 조직되고 대학설립사업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조선대학교창립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일본반동들은 《도꾜의 중심에 공화국기가 날리는 조선대학교가 일떠서는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사사모사로 훼방을 놀았다.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에 물젖은자들도 덩달아 《주제넘게 대학이 다 뭐냐.》고 떠벌이며 《대학무용론》을 제창해나섰는가 하면 또 어떤자들은 《재일조선인에게 무슨 대학운영경험이 있는가.》고 하면서 《시기상조론》을 들고나와 대학창립을 가로막아나섰다.

하지만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총련의 애국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이악하게 투쟁하여 마침내 1956년 4월 10일 자본주의일본땅에 우리 동포자녀들을 위한 조선대학교를 설립하였다.

비록 도꾜조선중고급학교안에 림시로 꾸린 가설교사에서 불과 10명의 교원과 60여명의 학생으로 발족하였지만 강의실들을 달군 환희에 넘친 향학열과 애국의 열정은 일본땅의 그 어느 요란한 대학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재일동포들은 이처럼 거치른 일본땅우에 자기 대학의 기틀을 세웠다.

조선대학교의 설립, 비록 첫걸음은 소박하고 규모는 크지

않았어도 그것은 주체적인 해외교포대학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고고성이였고 재일조선인운동의 밝은 미래를 기약해주는 또 하나의 전환적인 계기였다.

조선대학교가 설립됨으로써 동포사회에는 후대들에 대한 민족교육체계가 완비되게 되였고 자기 조국, 자기 민족에게 충실한 애국의 후비들을 믿음직하게 자래울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게 되였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것이 첫발을 뗀데 불과하였다.

대학을 창립하였다고는 하지만 대학이 자기의 체모를 갖추고 애국위업을 떠밀어나갈 인재들을 키워내자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무엇보다 애로되는것은 자금이였다.

대학교사라는것은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벽이 흔들리고 장마철이면 바닥에서 물이 스며나와 신발이 젖어들었다. 애국위업의 끌끌한 기둥감들을 키워내자면 품을 들여서라도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여야 하였다.

하기에 한의장이 온 총련을 발동하여 이를 악물고 자금을 마련하려고 모지름을 썼지만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때 총련의 어려운 실태를 속속들이 헤아려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신분은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총련의 엄혹한 민족교육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으로 조선대학교의 새 교사를 건설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던것이다.

한덕수의장은 민족교육사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관심과 배려를 심장에 새기고 조선대학교사업발전에 주되는 힘을 넣어 1959년 2월부터는 용기백배한 힘으로 대학의 새 교사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켜나갔다.

그는 잡도리부터 단단히 하고 교사건설에 달라붙었다.

우선 위치를 도꾜의 중심부로 잡고 교사설계에도 품을 들였으며 보장대책을 치밀하게 세웠다.

자기들의 자녀들을 위한 대학이 건설된다는 소식에 접하자 동포들도 드높은 애국적열의를 발휘하였다.

하지만 새 교사건설은 첫걸음부터 위험과 도전을 동반하였다.

승승장구하는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사업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일본반동들은 새 교사건설을 음으로양으로 반대하면서 부당한 구실을 내대고 대학건설부지에 대한 승인조차 내주지 않았다. 특히 한덕수의장의 움직임을 걸음걸음 가로막아나섰으며 지어 깡패들을 동원하여 도적고양이처럼 그의 뒤를 좇으면서 테로까지 기도하였다.

한덕수의장은 일본반동들의 감시와 모략의 시선을 따돌리면서 교사건설을 용의주도하게 이끌어나갔다. 어떤 날에는 일본당국의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교사건설장에 나가는 행로가

그대로 활극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고 한다.

위험은 여기에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재일조선인운동안에 기여들었던 일부 사대주의자들은 《대학건설반대기성동맹》이라는것까지 내오고 대학교건설을 반대해나섰다.

하지만 한의장은 언제 한번 주춤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대학건설의 나날 한덕수의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한 일군은 의장동지는 아무리 긴급하고 어려운 일이 제기되여도 새 교사건설문제를 관심밖에 둔 날이 없었고 지어 건설장에서 한밤을 패고 곧장 사무실로 출근한적도 드문하였다고 추억담을 들려주었다.

어느날 밤에는 새 교사건설을 지휘하던 그가 현장에서 깜빡 존적이 있었다. 눈에 피발이 지고 수척해진 그를 보고 일군들이 좀 쉬염쉬염 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걱정하자 그는 《우리 학교이자 우리 조직이고 우리 조직이자 우리 조국이요. 우리 조국이자 우리의 **김일성**원수님이시라는것을 명심해야 하오.》라고 못을 박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동포자녀들을 위한 대학건설을 발기하시고 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허리띠를 조이며 교육원조비와 장학금까지 보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은정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우기 전에는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다는 한덕수의장의 이 투철한 자세와 립장은 애국애족위업수행에서 총련의 새 세대들이 따라배워야 할 숭고한 귀감으로 조선대학교의 발

전사에 새겨져 빛나고있다.

그의 완강한 노력이 있어 1959년 6월 13일 마침내 도쬬의 무사시노 일각에 모든 조건을 그쯘하게 갖추고 일떠선 조선대학교의 준공식이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대학교마당에는 명절마냥 화려한 조선옷을 떨쳐입은 수많은 동포들과 새 교사에서 공부하게 된 희열을 안은 대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펄펄 휘날리는 국기게양대밑에서 사랑하는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한덕수의장은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조선대학교 새 교사의 준공을 긍지높이 선언하였다.

준공식에 참가한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이역만리의 자식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고 세상에 없는 대학교를 일떠세우도록 하여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김일성**원수님 만세!》의 환호성을 높이 터치였다.

조선대학교 준공식장에 울려퍼진 환희의 함성,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교육사상을 실천으로 빛내인 승리자들의 긍지높은 선언이였고 수령님을 따라 그 어떤 역경과 시련도 맞받아 뚫고나갈 이역의 참다운 애국충신들의 불타는 신념과 맹세의 메아리였다.

총련말살의 본거지, 민족배타의 아성에 주체조선의 민족교

육의 대전당이 창공높이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와 더불어 그 웅건장중한 자태를 번듯하게 드러내자 당황망조한 일본반동들은 도쬬도 경찰당국자의 목을 뗀다 어쩐다 하면서 앙앙불락하였다. 일본반동들이 조선대학교를 짓밟고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해 얼마나 독을 품고 날뛰였는가 하는것은 조선대학교가 설립된 후 그 인가를 무려 10여년이나 내주지 않고 비틀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다.

물론 그것은 조선대학교 새 교사가 준공된 후의 일이다.

하지만 그때 벌써 한덕수의장의 심장속에는 원쑤들의 발광이 제아무리 횡포하다고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사업하고 투쟁한다면 무서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과 각오가 바위처럼 뿌리내리였다.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억척의 신념을 간직하고 한덕수의장은 조선대학교의 명예학장으로서 대학교육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어버이수령님의 민족교육사상을 더욱 활짝 꽃피우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대학교원들의 정치실무적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고 교원들에 대한 요구성을 끊임없이 높이였다. 그의 요구성이 얼마나 높았던지 당시 조선대학교 교육자들은 지금도 한덕수학장은 교육자의 첫째가는 실력은 바로 어버이수령님과 조국을 잘 아는것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군 하였다고, 학장의 교육실무료해사업에 한번 걸려들면 합격을 맞기가 조련치 않

았고 진땀을 빼기가 일쑤였다고 즐겁게 회상하군 한다.

한덕수의장은 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조선대학교의 학부체계를 개편하고 새 학부를 내왔으며 대학을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최고학부로, 과학의 전당으로 훌륭히 변모시키였다.

그는 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해 총련전임일군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자기의 맏딸을 서슴없이 교단에 세웠고 북변의 산간오지에 있건 규슈의 한끝에 있건 향학열이 높은 학생이라면 품을 들여 찾아가서라도 대학에 받아들이도록 하였으며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이 되라고 당부하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대학교에 조선력사박물관과 자연박물관도 꾸려주시고 총련 조선대학교 교원, 학생들을 위한 교수강습소 등을 조국에 꾸리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날이 갈수록 더욱 두텁게 베풀어지는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사랑과 보살피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한의장은 총련애국위업을 이끄는 전 기간 조선대학교를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기둥감들을 키워내는 민족교육의 원종장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였다.

참으로 간고하고도 긍지높은 조선대학교의 발전로정에는 민

족교육의 발전을 위해 바쳐진 한의장을 비롯한 총련의 1세 일군들의 애국충정과 헌신분투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오늘 총련의 일군들과 동포들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밝게 비치는 사랑의 해발을 가슴에 안고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애국1세들의 넋을 이어 민족교육의 화원을 더 활짝 꽃피워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20세기 인류사적기적》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우리 조국청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비약과 기적의 년대로, 천리마조선의 위상과 국력이 만방에 떨쳐지고 그 위대한 현실앞에 세인이 경탄을 금치 못한 긍지높은 년대로 빛나고있다.

이 자랑찬 시대에 우리 조국은 해외교포운동력사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 《20세기 인류사적기적》으로 기록된 재일동포들의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실현이라는 미증유의 대사변을 기록하였다.

얼마나 바라고바라던 귀국길이였던가.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으로 수천수만의 재일동포들이 피말리는 이국살이에 종지부를 찍고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여 보람찬 새 생활의 길에 들어섰다. 따사로운 손길아래 수많은

동포들과 동포자녀들이 조국과 민족을 떠메고나가는 기둥으로 자라났고 각급 인민정권기관의 대의원으로, 로력영웅으로, 교수, 박사로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은 단순히 타향에서 수십년간 민족적 수모와 천대에 시달리며 일일천추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던 해외공민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인생념원실현문제만이 아니라 일제의 침략정책으로 말미암아 타국으로 끌려온 동포들을 어머니조국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혈연적뉴대를 잇는 민족재결합문제, 일제의 악독한 제국주의적침략책동의 후과를 청산하는 문제였다.

하기에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과 온갖 시련속에서도 과감하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 끝끝내 식민지노예살이의 설음과 원한만이 파도치던 동해바다에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의 배길을 열어놓았다.

한많던 망국의 세월 피바람, 칼부림속에 바다건너 일본땅에 휘뿌려진 우리 동포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민족적천대와 멸시의 대상이였다.

섬나라 쪽발이들은 《정어리도 물고기인가, 선인도 사람인가.》 하고 조선사람을 하등물고기에 비유하여 조롱하며 동포들을 제멋대로 짓밟고 희롱하였다. 죽음의 고역장들에서 우리 동포들을 마소처럼 부려먹다가 눈섭 한오리 까딱않고 때려

죽이고 밟아죽였으며 지어 군사비밀보장이라는 구실밑에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

한덕수의장도 그러한 망국노들가운데 한사람이였다.

사람으로 태여났어도 사람대접을 받을수 없는 인간이 망국민이였고 억울한 매를 맞아도 하소연조차 할수 없는것이 바로 이국살이의 설음이였다.

나라없던 그 세월 일본땅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 누구에게나 이러한 피눈물겨운 사연이 비일비재하였다.

동포들에게 있어서 이역살이의 하루하루는 곧 지옥살이의 련속이였기에 해방후 동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귀향길에 올랐다.

귀국의 길!

그것은 민족배타주의의 광풍이 스산하게 불어치는 일본땅에서 재일조선동포들이 배고파도 그리고 추워도 그리였으며 눈물속에도 그리였고 억울한 매를 맞으면서도 그리던 길이였으며 죽어서도 오르고싶어하던 길이였던것이다.

재일동포들의 가슴속에 피끓듯 끓어번지는 귀국의 념원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시고 사랑의 해발을 비쳐주신 어버이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항일의 나날에도 언제나 마음속에 일본땅에 끌려가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을 품고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재일동포들의 귀국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랑의 조치

들을 취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44(1955)년 9월 조국해방 10돐경축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재일동포들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그때 총련일군들은 돈밖에 모르는 일본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살아나가기가 참으로 곤난하다고 하면서 모든 재일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올것을 열렬히 희망한다고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그들의 말을 심중히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념원을 환영한다고 하시면서 아직 전후복구건설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수 있다고, 재일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는것은 응당한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투쟁을 통하여 정정당당하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재일동포들과 총련일군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귀국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대였다.

사실 재일조선인들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일본당국이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는 립장에서 대해야 할 인도주의문제였다. 그것은 나라없고 지켜줄 품이 없어 방황하던 수난자들이 아니라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정치적문제였다.

이 시기 날로 번영하는 조국건설의 소식과 재일조선인들의 악화

되는 생활실태는 재일동포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조국에로 돌아가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는 열망으로 잠 못들게 하였다.

하지만 이와 달리 남조선통치배들의 꾀임에 넘어가 허튼 소리들을 늘어놓으면서 동포들의 귀국열에 찬물을 끼얹는 상서롭지 못한 일들도 나타나군 하였다.

한덕수의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기초하여 그러한 헛소리에 된타격을 가하면서 귀국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적권리이며 따라서 그 주인도 재일조선인이라는 투철한 립장에서 귀국실현문제를 풀어나갔다.

그는 재일동포들의 귀국문제를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앞에 나선 항시적인 기본과제이면서도 최종임무로 보았으며 그에 따라 시종 귀국실현투쟁에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는 동포들의 귀국열의가 집단의 의사로 모아지고 동포사회가 귀국열로 들끓으며 모든 재일조선공민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언제나 가슴에 간직하고 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심도있게 벌려나갔다. 총련분회들에 나가 동포들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사회주의조국의 자랑찬 현실에 대하여 깊이 심어주며 대중의 애국열을 북돋아주었다.

한편 일본당국을 상대로 한 귀국요청투쟁을 광범위하게 조직하면서 일본정계와 사회계를 비롯한 각계층속에 귀국지지 분위기를 확산고조시키기 위한 운동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그러한 속에 1958년 8월 총련 가나가와현 가와사끼지부

나까도메분회에서 가진 조국이야기모임에서 이곳 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에로의 집단귀국을 결의하고 그 절절한 심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편지를 올리였다.

이것을 발단으로 하여 동포사회가 귀국열풍으로 들끓는 가운데 도꾜에서 진행된 8.15해방 13돐기념 재일본조선인경축대회를 비롯하여 일본 각지에서 열린 경축대회들에서 재일동포들의 귀국의사를 모은 결의들을 채택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귀국요청을 담은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그에 불안을 느낀 미일당국자들은 재일동포들의 귀국이 《자유세계의 일대 수치》라느니, 《공산주의를 강화시킨다.》느니 하면서 악랄하게 방해해나섰고 남조선통치배들 역시 상전들과 한짝이 되여 절대다수가 남조선에 고향을 둔 재일동포들의 공화국에로의 귀국은 언어도단이라고 악에 받쳐 고아대면서 필사적으로 반대하여나섰다.

이에 대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일본정부의 부당한 방해책동을 항의규탄하도록 하시는 한편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귀국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대중적, 전 동포적투쟁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1958년 9월 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창건 10돐기념 경축대회보고에서 재일동포들의 귀국문제에 대한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립장을 다시금 엄숙히 천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권리와 민족적차별과 생활고에 신음하는 재일동포들은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올것을 희망하여왔습니다.

우리 인민은 일본에서 살길을 잃고 조국의 품안으로 돌아오려는 그들의 념원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재일동포들은 날로 륭성발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자기 조국에 돌아와 국내동포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돌아와 새 생활을 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줄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 민족적의무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연설은 세계에 재일조선인들앞에 지닌 자기의 민족적의무에 충실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애국애족적립장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국제적인 지지분위기로 방해세력들을 수세에 몰아넣고 귀국운동을 강화하는데서 결정적계기로 되였다.

뒤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일동포들에 대한 귀국실현조치를 즉시 취할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공화국정부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시였으며 조국의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들에서 일본반동들을 규탄하며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운동을 지지성원하는 집회들을 벌리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뜻과 현명한 령도, 공화국정부가

취한 조치들에서 커다란 신심과 고무를 받아안은 한덕수의장은 귀국실현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사실 당시 재일동포들의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을 실현시킨다는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였다. 실업대군이 거리들을 휩쓸고있는 일본으로서는 재일조선인들을 붙들어둘 리유가 없었지만 총련과 재일조선인들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반기를 드는 삐뚤어진 속내로 하여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의 길에 빗장을 가로지르고있었다. 거기에다 아시아지역에서 날로 장성강화되는 사회주의를 저들의 숨통을 겨눈 비수처럼 여기는 미국과 그 앞잡이노릇을 하는 리승만《정권》의 방해책동도 상상을 초월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재일동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까지 위협하며 일본에 압력을 가하였다.

하지만 한덕수의장은 동포들의 귀국실현문제에서 불가능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고 공화국정부와 조국인민들이 떨쳐나섰는데 안될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는 이런 배짱으로 동포대중을 발동하여 일본당국에 귀국의 권리를 인정할것을 요구하는 귀국요청자들의 궐기대회를 일본 각지에서 맹렬하게 전개하도록 하는 한편 총련중앙위원회 제15차확대회의에서 특별의제로서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을 위하여》를 토의하고 일본당국을 상대로 한 총련의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회의를 계기로 동포들의 귀국요청운동은 전 일본적인 범위에서 세차게 벌어졌다. 총련중앙과 지방본부들에 귀국대책위원회들이 조직되여 귀국실현서명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운동을 조직적으로, 통일적으로 추진하여나갔다. 동포들은 귀국실현요청의 날로 정한 1958년 10월 30일에 수백개 지역에서 일제히 귀국실현요청대회를 열고 무조건 즉시 귀국실현, 귀국선의 입항, 승선까지의 제반 권리보장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대규모적인 투쟁을 벌렸으며 다음해 1월 전국적인 통일행동의 날에도 일본정부와 각 지방자치체당국을 상대로 강력한 요청행동을 전개하였다.

한의장은 귀국요청투쟁에 동포대중을 발동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일본공산당, 사회당인사들을 비롯한 야당의 고위정객들은 물론 일본당국자들을 대상으로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걸고 고위급외교활동을 능숙하게 벌려나갔다.

일본의 정계, 사회계에서 귀국실현에 대한 지지여론이 부쩍 고조되는 속에 1958년 11월중순 일본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사 90여명의 참가하에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회가 결성되고 일본의 많은 지방의회들이 초당파적으로 당국에 즉시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을 허가할것을 요구해나섰다. 일본의 신문, 방송, TV, 잡지 등의 출판보도물들도 재일조선인들의 귀국문제를 인도주의와 기본

적인권에 관한 문제로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앙양된 귀국운동은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내외에서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실현에 대한 지지여론이 전례없이 고조되자 일본당국은 더는 저들의 온당치 못한 립장을 고집할수 없게 되였다. 하여 1959년 2월 13일 재일조선인들의 공화국에로의 귀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수 없었다.

일본당국이 귀국협정조인을 위한 조일적십자단체사이의 회담장에 끌려나와 협정문건초안에 정식 조인한데도 우리 공화국의 정당하고도 원칙적인 노력에 보조를 같이하며 온 일본땅을 귀국실현운동으로 끓어번지게 한 한의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귀국실현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던 1959년 9월이였다. 일본적십자사는 비렬하게도 《귀환안내》라는 통달을 발표하였다. 내용인즉 재일조선인들이 귀국신청을 할 때 표명한 귀국의사를 의문시하면서 그들의 귀국의사를 다시 《확인》한다는것이며 귀국하는 동포들에 대한 환송, 면담을 금지하고 그들이 외출도 자유로이 할수 없다는것이였다. 이것은 재일조선인들의 기본적인권에 대한 유린이며 귀국동포들을 마치 죄인이나 전쟁포로처럼 취급하는 참을수 없는 모욕이였다.

한의장은 일본 도처에서 항의군중집회와 시위를 비롯한 전국적인 통일행동을 조직하고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업에 앞장섰다. 일본반동들과 리승만일당의 끄나불들은 귀국투쟁의

앞장에서 호랑이마냥 싸우는 한의장을 노리고 그의 움직임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으며 비렬한 음모책동도 서슴지 않았다.

총련중앙으로 협박전화와 편지들이 날아든적은 한두번이 아니였고 지어 한의장이 집회장에서 열변을 토하고있을 때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시퍼런 비수를 빼들고 불의에 연탁에 달려든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음모와 모략, 위협과 공갈로써도 귀국실현을 위한 한의장의 투쟁을 막을수도 멈춰세울수도 없었으니 조국과 운명의 피줄을 잇기 위한 길에서 그는 말그대로 불사신이였다.

한의장의 이처럼 억센 의지와 결사의 투쟁이 있었기에 동포들의 귀국투쟁기세는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갔으며 귀국실현에 대한 지지여론은 일본국내를 벗어나 국제적범위에서 더욱 고조되였다.

공화국정부의 줄기찬 노력, 총련과 동포들의 완강한 투쟁의 결과 일본적십자사는 10월 31일 부당한 통달을 철회하고 재일동포들의 귀국을 승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재일조선인운동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1959년 12월 11일 니이가다항구에는 동포들을 자기의 넓은 품에 한시바삐 안아주고픈 어머니조국의 손길인양 첫 귀국선이 들어섰다.

동해의 창파를 헤가르며 조국의 사랑을 안고 달려온 귀국선의 모습을 본 순간 부두에 모인 수많은 동포군중들은 서로 얼싸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귀국선이 왔다!》,

《어머니조국이 다가온다!》고 환성을 올렸으며 그들의 심장의 격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나와 얼어붙은 항구를 뜨겁게 달구었다. 귀국하게 된 사람들이나 바래우는 사람이나 할것없이 모두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렸다.

환희의 웃음과 감동의 눈물로 범벅이된 그들의 얼굴, 살아서 못가볼 고향이 사무쳐와 뼈라도 고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한많은 세상을 등진 선친들의 유골함을 붙안고 목놓아우는 동포들을 바라보는 한덕수의장의 가슴은 불을 안은듯 뜨겁게 달아올랐고 눈굽은 걷잡을수 없이 샘솟는 이슬로 젖어들었다.

감격도 새로운 1959년 12월 14일 드디여 975명의 동포들을 태운 첫 귀국선이 고동소리를 길게 울리며 니이가다항을 출발하였다.

니이가다항에서 세계를 향해 높이 울린 배고동소리, 그것은 고난과 시련의 언덕을 넘어 드디여 조국이 열어준 애국의 항로에 삶의 돛을 올린 동포들의 감격과 환희의 분출이였고 한의장과 총련일군들이 애국애족의 기치높이 투쟁과 승리의 한길을 걸어오는 나날에 심장깊이 간직한 《우리에게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고 품어주고 지켜주는 조국이 있다.》는 드놀지 않는 신념의 메아리였다.

재일동포들의 사회주의조국에로의 력사적인 귀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반제민족해방위업실현을 위한 길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찬 승리였으며 수령님의 애국애족적이며 정당한 해외교포운동사상과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력사의 기적이였다.

세계해외교포운동사에는 인간의 존엄과 삶을 짓밟는 반인민적인 정치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하에서는 도저히 생존마저 유지할수 없어 살길을 찾아 이역땅으로 흘러간 이민군에 대한 기록은 많아도 위대한 수령, 은혜로운 조국의 동포애의 손길에 이끌려 산설고 물설은 남의 나라땅에서 한많은 이국살이에 시달리던 교포들이 집단적으로 고국행을 한 이야기는 전무후무하다.

하기에 세계언론이 재일동포들의 귀국소식으로 들끓었다.

1959년 12월 15일부 일본 《요미우리신붕》은 제1차 귀국선의 니이가다항출발소식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니이가다항중앙부두는 조국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들을 환송하는 사람들의 환성으로 진동하였다.

…박수, 만세,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터져나온다.

…항구의 흥분이 최고도에 달하였을 때 두척의 귀국선은 북을 향하여 떠났다.》

《세계의 관심을 집중한 북조선귀국은 력사적인 출발선을 끊었다.》

일본잡지 《세까이 오라이》 1959년 11호는 재일조선인들

의 조국에로의 귀국이 가지는 세계사적의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이 귀국하게 되는데 이것은 민족의 대이동으로서 대단한 사변이다.》

다른 외신들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 민족의 대이동》, 《20세기 인류사적기적》 등으로 재일동포들의 력사적인 귀국을 경탄해마지 않았다.

조국은 이역살이설음에 울던 자기의 자식들을 친어버이정으로 따뜻한 품에 얼싸안았다.

수많은 동포들과 일본인민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니이가다항을 출발하여 12월 16일 사회주의조국의 북부도시 청진에 도착한 순간부터 귀국동포들은 환영의 꽃바다에 묻히였다.

그것은 수십년간 생리별의 한을 눈물로 달래며 상봉의 순간을 애타게 기다려온 혈육들의 뜨거운 포옹이였고 동포애의 정을 안고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자식들을 한품에 안는 조국의 따사로운 축복이였다.

조국땅에 첫발을 디딘 동포들을 맞이한 환희와 격정을 당시의 한 출판물은 이렇게 전하였다.

《청진, 평양에서 첫 귀국동포들을 맞는 장면은 감격적이다. 서로 얼싸안고 볼을 비비며 목메게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 누나들을 부르며 천갈래만갈래로 뻗어내린 레프와 꽃다발의 물결속에 수십년간 헤여졌던 동포의 애정, 겨레의 심

정, 형제의 의리가 흘러 감격과 환희의 눈물을 이루는 이 장면들은 슬픔도 기쁨도 생사도 같이하며 동포들을 한가슴에 안아주는 조국의 품을 뜨겁게 느끼게 해준다.》

1959년 12월 22일부 일본 《아사히신붕》은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정형을 우리 나라에 와서 직접 본 일본기자들의 글들을 편집하면서 제목을 다음과 같이 달았다.

《평양은 귀국동포들로 하여 기쁨에 들끓고있다》

《연도마다에서 꽃보라와 환성》

《패기에 찬 사람들, 좋은 옷차림을 한 도시사람들, 줄지어 늘어선 아빠트들…》

온 일본땅에 잦아들줄 모르는 충격을 주고 온 세계를 경악과 찬탄으로 설레이게 한 이 격동적인 사변은 일제의 침략정책의 희생물이 되여 일본에 끌려간 우리 동포들이 수십년세월 가슴속에 품어온 귀국념원을 풀어주기 위해 위대한 수령님과 공화국을 받들어 견인불발의 의지로 싸운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굴함없는 투쟁의 결실로써, 그들의 충의와 애국적기개를 엄연한 현실로써 확증해주었다.

바로 현해탄의 사나운 파도를 헤치고 조국으로, 조국으로 힘차게 달린 귀국선의 자랑스러운 자태는 동포들모두를 이끌고 태양을 향하여 꿋꿋이 싸우는 억세인 애국자들의 모습, 수령과 인민의 요구라면 철의 장막도 헤치고 얼어붙은 바다길도 열어제끼는 참된 충신인 한덕수의장과 총련일군들의 불

굴의 모습을 체현한 한폭의 군상이였다.

귀국선의 첫 고동소리가 울린 니이가다항에서, 설음많던 지난날에 대한 추억과 희망찬 새 생활에 대한 희망으로 울고웃던 귀국의 항로에서 그리고 동포들이 인민들의 뜨거운 환영의 바다에 첫발을 내디딘 조국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일화들은 수없이 많이 꽃펴났다.

인간사랑의 화원에서 만발하는 하많은 이야기들과 더불어 귀국선은 동해의 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청진—니이가다를 끊임없이 오고감으로써 제1차 귀국선이 운행을 시작한 때로부터 1960년 12월 18일까지의 1년동안에만도 연 51차에 걸쳐 51 978명의 재일조선공민들이 조국의 품에 안기였다.

조국의 사랑과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지성에 받들려 공화국땅에 삶의 닻을 내린 귀국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다심한 은정과 조국인민들의 뜨거운 동포애의 토양에 새 생활의 뿌리를 내리고 각자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서 자기들의 애국적본분을 다하였다.

일본에 남아있는 동포들은 세상을 들썩케 한 현실에 고무되여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조국의 부강발전, 나라의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더욱 매진하였으며 그들속에서 귀국열망도 나날이 높아갔다.

하지만 수많은 재일동포들의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으로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높아지고 재일동포사회가 애국열기로

끊어번지는데 배아파난 일본반동들이 1967년 4월 귀국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귀국사업은 일시 중단되게 되였다.

이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귀국협정파기에 숨은 내외적 대세력의 기도를 간파하시고 귀국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이에 따라 조국과 총련에서 귀국협정을 무수정연장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거듭되는 조일적십자단체들사이의 회담끝에 1971년 5월 중단되였던 귀국사업이 재개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의 조국에로의 귀국을 얼마나 열망하시였는가 하는것은 귀국의 배길이 다시 열려 처음으로 조국의 품에 안긴 동포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고무해주신 이야기와 재일동포들을 더 많이 데려오시기 위하여 귀국선 《만경봉》호를 뭇도록 하여주신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세상에 나라마다 각이한 용도의 배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만경봉》호와 같이 해외에서 조국으로 돌아올것을 열망하는 교포들을 위한 귀국선을 무어 운영하는 나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밖에 없다.

위대한 민족의 어버이의 동포애가 그처럼 뜨겁고 그 사랑을 생명수로 간직한 한덕수의장과 총련일군들이 굳건히 지켜서있었기에 조국에로의 배길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의 항로를 따라 줄기차게 이어올수 있었다.

조국통일의 날을 그리며

《해외교포를 <민족의 파편>으로 보는 견해는 1950년대 전반기에 일부 재일조선인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에 의하여 주장되였으며 그것은 재일조선인운동발전에서 부정적작용을 하였다.

민족은 형성된 다음 주권을 빼앗기거나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쫓겨날수 있다. 이 경우에도 민족의 성원들이 민족적특징을 체현하고있는 이상 엄연히 그 민족은 존재하고있는것이지 없어지는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해외교포를 <민족의 파편>으로 보는것은 자기 민족의 현실적존재를 부인하는 극단한 민족허무주의적인 견해이다.》

이것은 1950년대 재일조선인운동안에 대두하였던 해외교포에 대한 그릇된 견해, 재일조선인들을 민족과 분리된 존재, 민족의 운명과 련관이 없는 별개의 집단으로 여기는 부당하고 위험천만한 견해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에 엄한 경종을 울리며 한덕수의장이 쓴 글의 한 대목이다.

그가 정당하게 지적했듯이 재일조선인들은 결코 민족이라는 운명집단에서 떨어져나간 파편이 아니라 민족과 뗄래야 뗄수 없는 겨레붙이이고 민족의 피덩이이며 운명공동체의 한 부분이다. 언제나 겨레를 떠나 살수 없는 한피줄, 자기 민족, 자

기 겨레와 희로애락을 같이할수밖에 없고 또 운명을 같이해야 하는것이 해외교포들의 생명리치이고 생활리치이다.

하기에 민족이 불행을 겪으면 해외교포들도 수난자의 운명을 피할수 없고 민족이 상처를 입으면 동포들도 그 아픔에 몸부림치는것이다.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우리 겨레가 겪는 분렬의 비극은 해외동포들의 가슴에도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고 동포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38°선을 그어놓았다. 이역땅에 끌려와 겪는 멸시와 차별의 설음은 피차일반이였지만 사상과 정견이 다르고 소속과 단체가 다르다는 리유로 반목하고 담을 쌓고 사는것이 동포사회의 실태였다.

이것을 누구보다 가슴아프게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재일동포들은 다 같은 조선사람으로서 민족적으로 굳게 뭉쳐야 단합된 힘으로 자기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지킬수 있으며 존엄있게 살아나갈수 있다고, 재일동포들이 조국을 통일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서도 민족적으로 단결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한덕수의장에게 있어서 동포사회의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에 이바지할수 있는 애국의 길을 밝혀준 명철한 가르침이였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평화적통일독립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을

총련강령의 중요조항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6년 4월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전 조선의 모든 애국적정당, 사회단체들과 민족적량심을 가진 개별적인사들을 망라한 통일전선을 결성하며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애국적인사들이 련합하여 협상의 방법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북남협상과 평화통일방안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속에서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남조선정치무대에서도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1956년 5월에 있은 남조선《대통령》선거에서는 민족분렬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각계의 광범한 지지속에 200만표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하여 리승만통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남조선정계를 크게 뒤흔들어놓았다. 바빠맞은 반통일세력은 조봉암을 북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였지만 날로 높아가는 련북화해, 평화통일의 기운은 막을수 없었다. 그것이 횃불이 되여 전 남조선판도에 파급된 1960년 4월인민봉기의 불길은 반통일과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던 리승만《정권》에 종말을 선고하였던것이다.

온 겨레를 평화통일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로 불러주는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조국통일방안에서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받아안은 한덕수의장은 동포대중을 민족적단합과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동포들속에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북남협상과 조국통일방안의 정당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고 그 관철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광범히 조직전개함으로써 온 동포사회가 통일열기로 끓어번지고 동포들이 사는 그 어디에서나 민족단합과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세차게 고조되였다. 그 과정에 동포들속에서는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애국지성이 높이 발휘되였을뿐 아니라 이전과는 달리 《민단》산하 동포들과의 협력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어느날 한덕수의장은 도쬬도 아라가와구에서 제화업에 종사하는 한 동포가 통일의 일념을 안고 《민단》계렬의 제화업자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벌리고있다는 소식에 접하였다. 이에 대해 료해하는 과정에 한의장은 당시 《민단》이 겉으로는 총련조직에 대한 대립자세를 허물지 않고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리승만일당이 강행추진하고있는 《한일회담》문제, 《보안법》문제 등에 대한 립장을 둘러싸고 내부알륵과 갈등을 겪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특히 《민단》산하 동포들은 상층부가 내세우는 《반공》, 《반총련》구호에 신물이 나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평화통일방안에 무언의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고있었다.

《민단》의 동포들속에서 민족단합과 통일열기를 높여주기 위하여 한덕수의장은 《동포들사이에서 38°선을 없애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계층과 경력의 차이를 초월하여 동포사회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갔다.

1960년 3월에 들어서면서 남조선에서는 외세의존과 반통일, 파쇼독재를 일삼던 리승만《정권》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봉기가 발단되였으며 투쟁의 불길은 반역의 아성인 경무대를 휘감으며 격렬하게 타올랐다.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발전하는 봉기상황을 지켜보며 한의장은 모든 동포들이 4.19인민봉기에 떨쳐나선 남조선 각계층을 고무격려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우선 4월인민봉기가 고조되는데 따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명의로 미제의 막후조종밑에 진행되는 남조선에서의 《정, 부통령선거》를 규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잇달아 간또와 교또, 오사까 등 각 지역의 지부들에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학교들에서 다양한 형식의 선전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총련중앙은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기세가 높아지는데 맞게 중앙위원회 제22차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전체 재일동포들을 반파쇼민주화, 반미구국투쟁에로 총궐기시킬데 대한 방침을 토의결정하였다. 그후 중앙위원회 제30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전선사상을 구현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이라면 정견 및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 과거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과 손잡고 나가며

《민단》과도 호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서로 협조하고 단합하기 위하여 노력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다.

회의후 한덕수의장은 《민단》과 그 영향하에 있는 동포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재일조선인들을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단합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갔다. 총련의 명의로 지난 시기 남남처럼 지어 원쑤처럼 지내던 《민단》과 한자리에 모여 앉을데 대한 공개서한을 발표한데 이어 총련중앙대표들을 《민단》중앙본부에 파견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보조를 취할데 대하여 론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총련과 《민단》 및 중간층들사이의 접촉과 련계가 개별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깊어지고 민족단합의 기운은 날을 따라 높아갔다.

1961년 1월 도꾜에서 해방후 처음으로 실현된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와 재일《한국》인기자단의 간담회에서는 《민족지상의 념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힘을 합치자.》, 《먼저 일본에서 38°선을 없애고 조국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으며 제2차 간담회를 거쳐 언론활동보조와 관련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경제인들도 그해 3월 1일에 조선독립투쟁기념간담회를 진행하고 4월에는 통일된 립장을 반영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문화인들의 《조국평화통일, 남북문화교류촉진합동문화제》, 예술인들의 《연주의 밤》, 미술가들의 《조국의 평화통일, 남북문화교류촉진련합미술전》 등 다양한

협력교류활동들이 련이어 진행되였다. 류학동과 《한국》학생동맹간의 련계가 긴밀해지는 속에 청년학생단체들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매진하자》, 《남북학생회담을 적극 지지한다》 등의 공동구호를 내걸고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북과 남, 해외에서 비등된 민족단합과 통일열기로 하여 막다른 처지에 이르게 되자 미국은 남조선사환군들을 사촉하여 5.16군사쿠데타에 의한 군사파쇼독재《정권》을 조작하고 활화산처럼 타번지는 우리 민족의 애국투쟁에 도전해나서는 한편 리승만《정권》시기에 아퀴를 짓지 못한 《한일회담》을 마무리하기 위한 책동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한일회담》이란 본질에 있어서 미, 일, 남조선의 침략적일체화를 실현하며 남조선을 미제와 일제의 2중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는데 목적을 둔 현대판 《을사5조약》의 모의판이였다. 더우기 이 모의는 재일조선인들의 운명을 희롱하는 엄중한 사태를 몰아오는 전주곡으로 되고있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회의 호소문을 통하여 전체 해내외동포들을 《한일회담》반대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이에 따라 한덕수의장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속에 민족의 자주권을 롱락하고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에 발판을 깔아주는 《한일회담》의 매국적성격을 똑똑히 인식시키고 그것을 파탄시키기 위한 애국투쟁에로 동포들을 궐기시켰다. 총련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회의에서는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을 지지성원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을 한층 강화할데 대하여 토의결정하였다. 제7기 제4차회의에서는 남조선과 일본이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규탄과 항의를 무시하고 끝끝내 《한일조약》을 조작해낸 조건에서 그 매국문서의 불법무효성을 내외에 폭로하고 그것을 백지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서와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내외반동들의 남조선《국적》강요책동을 철저히 반대하며 그들의 공화국공민권과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할데 대한 결정을 만장의 일치로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동포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남조선통치배들과 일본반동들과의 범죄적결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군중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내외반동세력의 침략기도가 로골화되고 민족분렬이 구조적으로 고정화될 위험이 짙어가던 시기에 총련이 거족적인 통일성업에 뛰여들어 이룩한 공적은 청사에 아로새겨져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민족적본분을 다할수 있은것은 자기자신과 동포들의 운명을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결합시키고 용약 통일애국의 대하에 뛰여든 한덕수의장의 순결한 충성, 불타는 애국심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한 작가는 화강석이 굳고 윤택이 나는것은 운모와 석영,

장석이 어울린 조화이고 인간이 억세고 빛나는것은 량심과 신념, 의지가 어울린 조화이라고 한바 있다.

참된 혁명가, 애국자들의 영웅적인 생의 리치를 비유적으로 밝힌 이 말에는 긍정되는 점이 적지 않다.

신념과 량심으로 하는것이 혁명이고 애국투쟁이다. 강요로써는 희생도 각오해야 하는 머나먼 혈로를 걸을수 없다.

조선혁명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무명의 투사, 애국자들은 다 비길데 없는 배짱군이였고 량심인들이였다.

한덕수의장은 수령과 조국에 대한 충성과 민족적사명감을 량심으로 간직하고 삶의 시작도 끝도 한본새로 살았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의지를 지상의 명령으로, 조국의 신성한 부름으로 새겨안고 언제나 그에 충실한 애국충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사상과 민족대단결로선, 나라의 평화를 위한 전략전술들은 곧 그의 신념이고 의지였으며 그것이 그대로 총련의 활동방침으로 구체화되였다. 조국통일성전의 고비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애국투쟁의 익측을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은것은 한덕수의장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에 침로를 정하고 거기서 한치의 탈선도 몰랐기때문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간고하고도 준엄한 투쟁의 나날 통일애국이 반통일분렬주의를 압도하며 승승장구하는 속에 1970년대가 밝아왔다.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통일의지에 의하여 1972년 7월 4일

북과 남이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7.4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그것은 통일운동의 앞길에 서광을 비쳐준 휘황한 등대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조국통일사상과 숭고한 애국의지의 결정체인 7.4공동성명을 끓어오르는 격정속에 받아안은 한덕수의장은 즉시 의장담화와 중앙상임위원회 성명을 발표하여 그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명하였으며 《민단》중앙본부에 공동성명을 지지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어깨겯고 벌리며 북남적십자단체간의 본회담을 열렬히 지지하는 대회를 공동으로 가질데 대하여 거듭 제의하였다.

일본 각지의 총련조직에서는 7.4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대회와 모임들을 성대하게 벌리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행사들을 계기로 동포들속에서는 《60만재일동포들은 38°선의 장벽을 없애고 민족적으로 굳게 단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동포사회에서 용암처럼 분출하는 통일의지를 더욱 격앙시키고 7.4공동성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한덕수의장은 일본의 각계층 인사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적극화하면서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급속히 확대해나갔다.

7.4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일본사회당, 공명당, 민사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과 사회단체, 로동조합 등 여러 정당, 단체는 《7.4남북공동성명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며 일

조우호를 강화하기 위한 각계 대표들의 모임》을 가지고 조선통일지지운동을 폭넓게 벌렸으며 8월에는 일본 각계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결집하여 《남북공동성명을 강력히 지지하는 발기인회》를 뭇고 지지운동을 구체화하여나갔다.

한덕수의장의 불같은 노력과 눈부신 활약으로 하여 우리 동포들이 사는 일본 각지는 물론 일본의 정계와 사회계에서도 우리 당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에 대한 옳은 인식과 지지여론이 확산되였으며 그것은 분렬주의세력을 고립약화시키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게 되였다.

박정희일당이 7.4공동성명을 배신하고 《두개 조선》조작을 선언한 《6.23특별성명》발표놀음을 벌렸을 때 총련과 《민단》을 불문하고 동포사회전반에서 《특별성명》을 반대하고 우리의 조국통일5대방침을 지지하는 운동이 힘있게 벌어진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령도를 받들려는 한덕수의장의 애국헌신을 실증해주고있다.

총련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언제나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고 걸음을 같이하며 운명을 같이한 조국의 한 부분이였고 분렬된 조국의 아픔을 가시기 위한 힘겨운 투쟁에서 자기의 전호를 믿음직하게 지켜선 전위부대였다.

바다건너 이역에서 애국의 전위부대를 진두에서 이끈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는 바로 한덕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이였다.

2. 하늘같은 믿음 가슴에 안고

총련은 민족의 자랑이라고 하시며

우리 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혁명위업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도 령도의 계승성이 확고히 담보되는 필승불패의 위업이다.

태양의 빛발로 암흑천지에서 헤매이던 재일동포들에게 진정한 삶의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령도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확고히 계승되여왔으니 이것은 재일동포들과 온 민족의 더없는 행운이 아닐수 없다.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해방위업을 드팀없이 계승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총련애국위업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서 력사의 도전을 물리치며 승리의 일로를 걸어올수 있었다.

이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과 한덕수의장사이에는 력사에 특기할 믿음과 충성의 혁명적뉴대가 맺어져 총련애국위업의 한 페지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1996년 2월 15일부 《로동신문》에 게재된 글 《우리 조국

은 천하제일의 위인국입니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면서 한덕수의장은 자신이 장군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온것이 1982년 4월이라고 썼다.

하지만 그가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총련사업을 전개해 나간 시기는 그로부터 수십년을 거슬러올라간다.

일찌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그해에 벌써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앞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또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이 길로만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자신께서 총련사업에 화력을 돌리겠다고 언명하시였다.

총련사업에 대한 이러한 철석같은 력사의 의지를 천명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아래 총련은 주체의 궤도따라 왕성한 활력을 가지고 새로운 전진의 힘찬 보폭을 내짚었다.

1960년대후반기는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들에게 영주권신청과 남조선《국적》을 강요하고 민주주의적민족교육과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방해하려고 날뛴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영주권신청이란 결국 동포사회를 리간와해시키고 그것을 고정화하며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불순한 계책의 산물이였다. 영주권신청, 남조선《국적》강요놀음은 동포들에게서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빼앗고 동포사회를 반동화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총련조직을 말살하기 위해 일본반동들과 남조선통치배들이 작당하여 벌려놓은 불순한 짝짝꿍이판이였고 동포사회에 새로운 폭풍을 예고하는 위험한 신호였다.

이 준엄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앞에 재일조선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책동을 짓부시고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여 총련이 시련의 광풍을 꿋꿋이 이겨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투쟁의 무기를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방략으로 새겨안은 한덕수의장은 일본반동들과 남조선통치배들의 모략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재일조선공민들의 합법적권리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동포자신들의 투쟁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그는 재일동포들속에 공화국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부어주기 위한 사업을 국제사회가 20세기 정치의 거장으로 공인하는 위대한 수령을 모신 행운, 천리마를 탄 기세로 세월을 주름잡아 내달리는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과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모든 동포들이 언제나 사랑하는 조국을 가슴에 안고 자기의 신성한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떨쳐나설수 있게 하였다.

전체 재일동포들이 자기자신을 자각하고 단결된 력량으로 애국투쟁에 떨쳐나섬으로써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값비싼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다. 1960년대후반기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분렬와해시키려는 일본반동들과 남조선통치배들의 책동이 물거품이 되고 중단되였던 재일동포들의 조국에로의 귀국이 재개되였으며 조선대학교의 인가가 실현된것을 비롯하여 애국애족사업에서 커다란 승리가 이룩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것을 재일조선인운동에 철저히 구현한 한덕수의장의 충성스러운 노력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총련사업의 걸음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의 손길이 그처럼 깊이 닿아있다는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있었다.

그가 위대한 장군님의 출중한 위인상에 대하여 알게 된것은 조국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장엄한 포성이 울린 1974년 2월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높이 추대되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한덕수의장의 심정은 사뭇 흥분되였다. 조국을 다녀온 총련일군들로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과 천리혜안의 예지, 비범한 성품에 대하여 전해들을 때마다 그

의 가슴은 장군님을 만나뵙고싶은 충동으로 세차게 설레였다.

그러던 어느날 일본에 온 조국의 한 일군이 한덕수의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사업과 관련한 말씀을 하시다가 조국을 방문한 총련대표단이 활동하는것을 보아도 그렇고 또 일본에 가서 보고 온 조국대표단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확실히 총련에서 사상사업을 잘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총련간부들이 생활은 곤난하지만 당과 수령을 따라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의장은 공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응당 할 일을 한 자기의 소행을 그토록 높이 평가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과분한 치하의 교시에 접할수록 한덕수의장은 또 한분의 위대한 령도자, 스승을 모시고 애국사업을 하는 비길데 없는 영광과 행복을 가슴뿌듯이 느끼였다.

1968년 총련에서는 제8차 전체대회이후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수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과제를 내세우고 100일간혁신운동을 벌려 총련과 재일동포들속에 주체의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와 애국과업수행에서 뚜렷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어 1970년 7월부터 10월사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결성

15주년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축전을 받들고 총련이 당시까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내외적대세력들의 반동적공세를 짓부시고 모든 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120일간혁신운동을 발기하였다.

이 기간에 운동을 조직한 목적에 부합되게 과업수행을 짜고든 결과 각종 교양체계에 100일간혁신운동때에 비해 2～3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총련애국대오의 주역으로 성장하였다.

이 나날에 총련의 기층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 모범분회창조운동이 모범지부창조운동으로 심화발전되여 총련을 불패의 애국대오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총련이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재일조선인운동을 민족적애국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고있던 주체63(1974)년 2월 23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10차 전체대회에 보내신 축하문에서 총련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력사적인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총련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총련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로선으로서 총련을 우리 공화국의 위력한 해외공민단체로 강화하여 애국애족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이 어려있는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다.

한덕수의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축복과 크나큰 기대속에 진행된 총련 제10차 전체대회에서 총결기간에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대회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모아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력사적인 결정을 채택하였다.

대회이후 한의장은 총련일군들을 참다운 애국자로 키우며 총련의 조직건설과 애국활동을 혁신하는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사업을 잘 도와줄데 대하여》라는 담화를 통하여 총련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담화에서 총련이 결성되여 강화발전되여오는 나날에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총련일군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조직건설과 애국과업수행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과업들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문헌들을 밤가는줄 모르고 파고들면서 한의장은 《정말 위대한분이시다. 어쩌면 젊으신 그이께서 이처럼 총련의 형편에 환하시고 진로까지 명철하게 밝혀주신단 말인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친애하는 그이를 모신것이야말로 총련의 더없는 행운이야.》라고 하면서 거듭 감탄을

터뜨렸다고 한다.

정녕 얼마나 크나큰 행운이고 자랑인가.

한덕수의장의 심장속에서는 영명하신 장군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에 총련의 앞길은 더 휘황찬란할것이라는 신심과 락관이 끝없이 샘솟아올랐고 그럴수록 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은 더욱 불타올랐다.

가슴속에 날이 갈수록 더 세차게 불타오르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과 사무치는 그리움은 한의장에게 지칠줄 모르는 열정, 그 어떤 난관도 맞받아 뚫고헤치는 백배의 용기와 힘, 불굴의 투지를 안겨주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과 가르치심을 재일조선인운동의 고귀한 지침으로 하여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동포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공고한 대중조직으로, 애국애족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권위있고 힘있는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갔다.

총련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조직강화운동의 한 고리로 분회소조운동을 발기하고 총련전임일군들로 소조를 무어 분회를 도와주도록 함으로써 각급 조직들을 주체가 철저히 선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동포대중을 애국의 기치아래 단결시키는데서 청년들, 새세대들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조청으로 하여금 조선청년찾기소조운동, 2만명조선청

년담화운동, 5개고지점령운동 등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한덕수의장의 불같은 노력으로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일본반동들의 반총련광증이 극도에 달했던 1970년대후반기에 총련은 주체의 한길을 따라 자기 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갈수 있었다.

1977년 9월에 있은 총련 제11차 전체대회에서는 총련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적극 관철하기 위한 활동방침을 토의결정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전 대오가 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자로 키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동포대중속에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도처에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육망을 꾸려놓고 그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적극화하였으며 일본 각지에 분회조직들을 확대하고 분회소조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총련은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쟁취하였다. 줄기찬 투쟁끝에 모든 조선학교의 인가를 획득함으로써 민족교육을 합법화한데 이어 대학교 교원들에 대한 공화국대학통신박사원제도, 겸임연구사제도를 실시하여 민족교육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나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금강산가

극단이 결성되고 자본주의일본땅에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대성황리에 공연하였다. 총련의 금강산가극단은 세계에 류례가 없는 해외예술인들의 가극단으로서 이처럼 독특한 예술단이 해내외에서 대성황리에 예술활동을 벌린 사실은 국제무대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으며 나날이 장성강화되는 총련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총련은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단체답게 대외활동을 적극화하여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세계평화리사회 등과 조직적련계를 맺고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공화국창건 30돐을 성대히 기념한 1978년 11월 일본 도꾜에서 세계 5대륙의 여러 나라 대표들과 국제단체, 기구대표들의 참가하에 조선의 통일을 위한 제2차 세계대회가 성대히 개막되고 우리 당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에 대한 지지찬동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온것도 총련이 거둔 자랑찬 성과의 하나이다.

현대에 이르러 세계를 움직이는것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과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돈이다. 돈으로 살수 있는것은 무엇이나 눅거리이다. 하지만 사상으로는 천하를 움직일수 있다.

총련이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투쟁해온 나날에 이룩한 눈부신 성과는 총련의 주체사상화강령의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된다.

일본땅 한복판에서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조선학교들에서 우리 글 읽는 소리가 랑랑하며 동포들이 단결하여 애국사업에 헌신분투하고 세계무대에 진출하여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총련의 미더운 모습을 볼 때마다 한덕수의장은 총련을 그토록 강하고 존엄있는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께 마음속으로 감사의 큰절을 올리군 하였다.

총련을 사상적으로 일색화되고 단결의 위력으로 조국과 동포들의 존엄을 빛내여나가는 산 조직으로 되게 하여주시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모든 성과를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에게 돌려주시며 《세계에는 해외교포도 많고 해외교포단체도 많지만 총련과 그 두리에 뭉친 재일동포들처럼 자기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고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 해외교포들과 해외교포조직은 없습니다. 자기 수령과 자기 조국, 자기 민족에 충실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과 우리 공화국의 커다란 기쁨이며 자랑입니다.》라고 값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총련을 세상에 둘도 없는 주체적인 해외교포조직으로,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는 강철의 보루로 꾸려주시고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에게 더없는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은 총련의 위대한 스승, 탁월한 령도자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총련애국사업을 벌려오는 과정에 한덕수의장의 심장속에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매혹의 정이 날로 더욱 깊이 간직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나름대로 《**김정일**위인관》으로 명명하였다. 그에 대하여 후날 한덕수의장은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다.

《나에게도 이미 오래전부터 심장깊이 간직하고있는 **김정일**위인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재, 장군, 성인, 미남형의 인격을 최상급에서 리상적으로 겸비하신분이 **김정일**장군님이시라는것입니다. 버릇없는 말이지만 이것은 참위인을 보는 나의 외람된 <**김정일**위인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이 **김정일**위인관은 그이를 만나뵈올 때마다 도덕의리로 정화된 충효심, 천재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저술활동, 천하무비의 담력과 높은 조직능력, 뜨거운 인간애와 은정을 몸가까이에서 체험하면서 가슴속깊이 신념으로 새겨넣은것입니다.》

뜻깊은 조국방문에 깃든 사연

한덕수의장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의 공식직함으로 일본반동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을 방문한것은 총련이 결성된 때로부터 20년, 재일동포들의 조국래왕이 시작된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1975년이다.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7돐을 눈앞에 둔 1975년 9월 8일 쾌청한 가을계절에 꿈결에도 그립던 조국땅에 발을 내디딘 한의장의 심정은 참으로 감개무량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방문길은 바라고바라왔어도 좀처럼 이루기 힘든 길이였다.

비록 조국은 현해탄너머 멀리에 있어도 조국의 손길을 시시각각으로 누구보다 몸가까이 느끼며 살아온 그였다.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의 손길로 힘이 진할 때면 힘을 주고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주시며 위대한 사상과 로선으로 총련이 나아갈 길을 걸음걸음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흠모와 그리움의 정이 커갈수록 조국방문의 념원은 그의 마음속에서 뜨겁게뜨겁게 타올랐다.

어느때나 그러하였지만 내외반총련세력의 책동과 불순이색분자들의 준동으로 말미암아 재일조선인운동이 우여곡절을

겪을 때면 금시라도 자리를 박차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로 달려가 난국을 타개할 가르치심을 받고싶었고 애국위업수행에서 난관이 제기될 때면 그분들의 몸가까이에서 인민적인 령도방법과 풍모를 직접 보고 따라배우고싶은 열망이 불길같이 타올랐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열망은 쉬이 이룰수 없었다.

일본반동들은 사회주의조국과 총련과의 련계를 끊어버릴 목적으로 재일조선인들이 조국에 마음대로 다녀올수 있는 권리를 빼앗으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에게 제3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권리를 제한한것도 그러한 불순한 술책의 한 고리였다.

조국과 제3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권리는 해외교포라면 그가 어느 나라에 살든 또 어느 나라의 해외공민이든 반드시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이다.

국제법적으로도 해외교포들이 제3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권리는 보편화되여있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 12조에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도 자유로이 떠날수 있으며 그 누구도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세계의 수많은 해외교포들은 사상과 정견,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국은 물론 제3국에로의 려행을 자유자재로 하고있다.

더우기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조국방문에 대한 념원은 다른 나라의 해외교포들과 비할바없이 강렬한것이였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부추김밑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면서 일본에 있는 외국인중에서 유독 재일조선인들에 대해서만 자유래왕을 가로막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3년초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민족적차별과 인권유린행위를 저지시키며 그들의 자유로운 조국래왕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한덕수의장은 1963년 3월 총련중앙위원회 제30차회의를 열고 조국에로의 왕래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업을 제기하고 끝 재일조선인조국왕래요청위원회를 무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일본당국을 상대로 하는 조국왕래요청투쟁을 전 기관적, 전 동포적인 운동으로 광범히 벌려나갔다.

196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달반동안에는 15만 7 000여명이 참가하여 오사까ㅡ도꾜간 근 2 000리길을 도보로 누비면서 요청행진을 하기도 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완강한 투쟁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조국왕래요청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그들의 조국방문소망을 하루빨리 실현시키기 위하여 적극 힘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때 벌써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덕수의장의 조국방문을 성사시켜 어버이수령님

과의 상봉을 마련하실 뜻을 품고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가르치심에 접한 한덕수의장은 일본당국을 대상으로 대중적인 요청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는것과 함께 대외활동에도 커다란 힘을 넣었다.

결과 1965년 12월까지 도꾜도의회를 비롯하여 일본인구의 85%이상을 망라한 1 065개의 지방자치체의회들에서 재일동포들의 념원이 실현되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할것을 자기 정부에 요구하였다.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국제직업련맹, 세계민주녀성련맹, 국제기자동맹 등 15개 국제기구들과 여러 나라 정당, 단체, 인사들도 이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우리 공화국과 총련조직의 완강한 노력에 떠밀리워 마지못해 일본당국은 1965년 12월 2명의 재일동포들에게 처음으로 일본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였다.

하지만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에 환장한 일본당국은 그후에도 조국왕래의 목적과 체류기한, 본적지, 직위, 년령 등을 사사건건 트집잡아 왼새끼를 꼬면서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조국방문에 음으로양으로 제동을 걸었다.

일본반동들의 비인도주의적이며 불법적인 처사는 한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의분을 더욱 촉발시켰다.

총련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은 재일조선인

축하단의 조국왕래를 실현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힘차게 투쟁해나갔다.

한덕수의장은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왕래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글발이 씌여진 어깨띠를 두르고 매일같이 요청운동의 앞장에 서서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폭로규탄하면서 일본법무성에 재일조선인들의 조국래왕을 허가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 각 정당, 단체와 개별적인사들, 인민들속에서 지지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도 힘있게 전개하였다.

축하단의 재입국문제에 대한 내외의 압력에 더는 뻗칠수 없게 된 일본당국은 1972년에 해방후 처음으로 재일조선인활동가들로 구성된 재일조선인축하단의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결국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조국방문의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그후 재일동포들의 조국방문행렬이 큰 물결을 이루게 되자 이번에는 남조선통치배들이 심사가 뒤틀려 하며 《고향방문》이라는것을 고안해내여 동포들의 조국방문을 파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이러한 사태를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조국래왕사업을 더욱 본격적으로 벌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와 관련한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총련 제10차 전체대회전까지만도 33개의 각종 대

표단, 일반조국방문단 551명이 조국을 방문하였으며 1973년 한해에만도 6개의 각종 대표단, 50여명의 일군들이 3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가하였다.

재일동포들의 조국방문의 길이 더욱 넓어지고 조국래왕이 활발해지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덕수의장을 조국에 다녀가게 하기 위한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당시 일본당국은 총련의장이 조국에 갔다오면 총련애국사업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될것을 몹시 불안하게 여기면서 이러저러한 황당한 구실을 붙여 한의장의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덕수의장의 속에는 재가 앉았다.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그는 《내 이러다간 이 섬나라에 갇혀 영영 조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어버이수령님을 한번 뵈옵지도 못한채 무주고혼이 되고마는것이 아닌가 하는 처량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면 마음은 더욱 서글퍼지는것이였다.》라고 추억하였다.

그러던 1975년 3월중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시다가 어떻게 하나 올해에는 총련중앙 의장을 조국에 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조국의 일군으로부터 이 소식을 알게 된 한덕수의장은 즉시 일본당국에 재입국허가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일본당국자

들은 총련중앙 의장이 당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공화국에 가는것은 정치적성격을 띠는 문제라고 생억지를 쓰면서 그것을 한사코 허용하지 않았다.

한덕수의장은 물론 총련의 일군들모두가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있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본당국이 당창건기념일에 한의장이 조국에 오는것을 정치적성격을 띠는 문제라고 정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공화국창건기념일을 계기로 조국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는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해외교포들이 공화국의 창건일에 조국을 방문하겠다는것은 너무도 응당하고 합법적인 요구로서 누구도 시비할 문제가 못되였다.

총련에서는 한덕수의장의 재입국승인을 받기 위한 강력한 공세를 들이댔다.

이렇게 되자 이제 더는 다른 구실을 내댈수 없게 된 일본당국은 하는수없이 1975년 9월초 한덕수의장의 일본재입국을 승인하였다.

오매불망 그리던 조국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올수 있게 되였구나 하는 환희의 감정으로 한의장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올랐다. 이역살이 수십년세월 가슴에 간직해온 열망,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싶은 그의 필생의 숙원은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관심속에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

였다.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땅에 첫발을 내디디던 그 감격의 순간에 대해 한의장은 자기의 회상실기에 이렇게 썼다.

《조국땅에 첫걸음을 옮기는 순간 나는 끓어오르는 격정에 목이 메이고 한없이 높뛰는 심장의 고동을 진정할수 없었다.

스무살꽃나이에 눈물로 하직하고 떠나갔던 조국!

몸은 비록 이역의 거친 땅을 헤매여도 마음은 정든 산천에 깊이 묻고갔던 내 나라, 애국의 불타는 글발을 새긴 어깨띠를 두르고 찬비내리는 이국의 거리에 떨쳐나서던 나날에도, 총련의 결성을 선포하던 그 영광의 시각에도,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목메여 부르고부르던 사회주의 내 조국.

어버이수령님의 품이 그리워 하루에도 그 몇번 마음속에 오가던 어머니품, 살아서 못가면 죽어서라도 기어이 안기고싶었던 내 조국이였다.》

한의장이 목마르게 고대하던 날이 왔다.

력사적인 주체64(1975)년 9월 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7돐경축 총련대표단 단장으로 조국을 방문한 한덕수의장을 만나주시였다.

일군들과 함께 문앞에서 기다리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팔을 벌리시고 《한의장동지!》라고 불러주시며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얼마나 그리고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이신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인가.

한의장은 《수령님!》 하고 부르며 넘어질듯 그이의 품에 안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국풍상에 시달린 그의 어깨를 어루만져주시며 잘 왔다고, 보고싶었다고 하시고는 손을 이끄시고 응접실로 들어가시여 자신의 곁에 앉혀주시였다.

한덕수의장은 그제서야 진정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은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의 인사를 정중히 받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 피곤할텐데 몸에 탈은 없는가고 물어주시고 나는 한의장동지를 벌써부터 만나보고싶었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조국에서 이렇게 한의장동지를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어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일본반동들의 교활하고 끈질긴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자기 조직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분에 넘치는 치하에 한의장은 황송함을 금치 못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대표단 성원들을 위하여 오찬

을 마련해주시고 몸소 축배도 권하시며 이역땅에서 조국을 위하여 싸우는 그들을 친어버이의 정으로 따뜻이 품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저녁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7돐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축하연설을 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다음날 9월 9일에는 경축연회에서 축배사를 하도록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경축연회에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은 물론 권위있는 외국의 수많은 손님들이 참가하였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축배잔을 들고 찾아오는 그들에게 일일이 한덕수의장을 소개해주시여 그와 총련의 권위를 높여주고 총련사업이 국제적지지속에 진행되도록 떠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광의 좌석에 한의장을 자신의 곁에 앉혀주시고 총련사업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을 특별비행기와 배로 지방참관을 하도록 해주시고 평양시와 함흥, 원산 등 여러곳에서 성대한 환영모임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려주시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극진한 환대, 총련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으며 한의장은 세계가 우러러 칭송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더욱 깊이 탄복하였으며 총련애국사업을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지방참관을 마치고 평양에 돌아온 한의장일행을 다시금 만나주시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방문일정을 끝내고 이국땅으로 떠나가는 그들을 또다시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일행이 당창건기념행사를 앞두고 떠나가는데 대해 아쉬워하시며 그들의 서운한 마음을 풀어주시려는듯 이번에 한의장동지가 조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고무해주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상봉하게 되니 그이상 더 기쁜 일이 없다고 뜨거운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수령과 전사사이의 혁명륜리를 초월하는 위대한 동지애의 세계에 감복하여 몸둘바를 몰라하는 한의장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총련이 놀아야 할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 영광스러운 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총련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애국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고는 뜨거운 정을 담아 혁명을 위해 귀중한 몸인데 이국풍상에 몸조심하라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한의장은 북받치는 격정에 목메여 《위대한 수령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올리고는 더 말을 잇

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하시며 흐느끼는 한의장을 껴안으시였다.

장내는 일시에 울음바다에 잠기였다. 참으로 격동적인 순간이였다.

한덕수의장의 조국방문은 이처럼 만사람을 울리는 감동적인 화폭으로 끝을 맺었다. 그것은 세상에 비길데 없는 사랑과 은정, 더없는 영광과 행복속에 흘러간 환희의 나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람세찬 이역땅에서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로심초사, 헌신분투하는 한의장을 사랑과 영광의 절정에 내세워주시였으며 사랑하는 전사에게 어떤 광풍속에서도 드놀지 않는 신심과 배짱을 안겨주시였다.

하기에 한덕수의장은 후날 이때를 회고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정과 세심한 보살핌속에 조국방문기간의 하루가 꿈같은 백날, 천날맞잡이였으며 그런 행운아는 세상에 더는 없을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애국의 전장으로 돌아가는 한의장의 가슴에는 누구도 알수 없는 커다란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간고했던 1960년대로부터 조선혁명과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를 보좌하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오려는 간절한 소망을 이루지 못한 서운함이였다.

조국방문길에 오르면서 한의장은 두말할것없이 이번 방문기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추대되시여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리라고 확신하였다.

그 믿음, 그 기대를 이루지 못하였으니 비길데 없는 아쉬움을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간직하고 조국을 하직해야 하는 그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수 있으랴.

집떠난 자식을 못내 그리워하는것이 어버이의 마음이듯이 이역에서 수십년간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충직하게 싸워온 한의장을 한시바삐 만나보고싶은 심정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욱 간절하시였다.

하지만 그것을 묻어두신채 한의장을 돌려보내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의 뜻을 그때 그는 알수 없었다.

자신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 여기시며 거룩한 혁명령도의 길을 걸으시는 그 투철한 수령관과 혁명관, 한없는 겸허성으로 하여 장군님을 만나뵙고싶은 한의장의 열망은 이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서야 이루어질수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김정일**혁명실록이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하나의 감동깊은 혁명일화가 아니겠는가.

애국위업의 미래를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구한 투쟁이다. 전세대가 개척하고 전진시켜온 정의의 위업을 변함없이 이어나가자면 계승자들의 대오가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

총련애국위업을 줄기차게 이어나가는데서 새세대 육성문제는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의 탁류가 범람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조국과 자기 민족을 위한 애국의 대를 줄기차게 이어나가자면 총련의 새세대들을 투철한 조국애와 민족의 넋을 지닌 열렬한 애국자로 키우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서 청년문제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재일조선청소년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들을 주시였을뿐 아니라 그들이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라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한덕수의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기고 총련의 전반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속에서도 청년사업을 언제나

중점과업의 하나로 틀어쥐고 그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총련결성직후 한덕수의장이 새세대 육성사업에서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운것은 재일조선청년들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였다.

돌이켜보면 좌우경의 란동에 시달려온 해방후의 재일조선인운동에서 가장 큰 손실을 당한 피해자들은 바로 피끓는 동포청년들이였다.

총련이 결성되기 전까지 재일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길은 참으로 험난한 가시덤불길이였다. 그들을 바른길로 이끌어줄 옳은 지도사상과 견실한 조직이 없은탓이였다.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재일본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민애청)은 민전의 산하단체로서 그 명칭과는 달리 광범한 재일조선청년들을 망라하는 민주주의적인 단체로 되지 못하였다.

재일조선인애국자들은 해방된 이듬해에 조련안의 청년들로써 조직을 보위하는 임무를 담당수행하는 단체를 내왔으며 그후 재일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일본반동당국의 횡포무도한 탄압책동에 의하여 이 조직은 조련과 함께 해산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그후에 나온 단체가 민애청이였다.

실로 헤아릴수 없는 파란곡절속에 흘러온 재일조선청년들의 력사였다. 총련결성이전의 재일조선청년운동사는 그대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의 파도에 휘말려 갈길을 잃고 방황하며

피흘리고 상처입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축도라고도 할수 있었다.

재일조선청년들을 애국위업의 담당자로, 자기 조국과 민족에 충실한 후비대로 준비시키자면 광범한 청년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묶어세울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청년조직이 있어야 하였다.

그로부터 한덕수의장은 총련의 결성에 이어 청년조직을 새롭게 결성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이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총련이 결성된지 100일도 못된 1955년 8월 1일 재일조선청년들의 새로운 조직인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이 결성됨으로써 주체적인 해외공민청년조직이 탄생하고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의 희생물로 롱락당하던 재일조선청년운동이 자기 발전의 옳바른 궤도에 올라서게 되였다.

새형의 해외청년조직인 조청이 결성되고 핵심적인 청년들로 조직이 강화발전함으로써 재일조선청년학생들에게는 청춘의 정열과 지혜와 재능을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위하여 바칠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리게 되였으며 이국땅에 있으면서도 자기 나라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는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황금만능의 바람이 모질게 불어치는 이역의 풍파속에서도 재일조선청년운동이 자랑스러운 전성기를 수놓아오고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주체의 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조국과 민족에게

충직한 열렬한 애국자, 애국위업의 계승자들로 믿음직하게 준비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해외교포운동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총련애국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일찌기 자기 수령, 자기 조국에 충성다하는것을 총련의 기본사업방향으로 명시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재일조선청년운동이 철두철미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진행되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수십성상에 이르는 총련의 발전로정에서 1970년대는 력사적 전환의 년대기로 아로새겨져있다.

애국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해온 재일조선청년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민족의 후비대로 억세게 키우는것은 이 시기 재일조선인운동의 후비력량을 꾸리고 심화발전하는 총련애국사업을 끊임없이 전진시키는데서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그 배경에는 1970년대중엽에 이르러 재일조선인들의 세대교체가 급속히 이루어지고있던 실정이 있었다.

해방직후부터 재일조선인운동에 몸을 담그고 총련의 결성과 강화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온 1세일군들과 동포들은 나이가 많아지고 재일조선인2세들이 총련의 주력으로 등장하였다.

그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본조선청년예술체육대표조국방문단, 제2차 재일본조선교육일군조국방문단, 재일본조선고급학교학생조국방문단 성원들앞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총련의 새세대들을 교양육성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4(1975)년 3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총련사업을 잘 도와줄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과 그 전도는 새세대 동포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하시면서 청년들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총련에서 자라나는 새세대 동포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전달받은 한덕수의장의 가슴은 새로운 흥분으로 세차게 달아올랐다.

돌이켜보면 총련이 새세대 육성사업에서 이룩한 큼직큼직한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과 령도아래 마련된 자랑찬 열매들이였다. 반공화국, 반총련광풍이 그 어느때보다 사납게 불어치던 1960년대중엽 총련에서 결성 10돐을 맞으며 청소년학생들로 집단체조 《조국에 드리는 노래》를 훌륭히 창작공연함으로써 일본땅에 큰 파문을 일으킨것도 집단체조를 할바에는 판을 크게 벌려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충성과 애국의 항로를 꿋꿋이 이어나갈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의 손길아래 이룩된 긍지로운 승리가 아니였던가.

민족배타, 민족동화의 사나운 칼바람속에서 새세대들을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억세게 준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긴 한덕수의장은 조청사업에 직접 깊은 관심을 두고 세심히 지도하였다. 그는 총련중앙위원회 제10기 제2차회의를 비롯한 중요회의들을 조직하고 조청조직과 재일조선청년들과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조직들과 일군들이 조청조직강화와 청년교양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조청단체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철저히 립각하여 모든 사업을 벌리도록 하였다. 또한 총련의 각급 기관에 청년대책위원회를 새로 내오고 조청사업을 기관적으로 방조하도록 하였다.

총련중앙의 지도밑에 조청은 청년들속에서 세계관을 바로세우고 애국일념을 체질화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갔다. 총련결성 20돐을 앞두고 힘있게 벌린 충성의 독서운동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충성심을 높이기 위한 일대 학습운동으로서 동포사회전반에 학습열풍을 일으킨 불꽃으로 되였다.

한덕수의장은 조청으로 하여금 조청 제11차대회를 앞두고 대렬확대, 반강화 70일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조청조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청반들에서 70일운동을 계기로 조청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였다.

가슴벅찬 추억으로 가득찬 그때를 돌이켜보며 한덕수의장의 자녀들은 늘쌍 밖에 나가살다싶이 하던 아버지가 어쩌다 일요일과 명절에 집에서 쉬는 때면 늘 자식들의 학습정형을 직접 료해하였을뿐만 아니라 옷차림과 머리단장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돌렸다고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재일조선청년들의 전반적인 사상교양사업정형에 대한 관심과정의 한 고리였다고 회고한다. 그는 그처럼 안에서나 밖에서나 앉으나서나 총련의 새세대 교양사업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항상 관심하고 고심하였던것이다.

한덕수의장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재일조선공민들에게 있어서 사활적문제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조청으로 하여금 조선사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리도록 하였다. 총련조직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조청은 조선청년찾기소조운동, 2만명조선청년담화운동, 5개고지점령운동, 충성의 100일간운동 등 군중적운동을 힘있게 벌렸다. 이 과정에 대중강연회, 좌담회, 조국영화상영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교양사업과 각종 문화체육사업을 활발히 벌려 광범

한 청년들속에 민족의 넋과 조국애를 심어주었으며 각계각층 청년군중들과의 사업을 폭넓게 추진함으로써 수많은 청년들을 새로 찾아내고 조청조직에 망라시켜 조청지부와 조청반을 결성, 재건하는 사업에서 괄목할 진전을 이룩하였다. 그의 정열적인 노력이 있어 결성 20돐을 맞이한 시점에서 조청은 홋가이도로부터 규슈에 이르기까지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이 사는 모든 곳에 45개의 지방본부와 250여개의 지부, 1 000여개의 반을 튼튼히 꾸리고 한해사이에만도 일본 각지에 꾸려진 청년학교들에서 5만명이 넘는 동포청년학생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었다.

이와 함께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최대의 념원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이라는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일본의 진보적청년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 청년들과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1976년 11월에 있은 총련중앙위원회 제10기 제5차회의에서 한덕수의장은 총련의 모든 일군들이 청년들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자신의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총련조직이 있는 모든 단위에 조청조직을 내오며 더 많은 청년들을 여기에 망라시키기 위하여 노력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으며 조청중앙위원회 제10기 제5차회의에서 조청의 기본과업과 함께

그 실현을 위하여 조청일군들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애국자로서의 사상과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민족적 소양과 청년활동가로서의 품성을 가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이듬해 5월에 있은 조청중앙위원회 제10기 제6차회의에서는 총련 제11차 전체대회를 앞두고 벌리는 총련의 5개월운동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는데서 조청조직과 청년들이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재일조선청년들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과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기층조직을 잘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갔다.

조청조직강화를 위한 한덕수의장의 진함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조청은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를 조직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일수 있었다.

재일조선청년들을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충실하게 키우는데서 민족교육사업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예로부터 교육은 나라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강조되여왔다.

총련의 새세대 육성사업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는 계승의 력사, 찬란한 전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이역의 동포들을 마음속에 안고 사시며 언제나 뜨거운 사랑을 베푸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재일조선청년들의 교양육

성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총련의 새세대들이 수령의 참된 아들딸, 애국의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재일조선청년들을 교양육성하는데서 정규교육체계의 역할을 중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대학교에 3년제사범과를 내오도록 하시고 그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도록 하시였을뿐 아니라 그들에게 누구나 누릴수 없는 특전특혜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대학교의 사범과 학생들이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또 어떤 때에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오찬회장에도 불러주시였다.

끝없이 베풀어지는 사랑과 은정의 해발속에서 애국위업의 후비대들에 대한 령도자의 더없는 기대와 믿음의 세계를 뜨겁게 받아안으며 한덕수의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민족교육사업에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의 불을 걸었다. 재일조선학생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아들딸이 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청소년학생들을 애국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키워나가기 위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리였다. 일본 도호꾸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곳 조선학교 학생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뛰여들어 학교에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석고상과 초상화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모신 감동적인 사실은 민족교육의 토양에

서 애국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자라난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의 훌륭한 사상정신적면모를 뚜렷이 과시하였다.

1980년대에 재일조선청소년들속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모범학급창조운동과 《한개 분회에 한개의 청년학교를 꾸리자》라는 구호밑에 힘있게 추진된 청년학교1천개설치운동 등 여러가지 대중운동은 새세대 청년들을 교양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한덕수의장은 각급 학교들에서 민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미는것과 함께 조선대학교를 총련애국위업을 떠메고나갈 일군양성의 원종장으로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에 따라 1971년 4월 조선대학교 사범교육학부에 특별히 설립된 사범과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일군양성에 힘을 넣도록 하였다.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청년핵심들이 총련의 골간으로, 유능한 활동가로 자라나 애국위업의 주축을 이루게 되였다.

조직적으로 단련되고 민족교육의 자양분을 받으며 튼튼히 자란 애국의 기둥감들이 총련의 주력으로 활약하였기에 반사회주의광풍이 사납게 휘몰아치고 세계정치정세가 격변하던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도 재일조선청년들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굳센 신념을 안고 애국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수 있었다.

언젠가 일본의 한 언론인은 조청의 한 일군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은적이 있다.

문: 요즘 세월을 보면 전세대와 후세대의 모습이 달라지는것이 상례이다. 말하자면 동유럽나라들의 경우처럼 1세나 2세의 모습이 붉다면 3세나 4세의 모습은 대체로 희거나 노랗다.

그런데 총련의 세계를 보면 대가 바뀌여도 1세, 2세의 모습이나 3세, 4세의 모습이 꼭같다. 그 비결이 어데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 그 비결은 위대한 수령을 따르는 마음이 하나이기때문이다. 수령을 따르는 1세, 2세의 마음이자 령도자를 따르는 3세, 4세의 마음이다.

비교하여 말한다면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의 생리는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다. 해바라기는 북쪽에 피여도 한모습이고 남쪽에 피여도 한모습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총련의 1세, 2세의 모습이자 두분을 받드는 총련 3세, 4세의 모습이다. 대가 바뀌여도 변함을 모르는 이 순결한 생리와 모습을 두고 나는 애국충정의 유전성이라고 말하고싶다.

위대한 령도의 손길이 있고 그 관철을 위해 심혼을 다 바친 한덕수의장과 같은 충신들이 있기에 이역의 광풍속에서도 애국의 꽃은 대를 이어 만발하고있는것이다.

동포상공인들을 애국의 길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은 머나먼 이역땅에서도 어머니조국을 참다운 삶의 요람으로, 희망의 등대로 우러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륭성번영과 자주적통일을 위한 보람찬 위업수행에 귀중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이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조선으로 위용떨치는데는 자기의 열과 정을 다하여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받들어온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고귀한 애국지성과 숨은 노력도 깃들어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재일동포들의 고귀한 애국지성, 이것은 자기의 운명과 삶을 조국과 결부시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에 충성다하는 어머니조국의 참된 아들딸들만이 바칠수 있는 진심이다.

매개 공민들의 순결한 량심과 애국심에 떠받들려 륭성번영의 력사를 수놓아온 우리 공화국의 전진발전의 행로에는 재일동포들의 순결한 충성과 애국헌신의 땀방울도 보석처럼 수놓아져있다.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해외교포들을 가지고있고

교포들의 대다수가 거주국에서 상공업에 종사하고있다. 그 상공업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생계유지와 리익추구의 공간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우리 재일동포상공인들은 자기 개인의 생계유지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어머니조국을 위한 길에 애국의 마음을 바칠줄 아는 참다운 애국적상공인들이다.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이역에서 살고있는 해외교포들에게 있어서, 더우기 돈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수 없는 자본주의일본땅에 몸담고있는 재일동포들이 자기의 인생을 애국적인 상공업에 지향시킨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 한사람한사람을 황금만능과 생존경쟁의 살풍속에서 금싸래기처럼 지켜내고 총련애국위업의 억센 기둥으로 키우기 위해 한덕수의장이 기울인 노력은 헤아릴수 없다.

재일동포상공인들은 거의가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징용, 징병에 걸리거나 혹은 살길을 찾아 쪽박을 차고 현해탄을 건너가 온갖 민족적멸시와 천대속에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온 수난자들이였다. 나라가 해방된 후에도 그들의 생활형편은 의연 어려웠다. 동포들의 절대다수가 미국에 의해 폭격당한 전쟁의 흔적을 가시거나 토목공사, 행상, 폐품회수 등으로 그날그날 삶을 이어왔다. 해방후부터 1947년 10월까지 일본 각지의 33개 지역에는 107개의 상공인단체가 존재하고있었는데 그에 소속된 상공인들의 기업활동이라야 기껏해서 려

인숙을 경영하고 국수장사 같은것을 하는 정도였다. 조선사람의 일이라면 덮어놓고 뒤집어엎으려드는 일본당국의 무지막지한 탄압의 철퇴는 그 가냘픈 생계의 실오리마저 가차없이 짓뭉개버렸다.

미점령군의 지시하에 요시다정부는 1949년 1월 《외국인재산취득에 관한 정령》을 립안하고 1949년 3월에 공포, 실시하였다. 일본당국자들은 이 《정령》에서 외국인이 토지, 건물, 공장, 사업장들을 취득하거나 또 그런 재산에 대한 《임차권》, 《지상권》, 《전당권》, 《저당권》을 취득할 때에는 일일이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일본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은 점방을 차리는것과 같은 사소한 기업활동도 할수 없다는것이 그 골자이다. 물론 그 외국인이라는것은 조선사람을 가리키는 상징어였다.

당시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들에 대하여 《적국민》으로 취급하고있었다. 그러한 환경속에서 일본주무대신이 재일조선인들에게 기업활동을 허가할리 만무하였다. 이것은 결국 일본에 사는 조선사람들은 그 어떤 장사도 못하고 그 무엇을 사거나 팔수도 없게 하여 기아와 빈궁에 몰아넣으려는 극히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처사였다.

한덕수의장은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정령》을 반대하는 투쟁에 동포들을 궐기시키고 대중적인 강력한 공세를 들이대도록 하였다.

결과 일본당국은 이 《외국인재산취득에 관한 정령》에 《외자위원회가 지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시 제3호》를 발표하였으며 그 《지정외국인은 바로 조선인》이라고 《정령》에 명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여 동포상공인들의 기업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데서 일정하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게 되였다.

밖에서 불어치는 칼바람을 막기에 여념이 없을 때 내부에서 일부 좌경분자들은 동포상공인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며 엇드레질을 하여 복잡성을 조성하였다.

총련결성후 한덕수의장이 동포상공인들의 권리옹호단체인 재일본조선인상공련합회(상공련)를 재일조선인운동대렬에 인입하기 위한 사업에 팔을 걷고 나서자 민전시기부터 재일조선인운동을 좌경의 벼랑끝으로 몰고가던 일부 불순분자들은 공산주의자들과 개인상공업자들은 서로 량립될수 없다고 하면서 그에 로골적인 반기를 들었다. 지어 상공인이란 사회주의사회에서 장차 《타도대상》이 되니 상공인들이 총련조직에 들어오려면 기업에서 영영 손을 떼야 한다고 생트집을 걸었다.

이들의 주장은 빠개놓고보면 상공인들을 애국활동에서 배척하려는 극히 위험한 경향이며 《정치활동》이라는 보자기로 감싼 사실상의 상공인배타사상이였다.

상공인들도 다른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한피줄을 나눈 겨레

이고 그들의 가슴속에도 나서자란 고향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의 불씨가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그런데 조선사람이라고 해서 동포상공인들을 멸시하고 동포사회에서조차 《타도대상》취급을 하면서 상공인들을 배척한다면 그들이 갈길은 과연 어디란 말인가.

황금만능의 독소가 사람의 뇌리에 침습하여 량심과 도의를 좀먹고 모든 사고의 초점을 돈에 대한 집착에로 몰아가 사람을 오직 돈만 아는 기형아로, 정신적불구자로 만드는 자본주의일본땅에서 우리 총련조직이 동포상공인들을 배척한다면 그것은 상공인들을 일본반동들의 동화정책의 희생물로, 자본주의가치관의 노예로 내맡기는 무서운 반역행위가 아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의 나날에 발표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민족자본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장려할데 대하여 뚜렷이 명시해주시였고 해방후에 제시하신 20개조정강에서도 민족상공인들의 리익을 절대로 침범하지 않고 그를 장려한다고 강조하시지 않았는가.

상공인들도 응당 자기 조국의 품속에서 운명을 함께 해야할 공화국의 당당한 공민임이 분명하고 동포상공인들의 경제활동도 응당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위한 애국활동이 되여야 하며 상공업자들도 총련과 운명을 함께 하여야 한다. 이것이 재일조선인운동을 자기 조국을 위한 운동, 자기 민족을 위한 운동으로 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깊은 생각끝에 한덕수의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새로운 로선전환방침의 요구대로 상공단체들과 상공인들을 총련조직의 품에 안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중요하게 틀어쥐고 그들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그는 상공인들이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옳바른 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총련조직과 운명을 함께 하도록 꾸준히 교양하고 설복하였다. 총련일군들의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이 은을 내여 1959년 6월중순에 열린 재일본조선인상공련합회 제13차 정기대회에서 상공련의 총련가맹을 결정하게 되였다. 상공련의 총련가맹은 상공인들을 새로운 주체적로선에 발맞추어나가도록 하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으며 상공인단체가 재일조선상공인들의 진정한 권익옹호단체로서의 사명을 담당수행할수 있게 하는데서 진일보로 되였다.

한덕수의장은 상공인단체를 총련에 가입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상공인들이 자기의 권익을 지키고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서게 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후 일본반동들은 그것을 계기로 재일조선상공인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500여명의 무장경찰관과 200여명의 세무관리들을 동원하여 동화신용조합(현재 조은도쬬신용조합)본점과 우에노지점을 강제수색하는

파쇼적만행을 감행한것은 그 한 실례였다.

동화신용조합에 대한 강제수색놀음이 동포상공인들의 신용조합을 파괴하는것과 함께 신용조합과 총련의 여러 기관들과의 자금관계를 걷어쥠으로써 총련탄압의 실머리를 잡자는데 있다는것은 명백하였다.

한의장은 즉시 총련조직과 재일본조선신용조합협회(조신협)를 발동하여 일본당국의 수색소동이 단순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정치적탄압이라는것을 만천하에 폭로하는것과 함께 이러한 비법적인 탄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항의투쟁을 벌리도록 하였다.

동포모두가 《우리자신의 조합을 우리자신의 힘으로 지키자!》는 구호를 들고 항의행동에 적극 떨쳐나 상공활동의 권익을 지켜냈다.

그후에도 유기업자와 음식업자에 대한 탄압을 비롯하여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박해와 압살의 미친바람은 그칠새 없었지만 한의장은 총련조직의 단합된 힘으로 동포상공인들의 기업권과 영업활동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동포들의 상공활동을 적극 추동해나갔다.

총련의 지도밑에 상공인단체들이 강화되고 상공련합회의 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1965년에 도쬬 우에노역전에 상공회관이 번듯하게 일떠섰으며 1967년에 이르러 일본 각지에 상공

회와 각종 업종별협동조합이 조직되였다. 조신협산하에는 많은 화폐자산을 보유하고있는 28개의 신용조합이 망라되여 동포들과 상공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였으며 상공인단체는 나날이 장성강화되였다.

한덕수의장은 조국의 믿음직한 보호속에 상공인단체의 활동을 적극 벌려나가는것과 함께 상공인들을 참다운 애국의 길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공화국과의 무역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여기서 큰 힘을 넣은것이 상공인단체가 공화국과의 무역을 진행할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도록 하는것이였다.

일본당국은 이미전부터 《북조선과의 인적, 물적교류는 인정 안한다.》는 각 성 《차관회의》방침을 고집하면서 공화국과의 경제교류를 인위적으로 방해하였다.

한의장은 상공련과 협력하여 재일조선인들의 무역상사를 비롯한 각종 기업체를 묶어세워 공화국과의 무역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화하였다. 이에 일본인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과 일본국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도 능숙하게 배합하였다. 결국 일본당국으로부터 《차관회의》방침을 철회한다는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공화국과 일본간의 수출입직항무역의 길이 열리게 되고 재일동포상공인들의 공화국과의 무역은 일정에 오르게 되였다.

그러한 속에 1961년 12월 수출제1선이 고동을 높이 울리며

공화국에로의 무역항로에 올랐다. 그날에 울린 우렁찬 배고동소리는 재일조선인들의 공화국과의 무역을 실현한 환희와 희열을 실은 고고성이였고 동포상공인들이 참된 애국의 항로에 돛을 올렸음을 알리는 장쾌한 교향곡이였다.

하지만 동포상공인들의 사회주의조국과의 무역활동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일본당국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 사업은 거듭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럴 때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포상공인들의 무역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해주시여 그들이 조국과 총련을 위한 애국사업에 힘과 용기를 가지고 떨쳐나서게 하여주시였다.

민족차별의 광풍속에서 상공인들의 권익을 굳건히 수호하는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상공인들을 개인의 영달을 위한 길이 아니라 겨레와 민족을 아는 참된 애국의 길로 이끄는것이다.

이것을 중시한 한의장은 상공인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총련의 각 분회들이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체계적으로, 방법론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3년 5월 26일 재일동포상공인들과 하신 담화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틀어쥐고 재일조선상공인들과의 사업을 개선강화해나가도록 하였다.

당시 재일조선인들의 구성에서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질적변화가 일어났으며 이것은 상공인들과의

사업을 새롭게 전환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20세기후반기 재일동포들속에서는 세대교체가 일어나 2세, 3세 동포들이 주역을 이루게 되였으며 그들의 대다수는 상기업에 종사하고있었다. 재일동포상공인들은 민족적차별이 심한 이국땅에서 항시적인 경영난속에 부대끼며 로동력도 팔고 생산품도 팔면서 살아가고있었다. 동포사회의 구성으로 보나 상공인들의 처지로 보나 총련사업에서 상공인들을 떠난 군중과의 사업에 대해 생각할수 없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전진도 기대할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총련일군들은 변천된 환경에 맞게 총련애국운동을 한층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 뚜렷한 방책을 찾지 못하고있었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변천과 시대의 요구를 꿰뚫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5년 3월 25일 재일조선상공인들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총련에서 그들과의 사업을 잘하도록 적극 도와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결성 40돐에 즈음한 력사적인 서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 재일동포상공인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사업에 량심과 지성을 바쳐가는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상공인들이라고 평가하시면서 재일동포상공인들은 총련의 기본군중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이라고 명백히 지적하시였다.

재일조선인운동에서 동포상공인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명쾌하게 밝혀주신 이 믿음어린 교시에 접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이 서한이야말로 총련애국운동대오를 백배로 강화할수 있게 한 력사적선언이라고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한의장은 자기의 글에서 총련결성 40돐에 즈음한 위대한 장군님의 서한은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한결같이 말하듯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총련을 무어주실 때 제시하신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전환을 명시한 방침과도 같은 <제2의 로선전환방침>이라고 할수 있는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인것이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터치였다.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심장으로 절감하면서 한의장은 장군님의 서한을 불변의 지침으로 틀어쥐고 전반사업을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동포들속에서 신망이 높은 상공인들을 총련지부와 분회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총련조직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 재일조선상공인들은 동포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여 애국위업을 억세게 받들어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속에 동포상공인들은 총련과 더불어 참된 삶의 자욱을 새기며 어머니조국의 대지우에 애국충정의 기념비를 뚜렷이 세웠다.

1970년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계기로 재일동포들과 애국적상공인들은 당 제5차대회에 드리는 선물을 마련

하는 사업에 순결한 애국지성을 바치였다.

동포상공인들이 힘을 합쳐 년산 100만매 생산능력을 가진 현대적인 편직공장설비일식을 조국에 드리였으며 녀성들도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25돐을 맞으며 편직물공장을 선물로 드리였다. 특히 조청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65돐을 맞으며 대자연개조5대방침관철에 기여할 일념으로 대중적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굴착기, 자동적재자동차, 자동차기중기, 화물자동차, 콩크리트혼합기차, 벼모내는기계, 벼수확기, 벼건조기 등 무려 18종에 144점에 달하는 선물을 마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합영합작을 진행하였으면 하는 재일동포상공인들의 소망을 헤아리시고 이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시였다.

동포상공인들과의 합영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1984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제정공포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84년 9월 16일 조국에 체류하고있던 한덕수의장을 만나주시였다. 이날 한덕수의장에게 합영사업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에서는 재일조선상공인들이 조국과의 합영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한덕수의장은 조국과의 합영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해 총련합영사업연구회를 내오고 여기서 조국과 합영할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연구하여 계약대

상을 선정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총련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만경아사히상사를 비롯한 여러개의 합영회사들이 조직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였으며 조국과의 합영사업이 적극 추진되게 되였다.

이 나날 동포상공인들의 애국열의는 날을 따라 고조되였으며 많은 상공인들속에서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에 순결한 량심과 지성을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수없이 발휘되였다.

니시아라이병원 원장이였던 김만유동포는 많은 자금을 희사하여 현대적인 의료설비를 갖춘 병원을 조국에 일떠세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조국건설에 애국지성을 바친 그의 소행을 귀중히 여기시여 그 바쁘신 속에서도 김만유동포를 만나주시여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오찬도 마련해주시였으며 조국은 잊지 않을것이라는 값높은 평가도 주시였다.

동해상사주식회사 회장 안상택동포도 지난날 천대받고 멸시받던 자신을 애국적인 상공인대렬에 내세워주고 상기업활동의 권리도 보장해준 조국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마음을 안고 수도건설에 순결한 지성을 바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애국지성을 높이 평가하시여 평양시 모란봉구역의 북새거리를 그의 이름으로 명명하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각계층 해외동포들은 안상택거리를 지날 때마다 은혜로운 손길

아래 값높은 애국의 삶을 빛내이고있는 동포상공인들의 영광과 행복에 대해 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재일동포상공인들은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애국상을 제정해주시고 동포상공인들의 지성이 깃들어있는 공장과 기업소, 거리와 병원, 다리 등이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우도록 취해주신것과 같은 은정깊은 조치들은 헤아릴수 없다. 절세의 위인들께서 동포상공인들을 위해 풍치아름다운 곳에 봉사시설들을 마련해주시고 이역에서 병석에 있는 상공인들에게 사랑의 불사약을 보내주신 사실 그리고 우리곁을 떠난 상공인들을 애국렬사릉에 영생의 모습으로 세워주신 사연 등은 재일조선인운동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다.

력사에 뜻깊게 수놓아진 감동적인 화폭들은 정녕 위대한 수령, 위대한 조국의 품속에서 해외교포들의 삶이 끝없이 빛난다는 고귀한 진리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제 4 장
삶을 빛내여준 품

1. 열화같은 사랑, 뜨거운 은정 324
《정말 영웅입니다》 324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334
로당익장의 활력을 안겨주시려 344
몸소 병문안도 하시며 355

2. 사랑과 은정은 대를 이어 364
애호, 보존하라! 364
80객의 노래 삼창에 깃든 이야기 370
충성의 한생을 값높이 여기시여 381
《한의장동지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388
민족최대의 추모식장에서 402
고귀한 인생총화 407

나라가 해방된 후부터 반세기도 넘는 장구한 세월을 그리고 총련이 결성된 때로부터 40여년을 애국의 길을 따라 꿋꿋이 걸어온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 한덕수의장.

그는 현명한 령도의 손길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을 애국의 항로에로 이끌어오는 전 한생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순결한 충성의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일편단심의 자욱만을 줄기차게 이어왔다.

어느한 옛 명인은 거울에 비친 얼굴 늙어보여도 그의 붉은 마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바 있다.

가는 세월을 잡지 못하고 오는 백발을 막지 못한다고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한덕수의장은 머리에 백발을 얹고 로쇠가 육체에 육박했지만 애국충신의 걸음만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드티지 않았다. 그가 80고령은 물론 90을 훨씬 넘긴 나이까지 로당익장하여 지난 세기 90년대에 자본주의일본땅에서 류례없이 사납게 불어친 총련말살의 광풍을 완강히 맞받아나가며 애국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꿋꿋이 이끌어나갈수 있은것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주신 크나큰 사랑과 특전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한덕수의장을 가장 가까운 해외혁명동지로 굳게 믿으시고 참다운 혁명가, 능력있는 정치활동가로 내세워주신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이시였을 뿐 아니라 그에게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정력을 안겨주시고

생활과 건강의 구석구석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으며 꺼져가던 생명에 재생의 활력을 부어주신 육체적생명의 고마운 은인이시였다.

참으로 한덕수의장의 한생은 그가 로당익장의 활력을 가지고 값높은 한생을 빛내이도록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사랑의 서사시로 수놓아져있다.

은혜로운 태양의 따사로운 사랑과 은정이 따뜻이 감싸안았기에 지난날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해야만 했던 불우한 수난자가 만사람이 부러워하는 행운아의 영광을 지니고 값높은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 한덕수의장의 한생은 해외교포들의 운명의 참된 보호자, 진정한 삶의 요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1. 열화같은 사랑, 뜨거운 은정

《정말 영웅입니다》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는 조직건설로부터 애국애족운동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전반분야를 포괄하며 한덕수의장에 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기대, 사랑과 은정도 애국위업의 갈피갈피에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의장을 안중에 두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을 령도하신 력사는 50년 가까운 세월을 헤아린다.

한번 믿음을 주시면 끝까지 아껴주고 내세워주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믿음의 세계이다.

한의장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결성된 1949년부터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1957년부터는 의장단 성원으로 되였을뿐 아니라 1967년부터는 공화국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국사에 참가하게 된것은 그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신뢰와 기대가 얼마나 큰것이였는가 하는것을 실증해준다.

한의장을 굳게 믿으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건설시기 조직을 안팎에서 불어치는 반총련광풍을 쳐갈기며 애국

애족위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필승불패의 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할 중대한 과제가 나섰을 때 한의장을 령도핵심중의 핵심으로 내세우시고 그 과업을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당시 령도핵심문제가 절실하게 제기된것은 총련결성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요람기에 말살해버리려고 미쳐날뛴 일본반동들의 책동과 함께 《조국전선은 총련을 지도할 수 없》다는 헛소리를 꿰치며 총련의 사상적일색화와 조직적단결을 파괴하려고 발악한 종파잔당들의 분렬리간행위가 우심한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총련을 와해말살하려고 접어드는 안팎의 도전앞에서 강력하고 믿음직한 력량으로 맞서나가지 않고서는 품들여 이룩한 총련건설업적을 물거품으로 만들수 있었으며 수십만 재일동포들의 미래도 담보할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총련의 핵심진지를 강화하는 사업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의 령도핵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몸소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60년 2월 3일 한덕수의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시여 령도핵심과 관련하여 총련중앙에는 의장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준비된 핵심분자들로 점차 령도핵심이 구성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총련사업에서 조직적단결의 중심과 령도집단의 임무와 역할

에 대한 이날의 가르치심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덕수의장을 얼마나 중히 여기시였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중앙에 한덕수의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령도집단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세심하게 령도하시여 시련의 시기 총련이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자기 발전의 길을 힘차게 걸어올수 있도록 하시였다.

재일동포들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한덕수의장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를 내세워주고싶으신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심정이시였다.

공화국창건후 쪽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왔던 첫 재일조선인경축단을 만나주신 잊을수 없는 그때로부터 한덕수의장과 남다른 인연을 맺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이 난관에 직면할수록 한덕수의장을 더 믿고싶으시였으며 그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싶으시였다.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한덕수의장이 보낸 련락원을 만나시고 이역에서 고생할 그를 두고 마음쓰시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진로를 밝혀주시기 위해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하기에 한덕수의장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로선전환 방침을 사상으로 접수하기 전에 자기자신과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신 뜨거운 사랑으로, 운명구원의 생명수로 받아안고 수령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불사신처럼 싸웠던것이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온한 날에나 시련의 시기에나 한덕수의장과 맺은 혁명적의리를 귀중히 여기시며 그를 총련의 령도핵심으로, 자신의 혁명동지로 굳게 믿고 내세워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한덕수의장을 여러 차례나 만나주시여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멀리 이국땅에서 조국을 찾아온 그들이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서운해할 심정을 헤아리시여 한밤중에 그의 숙소를 찾으시여 오랜 시간 따뜻한 정을 나누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유럽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대한 방문을 단행하시고 이어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수많은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을 만나시느라 피로에 피로가 겹쌓이신 때였다. 일군들이 어버이수령님의 건강이 념려되여 그날 밤만이라도 쉬시기를 간절히 청원하였지만 수령님께서는 오히려 총련동무들을 만나면 피곤이 풀릴수도 있다고 하시며 한의장을 위해 깊은 밤 오랜 시간을 바치신 것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지켜싸우는 한의장을 위해 그토록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총련일군들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처럼 사랑에 사랑을 거듭 주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한없는 육친의 정을 베풀어주시는 그 품에 자신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겼기에 한덕수의장은 그날 석별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한의장과의 리별이 못내 아쉬우시여 그 후 그의 조국방문을 합법화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그 뜨거운 정, 열렬한 사랑에 떠받들려 어버이수령님탄생 68돐 경축행사에 재일조선인축하단 단장으로 참가한 때로부터 한의장의 사회주의조국에로의 합법적인 래왕이 드디여 기정사실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덕수의장이 조국에 올 때마다 자주 자리를 같이하시고 진지한 담화를 나누시며 탁월한 사상리론과 해박한 식견으로 그의 전략전술적안목을 틔워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유럽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방문하시고 그 피로도 미처 가시지 못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덕수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대표단 성원들을 친히 만나주실 때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성원들에게 지난 기간 총련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얼마전에 우리가 유럽나라들을 방문할 때 어떤 나라의 대통령은 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일본에 있는 조선교포들이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가, 자기들은 서부도이췰란드에 몇십만명의 동포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을 교양하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총련을 부러워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총련사업이 잘되는것은 조국에서 혁명하던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그런것이 아니라 재일동포들가운데 훌륭한 간부들, 혁명적핵심들이 있기때문이다,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민족적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핵심들이 있기때문에 총련이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고 일을 잘해나간다고 말해주었다, 총련사업이 잘되고있는것은 의장동지를 비롯한 총련일군들이 60만재일동포들을 단결시켜 일본에서 조국의 권위와 위신을 높이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며 민족교육을 잘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력을 하여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과분한 평가의 말씀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뜨거운 가르치심속에는 한덕수의장이 자기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만만한 투지와 배짱을 가지고 애국사업을 책임적으로 밀고나가게 하시려는 웅지가 담겨져있었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덕수의장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도 해설해주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력사적교훈과 경험에 대해서도 들려주시였다. 그리고 총련의 핵심육성문제, 일본정계와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 등 총련앞에 나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현명한 스승, 고마운 은인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한덕수의장은 애국애족운동에 대한 높은 정치적식견과 자질을 원만히 갖추고 총련애국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한덕수의장은 풍파사나운 이역땅에서 누구보다 고생많은 해외의 애국적인 활동가였고 미덥고 그리운 동지였다.

가정도 휴식도 모르고 오로지 총련조직과 동포들을 위해 일심전력하는 한의장을 무척 도와주고싶고 무엇이든 다 주고싶으신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재일동포들을 만나주실 때마다 한덕수의장의 애국충정과 혁명가적자질, 사업전개력과 풍모를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해주시였다.

주체60(1971)년 12월 2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제5차대회에 참가한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재일본조선인교육자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오랜 시간 담화를 나누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안에서 발생한 분파적행동의 양상과 그것이 공산주의운동에 끼친 엄중한 후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동무들을 만난 기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것은 지금 반동들과 종파분

자들이 총련의장을 비롯한 총련지도핵심들을 헐뜯으며 총련을 안으로부터 허물어보려고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총련이 하나의 중심을 내세우고 단결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것은 총련의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이 의장을 총련의 중심, 핵심으로 따르고 받들며 그를 중심으로 굳건히 단결할데 대한 간곡한 당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의장은 우리가 내놓은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전환방침을 받들고 총련을 조직하는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의장동지는 총련의 중심인물이고 좋은 지도자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총련대표단 성원들이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는데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감동깊은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총련의장이 이국땅에서 조국을 위하여 그렇게 애써 투쟁하는것을 보면 정말 영웅입니다.》

순간 총련일군들은 가슴을 치는 벅찬 충격에 목이 꽉 메여올랐다.

한의장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크시였으면, 얼마나 그를 중히 여기시였으면 총련의장이 정말 영웅이라고 값높이 내세워주시는것인가.

한덕수의장을 끝없이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총련일군들은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고 사업하는 한없는 긍지와 영예를 가슴뿌듯이 받아안았다.

망국의 세월 일본땅에 건너가 조국과 민족을 소중히 품어안고 오직 동포들을 위해 헌신분투한 한덕수의장의 삶과 투쟁을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에 의해 그는 예순다섯번째 생일을 맞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총련의 기치, 애국애족의 기치높이 굴함없이 싸워온 한덕수의장의 공적을 크게 여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을 만나실 때에도 한덕수의장을 총련의 대표자로뿐만이 아니라 존엄높은 공화국의 일군으로 높이 내세워주시였으니 한의장에 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정과 믿음, 혁명적의리를 무엇으로 헤아릴수 있을것인가.

그뿐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본 오사까부지사일행, 《마이니찌신붕》편집국장일행, 일본문화계녀성대표단 등 일본의 인사들과 단체들을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항상 한의장에 대한 화제를 놓치지 않으시였으며 일본에서 진행되는 국제적 행사를 비롯하여 국제무대들에 한덕수의장을 공화국의 대표로 당당히 내세워주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높은 권위를 가지고 한덕수

의장은 공화국의 해외교포조직을 대표하여 일본정치가들과의 대외사업도 능숙하게 전개하였다. 그럴 때마다 일본정객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를 소홀히 대하지 못하였으며 그의 의사를 존중하였다.

정녕 한덕수의장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은 총련과 재일동포들, 자기자신의 삶과 운명을 맡아안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은인, 어버이이시였으며 그 품이 있었기에 그는 절해고도와 같은 곳에서 싸우면서도 외로움과 두려움을 모르고 신심드높이 총련애국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올수 있었다.

광활한 대륙에도 끝이 있고 아득히 펼쳐진 대양에도 기슭이 있지만 한덕수의장을 믿어주고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신임과 사랑에는 정녕 끝이 없었다.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우리 혁명의 동지애의 력사가 말해주는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은 한없이 고매한 인간애, 동지애를 지니신 사랑의 화신이시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선 애국자, 혁명가들을 자기자신처럼 여기시며 그들이 마음아파할세라, 생활에 고충이 있을세라 세심히 관심하시며 뜨거운 정으로 품어주고 보살펴주시는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선각자로 나선 한덕수의장은 어려운 시기나 전성기나 할것없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품어안고 한생을 불같이 살았다.

하지만 그도 한가정의 가장이였고 여섯 남매의 운명과 장래를 책임져야 할 아버지였다.

그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직분을 안고 늘 밖에 나가살다싶이 하며 바삐 돌아치다나니 언제 한번 자식들에게 살틀한 정을 기울일새도 없었고 그들의 성장을 눈여겨 살필 겨를도 부족하였다. 아버지의 엄한 교양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자칫하면 이국풍에 오염되지나 않을가 하는 걱정도 컸지만 늘쌍 사업에 쫓기다나면 또 걱정으로만 남군 한것이

자식들 문제였다.

일에만 몰리우다나니 황금만능의 일본땅에서 여섯이나 되는 자녀들의 학비를 대는것도 그에게는 큰 부담이였고 아름찬 일이였다. 가정일과 자식들의 교육은 안해가 도맡아하였고 고생하는 안해의 수고에 마음속으로 고맙게 여길뿐이였다.

자본주의일본땅에서 총련조직을 이끌어가는 한덕수의장에게 든든한 재정적밑천이라도 있었을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그의 가정은 재일조선인들속에서 가장 빈한한 가정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안해가 험한 막로동판에 나가 모은 푼전이 가정살림밑천의 전부여서 자식들은 언제나 배를 곯으며 자라야 하였고 좋은 옷이나 학용품을 가져본다는것은 꿈에서나 바랄 일이였다. 학창시절에 환희롭게 맞이하는 운동회나 수학려행때에 어머니가 딸들에게 어쩌다 새옷이라고 입혀주는것이라야 자기의 옷을 뜯어고친 옷이였다고 딸들은 웃음속에 추억하군 한다. 어쩌다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날엔 어머니가 아버지밥상에 올리는 색다른 찬거리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자식들의 정상에 한의장이 차마 수저를 들지 못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한의장의 맏아들이 어쩌다 생긴 음식을 급히 먹다 목에 걸려 성년을 가까이한 13살 어린 나이에 요절하였으니 한의장의 눈물겨운 가정형편에 대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날 총련조직건설과 관련하여 바삐 뛰여다니던 한의장이 집에 돌아와 아들의 시신을 부둥켜안고 가정에 무관심한 자신을 타매하며 목놓아 통곡을 하였고 그로 하여 종신병이 된 안면신경마비까지 왔지만 의연히 그는 집을 잊다싶이 하며 살아야 했으며 생각뿐이였지 가정과 자녀들을 돌볼 여유를 찾지 못하였다.

맏아들을 떠나보낸 집자체가 한칸짜리 낡은 방이였는데 그때 조상하러 왔던 상공인들이 총련의장의 가정형편에 기가 막혀 자그마한 살림집을 마련해주었지만 그마저 만류하는것을 그가 없는 틈에 이사를 시켰다고 한다.

그런 한덕수의장의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가 꽃펴나고있는 사회주의조국에 자식들을 맡겼으면 하는 생각이 자리잡고있었다.

누구도 모르는 그의 가슴속 간절한 소망을 풀어주신분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처한 형편과 자녀교육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총련일군 자녀들을 조국에 데려다 훌륭히 교육교양하는것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애국투쟁을 힘있게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기회에 총련일군들이 자녀들을 일본에서 공부시키기 어려우면 조국에 보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조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단련되면 앞으로 훌륭한 일군이 될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마운 말씀을 감격속에 전달받은 한덕수의장은 하나밖에 없는 막내아들을 조국에 보내였다. 어버이수령님 품에 자식들을 통채로라도 맡기고싶은것이 그의 심정이였지만 조국에 부담을 끼치는것을 죄송스럽게 여기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의장의 아들이 귀국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아주 혁명적이라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우리를 믿고 어린 자식들을 조국에 보내는데 따뜻이 맞이하고 잘 보살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1971년 9월 총련의장의 막내아들 한우철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전화로 그를 찾으시여 아버지, 어머니는 잘 있는가, 아버지, 어머니와 헤여질 때 울지 않았는가, 배를 타고 올때 멀미를 하지 않았는가, 조국의 음식이 입에 맞는가고 일일이 물으시고나서 자신께서 지금 지방에 나와있는데 평양에 올라가면 인차 만나겠다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해당 일군에게 그의 생활보장사업을 각별히 잘해줄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며칠후 총련의장의 아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멀리 있던 자식을 오래간만에 만나신듯 네가 왔구나, 어디 보자고 하시며 두팔벌려 그를 품에 꼭 껴안아 주시였다. 오느라고 피곤했겠다고, 어디 아프지 않은가고 다정히 물어주시고는 그가 몹시 대견하신듯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애가 한덕수의장이 나에게 보낸 아들이라고 하시며 그를 껴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부터 찍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안부를 물어주시고나서 그곳에서 공부는 어떻게 했고 집생각은 나지 않는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헤아려보시고 그에게 먼저 중학교에 편입되여 공부하고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가서 공부하여 부모의 대를 이어 훌륭한 민족간부가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날 저녁에는 그를 친히 저택으로 부르시여 여기는 너의 집이나 같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따뜻한 정이 넘치는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도 집어주시며 어버이의 정을 부어주시였다.

당시 철부지소년이였던 그로서는 자신께서 몸소 아버지가 되여주시겠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알수 없었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의 다심한 은정에 어느새 어려움을 다 잊고 제 집에 온것처럼 생기에 넘쳐 생활하게 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살 집을 친히 마련해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데리고 다니시며 성장의 걸음걸

음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다녀오시면 그의 집을 찾으시여 성적증과 평정서를 보아주시고 학부형란에 몸소 수표도 해주시였으며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도록 일깨워주기도 하시고 모르는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하나 깨우쳐주기도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은 그에게 있어서 정녕 친아버지이시였기에 그는 후날 자식들을 거느린 아버지가 되여서도 《어버이수령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목메여 웨쳤다.

한의장의 아들이 귀국한지 얼마 안되던 1971년 9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자신의 승용차에 그를 태우시고 평양시내를 돌아보시였다.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없는가 하는것을 하나하나 알아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대학에 가서 무엇을 전공하겠는가고 물으시고는 너는 아버지처럼 정치가가 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대학에 가서 철학, 정치경제학을 깊이 학습해야 한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그는 귀국하여 첫 학기에 벌써 우등생이 되였고 그다음 학기부터는 당당한 최우등생이 되였으며 학습과 생활에서 집단의 모범이 되였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였다.

한우철이 주체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배

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있던 1977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이 한의장 아들의 생일인데 식사라도 시켜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를 데려오라고 이르시였다. 그가 도착하자 자신의 곁에 앉혀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너의 생일을 축하하여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을 축하하여 축배를 들자고 하시였다. 바다건너 이역에서 싸우는 자기 아버지를 잊지 못해하시며 건강을 념려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이 하도 고마와 그는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는 그를 정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습정형도 알아보시고 유모아가 섞인 통속적인 이야기로 실력을 높일데 대하여 따뜻이 일깨워주기도 하시였다. 그 모습은 아버지와 자식의 육친의 정이 넘치는 화폭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우철이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그의 성장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여 그는 3대혁명소조생활을 마친 뒤 외국류학과 국제관계대학 연구반을 비롯한 여러 대학을 졸업하고 중요기관의 책임일군으로 사업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속에서 한의장의 맏딸도 어엿한 혁명가로 자라났다.

한의장의 아들이 조국에 온지 얼마 안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곁에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혈육들이 없이 혼자 있자면 적적해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맏딸을 귀국

시켜 함께 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한의장의 맏딸이 1971년 12월에 조선직업총동맹 제5차대회를 축하하는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으로 왔다가 조국에 떨어져 동생과 함께 살게 되였다.

어느날 한의장의 맏딸을 몸가까이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의장과 일가의 안부부터 관심해주시며 아버지가 맏딸과 헤여지자니 섭섭했겠다고 다심하신 어조로 이야기하시였다. 한의장이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올린 편지를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신 수령님께서는 그가 자식들을 나에게 맡기고자꾸 미안해하는데 왜 미안하겠니, 아버지가 해외에서 혁명을 하기때문에 조국밖에 믿을데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동지적의리를 봐서라도 너희들을 맡아 키울 의무가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의리는 혁명전사들뿐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워 혁명의 믿음직한 기둥감으로 내세워주시는 숭고한 사랑의 정화였다. 그 고결한 혁명적의리에 떠받들려 해방직후 이 땅우에는 나라가 서고 대학이 서기에 앞서 유자녀학원부터 일떠섰다. 이국의 산야에서 쫓기고 굶주리며 시들어가던 혁명동지의 유자녀들을 하나하나 금싸래기처럼 찾아내여 학원에 불러주신 그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라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목메인 음성에 유자녀들도 뜨거운 눈물로

얼굴을 적시고 온 나라가 격정으로 가슴들먹이지 않았던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숭고한 동지적사랑의 체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역의 전사가 맡긴 자식들을 위해 이날도 그토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고계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의장의 맏딸의 얼굴에 병색이 도는것을 헤아려보시고 건강검진도 하고 치료대책도 세워야 하겠다고 념려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같이 살아보자,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나는 너희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면서 내 손에서 공부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자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그후 그들 오누이가 사는 새집도 방문하시여 세간난 자식의 집을 찾은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살림방들과 부엌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다 돌아보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께서 살림을 도와줄테니 공부를 잘하고 몸을 추세워 혁명사업에 충실하라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의장의 맏딸의 건강을 념려하시며 당분간 휴식하면서 건강을 추세우는것이 좋을것같다고 하시면서 몸을 추세우는데 좋은 보약도 마련해주시고 그들 오누이를 공기가 맑고 경치좋은 곳에서 보양하도록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의장 맏딸의 전도에 대해서도 깊이

마음쓰시였다. 조선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한의장의 맏딸에게 조국의 현실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 그를 중앙기관의 지도원으로 일하도록 해주시고 **김일성**고급당학교(당시)에서 학습을 더 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도 함께 데리고 다니시며 조국의 벅찬 현실에서 혁명성과 애국심을 키우도록 해주시였다.

하기에 한음전과 한우철은 세상에 생을 준 아버지라면 그처럼 정깊고 세심할수 있겠는가 하고 목메여 진정을 토로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혁명의 어버이이실뿐 아니라 자기들의 친아버지이시라고 격정을 터놓군 한다.

언제나 자신의 몸가까이에 두시고 배워주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그 품에 안겼기에 한덕수의장의 맏딸과 막내아들은 나라의 중요기관에서 조국을 받드는 어엿한 혁명가로 자라날 수 있었다.

로당익장의 활력을 안겨주시려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뿐 아니라 육체적생명까지도 책임지고 지켜주고 보살펴준 은혜로운 품이다.

한생을 풍파사나운 이역땅에서 로심초사해온 한덕수의장이 90살이 넘도록 로당익장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때문이다.

한의장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력으로 해외교포운동의 앞길을 밝혀주신 민족의 령수이시기 전에 친혈육의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생활과 건강의 구석구석까지 깊이 관심해주시고 보살펴주신 생의 은인이시고 다심하신 어버이이시였다.

험지에서 찬눈비를 맞으며 고생하는 자식 걱정으로 늘 마음놓지 못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자본주의일본땅에서 총련이라는 대식솔을 이끌며 누구보다 고생많을 한의장에 대한 심려를 놓지 못하시였다.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자식에게 가있고 어머니의 눈빛은 자식의 자그마한 고충과 상처까지도 속속들이 헤아려보는 법이다.

수난많던 망국의 세월에는 일본땅에 끌려가 인간이하의 천대와 무서운 악형을 받아온 한의장이였다. 해방후에도 바

람세찬 광야에 뿌리박은 바위인양 수십만 재일조선동포들의 운명을 걸머지고 세월의 험난한 풍상고초를 맞받아 강잉히 걸어온 그의 생은 순탄치 않았다. 그 시련많은 생의 흔적이 곳곳에 응어리져있어 그의 몸에는 성한 곳이 별로 없었다. 한창시절에는 몰려드는 육체적피로를 왕성한 혈기로 이겨내며 뛰여다니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온몸에 남아있는 상처는 로쇠해가는 육신을 수시로 괴롭혔다.

하지만 한의장은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한몸의 고통 같은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온몸을 깡그리 불태웠다. 설사 넘기 어려운 위험이 앞을 가로막아나섰다고 해도 성난 호랑이처럼 맞받아나가는것이 그의 불사신의 기질이였고 불가능을 모르는 일본새였다. 하기에 같이 일하는 총련의 로간부들도 한의장의 육체적고충에 대해 별로 눈치를 채지 못하였으며 동포들도 한의장은 무쇠같은 사람이라고 칭하군 하였다. 일본의 정계인물들까지도 그에 대해 무서운것을 모르는 인간이라고 혀를 내두를뿐이였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은 그가 총련사업에 몸을 바칠수록, 애국위업을 위해 온넋과 심장을 깡그리 불태울수록 한의장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 더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고 더 큰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며 그의 병상태에 대해 속속들이 헤아리시고 왼심을 쓰시였다.

일본의 정치정세가 험악하게 번지고 총련이 준엄한 시련을

겪을 때면 한의장의 신변안전부터 념려하시였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일본의 인사들을 만나시여도 한의장의 안부부터 관심하신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혁명은 동지이고 동지는 곧 자신의 전부였다.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시고 동지와 어깨겯고 사선천리, 불바다만리를 헤쳐오시며 동서고금의 력사가 알지 못하는 숭고한 동지애의 서사시를 수놓아오신 인간사랑의 화신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간고한 혁명의 수십성상에 피로써 승리를 맹세한 동지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갈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 흘리신 눈물 그 얼마이고 잠 못드신 밤은 몇밤인지 어찌 헤아리랴.

혁명의 길에 먼저 떠나간 동지들을 평생 잊을수 없으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우리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우리 조국이 륭성번영하며 만민이 그 최성기를 구가하고있는것을 볼 때마다 바로 이날을 위해 자기 일신을 초개와 같이 바쳤던 동지들의 생각이 더더욱 간절하고 잊을수 없는 그 모습들이 삼삼히 갈마들어 잠 못이루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한자한자 비문처럼 쪼아박으신것이 아니겠는가.

그 위대한 심장의 박동을 따라 동지애로 전진하고 승리떨치는 조선혁명의 자랑찬 력사가 개척되고 수령과 혁명전사들사이의 혼연일체의 숭고한 륜리가 태여났으며 온 세계가 부러워

하고 주체혁명의 백전백승을 굳건히 담보해주는 일심단결의 빛나는 전통이 마련되였으니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의리, 그것은 성스러운 위업을 떠밀어나가는 피줄기이고 원동력이였다.

하기에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사의 갈피갈피들에 어린 우리 수령님의 한없이 고결한 동지애의 세계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며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지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수많은 전설적인 이야기들은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적동지애가 얼마나 열렬하고 고결한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수령님은 원쑤들앞에서는 멸적의 령장으로 위엄을 떨치시였지만 동지들을 위해서는 정도 많으시고 눈물도 많으신 위대한 인간이시고 위대한 동지이시였으며 혁명적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토록 혁명전사에 대한 사랑이 불같으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가 거듭될수록 한의장의 귀밑머리가 희여가는것을 무엇보다 가슴아프게 생각하시며 그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의장의 건강이 여의치 않아보일 때에는 일본에서 그의 병력서까지 보내오게 하시여 그것을 세심히 료해하시고 치료대책을 일일이 세워주시였으며 그가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방문일정도 그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게 조직하도록 하나하나 관심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의장에게 하신 가장 큰 부탁은 로당익장이였다.

주체63(1974)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인예술단편으로 조국에 온 한의장의 둘째딸을 저택에 부르시여 식사를 함께 나누시며 뜻깊은 담화를 하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의장의 딸에게 이제는 의장동지의 나이가 많은데 동무가 아버지의 건강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동무의 아버지가 건강하여야 총련이 계속 일을 잘할수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 혁명을 잘하려면 건강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건강관리를 잘하는것은 자기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혁명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해외혁명전사에 대한 정과 의리가 마디마디에 뜨겁게 흘러넘치는 우리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한의장의 둘째딸은 솟구치는 격정을 누를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우리는 마음뿐이지 멀리 떨어져있다보니 동무 아버지의 건강을 잘 돌봐주기 어렵다, 물론 우리도 앞으로 동무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필요한 모든 대책을 다 세우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필요한 대책을 다 세운다고 하여도 곁에 있는 한집안식구들만큼 세심히 돌봐줄수는 없다, 그러니 동무나 동무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건강에 늘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어머니가 녀맹사업을 하다보니 바빠서 아버지의 건강에 관심을 돌리지 못할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안된다, 동무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녀맹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아버지의 건강을 잘 돌보는것이다, 녀맹사업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있어도 아버지의 건강은 다른 사람이 대신 돌봐주기 어렵다, 동무가 일본에 돌아가면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건강을 잘 돌봐주는것이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내가 말하더라고 이야기해주어야 하겠다라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수첩에 한문자로 《로당익장》이라고 활달한 필치로 큼직하게 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당익장》이라는 말은 늙은 사람일수록 장수힘을 키워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동무의 아버지도 내가 로당익장하라고 하였다는것을 전달받으면 그 뜻을 잘 알것이라고 하시였다.

한의장의 건강을 두고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그의 딸을 저택에까지 부르시여 천금같이 귀한 시간을 바쳐가시며 아버지의 건강이라는 말마디를 여러 차례나 곱씹으시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였겠는가.

로당익장하라는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한덕수의장에게 생의 활력을 부어주는 장생불로의 정신적보약이였으며 그가 인생말년에 락을 누리며 장수하기를 바라시는 수령님의 그 무엇에도 비길데 없는 열렬한 혁명적

동지애, 인간애가 집약된 진정어린 당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의장에 대한 남다른 사랑은 1981년 4월 그가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뜨겁게 기울여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한덕수의장일행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이번에 석달동안 조국에 머물러있도록 하고 왔으면 휴식을 충분히 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아들 소식도 알려주시고 총련이 거둔 성과도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오래간만에 만난 친자식을 못내 대견해하는 친어버이의 모습 그대로였다. 수령님의 친근하고 다심하신 사랑에 목이 메인 한의장은 자기는 건강하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는 그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장동지가 건강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기때문에 건강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의장동지가 건강하여야 총련사업이 잘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의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의장동지에게는 중한 병은 아니지만 백내장, 관절염을 비롯하여 5～6가지 병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병들은 발병초기이기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신심을 주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장동지가 100살까지 앉아있으면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총련에서 의장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어떤 조직적대책을 세웠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당시 총련일군들은 의장이 나이는 많지만 특별한 병을 앓는것이 없고 또 왕성한 정력으로 사업하고있었으므로 따로 대책을 세울념을 하지 않고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료해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이 자리에는 조직국장동무도 참가하였는데 내 생각에는 총련중앙에서 의장동지를 비롯한 로간부들의 건강문제를 토의하고 그들의 건강을 돌봐줄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는것이 좋을것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결정으로 김일부주석을 정상적으로 휴식시키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휴식하는것도 당조직의 결정이기때문에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와 함께 총련의 로간부들이 조건이 좋은 조국에 와서 해마다 휴식 겸 료양생활을 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의장동지가 조국에 온 기회에 병치료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의장동지는 혈압이 정상이기때문에 고산지대에 가서 치료하는것이 적합할것같다, 의장동지가 고산지대에서 치료도 받고 휴식도 하자면 해마다 조국에 와야 한다고 정담아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한의장은 청춘의 활기와 정력에 넘쳐 조국방문의 나날을 즐겁게 보낼수 있었다.

한의장이 조국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 35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한의장의 건강부터 념려하시며 그가 조국에 왔다간 다음 건강한 몸으로 총련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사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에서는 의장동지를 비롯한 로간부들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의장동지를 비롯한 로간부들은 우리의 주체사상을 받들고 해외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에 헌신하고있는 총련의 지도핵심들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원로들입니다. 총련의 로간부들은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총련의 로간부들이 건강한 몸으로 오래 앉아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애국사업을 해나가는데도 좋고 일본에서 총련의 권위를 유지해나가는데도 좋습니다.

내가 전번에 의장동지가 조국에 왔을 때 그에게 한주일에 이틀씩 휴식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총련에서는 내가 말한대로 의장동지가 한주일에 닷새동안만 사업하고 이틀은 휴식하게 하여 그의 건강을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주시였다.

한의장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관심은 이토록 극진하고 세심하였다. 그 뜨거운 은정에 대해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1984년 7월말에는 조국을 방문한 한의장을 백두산지구에서 휴식하도록 은정깊은 배려도 돌려주시고 그가 병치료를 할 때에는 방금 압록강에서 손수 잡으신 물고기와 시험포전에서

수확한 햇강냉이, 감자, 버섯 등을 맛보라고 보내주시는 은정도 베풀어주시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의장을 비롯한 로간부들을 만나실 때마다 건강상태를 알아보시고 도꾜는 평양보다 무더울것이라고 하시면서 해마다 여름 한철에는 조국에 와서 휴식도 하고 병치료도 하다가 가을에 일본에 돌아가서 사업하도록 하라고 그의 건강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의장의 건강을 얼마나 깊이 념려하시였는가 하는것은 고령에 이른 그의 사업부담을 덜어주시려고 총련안에 제1부의장직제를 내오도록 하시여 휴식과 건강관리를 충분히 할수 있게 하여주신 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보살피심이 있어 일에서 몸을 뺄수 없던 한의장은 일정한 여유를 가지고 총련사업을 지도할수 있게 되였다.

1992년 4월 2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을 만나시였다. 여기에는 한덕수의장도 참가하고있었다. 그 좌석에는 멀리 해외에 나가있던 자식들이 조국에 있는 부모를 찾아와 만날 때와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쳐흘렀다.

이해에 생일 85돐을 맞이하게 된 한덕수의장의 건강에 대해 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총련이 든든하자면 한덕수의장이 건강하여 오래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련과 총련일군들이 한덕수의장의 건강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자신의 건강문제를 개인적인 육체적생명에 관한 도덕의리적 문제로만이 아니라 총련의 강화발전과 결부시켜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에 접한 한의장은 황송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의장에 대한 높은 신뢰의 말씀을 가슴뜨겁게 받아안은 총련일군들은 그후 의장의 건강을 위해 온 심을 썼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의장의 건강문제를 두고 언제나 마음을 놓지 못하시며 의장의 건강상태를 알아보시고 그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최선의 대책을 세우도록 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한의장이 조국을 방문하면 그의 건강상태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종합검진도 받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숙소도 경치좋고 공기맑은 곳에 자리잡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처럼 남다른 관심과 극진한 보살피심이 있어 한덕수의장은 로당익장의 활력을 가지고 풍파사나운 이역땅에서 총련애국위업을 꿋꿋이 떠밀어올수 있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태양의 품은 이역만리의 한덕수의장을 병마로부터, 세월의 흐름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크나큰 사랑의 품,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이였다.

몸소 병문안도 하시며

예로부터 《로환무책》이라는 말이 전해져온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오는 병에는 신통한 대책이 없다는 뜻이다.

이역땅의 사나운 눈비바람에 한생 시달려온 한덕수의장의 건강은 여든중턱이 넘어서면서부터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총련조직과 동포들이 별의별 치료대책을 다 세웠지만 한의장은 끝내 병석에 눕게 되였으며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주체82(1993)년 2월 한의장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유능한 의사들을 일본에 보내여 그의 병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병상에서 조국에 있는 자식들을 보고싶어할 그의 심정을 헤아려 조국에 있는 아들딸을 그의 침상곁에 보내주시는 친어버이사랑을 부어주시였다.

지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시킨다고 하였으나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한의장의 병세는 좀처럼 호전될줄을 몰랐고 혼수상태에 빠지기가 일쑤였다.

자기의 병상태가 이제는 어쩔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한의장은 마지막으로 조국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하직인사를 드릴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의장이 빠른 시일안에 조국에 올수 있게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의 병치료방안에 대하여 거듭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1994년 4월 26일 한의장은 몽롱한 의식속에서도 간절한 마지막소원을 안고 특별비행기로 조국에 왔다.

한의장이 실신상태로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가슴아픔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를 만나주실 때마다 총련이 든든하자면 한의장이 건강하여 오래 살아야 한다고, 총련에 한의장이 있으면 그자체가 큰 힘으로 된다고, 그러므로 한의장은 앞으로 10년 더 살기 위한 투쟁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나도 아직 《90환갑》을 맞지 못했는데 앞으로 꼭 《환갑》을 같이 쇠자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수령님이시였다.

한의장의 병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장의 병은 로환으로 온것이므로 입원치료를 하지 말고 그가 조국에 올 때마다 들군 하던 숙소에 자리를 잡고 의사들이 왕진치료를 하도록 해주시였다.

한의장이 조국에 도착한지 이틀만인 4월 2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숙소를 찾아주시였다.

숙소현관으로 들어서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는 순간

한의장은 울컥 치미는 격정에 눈물을 쏟았다.

주위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밀차에서 일어선 그는 《위대한 수령님,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걷지 못하는가고 저으기 갈리신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만리타국에서 병든 몸이 되여 돌아온 한의장의 정상이 하도 가슴아프시여 혼자말씀으로 이렇게 물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밀차를 앞서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휴계실에 이르러 한의장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의 병세와 치료정형을 세세히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아직 의장동지의 병이 무슨 병인지 바로 진단을 못한것같은데 진단만 정확히 하면 얼마든지 고칠수 있다고 신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뜨거운 동지적사랑이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다가 의장동지는 지금까지 한 일도 많은데 치료를 잘 받아 다리를 꼭 고치고 앞으로 한 20년은 더 살아야 한다고, 의장동지가 건강하여야 총련의 일이 잘될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꺼져가는 생명을 앞에 놓고 이처럼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니 말씀을 받는 의장의 메말라가던 가슴에 격랑이 일고 빛을 잃어가던 눈굽에서는 구슬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 한의장에게 베풀어주신 은정은 그에게 사랑의 불사약이 되여 온몸에 생에 대한 욕망이 넘쳐나게 하였으며 자신감을 갖고 병을 이겨내기 위한 치료에 달라붙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유능한 의사의 수기치료를 받으며 걷기운동을 한 결과 그의 건강은 놀랍게도 하루가 다르게 추서기 시작하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지켜보고계신다고 자신을 격려하며 신심에 넘쳐 가르쳐주신 대로 치료에 전심전력하여 얼마 지나서부터는 지팽이를 짚고 걸을수 있게 되였다.

이해 6월 한의장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여 한번에 200발자국 이상 걷게 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가 일본에 돌아갈 때 걸어다니게 되면 총련사람들은 물론 일본사람들도 깜짝 놀랄것이라고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의장에게 베풀어주시는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이 그대로 생명수가 되고 불사약이 되여 그의 건강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여갔다.

그무렵 평양에서는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가 열리였다.

대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오시여 대회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한의장의 가슴속에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석하고싶은 간절한 소망이 고패치고 있었다.

그의 심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의장의 소원대로 그를 기념촬영에 참가시키도록 해주시였다.

이에 대하여 전달받은 한의장은 강심을 먹고 지극한 사랑이 떼여준 한발자국을 충성의 천걸음, 만걸음으로 여기고 걷기련습을 부지런히 다그쳤다. 걷기련습에 여념이 없는 그에게 한 일군이 다리에 힘이 생기는가고 묻자 한의장은 수령님과 장군님께 다시는 걱정을 끼쳐드리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니 두다리에 전에 없던 힘이 뻗친다고 활기에 넘쳐 대답하는것이였다.

1994년 6월 7일 드디여 한의장은 제발로 걸어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는 영광의 자리에 나서게 되였다.

행사장에 나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보시자 환하게 웃으시며 그의 얼굴색이며 몸가짐을 눈여겨보시다가 이제는 어지간히 걷게 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몸이 좀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한의장은 수령님과 장군님덕분에 건강이 회복되여 200～300보씩은 걷게 되였다고 자랑하듯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심에 겨워 으쓱해하는 그를 정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며 함께 기뻐해주시였다.

《내가 지난 4월 28일에 숙소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의장동지가 한발자국도 걷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한번에 200～300보씩 걸을수 있게 되였다니 건강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곁에 있던 한 일군이 《수령님, 의장동지가 어제 낮에

는 쉬지 않고 단번에 100m나 걸었습니다.》라고 말씀올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거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감심한 어조로 의장동지가 조국에 올 때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여 남의 부축을 받으며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지금은 혼자서 100m정도 걸을수 있게 건강이 회복된것을 보니 기쁜 마음을 금할수 없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슴아픈 때는 혁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해오던 혁명동지가 병으로 고통받는것을 볼 때이고 기쁜 때는 혁명동지의 건강이 좋아진것을 볼 때입니다. 나에게는 기쁜 일이 많았지만 오늘 의장동지의 건강이 퍽 좋아진것을 보니 더없이 기쁩니다. 나는 의장동지의 건강이 좋아진것을 축하합니다.》

빈사지경으로 조국에 왔던 그가 제발로 걸어나와 행사에까지 참가한 모습을 보시며 더없이 기뻐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소년단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 한의장의 손을 잡으시고 자신의 바로 곁에 앉혀주시였다.

기념촬영후였다.

촬영장을 나서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시여 생각깊은 눈길로 한의장을 묵묵히 바라보시는것이였다.

(웬 일이실가?)

그 자리에 있던 한의장과 일군들이 의아함을 금치 못하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의장에게 다시 다가오시여 그를 두팔로 꽉 껴안아주시고는 자신의 볼을 그의 량볼에 비비시는것이 아닌가.

얼마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의장을 또다시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한의장이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휴계실에 허둥지둥 들어서자 창가에 서계시던 수령님께서 마주 걸어오시여 활기띤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의장동지가 조국에 와서 고려의학치료를 받으면서 걷게 된것은 기쁜 소식이기때문에 그것을 보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수령님의 만면에는 환한 미소가 가셔질줄 몰랐다.

그이께서는 모처럼 건강을 되찾은 한의장을 보는것이 무등 기쁘신듯 20년전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시면서 나는 1974년에 의장동지의 둘째딸이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 그를 우리 집에 데려다 식사를 같이하면서 로당익장하라는 말을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하였다고, 나는 의장동지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로당익장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한의장이였지만 그는 뜨거운 것을 삼키였다.

그는 그날 온밤 잠들지 못하였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한의장의 건강회복은 단순한 로년기의 건강회복이 아니라 삶의 기백이 약동하는 로당익

장이였으니 그의 건강을 위해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은 죽음도 이겨내고 고목에도 꽃을 피우는 인간사랑의 최고정화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동서고금의 그 어느 위인전기에서도 찾을수 없는 숭고한 동지적사랑으로 한의장의 정치적생명뿐아니라 육체적생명까지 지켜주신 은인이시고 자애로운 보호자이시였다.

1994년 6월 8일 《로동신문》 1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을 접견하시였다》는 제목아래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의장을 만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는 사진과 함께 보도기사가 크게 실리였다.

기사는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7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을 접견하시였다.

김용순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한덕수의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옥체건강하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먼저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대원수님께서 몸소 저의 숙소에까지 찾아오시여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죄송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최상의 숙식조건과 치료조건을 다 마련해주시였을뿐 아니라 정세가 복잡한 속에서도 매일과 같이 저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세세히 알아봐주고계신다니 이 은혜에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배려속에서 병신이 다되였던 저는 오늘은 이처럼 조국의 대지를 힘차게 밟고서 제힘으로 다시 걷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 억센 투지를 안고 병치료를 계속 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건강을 하루속히 회복하고 돌아가서 총련을 튼튼히 꾸리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한덕수의장과 따뜻한 담화를 하시였다.

이날의 당보는 어버이수령님과 해외의 로혁명가사이에 흐르는 혁명적동지애와 숭고한 의리를 세세년년 길이 전하는 불멸의 화폭으로 력사에 빛나고있다.

2. 사랑과 은정은 대를 이어

애호, 보존하라!

진정한 애국자들의 정신세계에서 특징적인것은 투쟁과 희생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들이 바라는것이 있다면 성취의 기쁨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믿고 역경을 헤치며 투쟁하는 과정에 이룩되는 승리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혁명가, 애국자들이다.

하지만 한덕수의장은 꿈결에도 생각지 못한 복중에 복을 누리며 한생을 산 행운아였다.

한의장의 애국애족의 생을 귀중히 여기시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베푸신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그를 명망높은 해외활동가로, 혁명의 원로로 내세워주시며 극진히 아끼고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한덕수의장이 받아안은 영광은 얼마나 큰것이였던가.

1985년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결성된 때로부터 30번째의 년륜이 새겨지는 해였다. 이해 5월 평양에서는 총련결성 30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성대히 열리였다.

주석단에 앉아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청취하던 한의장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보고에서는 지난 기간 총련이 이룩한 자랑찬 업적에는 한덕수의장의 뜨거운 마음과 애국적헌신성이 깃들어있다고 하면서 한덕수의장은 총련조직자의 한사람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을 참된 애국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많은 공헌을 하였다는 높은 평가가 언급되였던것이다.

그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장내에서는 우렁찬 박수소리가 일고 한의장의 놀라움은 당혹함으로 바뀌였다.

하지만 그가 보고문이 어떻게 되여 그렇게 작성되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알게 된것은 썩 후의 일이다.

며칠전이였다.

그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총련결성 30돐 기념행사 준비정형에 대하여 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앙보고대회에서 총련의장의 공로에 대하여 잘 평가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총련결성 30돐 기념보고대회는 이름그대로 총련결성 30돐을 맞는 행사인것만큼 보고에서 한덕수의장이 총련조직자의 한사람이고 총련에 주체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공로자라는것을 언급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련애국위업의 승리적인 전진발전의 길을 더듬어보며 일군들은 총련결성일이 되는 뜻깊은 그날에 한의장을 총련건설과

강화발전의 공로자로 내세워주고싶어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웅지에 머리가 숙어졌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애국사업의 성과를 생각하실 때면 언제나 한덕수의장의 공로를 함께 생각하시며 높은 평가를 안겨주군 하시였다.

1974년 6월중순 일본에 가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애국투쟁 모습을 감명깊게 체험하고 돌아온 우리 나라 대표단의 사업보고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총련의장은 공로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 만족을 표시하신것은 이때만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날에는 총련사업과 관련한 말씀을 하시다가 조국을 방문한 총련대표단이 활동하는것을 보고 또 일본에 갔던 우리 대표단의 보고를 들어보면 확실히 총련에서 사업을 잘하고있는것은 사실이라고 하시면서 한의장과 총련일군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일군들은 깊은 감동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대로 한의장이 총련애국사업에서 이룩한 업적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충하여 연회연설문과 중앙보고대회의 보고문을 다시 정리하였다.

이렇게 되여 1985년 5월 24일 조국의 각계층 인민들과 총련의 여러 대표단, 방문단성원들 그리고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된 총련결성 30돐기념 중앙

보고대회에서는 한덕수의장의 공로가 높이 평가되였다.

대회가 끝난 후 한의장은 오늘 자기는 남들이 받아보지 못한 영광을 지녔다는것을 알고있다고, 하는 일도 없는 자기에게 이토록 분에 넘친 은정을 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일생 여한이 없도록 잘 모셔야 하겠다는 충성의 자각을 더 가슴깊이 간직하게 된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을 위한 연회석상에서 총련에서는 한덕수의장동지가 오래 앉아있어야 사업이 잘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로장들이 틀고앉아 버티고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확고한 기둥을 가지고 사업을 편향없이 바로 전개해나갈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일군들에게 총련에서는 한덕수의장을 중심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한덕수의장과 리진규 제1부의장을 애호, 보존하여야 합니다라는 뜻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애호, 보존하라!

정녕 이 교시는 총련의 결성과 강화발전에 헌신분투하여온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총련의 1세들을 아끼고 높이 내세워주시려는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가 세차게 맥박치는 가르치심이였다.

한덕수의장을 아끼고 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은 실로 극진하였다.

1987년 4월 어버이수령님탄생 75돐을 맞으며 총련의 예술단체들이 노래와 무용, 요술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목의 작품들을 준비해가지고 조국에 왔다. 공연종목들가운데는 한의장이 애국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내용을 형상한 무용도 있었는데 일군들속에서는 어버이수령님탄생 75돐경축 공연무대에 이 종목을 올리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론의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한덕수의장이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면서 조국과 총련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는거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종목을 내놓는다고 문제될것이 무엇인가, 수령님께서도 보시면 대견해하시지 다르게는 생각지 않으실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주체76(1987)년 4월 21일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이날 총련의 경축공연을 커다란 기쁨과 만족속에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예술인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오늘 공연을 잘한데 대하여 예술단 전체 성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더없이 만족해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일군들과 총련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덕수의장에게 베풀어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값높은것인가를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으며 한덕수의장에게 공화국 2중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였고 총련결성 40돐을 맞는 1995년 5월에는 평양경공업대학을 한덕수의장의 이름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여 조국과 민족에게 바친 그의 애국충정이 조국청사에 길이 전해지도록 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 번듯하게 솟은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은 조국의 부강번영에 바친 총련의 애국1세의 순결한 지성을 세세년년 전하는 충성의 기념비로 빛나게 되였다.

그 소식에 접한 한덕수의장은 자신을 그리도 믿어주시고 영광의 절정에 내세워주시는 혁명적의리의 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그것은 이역땅에서 수십년간 재일동포들을 조국의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애국의 길로 이끌어온 총련조직에 대한 값높은 평가이고 한생을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바쳐가고있는 한의장을 비롯한 로혁명가들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였다.

이국의 광야에서 청춘기로부터 고령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공화국의 기치따라 간고하고도 영광에 찬 애국의 길을 걸어온 한덕수의장을 끝까지 믿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혁명적의리는 그가 고령에도 애국충정의 한길을 줄기차게 이어갈수 있게 한 로당익장의 활력소였다.

80객의 노래 삼창에 깃든 이야기

슬하의 자식보다 멀리 떨어진 자식을 위해 더 마음쓰는것이 친어버이의 정이다.

절해고도와 같은 이역에서 어머니조국을 받들어 애국애족의 한길을 꿋꿋이 이어가는 한덕수의장과 총련일군들을 두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력사에는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감동적인 만단사연들이 뜨겁게 어려있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조국을 방문한 한덕수의장을 꼭꼭 만나주시여 배타주의의 풍토에서 몸이 병들세라, 마음이 상할세라 세심히 살펴주시고 조국의 아름다운 명승지들과 온천에서 쌓인 피로도 풀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어버이장군님.

그 다심하신 친어버이사랑속에는 80객의 노래 삼창과 관련한 사연도 깃들어있다.

주체81(1992년) 4월 어느날 저녁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한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총련의 여러 대표단, 예술단성원들을 위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자리를 같이한 일군들은 장군님께서 연회가 시작된 다음 얼마 안있어 인차 자리를 뜨실것으로 예상하고있었다.

시간이 너무도 긴장하시여 분과 초를 쪼개가며 사업하시는 그이께서는 나라의 중요한 회의나 뜻깊은 좌석에도 좀처럼 참석하실 시간을 내지 못하시였다.

당시로 말하면 사실 제노라 하는 외국의 정객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려고 앞을 다투어 우리 나라에 찾아오던 때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미국의 한다하는 정객들도 례외없이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옵기를 요청하군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의 인사들이 그처럼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싶어해도 그이께서 시간이 너무 긴장하시기에 뜻을 이루기가 좀처럼 어려웠다.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이라면 아무리 바쁘신 일도 다 뒤로 미루시고 이역에서 온 그들을 만나주군 하시였다. 이것은 한의장과 총련일군들이 받아안은 특전이고 특혜였다.

이날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연회장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시는 첫 인사말씀부터 격식이 없었고 혈육의 정이 흘러넘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해빛같은 미소를 띠우시고

한의장을 바라보시며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허가를 받고 여기에 왔다고, 오늘 저녁은 나에게 여러가지 사업이 제기되여도 전화를 하지 말라고 이르고 왔으니 실컷 마음놓고 이야기하자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토록 친근하신 말씀으로 총련일군 모두를 허물없는 단란한 분위기속에 따뜻이 품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는 원래 이런 행사에 참가하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이번에 총련에서 한덕수의장동지와 리진규제1부의장동지가 오셨기때문에 도리상으로 보아 내가 인사를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겸허하게 말씀하시였다.

한없이 인자하고 소탈한 말씀에 총련일군들은 어버이를 모신 한가정의 식솔들마냥 마음을 풀어놓고 스스럼없는 시간을 보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덕수의장에게 조국의 특색있는 료리도 손수 권하시며 오늘은 술도 좀 들면서 마음껏 유쾌한 시간을 보내라고 봄날의 훈향처럼 따뜻한 정을 쏟아주시였다.

관록있는 예술단이 연주하는 경음악의 랑만적이고 경쾌한 음향이 장내에 흥겨운 정을 담뿍 안겨주었고 관록있는 독창가수들의 특색있는 음조가 총련일군들의 가슴을 한없이 부풀게 하였다.

후날 한의장이 이때를 추억하면서 《나는 음악과 함께 화락한 분위기에 한껏 도취되였다. 만시름을 잊은듯싶었다.

그야말로 한생을 두고 차례지기 쉽지 않은 밝고 장엄하고 환희에 넘친 순간이였다.》고 쓸 정도로 희열이 물결치는 한가정의 즐거운 좌석이였다.

차츰 연회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할무렵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당과 국가간부들과 인민군장령들에게 오늘은 모두들 한의장동지에게 나와서 인사를 하고 술을 부어드리라고 이르시였다.

(장군님! 늙고 병든 내가 뭐길래…)

조국의 간부들과 장령들의 존경어린 인사와 진정넘친 술잔을 받는 한의장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고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는 그이의 하해같은 은덕이 가슴뜨겁게 어려왔다.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신 행복한 시간이 깊어질수록 그이의 위인상에 마음이 더욱더 끌려드는 한의장이였다. 삶과 투쟁의 귀중한 철리를 깨우쳐주실 때에는 매력적인 손짓으로 자신의 의사를 강조하시고 롱담조로 구수하고 흥미있게 정을 주실 때에는 호탕한 웃음으로 장내를 정다운 가정의 정서속에 잠기게 하시는 그이의 언변은 정말 놀랄만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에 마음이 끌릴수록 한의장의 가슴속에서는 그이를 처음으로 뵙던 그날의 격정이 새삼스럽게 되살아났다.

한의장이 위대한 장군님을 처음으로 뵈온것은 1980년 3월

31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산원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뵈오면서 그이의 열정넘친 음성, 활달하신 걸음새에서 젊으신 수령님을 뵈옵는것같아 한의장은 무한한 흥분과 격정에 휩싸였다. 하기에 그는 행사후 《과시 그분은 우리 조국에 대행운을 안아올 태양이십니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쳤던것이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평양산원행사를 보도한 기사와 사진들에 자기는 있었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과 영상은 찾아볼수 없는 사실이였다.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에 대한 보도를 엄금하도록 하시였기때문이라는 사실에 접하며 한의장은 모습도 음성도 수령님 그대로이시고 한없이 겸허하고 고매한 품성도 수령님 그대로이신 장군님의 위인상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었다.

흥겨운 노래소리가 멎고 장내가 조용해지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의장에게 이런 좌석에서 노래 한마디 불러보는것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것이라고 따뜻이 권유하시였다. 그러지 않아도 고령의 몸이지만 흥취에 젖은 뒤라 노래 한곡조 울려보고싶은 기분이였던 한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버이장군님께 이 자리에서 제가 노래를 불러도 되겠습니까라고 말씀을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환한 미소가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며 기쁨에 넘치시여 좋겠다고 하시며 남먼저 박수를 쳐주시는것이였다.

그이의 박수에 이어 장내에는 세찬 박수소리가 울렸다.

한의장은 이역의 하늘아래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각이면 두분의 천출위인들을 그리며 즐겨 부르던 노래 《고향하늘》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푸른 산 저 너머로 멀리 보이는
새파란 고향하늘 그리운 하늘
언제나 고향집이 그리울제면
저 산너머 하늘만 바라봅니다
…

머나먼 이역땅에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조국의 푸른 하늘을 우러르며 부르고부르던 노래는 연회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한의장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고여 흐르고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장군님께서는 한의장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제일먼저 박수를 크게 쳐주시였다.

뒤이어 울리는 만장의 박수소리는 오래도록 끊길줄 몰랐다.

재청을 요구하는 박수소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무척 기쁘신듯 두손을 높이 들어 박수를 보내시는것이였다.

한의장은 장내에 겸양을 표하고나서 자리에 앉을 심산

이였으나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그리도 기뻐하시는 장군님의 정깊은 존안을 접하는 순간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겨운 박수소리에 마음을 다잡은 한의장은 비록 늙었지만 목청을 가다듬고 음악의 천재이신 그이앞에서 노래 한곡을 또 불러드리였다.

두번째로 부른 노래는 그가 직접 가사를 쓴 《그리운 고향》이였다. 금호강 맑은 물에 헤염을 치고 백사장 강변에서 씨름을 하던 어깨동무 글동무 정다운 동무 지금은 어데 있나 보고싶어라 하는 내용의 추억과 소망이 담긴 노래였다.

고향을 떠나온지 수십년 지나
홍안은 어데 가고 머리만 백발
자나깨나 잊지 못할 그리운 고향
통일의 그날이면 돌아들 가리

이번에도 그는 이렇게 노래를 3절까지 불렀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는 전번보다 더 우렁찬 박수로 삼청을 요구하시는것이였다.

사실 90이 다 된 한의장이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기로서니 예술의 영재이신 그이앞에서 삼청을 받을 정도의 명가수일수는 없었다.

고난과 시련으로 얼룩진 재일조선인운동의 험로에 한생을 바쳐온 한의장이 조국에 와서 마음껏 흥겨운 한때를 보내며 수십년간 쌓이고 맺힌 로독을 조금이라도 풀기를 바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과 정이 80객의 노래 삼창이라는 력사에 남을 일화를 남기는 순간이였다.

노래로 시대를 이끄시고 노래로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여 가시는 음악예술의 천재이시고 음악정치의 대가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삼청을 받은 한의장의 마음은 뜨거웠다.

오늘의 이 즐거운 자리가 과연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총련일군들에게 이역에서 투쟁하는 귀중한 혁명가, 직업적 혁명가의 고귀한 칭호도 안겨주시고 총련일군들의 건강이 애국운동의 귀중한 밑천이라고 하시며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 아니신가.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으로 총련애국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빛나는 전성기를 마련해주시고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해외에서 애국사업을 하느라고 밤낮이 따로없이 고생한다고 하시며 따뜻이 안아주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은 이역살이설음을 한순간에 녹여주고 교목에도 꽃을 피워주는 세상에 다시없을 사랑의 품인것이다.

지나온 나날을 더듬어보고 걸어갈 앞날을 그려볼수록 조국의 인민들뿐이 아니라 일본에 사는 동포들도 태양의 빛

과 자양으로 품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길이 모시고 그 령도를 받드는 길에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려는 일편단심이 마음속에 뜨겁게, 뜨겁게 불타오르는 한의장이였다.

하기에 그는 끝없이 샘솟는 충성,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애창곡인 《오직 한마음》을 불렀다.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로동당이 주었네 수령님이 주셨네
김일성원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목숨도 바쳐가리 오직 한마음

래일의 우리 행복 그 누가 지키랴
로동당이 지키네 수령님이 살피시네
…

한의장이 고결한 진정을 담아 세번씩이나 3절까지 다 부르는 노래를 기쁘신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새겨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를 저렇게 3절까지 불러야 작가의 마음이 전달되는 법이라고, 나이는 드셨어도 저렇게 3절까지 절절하게 부르니 얼마나 감동을 주는가고 하시면서 못내 흡족해 하시는것이였다.

이윽고 이 영광의 좌석에 참가한 조국의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조국동무들도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 그이의 요청과 정에 끌리여 우렁찬 합창소리도 울리였고 특기있는 《가수》들도 독창의 가락을 멋들어지게 넘기였다.

그 노래들을 다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공연에서 한덕수의장동지가 지은 노래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오》가 왜 안나왔습니까, 그 노래가 유명한데 오늘 공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시며 관록있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장내에는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오》와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를 비롯한 총련의 노래들도 구성지게 울리였다.

마치 이날은 한의장을 위한 날인듯싶었다. 그는 한곡조의 노래로나마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려 했건만 도리여 장군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그에게 기쁨과 활력을 안겨주시는것이였다.

한의장으로 말하면 어지간한 문인들도 무색케 할 작가적기질과 창작경력을 가지고있는 창작가 아닌 창작가였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뜨거운 은정과 그 은정속에 꽃피는 동포들의 행복한 생활, 조국에 대한 애국충정을 담아 생전에 창작한 가사는 무려 80편에 달한다.

한의장이 창작한 한편한편의 가사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유명한 작곡가들이 거기에 훌륭한 선률을 붙이도록 하시여 그의 이름을 더욱 빛내여주시였다.

그리고 그가 쓴 시와 글들도 다 보아주시고 조국의 중요신문들에 게재하도록 하시였다.

한의장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뜨거운 사랑, 끝없이 베풀어지는 은정에 한몸바쳐 보답할 충성의 정이 모이고 합쳐 이날의 연회장을 이룬듯…

어버이장군님께서 한의장과 총련일군들에게 생의 희열을 주시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즐거운 추억을 안겨주신 4월의 이밤은 한의장이 언제나 젊어있고 장수하기를 바라시는 장군님의 다심한 은정을 싣고 끝없이 깊어갔다.

후날 한의장은 못잊을 이날의 삼창이야기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구순을 바라보는 제가 노래를 불렀으면 얼마나 잘 불렀겠습니까.

이 늙은 몸에 젊음을 안겨주고싶으신 그이의 웅심깊은 삼청이였지요. 나는 그날 한곡조의 노래로나마 그이께 기쁨을 드리려 했건만 도리여 장군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저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셨지요.

정말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인간중의 인간, 위인중의 위인이십니다.》

충성의 한생을 값높이 여기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총련의 로세대들을 남달리 귀히 여기시며 그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일 90돐을 맞는 한덕수의장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정은 눈물없이는 대할수 없는것이다.

한덕수의장의 생일은 1907년 2월 18일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뵈온 첫날부터 그이의 비범한 위인상에 매혹되여 한생을 충직하게 살리라 다짐한 한의장은 장군님의 탄생기념일을 성대히 경축하는 2월에 생일을 쇠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더우기 그의 생일 90돐이 되는 1997년으로 말하면 어버이수령님을 추모하는 국상중인데다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쉰다섯번째 탄생일을 맞으시는 해였다.

하여 한의장은 총련일군들이나 집식구들에게 자기의 생일이 다 뭔가고 하면서 90돐생일이란 말을 입밖에 꺼내지도 못하게 하였다.

결의 일군들이 한의장에게 그래도 90돐인데 그냥 지날수야 없지 않겠는가고 말을 붙이려들면 그는 늙은이들은 생일

을 미루면 미룰수록 오래 산다는 엉뚱한 리론까지 들고나오며 물러설념을 하지 않았다.

워낙 한번 마음을 먹으면 천둥벼락이 쳐도 꿈쩍할줄 모르는 바위같은 한의장인지라 총련의 일군들과 가족들은 90돐생일은 다 쇘다고 하며 손맥을 놓고있었다.

그러던 주체86(1997)년 1월 2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덕수의장의 생일 90돐을 앞두고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한덕수의장의 생일 90돐에 축전을 보내도록 하며 생일을 뜻깊게 쇠도록 할데 대한 가르치심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덕수의장의 생일 90돐에 보내시는 축전에 활달한 필치로 이렇게 쓰시였다.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생일 90돐을 맞이하는 의장동지에게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의장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구현하여 총련조직을 건설하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온 우리 당과 혁명의 귀중한 원로이며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 참다운 애국충신입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애국애족의 새 력사를 자랑스럽게 개척해온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빛나는 로정에는 자기 수령과 자기 조국, 자기 민족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헌신적복무로 일관된 의장동지의 커다란 공로와 업적이 깃들어있습니다.

나는 의장동지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로당익장하여 총련애국위업을 계속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기 바라면서 의장동지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우리 당과 혁명의 귀중한 원로,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 참다운 애국충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덕수의장에게 안겨주신 이 값높은 칭호에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주고싶으신 진정이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는것인가.

얼마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당 부문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여 한덕수의장의 생일 90돐을 크게 기념하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것은 한의장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어린 말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뜨거운 말씀을 접하며 일군은 한의장에게 베풀어진 장군님의 한없는 은정의 세계를 격정속에 되새겨보았다.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가 열린 1986년말이였다.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4명의 재일동포대의원들은 일본정부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일군들이 강력한 항의요청투쟁을 벌려 드디여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게 되였다는 소식을 들으

시고 회의참석에 지장이 있을세라 그들일행이 그날중으로 조국에 올수 있도록 특별비행기를 띄워주시였으며 평양비행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23시가 가까와오는 밤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책임일군들과 가족들이 대의원일행을 맞이하게 하여주시였다. 그리고 그들이 조국에 머무르는 동안 초대소에서 사소한 불편도 없이 생활하도록 보살펴주시고 의사와 간호원을 붙여 건강을 돌보게 하여주시였다.

12월 29일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

회의시작에 앞서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총련의 대의원일행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의장일행에게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한것은 큰 승리라고 하시면서 총련과 같은 해외교포조직은 세상에 없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으며 그들의 건강상태를 일일이 알아보시고 조국에 온김에 온천에 가서 쉬면서 피곤을 푼 다음에 가라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의에 앞서 한덕수의장을 주석단에, 재일동포대의원들을 맨 앞줄 가운데에 앉도록 좌석을 정하여주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는 온 나라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70여성상을 하루와 같이 조국의 자주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이 땅우에 일대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또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한의장은 격동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지난날 나라잃은 망국노가 되여 이역에서 멸시의 채찍아래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던 자기들이 주체조선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하는 영광을 지녔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평생에 이때처럼 공화국공민의 존엄과 긍지를 가슴뿌듯하게 느껴본적이 없는 한의장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 그치지 않고 생일 80돐을 맞는 한의장에게 높은 국가수훈도 안겨주도록 하시였다. 그 사랑속에 한덕수의장은 영예의 **김일성**훈장수훈자, 공화국의 교수, 박사의 영예를 지니게 된것이 아닌가.

그러시고도 한덕수의장의 생일 90돐을 계기로 고귀한 믿음이 담긴 축전과 함께 높은 국가수훈과 명예칭호 그리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도록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덕수의장에게 지금껏 안겨주신 은덕만도 대해같은데 무엇을 더해줄것이 없겠는가고 마음쓰시는 그이의 한량없는 사랑의 세계에 일군은 목이 메여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이윽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생일날에는 뭐니뭐니해도 친척들과 아이들이 많아야 본인도 좋아하고 분위기도 흥성거린다고 하시면서 조국에 귀국한 한덕수의장의 아들딸과 손자, 손녀들도 일본에 보내여 축하해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민이 드리는 축하의 인사를 받으시기도 전에 한의장에게 베풀어주신 각별한 믿음과 특혜는 전체 총련조직과 재일동포사회를 열화같은 격정의 도가니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을 담아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성대히 마련한 생일 90돐 축하연에서 한의장은 울음이 없는 사람이였지만 많이 울었다.

그리고 여느때없이 말도 많이 하였다.

이날 그는 식민지노예살이의 고통속에 흘러온 피눈물나는 지난날에 대하여, 두분의 탁월한 위인을 모시고 재일조선인운동에 몸담아온 행운에 대하여 그리고 90평생 기쁨과 슬픔의 언덕을 넘으며 체득한 인생의 진리에 대하여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하였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꼭 하고싶은 말은 설사 총련이 무너지는한이 있어도 우리 장군님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군님만 계시면 총련은 허물어졌다가도 열번, 백번 다시 일떠세울수 있지만 장군님은 한번 잘못 모시면 온 세상을 잃고마는 우리 운명의 전부와 같은분이십니다.

우리는 수령님을 잘 모시지 못하여 너무도 빨리 가시게 한 불충불효한 해외전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모두가 나이와 세대를 불문하고 **김정일**장군님의 직하부하가 되여 장군님 한분만을 세월의 끝까지 충성다해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 제가 90인생을 총화하면서 깨달은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최고가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높이와 애국헌신의 열도, 영웅적위훈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는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김정일**시대가 낳은 이 인생철학을 좌우명으로 삼고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장군님을 충효일심으로 받드는 길에 심혼과 여력을 다 바칠것입니다.》

그는 시들어가던 인생의 고목에도 밝은 빛을 비쳐주어 애국충정의 꽃을 계속 피우게 하여주시는 인덕의 해님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답례발언을 끝맺었다.

그의 답례발언은 그대로 운명의 태양, 위대한 어버이께 드리는 충성의 맹세였으며 일편단심 변함없이 간직하고 지켜온

생의 좌우명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하해같은 사랑과 은정을 투쟁의 활력소로 삼고 한덕수의장은 이역의 사나운 광풍을 맞받아 뚫고헤치며 애국의 한길, 충성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갔다.

《한의장동지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덕수의장은 총련의 원로로뿐 아니라 명망높은 해외활동가,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장으로 한생을 빛내이였다.

그가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답게 고령에도 지칠줄 모르는 활력을 가지고 총련사업을 이끌어나갈수 있은것은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사업하도록 늘 관심을 돌리시고 보살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사업을 령도하시는 전 기간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총련원로들의 건강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은정깊은 배려를 끊임없이 돌려주시였다.

1989년 여름 그가 평양에서 진행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참관하러 부인과 함께 조국에 온적이 있었다. 당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안팎의 크고작은 모든 일에 축전사업까지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총련의장이 평양에 도

착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한의장이 일본에서 언제 한번 가족과 함께 편히 쉬여보았겠는가고 하시며 축전이 끝난 다음 한달쯤 조국에서 부인과 함께 휴식하고 돌아가게 하라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는 일본에 있는 가족들도 이 기회에 다 조국에 와서 같이 휴식하도록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조국에 있는 아들딸네 식구들까지 합쳐 스무명도 넘는 가족들을 금강산, 묘향산에 가서 휴식하도록 하시고 희귀한 과일들을 선물로 보내주시며 참으로 각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주체79(1990)년 5월 그가 부인을 잃었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을 때에는 차마 믿어지지 않으시여 총련중앙에 전화로 알아보도록 하시였으며 부인의 유해를 조국에 안치하도록 하는 등 눈물겨운 은정도 베풀어주시고 한의장의 건강과 생활을 두고 마음을 못놓으시며 애틋한 정으로 극진히 위로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한의장이 1991년 봄 재일조선인축하단 단장으로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그의 신상에 각별히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며 어떻게 하나 더 즐겁고 흥겨운 마음으로 방문의 나날을 보내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을 맞는 날에는 축하단일행과 함께 풍치좋은 모란봉 부벽루기슭으로부터 유람선을 타고 푸른 물결 출렁이는 대동강을 돌아보며 흥겨운 한때를 보내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덕수의장의 건강상태

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총련합영제품전시회가 끝나면 그를 좀 휴식시켜야 하겠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온천을 좋아한다는데 신천온천이라든지 달천온천이라든지 한덕수의장이 요구하는 온천에 가서 휴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제의회동맹 제85차총회에는 온천에 가서 휴식하고 온 다음에 참가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6～7월이 제일 더운 계절이라는데 그때에 조국에 와서 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의장이 백두산지방에 가서 휴식하면 건강에 좋을것이라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한덕수의장에게 100살을 살수 있는 운동을 하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한덕수의장이 지금 84살이므로 잘하면 수령님의 교시대로 100살을 살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83살에 돌아갔는데 지금 한덕수의장은 모택동보다 나이가 한살우이지만 더 건강합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정녕 한의장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은 끝이 없었다.

언제인가는 총련의 책임일군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한덕수의장은 년세가 많은것만큼 총련사업을 큰 선에서 정책적으로 지도하면서 의장의 권위를 가지고 일본정계의 큰 인물들과의 사업을 많이 하며 시도 쓰고 노래도 지으며 건강관

리를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1992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인축하단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총련의 오랜 간부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건강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이날 장군님께서는 나이많은 일군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1년에 한달정도는 조국에 와서 휴식하여야 한다, 나이많은 일군들은 무리하게 일만 하려 하지 말고 건강관리를 잘하여 오래동안 혁명을 할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며 한덕수의장의 나이가 올해에 85살인데 그가 오래 앉아서 젊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밀어주도록 그의 건강을 젊은 사람들이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나이많은 일군들이 정상적으로 휴식하는 문제를 조직규률로 볼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엄한 조치》에 따라 한의장은 금강산을 비롯한 조국의 명산들에서 정상적으로 휴양을 하면서 건강을 돌볼수 있었다.

한의장이 부디 건강장수하기를 바라시며 주실수 있는 모든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고 뜨거운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그는 고래희라는 70은 물론 80고령에도 왕성한 정열을 안고 사업할수 있었다.

한덕수의장이 90고개를 앞두고 몸져눕게 되였을 때였다.

그는 일본병원에 입원하여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고 소문난 명의의 치료도 다 받아보았으나 효험이 없었다. 오래동안 침상에 누워있다나니 다리근육마저 강직되여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었다.

그가 이국땅에서 그대로 운명하고마는가 하는 절망에 빠질 정도로 병세는 위독하였다.

한덕수의장이 중태에 빠져 입원하였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에게 한의장 같은 혁명가가 또 어데 있는가, 의장동지는 그저 앉아있기만 해도 좋겠다고, 이따금 총련중앙에 나가 얼굴만 보여도 마음을 놓겠다고 하시며 병치료를 잘하도록 하라고 거듭 절절히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한의장의 병치료를 위해 조국의 유능한 의사를 도꾜에 파견하기도 하시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조국에 있는 아들딸들을 병문안차로 아버지곁에 보내주기도 하시였다.

실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의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시였다.

1994년 2월 21일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2월명절에 즈음하여 조국을 방문한 총련의 책임일군과 우리 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총련의 책임일군이 드리는 인사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덕수의장의 건강과 안부부터 물으시였다.

좀 차도가 있다는 총련책임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덕수의장은 지난해 2월부터 폐염으로 한 1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좀 차도가 있다니 기쁘다고 하시며 총련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덕수의장의 건강을 회복시켜야 하겠다고, 한덕수의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총련결성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을 하였다고 결연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후 한의장의 회복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이 기울여졌지만 워낙 나이가 나이인지라 병세는 호전되였다가 다시 악화되면서 좀처럼 숙어들지 않았다. 지어 자주 정신을 잃기까지 하였다.

한덕수의장의 위급한 병상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즉시 그를 조국에 데려다 치료하도록 긴급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앞에서도 이야기된바이지만 조국의 품에 안길 때까지만 해도 병이 몹시 위중하여 혼수상태에서 깨여나지도 못했던 한덕수의장에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기적을 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일본의 병상에서 생사의 지경을 들락날락할 때에도 다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뵙지 못하고 이국땅에서 속절없이 생을 마치겠구나 하는 안타까움에 모대기던 그였다. 오매에도 그리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숙소에 들어서시는 순간 한의장은 갑자기 펄쩍 정신을 차리고 감격의 눈물을 쏟으며 간호자들의 부축으로 밀차에서 일어나

수령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였다. 휴계실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고 우리 혁명을 위해 100살까지 살자고, 한의장이 치료를 잘 받아 건강을 회복하면 얼마든지 1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따뜻한 고무의 말씀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여러 해째나 지끚게 숙어들줄 모르던 그의 병세는 대번에 호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후 놀랍게도 한의장의 건강은 하루가 몰라보게 추서기 시작하여 얼마후에는 지팽이를 짚고 걸음을 옮겨디딜수 있게까지 되였다.

얼마전만 해도 정신조차 들지 못했던 그는 자기의 상태가 하도 신기스럽기도 하고 못미덥기도 하여 조국일군과 담소하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것이 정말 천명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의장동지, 이것을 천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두분께서 함께 가져다주신것입니다. 의장동지가 도착하신 때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의장동지의 건강검진으로부터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 보살펴주시며 병상태를 매일 보고받으시고 그 내용을 위대한 수령님께 그대로 보고드리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의장동지가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기만 하면 곧 혼수상태에서 깨여나리라고 생각하셨던것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순간 한의장은 가슴치는 격정에 못박힌듯 굳어졌다. 평소

에 그의 건강에 변고가 생길세라 그리도 각근히 위해주고 보살펴주시더니 오늘은 또 자신의 병구완을 위해 더없이 마음쓰고계실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떠올라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옮기시는 매 걸음걸음에 위대한 장군님의 보이지 않는 걸음이 한데 어울려있고 자애로운 그이께서 말씀하시는 매 마디마디에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이 맥맥히 흐르고있음을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수령님의 위문방문에 장군님의 고귀한 은정도 함께 깃들어있었다고 생각하니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가슴이 쩌릿해졌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세상의 그 어떤 불사약도 당하지 못할 신비의 힘으로 그를 소생시켜주신 사랑도 뜨거웠지만 한덕수의장의 조속한 건강회복을 위해 기울이신 로고와 정력 또한 비길데 없이 크나큰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재생의 활력소가 되여 죽음의 갈림길에서 헤매이던 한의장은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에 참석하여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닐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정녕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힘은 로화와 중병으로 쓰러졌던 한의장에게 소생의 활력을 안겨준 신비로운 불사약이였다.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대국상을 당하고 우리 인민과 온 민족 그리고 전 세계가 크나큰 비애에 잠기였

던 1994년 7월이였다. 온 나라 인민들이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상실의 아픔에 못이겨 비젖은 땅을 두드리며 피눈물의 곡성을 터뜨렸고 지구의 방방곡곡에서 추모와 애도의 뜻을 표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배려로 조국에서 병치료를 받던중 청천벽력같은 대국상에 접한 한의장은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비보에 가슴을 치며 하늘땅이 꺼지도록 처량한 곡성을 터뜨렸다.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것이 불과 한달전의 일인데 그날 자기가 걷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던 수령님의 모습이 마지막모습일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아, 수령님! 절더러 백살까지 살아야 한다고 하시며 다 죽었던 이 몸은 살려주시고 수령님께서 먼저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저도… 가겠습니다… 수령님!…》

한의장이 터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금수산의사당(당시)의 조의식장에 들어섰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령구를 눈물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정중히 호상을 서고계시였다.

한의장이 위대한 장군님께로 다가가자 그이께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고 나직한 음성으로 나와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며 한의장의 손을 잡아주시였다.

그처럼 위대한분도 가십니까,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오열을 터치는 한의장을 묵묵히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눈가에는 또다시 뜨거운것이 맺히였다.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자신의 위중한 병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한의장의 건강을 더 걱정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을 생각하시는 듯하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한의장을 달래시며 그의 귀전에 대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한의장동지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의장동지에게 혁명을 위하여 오래오래 사셔야 한다고 하시였는데 그 유훈대로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이 세상 가장 커다란 아픔과 비애를 마음속에 안고계시면서도 오히려 자기의 건강을 념려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인간사랑, 한없이 뜨거운 동지적믿음의 세계에 한의장은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아끼고 사랑해주신 한의장,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까지 합쳐 그를 더욱 따뜻이 돌봐주시였다.

사실 날로 건강이 회복되여가던 한의장은 뜻밖의 대국상을 당한 후 생의 의욕을 잃고 몸져눕고말았다. 병은 더 악화되여 자리에 누운채 일체 식사를 전폐하고 치료마저 거절하였

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자기의 건강이 수령님의 유훈이라는 그 말씀, 수령님의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고마우신 그 은정은 한의장에게서 사그라져가던 생의 불꽃을 되살려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의장의 병치료를 위해 일본에 있는 그의 자식들, 손자, 손녀들까지 조국에 불러주시였으며 그의 입맛까지 헤아리시며 다심하고 사려깊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 어떤 불사약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사랑의 명약이 있어 한의장은 드디여 한걸음한걸음 대지를 밟을수 있게 되였다. 그무렵 한의장이 자주 걷던 곳은 다름아닌 대동강유보도였다. 대동강유보도로 말하면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던 날 평양시내를 부감해보라고 하신 사랑의 교시에 따라 걷고 또 걷던 뜻깊은 곳이였다. 그때의 그 걸음이 주체의 찬란한 태양의 품안에 안긴 새삶의 첫걸음이였다면 수십년이 지난 그날의 걸음은 향도의 은혜로운 태양의 품에 안기여 또다시 대지를 힘껏 내디디게 된 소생의 걸음이였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은 한의장에게 두번다시 생을 주신 은인이시였다.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은정이 있어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살아도 늙음을 모르고 예나 다름없이 애국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갈수 있게 되였다.

하기에 마지막하직인사를 올리려고 침대차에 실려 조국으

로 왔던 한의장은 건강을 되찾고 일본땅으로 돌아갈수 있게 되였다.

조국을 떠나기 전 그는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어버이수령님!

죽음의 갈림길에서 헤매던 이 한덕수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혜를 입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 목숨이 진하는 마지막순간까지 장군님을 한몸바쳐 받들겠다는것을 수령님앞에 맹세드립니다.》

한의장은 심장속에 굳은 맹세를 다지고 그길로 일본땅으로 되돌아갔다. 그 길은 수령이 안겨준 투지와 활력을 안고 떠나는 길, 애국투쟁의 길이였다.

1995년은 우리 조국과 총련에 있어서 준엄한 시기였다.

민족의 대국상이후 일본반동들과 남조선통치배들은 총련의 《붕괴》를 떠들며 일대 반동공세에 나섰다. 일본반동들은 백주에 총련본부를 습격하고 일군들을 살해하는가 하면 나어린 학생들에 대한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사태가 험악해지자 일부 동포들속에서는 동요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있었다.

여기에 자연의 횡포까지 합세하여 동포들의 운명을 위협해 나섰다.

1995년 1월 17일 리히터척도로 7.5의 강한 지진이 일본 효고현의 해안지대에 들이닥쳐 불과 10s사이에 고베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었다. 우리 동포들의 피해도 막

심하였다. 자연의 재난도 엄청난것이였지만 총련말살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일본반동들이 간또대지진때와 같은 참극을 빚어내지 않을가 하는 우려가 한의장의 마음을 더욱 조이게 하였다.

하지만 한의장은 수령앞에 다진 맹세를 억척의 의지로 가다듬으며 고령의 몸에도 피해동포구조작업에 분투하였다.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한덕수의장앞으로 위문전문을 보내주시고 많은 위문금까지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동포애와 숭고한 인덕을 가슴에 안고 한의장은 용기백배하여 동포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총련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더욱 매진하였다.

그럴수록 한의장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걱정과 관심은 더욱 깊어졌다.

1995년 2월 17일 조국을 방문한 총련의 책임일군을 만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첫 물으심으로 한덕수의장의 건강상태부터 알아보시였다.

요즘 감기기운이 있어 치료를 받고있다는 그의 보고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기를 잘 치료하여야 한다, 감기를 제때에 잘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병이 겹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미없다, 한덕수의장이 이제는 나이도 많기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이처럼 지나가는 감기기운도 크게 보시며 심려를 금치 못해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2000년 3월 1일 총련의 책임일군들을 접견하신 석상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의장의 건강과 관련한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총련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하나 의장동지가 병을 고치고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장동지에게 나의 위문의 인사와 신심을 가지고 병치료를 잘하여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로환의 몸에 소생의 자양을 부어주는 생명수, 죽음을 삶으로 바꾸어주는 기적의 활력소였다.

민족최대의 추모식장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한덕수의장을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혁명을 개척해온 로혁명가로, 선배로 여기시며 각근히 돌봐주시였다.

웃어른들의 장의때에는 돌아간분과 오랜 친분관계를 맺어온 친지들을 초대하여 정을 나누도록 하는것이 조상전래로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고상한 풍습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3돐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과 한의장과의 마지막상봉을 마련해드리고싶으시였다. 1997년 4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총련의 책임일군에게 한덕수의장이 건강이 허락되면 수령님서거 3돐때 와서 인사를 드리는것이 좋겠는데 본인의 의향은 어떠한지 가서 잘 토론해보라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한의장은 흥분을 금치 못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앉으나서나 수령님 생각뿐인데 나라의 상주께서 몸소 초청까지 하여주시니 건강은 둘째치고 수령님의 3년상에 무조건 가겠다고 하였다.

그의 결곡한 마음을 전해들으신 장군님께서는 역시 수령님을 모시는 한의장의 충정과 의리는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다

고, 그래서 내가 한의장을 혁명선배로 깍듯이 존경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병약한 로인이 허위단심 오시겠다는데 전세비행기를 보내여 정히 모셔오도록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에 떠받들려 한의장은 위대한 수령님 서거 3돐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게 되였다.

주체86(1997)년 7월 8일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3돐 중앙추모대회가 열리는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조국에 온 한덕수의장의 건강상태부터 알아보시였다.

그가 체력은 많이 떨어졌지만 정신상태와 기억력은 괜찮으며 다만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하고 오래 서있기 힘들어한다는것을 료해하신 장군님께서는 이윽토록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한의장이 밀차에 앉아 행사에 참가하면 나도 마음이 놓일것같다고, 전 과정에 그가 불편을 느끼지 않게 여러모로 신경을 써야 할것이라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오전 8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서거 3돐 중앙추모대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금수산기념궁전휴계실에서 한덕수의장을 만나주시였다.

《장군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문안인사를 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팽이를 짚고 서있는 그에게로 다가가시여 두손으로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먼길을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건강이 어떻습니까라고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인정미가 뜨겁게 흘러넘치는 어버이장군님의 물으심에 한의장은 자기같이 다 늙은 사람을 추모행사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하다고 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가냘픈 몸을 따뜻이 쓰다듬으시는 장군님의 음성도 축축히 젖어있었다.

자애로운 어버이와 해외의 로전사와의 뜨거운 포옹은 깊은 의미를 띠고 오래 계속되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의장을 부축하여 자리에 앉히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의장동지가 이렇게 오신것을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라고 뜨거움에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한의장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올라 눈시울을 적시였다.

《수령님이 자주 꿈에 나오시군 하여 기력이 있을 때 한번이라도 더 뵙자고 이렇게 왔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말을 받으시며 의장동지가 건강하여 오래 앉아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든든하여 신심을 가지고 총련사업을 잘할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 가슴아픈 날에 왜 저에 대한 말씀만 하십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의장동지를 보니 수령님이 더욱 그리워지고 수령님의 애국애민의 한평생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눈앞에 떠오른다고, 우리가 이렇게 수령님을 못잊어 길이 추억하면 수령님의 생애와 력사는 계속 흐르게 될것이며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3년상을 마감하는 날이여서인지 다감한 심경에 잠기시여 추억의 세계를 끝없이 이어가고싶어하시는 장군님이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대회주석단에 나가실 시각이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쉬우신 표정으로 의자에서 일어나시더니 한의장에게 대회시간이 되였다고 정답게 말씀하시였다.

외람되게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시간을 퍼그나 빼앗았다는 자책감을 안고 한덕수의장이 지팽이에 의지하여 일어서자 그이께서는 그가 밀차를 타고 주석단으로 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접한 한의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아무리 몸이 불편하다한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3돐행사에 지팽이를 짚고 능히 걸어나갈수 있는데도 자기를 걱정하시여 밀차를 타고 나가라고 하시니 그로서는 참으로 어쨌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주석단입구가까이에는 위대한 장군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이 대기하고있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의장에게 먼저 앞서나가면서 조국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십시오라고 하시고는 밀차를 앞세우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주석단으로 나가기 위해 복도에 줄지어 서있던 조국의 지도간부들은 뜻밖에도 밀차에 앉은 한의장뒤에서 걸어나오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였다.

그 광경을 TV화면으로 접한 온 세계가 로혁명전사를 그처럼 아끼고 떠받들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의리앞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한의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3돐 추모행사에 참가하고 돌아가서 쓴 글 《나는 영생하시는 수령님을 보았습니다》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선대수령이 위대하고 수령의 위업을 충효와 도덕의리로 받들어나가는 후계수령이 탁월하여 인민이 그처럼 바라던 수령영생의 꿈이 실현될수 있었다.

나는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에게 영생을 드리신 **김정일**장군님께 끝없이 매혹되였다.》

고귀한 인생총화

2001년 한덕수의장의 침상곁으로 그의 자식들이 달려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의장의 병세가 대단히 위급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자식들을 급히 그의 곁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한주일째 의식도 없이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아버지를 본 순간 자식들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그들은 이미 한해전인 주체89(2000)년 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앓고있는 아버지에게 병문안 온적이 있었지만 그때보다 병세는 더 기울어진 상태였다.

당시도 한의장의 병은 위급하였다.

하지만 그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는 깨여나고 깨여났다가는 다시 혼수상태에 빠지고 하면서도 초인간적인 의지로 사업을 놓지 않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치른 일본땅에서 마지막힘까지 다 바쳐 애국사업에 헌신하는 한의장에 대하여 마음쓰시며 또다시 자식들을 그의 곁으로 보내주시였다.

의사들은 며칠째 정신을 못차리는 한의장의 상태를 보고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머리를 저었다. 자기들이 할수 있는 의학

적조치는 다 취했으니 이제 바랄것은 정신력밖에 없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가 생의 의욕을 더 굳게 가지도록 힘을 주었으면 좋겠다는것이 의사들의 마지막《처방》이였다. 가족들이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고 불렀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그의 자식들이 한의장의 귀에 대고 장군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왔다고, 장군님께서는 아버지가 앉아만 있어도 좋으니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병을 꼭 이겨내야 한다고 하시며 조국의 유능한 의사들과 귀한 약들을 보내주시였다고 안타까이 뇌였다.

장군님의 사랑은 또다시 기적을 낳았다. 의식을 잃었던 그의 두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던것이다.

혼수상태에서 다른 말은 다 알아듣지 못하던 환자가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듣고 의식을 깬 사실앞에서 사람들은 오로지 장군님께 생명줄을 잇고 사는 한의장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것인가를 똑똑히 깨달았다.

과연 한의장은 얼마후 기적적으로 소생하였다.

힘들게 눈을 뜬 한의장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낮으나 엄한 어조로 말하였다.

《여긴 왜 왔느냐. 빨리 조국에 가서 장군님을 받들어 일을 해야지.》

그리고는 총련일군들과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대로 총련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였고 누구에게라 없이 《**김정일**장군님은 오늘의 **김일성**대원수님이시다. 우리모두가 장군님두리에 굳게 뭉쳐나가야 한다.》라고 곱씹어 당부하였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받드는 철석의 자세를 추호도 흐트리지 않은 한의장, 그는 정녕 투쟁의 시작도 끝도 한모습으로 빛내인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참된 혁명전사였다.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그이의 뜻으로 숨쉬고 투쟁해온 한의장이였기에 그는 90고령에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조국과 총련의 새세대들에게 한생을 통하여 체득한 진리를 새겨주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문필활동도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그는 1994년 9월 8일 《조선신보》에 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주체조국을 온 세상에 빛내여나가자》를, 1996년 2월 15일에는 《로동신문》에 《우리 조국은 천하제일의 위인국입니다》를, 1999년 12월 31일에 《로동신문》에 《1900년대의 령마루에서》를 발표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건의 글들을 집필발표하였다.

총련의 새세대 일군들은 한의장의 불굴의 의지앞에서 참다운 애국자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민족앞에 어떻게 충실하여야 하는가를 산모범으로 보았다고 오늘도 잊지 못해하고있다.

어느날엔가 한의장이 의식을 차리자 일본인간호원이 그에게 어디가 아픈가고 물었다. 그런데 일본말로 아프다(이따이)와 가고싶다(이끼따이)라는 단어가 비슷한데로부터 의식이 몽롱한 한의장은 어디에 가고싶은가라는 물음으로 듣고는 《평양으로… 가고싶다.》는 말을 하였다. 잇달아 곁에 있던 자식들이 《평양 어디로 가고싶어요? 아버지.》 하고 묻자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라고 대답하였다.

《그다음엔?》

《그다음엔… 수령님 고향집에…》

《그리고?》

《그리고… 장군님 고향에…》

이렇게 뜨직뜨직 대답하였다.

그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한의장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한덕수는 벌써 오래전에 저세상으로 갔을 몸인데 장군님께서 내 손목을 꼭 잡고 놔주시질 않는구나. 이젠 그만하면 됐다는 생각도 종종 든다만 이대로 간다면 장군님께서 몹시 상심하시겠지…

정말 이제 다시 그분께 기쁨은 못드린다 해도 걱정은 끼쳐드리지 말아야겠는데…》

한의장은 이런 마음으로 생을 이어가고있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불사약이 되여 죽음의 문어

구를 드나들던 한의장의 생명은 다시 소생의 궤도에 올라섰던것이다.

그때가 2000년 봄이였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불과 한해도 못되여 또다시 의식을 잃고 인사불성이 된 한의장의 모습을 마주하자니 자식들로서는 아버지의 육신을 사정없이 파먹는 병마가 야속하기만 하였다.

그들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념도 못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였다.

그들에게로 지금껏 한의장의 병간호를 맡아해온 총련일군이 다가와 며칠전에 있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며칠전 어느날 잠든듯이 누워있던 그가 별안간 눈을 가늘게 뜨고 무슨 말인가 하려 하였다. 일군은 온 신경을 귀에 모았다.

마음속에 고이 간직된 마지막말을 하려는듯 눈빛은 절절하였지만 목소리는 무척 약하고 떠듬떠듬 이어졌다.

한의장의 두터운 입술이 움직이더니 이런 목소리가 떠듬떠듬 울려나오는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존경합니다.

하늘보다… 더… 존경… 합… 니… 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일군은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말이였다.

사람은 누구나 생의 한계점을 의식한 순간 한생의 총화로 되는 유언을 남긴다.

한의장이 마지막의식을 모아 남긴 유언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매혹과 흠모심의 고백이였으니 혁명가, 애국자로서 그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숭고한것인가.

수난의 세월 망국의 불우한 처지에서 생을 시작한 그였지만 절세위인들께서 그를 지켜주고 이끌어주시였기에 험로역경을 헤쳐온 그 한생은 보람찼고 긍지스러웠으며 어머니 조국은 이 훌륭한 아들을 자기의 값높은 력사속에 품어안았다.

2001년 2월 21일, 운명의 하늘이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세기를 이어 줄기차게 높뛰던 한덕수의장의 심장이 고동을 멈추었다.

광휘로운 태양의 빛발속에 재일조선인운동의 거목으로, 살아있는 력사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대표자로 은은한 채광을 뿌리던 한덕수의장이 우리곁을 떠나간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덕수의장이 서거하였다는 비보에 접하시고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퍼그나 가라앉은 어조로 우선은 한덕수의장의 장의를 잘 치르고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련과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최고인민회의와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조전을 보내주며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보내온 부고를 그대로 당보에 싣고 TV와 소리방송으로 보도

할데 대한 문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의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며 조국과 총련에서 동시에 추도회를 진행하는 문제로부터 한의장의 유해를 조국의 애국렬사릉에 안치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한덕수의장의 장의와 관련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그이께서는 천천히 창가로 걸음을 옮기시며 무한한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한덕수의장은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총련을 결성하고 재일동포들을 묶어세워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생을 바친 혁명의 원로, 로혁명가, 참된 애국충신이였습니다. 한덕수의장을 잃은것은 조국과 총련의 커다란 손실로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깊은 상념에 잠기시였다가 나는 한덕수의장이 남긴 유언을 전해듣고 그가 90돐생일날에 하였다는 말을 생각하였다고, 한의장은 총련일군들과 가족들에게 모두가 나이와 세대에 관계없이 령도자의 직하부하가 되여 자기 령도자를 잘 모셔야 한다는것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며 크나큰 영웅적위훈을 세우는데 인생의 최고가치가 있다는 뜻깊은 말을 하였다고 한다고, 이 말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46년간 총련의장으로 사업해온 한덕수의장의 인생총화인 동시에 그의 삶의 전 과정을

관통해온 좌우명이기도 하였다고, 한덕수의장의 생애야말로 당과 수령의 전사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 하는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준 빛나는 삶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한덕수동지는 나를 하늘보다 더 존경한다고 하였는데 나는 그를 귀중한 혁명선배로 영원히 기억하며 존경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음성은 뜨거운 사랑에 젖어있었고 크나큰 믿음에 넘쳐있었다.

살아있을 때에는 죽어도 한이 없을 과분한 은정을 안겨주시고 곁을 떠났을 때에는 생존시보다 더 큰 영광과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리도 애석해하시는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총련의 도쿄조선회관에서 고별식이, 조국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추도회가 한날 한시에 엄숙히 거행되였으며 유해는 우리 나라의 건국과 강화발전에 고귀한 생을 바친 애국렬사들이 영생의 모습으로 빛을 뿌리는 애국렬사릉에 안치되게 되였다.

인민문화궁전에서 추도회가 진행되고 이어 한덕수의장의 유해가 생전에 애용하던 승용차에 실려 애국렬사릉에 오를 때 그리고 릉의 제일 좋은 자리에 고이 안장될 때 그것을 보면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월 16일 한덕수의장의 장의행사와 관련하여 조국을 방문한 총련의 책임일군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한덕수의장의 서거와 관련하여 총련동무들이 수고가 많았다고 따뜻이 격려해주시였다.

총련의 책임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례를 잘 치르도록 친어버이정으로 보살펴주시여서 정말 고맙다고 격정에 넘쳐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리고 한덕수의장의 장의행사가 상상과 관례를 초월하여 최대규모에서 진행된것을 두고 모두 놀라와하고있는데 대하여 특히 일본의 조객들이 한덕수의장은 **김정일**총비서의 은총속에 인생의 마감도 장엄하고 화려하게 장식했다며 저마다 부러워한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에서 한덕수의장의 장례와 추도행사를 잘하였습니다, 한덕수의장의 서거에 즈음하여 일본 모리총리, 노나까 전 관방장관, 각 정당 당수들을 비롯하여 저명한 인사들이 많은 화환을 보내고 조의를 표시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한덕수의장은 그만한 권위를 지닌 정치활동가였습니다라고 나직이 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창가에 시선을 주신채 오래도록 침묵에 잠기시였다.

그토록 사랑하시던 한의장을 잃은 크나큰 비애를 애써 누르시는 장군님의 모습은 더없이 숭엄하였다.

이윽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한덕수의장은 조국광복후 50여년간 일본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고 재일조선인운동을 개척하고 총련조직을 결성한

재일조선인운동의 원로이며 명망높은 해외혁명활동가였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덕수의장을 잃은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며 우리 혁명과 총련위업수행에서 돌이킬수 없는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또다시 비통한 심정을 터치시였다.

그로부터 한해가 지난 2002년 2월 28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의 새세대 지도핵심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주체적 해외교포운동사에 아로새겨질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무리 세대와 세기가 교체되여도 결코 교체되지 말아야 할것이 애국의 전통, 애국의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총련은 어버이수령님의 유산이고 한덕수의장의 유산입니다. 총련의 새세대들은 애국1세들이 이룩해놓은 귀중한 전통과 유산을 대를 이어 지키고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금같은 말씀을 받아안으며 총련의 새세대 일군들은 절세위인의 추억속에, 조국의 인민들과 동포들의 마음속에 영생하는 한의장의 고귀한 삶에 대하여 뜨거운 격정속에 돌이켜보았다.

자본주의이역땅에서 오로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재일조선인들의 운명과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도록 이끈 애국충신인 한덕수의장의 한생과 그가 이룩한 업적은 영광찬란한 우리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종 강

영 생 의 진 리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생을 아낌없이 바쳐온 한덕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은 94살을 일기로 우리곁을 떠나갔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속에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로,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원로로, 재일동포들의 대표자로 생을 빛내인 한덕수의장.

그의 한생을 두고 사람들은 많은것을 생각하게 된다.

빛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육체적생명의 존재에 달린것인가.

돌이켜보면 자본주의일본땅에서 장장 수십년세월 갖은 세파를 헤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온 한덕수의장의 생의 자욱은 우리 공화국보다 그곳에 더 많이 찍혀있다.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이역에서 생을 마쳤지만 애국충정으로 빛나는 그의 삶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라는 값높은 칭호와 함께 깊이 새겨져있고 그가 이룩한 공적은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부강번영과 더불어 찬란히 빛나고있으며 조선민족의 현대사에 뚜렷한 한페지를 값있게 장식하고있다.

자랑찬 승리의 로정을 걸어온 총련과 더불어 오늘도 영생의 언덕에 세월의 흐름에도 지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서있는 한덕수의장의 한생이야말로 만사람의 존경을 받는 고귀한 한

생으로서 재일동포들과 온 나라 인민들, 온 민족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다.

나라잃은 그 세월 수난의 비바람에 휘말려 이역땅에 뿌려진채 그대로 시들번했던 망국민이 값높은 영생의 언덕에서 빛나고있으니 한덕수의장의 남다른 한생이 동포들과 후대들에게 웅변하는 운명의 진리가 있다.

민족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이 있다!

평범한 민족의 일원이고 해외교포의 한사람이면서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생을 살아온 한덕수의장.

그도 남들처럼 자기 일신을 위한 삶의 길을 걸을수도 있었고 그 길을 택했더라면 부귀영달을 손에 거머쥐고 향락의 세계에서 제노라 하며 살수도 있는 사람이였다.

하지만 그는 빈궁과 고역에 시달리면서도, 고행길을 걸으면서도 민족을 부여잡고 몸부림쳤으며 한생 헛눈을 팔지 않고 조국과 재일동포들을 위한 복무의 길을 이어왔다.

해방후 귀국마저 미루고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나날에 어버이수령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심장에 간직한 그는 수령님을 따라 총련을 건설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떠밀어옴으로써 조국과 민족앞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기였다.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다.

자기를 바쳐 겨레를 위하는 애국자들을 조국은 영광의 단상에 올려세우며 영원히 기억한다.

나라의 해방과 독립,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인 위훈을 세운 애국자들이 영생하는 애국렬사릉에 생전의 모습으로 빛나는 한덕수의장.

그가 남들처럼 영달의 꿈을 쫓았다면 민족앞에 덕을 쌓지 못하였을것이며 력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였을것이다.

나라와 겨레를 위한 길, 이것이 민족의 성원들이 택할 참다운 삶의 길, 자기 생의 모체인 조국과, 민족과 더불어 사는 인생의 정로이다.

그렇다.

민족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이 있다는것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진리이다. 그것은 민족말살의 칼바람속에서도 꺾이지 말아야 할 신념이고 민족동화의 풍랑속에서도 퇴색될 수 없는 참된 넋이다.

새세기의 흐름과 더불어 해외교포운동의 환경과 조건, 그 면모도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해외교포들의 생활환경이 변천된다고 하여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고 세대가 열백번 교체되여도 그 생명력은 영원히 변할수 없다.

한덕수의장의 영생의 모습앞에서 옷깃을 삼가 여미고 다시금 되새겨보자.

해외교포, 그 부름은 결코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영영 떠났다는 의미, 남의 나라, 다른 민족의 성원으로 변색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옷은 열백번 바꾸어입을수 있어도 피줄은 단 한시도 버릴수도 달리할수도 없는것이 인간이다.

비록 거주국은 다르고 생활환경은 이색적이라 할지라도 몸에는 결코 흐려질수 없는 조선민족의 혈맥이 높뛰는 해외교포들이다.

그래서 이역의 찬바람이 몸을 적셔도 자기 조국이 강하고 자기 민족이 부흥하면 마음속에 비길데 없는 긍지와 불같은 열정이 차넘치고 조국이 시련을 겪고 민족이 불행을 당하면 비록 뜨스한 이부자리를 깔고 기름진 음식을 마주했다 하여도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맺히는것이 감출수 없는 인간의 본심이다.

정녕 민족의 운명과 한시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 개인의 운명이고 해외교포들의 삶인것이다.

설사 혈육들과 수십년을 헤여져 지내고 자기 조국과 수천리를 떨어져 살아도 가슴속에 간직된 민족의 얼은 부식되지 않으며 어디에 가도 조선민족의 본색은 달라질수 없다.

해외교포, 되새겨볼수록 그 부름은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그대는 절대로 달리 살수 없는 조선사람이라는 지울수 없는 명명이며 영원히 조국과 민족의 보호속에 운명을 같이

하는 혈연공동체이라는 웅변의 확증이다.

그것은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지구의 각이한 대륙과 대주에서 살고있는 수십수백만의 해외교포들 누구나가 항상 명심하고 자각하여야 할 좌우명이다.

언제나 조국을 잊지 말고 민족과 운명을 같이하여야 하며 자기 조국의 강성과 자기 민족의 번영을 위해 마음을 고이는것이 바로 해외교포들이 스스로 간직해야 할 의무이고 생의 본령이다.

해외교포들이여! 언제나 조국을 잊지 말고 언제나 가슴속에 민족을 안고 살라.

해외동포들의 진정한 어머니조국ㅡ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늘 세계에서 가장 자주적이고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복을 누려온 조선인민은 오늘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력사의 모진 풍파를 뚫고헤치며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는 오늘의 험난한 세계에서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우리 공화국은 세계정치의 방향타를 틀어쥐고 자주적발전의 궤도를 보무당당히 열어나가는 강력한 실체로 날로 장성강화되고 있다.

자주와 사회주의기치밑에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겨온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강위력한 령도의 손길따라 젊음으로 비약하며 앞으로도 눈부신 기적과 변혁을 인류사에 큼직하게 아로새길것이며 세계정치사에 자주적 발전의 빛나는 시대를 장엄하게 펼쳐나갈것이다.

어머니조국의 무진막강한 위용은 그대로 해외교포들의 긍지이고 자랑이며 생의 열정이고 삶의 진함없는 동력이다.

조국을 받들고 태양을 따르는 길에서 생을 빛내이라!

이것이 애국애족의 고결한 삶의 자욱을 남기고 영생의 언덕에서 오늘도 빛나는 한덕수의장의 한생이 재일동포들과 해외의 수백만 교포들에게 새겨주는 당부이다.

한덕수의장의 영생의 모습, 그것은 조국을 받들고 민족을 따르는 길에 해외교포운동과 동포개개인의 창창한 래일이 있음을 실증해주는 력사의 지울수 없는 화폭이다.

세상이 어지럽고 풍파가 사나와도 애국충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떨쳐나서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장한 모습도, 수백만 해외교포들의 삶도 조국과 후대들은 영원히 기억하고 세세년년 자랑할것이다.

애국애족의 한길에서

필 자	리 진, 은 정 철
장 정	김 영 일
교 정	안 순 광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1(2022)년 4월 8일
발 행	주체111(2022)년 4월 12일

ㄱ－1532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60－9

ISBN 978-9946-31-160-9